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II

- 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협력과 친일한시 -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II

초판 1쇄 발행 2009년 10월 30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http://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mailto: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II

- 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협력과 친일한시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발간사

이제 마침내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4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제1기는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 제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 제3기는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후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3기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위원회 전체 활동을 수록할 종합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재작년에 제1기와 제2기 조사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모두 일곱 권의 사료집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3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들을 선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제8권에서 제16권까지 총 9권이며, 제8권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총동원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총독의 훈시와 법령을 비롯하여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병력동원 관계 자료와 친일언론의 전쟁지원 논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9권에는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등 친일단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10권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의 글을, 제11권에는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해외에서의 친일협력 자료를, 제12권에는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조선인)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제13권에는 유교계의 친일협력 글과

친일 한시를 모으고, 지금껏 번역되지 못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학원, 조선유도연합회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4권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의 주제로 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의 친일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15권에는 문화예술계의 식민화 정책과 관련 조직들의 자료를 묶었습니다. 끝으로 제16권에는 조선인이 친일협력을 목적으로 쓴 시와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작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용제의 친일 시집 3권 『아세아시집』, 『서사시어동정(敘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써서 단행본 시집으로 묶어낸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료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발간하는 마지막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제 3기에 조사 관련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1차 사료집(2007년)과 2차 사료집(2008년)에 실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자료로 활용했던 조선인 훈포상 자료, 종교관련 자료, 문학예술관련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간한 사료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편찬하는 9권의 사료집뿐만 아니라 이미 간행한 7권의 사료집 내용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CD에 담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사료집을 연구와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과거사 가운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지나사변, 대동아 전쟁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필자명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 왼쪽에 표기하고 '(콤폴마)'로 연결했다.  
단행본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경우, 『 』로 표시하고 연도를 병기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 발간사 ..... 4  
 \* 해제 : 일제강점기 친일유림들의 문필활동과 협력활동 ..... 15

## I. 경학원

1. 일본국왕 및 고위관료 송축문 ..... 33  
 1) 「즉위대례식헌송문(即位大禮式獻頌文)」(1915) 33  
 박제순(朴齊純), 이용직(李容植), 박제빈(朴齊斌), 이인직(李人植), 박치상(朴稚祥), 여규형(呂圭亨), 황돈수(黃敦秀), 한창우(韓昌愚), 성낙현(成樂賢), 김동진(金東振), 정봉현(鄭鳳鉉), 박승동(朴昇東), 오현영(吳憲泳), 정봉시(鄭鳳時), 김광현(金光鉉), 양봉제(梁鳳濟), 박장홍(朴長鴻), 이학재(李鶴在)  
 2) 「입태자례헌송문(立太子禮獻頌文)」(1916) 56  
 김윤식(金允植), 이용직(李容植), 박제빈(朴齊斌), 이인직(李人植), 박치상(朴稚祥), 여규형(呂圭亨), 황돈수(黃敦秀), 한창우(韓昌愚), 성낙현(成樂賢), 김동진(金東振), 정봉현(鄭鳳鉉), 박승동(朴昇東), 정준민(鄭準民), 오현영(吳憲泳), 김광현(金光鉉), 양봉제(梁鳳濟), 정봉시(鄭鳳時), 박장홍(朴長鴻), 이학재(李鶴在)  
 2. 『성전성시집(聖戰誠詩集)』(1937) ..... 70  
 ◆ 서(序)  
 유진찬(俞鎭贊), 나일봉(羅一鳳), 안인식(安寅植), 권순구(權純九), 심선택(沈璿澤), 윤상호(尹相浩), 이강원(李康元), 이상호(李尙鎬), 황석환(黃錫煥), 오봉영(吳鳳泳), 김성렬(金聖烈), 지완수(池琬洙), 송시현(宋始憲), 엄달환(嚴達煥), 위대원(魏大源), 공성학(孔聖學), 강석규(姜錫圭), 박래양(朴來陽), 나석기(羅錫璣), 민영은(閔泳殷), 이종백(李鍾白), 김훈경(金勛卿), 한창동(韓昌東), 유하준(俞夏濬), 박초양(朴初陽), 정철영(鄭喆永)  
 ◆ 경기도  
 수원 신현수(申鉉壽), 김한경(金漢經), 김준기(金駿基), 김종철(金鍾喆), 윤각(尹珪), 장두진(張斗鎭), 권영일(權寧一), 왕정식(王廷植)  
 안성 유창준(俞昌濬)  
 양평 홍순복(洪淳復), 장기원(張基元), 윤상룡(尹相龍)  
 가평 정철규(鄭喆奎), 한태석(韓台錫)  
 진위 이춘규(李春奎), 서용수(徐龍洙), 홍인표(洪寅杓)

◆ 충청북도

괴산 지현규(池顯規)  
제천 엄윤섭(嚴允燮), 엄기훈(嚴基薰)  
진천 김만희(金萬熙)  
청주 유만형(柳萬馨)  
충주 정두연(鄭斗淵), 김태진(金泰鎭)  
옥천 김규옥(金奎昱), 금학주(琴鶴柱)  
청주 신경식(申經植), 송달헌(宋達憲), 이용구(李容求), 오충식(吳忠植), 오한식(吳翰植)

◆ 충청남도

부여 이기범(李箕範), 이문범(李文範), 김희은(金熙殷)  
대전 박창화(朴昌和), 성두식(成斗植)  
부여 전기승(田基崧)  
서산 박규철(朴奎喆), 임봉순(任鳳淳), 이현상(李鉉商), 이기옥(李起鈺), 이희홍(李熙鴻), 김태수(金台洙)  
홍성 이증렬(李仲烈)  
대덕 송헌숙(宋憲淑)  
홍성 이장로(李莊魯)  
청양 이병엽(李秉晔), 이경우(李卿雨), 이현(李炫), 이제녕(李齊寧)  
예산 윤석홍(尹錫洪), 송종면(宋鍾冕), 구연창(具然彰)  
서산 이찬(李燦), 윤상철(尹相喆), 박용원(朴容元)

◆ 전라북도

부안 임양호(林讓鎬), 김형철(金炯哲), 노승훈(盧承勛), 백낙준(白樂俊), 채동식(蔡東式), 백남종(白南鍾),  
장시형(張時亨), 김병규(金炳奎), 임낙정(林洛理), 조상준(曹相準), 정위영(鄭煒永), 김동식(金東軾),  
조희용(曹喜鎔), 김중섭(金鍾燮), 김인술(金仁述), 박기석(朴基錫), 이석로(李錫魯), 김석철(金錫喆),  
김봉일(金奉日), 김수철(金壽喆), 최일홍(崔一洪), 김옥철(金玉喆), 민찬식(閔燦植), 김낙관(金洛觀),  
김상인(金相印), 김선중(金善仲), 최재홍(崔在洪), 이중인(李重仁), 박찬우(朴贊雨), 장현갑(張鉉甲),  
이인성(李麟成), 윤성룡(尹成龍), 이형호(李炯鎬), 이명선(李明璇), 박경석(朴京碩), 김영환(金永煥),  
정경태(鄭炯煥), 정경환(鄭炯煥), 김형수(金炯洙), 이창우(李彰雨), 김상기(金相基)  
익산 이태응(李台應), 소진덕(蘇鎭德), 이철응(李哲應), 임노일(林魯一), 장지한(張志漢), 유기철(柳基哲),  
이동섭(李東燮), 이종구(李鍾龜), 김상권(金尙權), 김용규(金瑬圭), 김용규(金容圭), 윤주영(尹周永),  
김용철(金容喆)

◆ 전라남도

제주 양성하(梁聖廈), 김병주(金秉柱), 김문수(金文洙), 오인성(吳仁聖), 고성주(高性柱), 김병희(金柄熙),  
오인수(吳仁壽), 오유완(吳維完), 오행중(吳行鍾), 오대규(吳大奎), 강위기(姜渭耆), 오승천(吳承千),  
김권수(金權洙), 한병옥(韓柄玉), 오복아(吳福兒), 김상률(金商律), 강운선(姜閔善), 고흥수(高恒秀),  
김도오(金道五), 김봉관(金奉瑄)  
무안 송정기(宋正奇)

◆ 경상북도

의성 임묵순(任默淳), 김호우(金浩宇), 김위윤(金渭允), 김진중(金振鍾), 권재중(權在重), 권영세(權寧世),



이경구(李經九)  
 선산 장지순(張志珣)  
 상주 이상묵(李相默), 조규연(趙珪衍), 박남휘(朴南徽), 강훈(姜堧)  
 청도 김원곤(金元坤), 박병준(朴秉濬), 김우곤(金禹坤), 김용주(金龍珠)  
 영주 우경량(禹慶亮), 송상식(宋相埴)  
 군위 박채식(朴採植), 박만찬(朴晩璨), 김웅(金熊), 김작(金焯), 권전근(權詮斤), 김용우(金龍祐), 임성재(任聖宰)  
 경산 강문찬(姜文贊), 정우주(鄭佑柱), 최세봉(崔世鳳)  
 청도 이종옥(李鍾玉), 김시윤(金時潤), 박하인(朴夏寅), 김진효(金鎭孝), 이종상(李鍾爽)

◆ 경상남도

부산 구주회(具珠會), 허종녕(許宗寧), 강형민(姜炯敏), 서문숙(徐文淑), 홍병익(洪炳翊), 김영두(金榮斗),  
 성중호(成重鎬), 오창식(吳昌植)  
 밀양 김용제(金瑠濟), 이제환(李齊桓)  
 창녕 성진영(成璉永), 김태운(金兌潤), 조기승(曹奇承), 하한덕(河漢德), 장낙두(張樂斗), 이덕주(李德周),  
 배종학(裵鍾學), 신동식(辛東植)  
 남해 박준인(朴準寅), 이시봉(李時鳳), 정원표(鄭元杓), 최춘승(崔春升), 하희섭(河熿燮)  
 울산 김찬희(金璨熙), 김병호(金炳浩), 신세호(辛世浩), 김병석(金秉錫), 김봉오(金鳳梧), 정치호(鄭致浩),  
 서대규(徐大圭), 박충호(朴忠鎬), 서병연(徐秉淵)

◆ 황해도

평산 민영근(閔泳根)  
 연백 최중윤(崔重潤), 송창현(宋昌鉉), 박정기(朴鼎基), 박규원(朴圭元), 조종건(趙鍾建), 송석만(宋錫萬)  
 곡산 김영보(金永溥), 서광훈(徐光勳), 박희삼(朴希三)  
 서흥 유창호(柳昌浩)  
 수안 정관영(鄭觀榮), 김재원(金載元), 이궁환(李肯煥), 김동흥(金東興), 이창섭(李昌燮)

◆ 평안남도

평양 최정환(崔晶煥), 박기석(朴箕錫), 선우상(鮮于瑛), 김항규(金恒圭), 장봉한(張鳳翰), 박성휴(朴性休),  
 김제형(金濟鎭), 한용건(韓用健), 오태옥(吳泰玉), 김용석(金庸錫), 김윤기(金潤起), 전덕룡(田德龍),  
 송재수(宋載秀), 황석규(黃錫圭), 최운섭(崔雲涉)  
 강동 김근수(金根秀), 김성숙(金聲淑), 홍대수(洪大修), 이규영(李奎潑)  
 중화 한상규(韓相圭), 소하주(蘇夏疇)  
 강서 김유탁(金有鐸), 김영수(金英洙), 최용관(崔用觀)  
 양덕 김대봉(金大鵬), 이재교(李在敎), 김해현(金海鉉), 한병선(韓秉善), 최인돈(崔仁敦)  
 강서 김보건(金輔健)  
 평양 노득주(盧得柱), 선우인여(鮮于仁汝)  
 대동 황득삼(黃得三)

◆ 평안북도

정주 최중절(崔重節), 김석하(金錫夏), 이정방(李正芳)

자성 박희병(朴禧炳)

영변 김유용(金有用)

정주 이경주(李瓊柱), 김명직(金命稷), 이창훈(李昌塤), 정종하(鄭宗夏), 백원제(白元濟), 이경주(李瓊柱),  
조은석(趙殷錫), 석영주(石榮柱), 박희근(朴晦根), 이경주(李瓊柱), 김명직(金命稷), 김창훈(金昌塤),  
정종하(鄭宗夏), 백경제(白景濟), 탁희열(卓僖烈), 홍순택(洪淳澤), 백세욱(白世煜), 안병흡(安秉洽),  
조은석(趙殷錫), 백창욱(白昌煜), 정학룡(鄭學龍), 백낙하(白樂夏), 백낙부(白樂富), 정학선(鄭學善),  
엄창섭(嚴昌燮), 엄기승(嚴基昇), 방명훈(方明勳), 김원묵(金元默), 박희근(朴晦根), 석창호(石昌瑚),  
석창연(石昌璉), 안봉빈(安鳳彬), 최구락(崔龜洛), 김종은(金鍾殷), 김의희(金宜熙), 김상린(金祥麟),  
탁준모(卓濬謨), 김상은(金相殷), 김돈하(金墩河), 김현하(金現河), 김정목(金鼎穆)

운산 이만규(李萬奎), 양석환(梁錫煥), 이관현(李觀鉉), 김관구(金館九)

강계 김우화(金友和), 계지영(桂芝泳), 김건식(金健植), 김기하(金基河), 김숙현(金淑鉉), 박창림(朴昌林),  
유중규(劉鍾奎), 김기종(金基宗), 신흥욱(申鴻旭), 최영민(崔泳敏), 전석진(田錫珍), 김익로(金益老),  
김창수(金昌洙), 김화현(金華鉉), 유인규(劉麟奎), 김병희(金秉熙), 전준원(田俊元), 한영기(韓榮琦),  
김태욱(金泰郁), 이재형(李宰炯), 임인흠(林麟洽), 김창환(金昌煥), 김종탁(金宗洛), 조창하(趙昌河)

정주 이태진(李泰鎭)

◆ 강원도

영월 엄달환(嚴達煥), 한민교(韓民敎), 황윤현(黃胤鉉), 고범규(高範圭), 엄하현(嚴夏鉉)

철원 박기양(朴基陽), 이병훈(李炳勳), 안도환(安道煥), 김현규(金顯奎), 정재규(鄭在奎), 이범수(李凡秀),  
이중남(李鍾楠), 김필제(金弼濟), 허근(許根), 김용휘(金溶徽), 김경서(金敬瑞)

고성 한준석(韓準錫), 김영목(金泳穆)

◆ 함경남도

풍산 한호련(韓皐鍊), 신흥식(申弘湜), 김만성(金萬聲), 하중청(河重淸), 유준흥(柳俊興), 주태원(朱泰源),  
이낙수(李樂洙), 이규하(李奎河)

홍원 김기협(金基協), 박임수(朴林洙), 한준석(韓準錫)

풍산 이종환(李鍾奐)

◆ 함경북도

무산 정종석(鄭宗錫), 오상필(吳相弼), 김동희(金東嘻), 김흥제(金興濟), 허언(許彦), 한주승(韓周承), 한진  
만(韓鎭萬)

중성 김용호(金容鎬), 우창명(禹昌命), 장영수(張永洙), 김주민(金周敏), 한석봉(韓錫朋), 장추섭(張樞燮),  
이보순(李輔舜), 이상욱(李商煜)

경성 석호련(石鎬鍊), 여종하(呂鍾夏), 정기남(鄭基南)

3. 『경학원잡지』 게재 친일논설 사례 ..... 190

1) 김대우(金大羽) 190

(1) 지나사변에 대하여 190

(2) 전라남도유도연합회 결성식, 도참여관 훈화요지 194

2) 김완진(金完鎭) 196

(1) 이 시대의 유교 196

(2) 유가의 자위책	201
(3) 유시(儒是)	206
(4) 백곡(百穀)을 씨 뿌리고 오교(五敎)를 편다	211
3) 박상준(朴相駿)	216
(1) 대동아전쟁과 국체본의의 투철(권두언)	216
4) 박제빈(朴齊斌)	217
(1) 강사시찰견문소기(講士視察見聞所記)	217
5) 심선택(沈璿澤)	233
(1) 군자시중(君子時中)	233
6) 안인식(安寅植)	237
(1) 동아의 건설과 유도정신	237
7) 이경식(李敬植)	246
(1) 징병제 실시를 맞이하며	246
(2) 반도학도에 대한 육군특별지원병제 실시에 관하여	247
8) 이대영(李大榮)	248
(1) 유자(儒者)의 지위와 의무	248
9) 정만조(鄭萬朝)	252
(1) 구학과 신학	252
10) 정봉시(鄭鳳時)	253
(1) 오늘날 우리의 급선무	253
4. 경학원의 활동, 기타 .....	260
1) 경학원 유림 및 강사 관계 자료(1915~1921)	260
(1) 강사 주의사항	260
(2) 의견서, 유림지도에 관한 건	261
(3) 경학원 강사 채용의 건	263
2) 경회루에서 미나미 총독의 초대연	266
3) 미나미 지로(南次郎), 명륜전문학교 기사	268
4) 박상준, 회장 훈사(訓辭) 요지	268
5) 마자키 나가토시(眞崎長年) 학무국장 인사 요지	270
6) 지방시국강연회 개최 요강	271
7)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우리의 진군보	271
8) 스즈카와(鈴川壽男), 시국과 유도(10월 15일 경학원 추계석전에서)	274
9) 시라카미(白神壽吉), 벚꽃과 일본정신(4월 15일 경학원 춘계석전에서)	277

## II. 조선유도연합회

1. 일본 고위관료 송축문 ..... 285
  - 1) 『봉전남총독각하(奉餞南總督閣下)』(1942) 285
 

박상준(朴澤相駿), 한상룡(韓相龍), 유진찬(俞鎭贊), 이대영(駒城大榮), 이경식(李敬植), 윤병오(尹城炳皓), 안인식(安寅植), 김성진(金誠鎭), 이명세(春山明世), 윤치오(伊東致昨), 심형진(沈衡鎭), 박제봉(竹城濟鳳), 이원보(李家源甫), 최호연(崔浩然), 주병건(朱柄乾), 장행원(張本行遠), 최두연(崔斗淵, 山本權一郎), 이승근(牧山承瑾), 남석우(南錫祐), 조순원(趙洵元), 민건식(閔原健植), 윤병철(尹秉哲), 대산춘강(大山春岡), 광촌술부(廣村述夫), 서하영채(西河瑛采), 정낙봉(東村樂鵬), 이근옥(李根沃), 김윤구(金倫求), 김양한(金亮漢), 이범주(李範柱), 임노일(林魯一), 유장영(柳長榮), 황석규(黃家錫圭), 이태운(李家泰潤), 수원익제(水原翼齊)
  - 2) 『봉전대야총재각하(奉餞大野總裁閣下)』(1942) 297
 

박상준(朴澤相駿), 한상룡(韓相龍), 유진찬(俞鎭贊), 이대영(駒城大榮), 이경식(李敬植), 윤치오(尹致昨), 윤병오(尹城炳皓), 김성진(金誠鎭), 이명세(春山明世), 안인식(安寅植), 심형진(沈衡鎭), 장행원(張本行遠), 이승근(牧山承瑾), 대산춘강(大山春岡), 서하영채(西河瑛采), 덕촌응렬(德村應烈), 덕산재화(德山在和), 민영의(閔泳義), 김양한(金亮漢), 대산정의(大山清毅), 광촌술부(廣村述夫), 공성학(孔聖學), 죽성제봉(竹城濟鳳), 조순원(趙洵元), 공성초(檜原聖初), 남석우(南錫祐), 정낙봉(東村樂鵬), 윤병철(尹秉哲), 민건식(閔原健植), 이근옥(李根沃), 윤정현(尹定鉉), 나일봉(羅一鳳), 이경구(木子鏡龜), 추산의식(秋山義植), 수원익제(水原翼齊)
2. 『축징병제실시(祝徵兵制實施)』(1943) ..... 309
 

박상준(朴澤相駿), 이대영(駒城大榮), 이경식(李敬植), 김성진(金誠鎭), 윤병오(尹城炳皓), 이명세(春山明世), 정인서(鄭寅書), 홍산은식(洪山殷植), 심형진(沈衡鎭), 조순원(趙洵元), 조남준(趙南駿), 조기택(趙基澤), 송산중렬(松山仲烈), 정석모(楓川碩謨), 금산춘정(金山椿政), 장행원(張本行遠), 풍천명익(豐川明益), 월금형진(月金亨鎭), 김정호(金正浩), 송강세규(松岡世奎), 남상익(南相翊), 양희철(梁會喆), 허정(許鼎), 동촌중희(東村中熙), 박시양(朴始陽), 국본세훈(國本世薰), 서하영채(西河瑛采), 윤병철(尹秉哲), 이승근(李承瑾), 대산춘강(大山春岡), 송산영태(松山永泰)
3. 『유도(儒道)』 게재 친일논설 사례 ..... 321
  - 1) 석진형(石鎭衡) 321
    - (1) 시대와 유교 321
  - 2) 이명세(春山明世) 327
    - (1) 동아공영권과 유교의 역할 327
    - (2) 정기가(正氣歌)의 해설 330
  - 3) 박상준(朴相駿) 335
    - (1) 적개심의 양양(권두언) 335

4. 조선유도연합회의 활동, 기타 .....	338
1) 『유도(儒道)』의 본회기사 및 지방기사 발취(1942~1944)	338
(1) 『유도』 1호, 본회기사	338
(2) 『유도』 3호, 본회기사·지방기사	339
(3) 『유도』 4호, 본회기사·지방기사	340
(4) 『유도』 5호, 본회기사·지방기사	343
(5) 『유도』 6호, 지방기사	346
(6) 『유도』 7호, 본회기사·지방기사	347
2) 『조선유림성지순배기(朝鮮儒林聖地巡拜記)』(1943)	348
3) 우노 데쓰진(宇野哲人), 유교와 일본정신(계속)	445
4) 타까다 신지(高田眞治), 대동아전쟁과 유가(儒家)의 길(전회 계속)	449

### III. 신문·잡지 게재 친일시문

1. 문명기(文明琦) .....	459
1) 만주절(滿洲節)	459
2) 부여신궁 참가 근로봉사 소감	459
3) 축 징병제도 발표	460
4) 필승 격시사율(檄詩四律) 한 편	460
5) 명치절 송사	460
2. 박영철(朴榮喆) .....	461
1) 『다산시고(多山詩稿)』(1939) 발취	461
3. 심형진(沈衡鎭) .....	489
1) 축 징병제실시	489
2) 축 싱가포르 함락	489
3) 감사황군	490
4) 도(悼) 야마모토 원수	490
4. 장지연(張志淵) .....	491
1) 병합 후의 조선민족(사설)	491
2) 조선풍속의 변천	491
3) 본사의 시회 발기	492
4) 만필쇄어(漫筆瑣語) 중 이천오백년제, 신무천황제, 신구학	492
5) 송제만필(9)	493

6) 만록(漫錄) - 지리관계(5)	494
7) 낙성 증건에 대한 축사	494
8) 대정육년시사(大正六年詩史)	494
9) 화근의 영절(사설)	495
10) 환영 하세가와 총독	496
5. 정병조(鄭丙朝) .....	496
1) 『녹어산관집(瀟魚山館集)』(1941) 발취	496
6. 한준석(韓準錫) .....	502
1) 환영 하세가와 총독 각하	502
2) 봉도(奉悼) 다이쇼(大正)천황	502
3) 축 동민(同民)	503
4) 조춘술회(早春述懷)	503
5) 축사이토전권귀조(祝齋藤全權歸朝)	504
6) 봉답(奉答) 고수노자(皇水老子)	504
7) 『삼노우모시선(三老寓慕詩選)』(1937) 발취	504
7. 『경남일보』 게재 친일시문(1909~1913) .....	514
1) 이등공조화상보(伊藤公遭禍詳報)	514
2) 황상폐하우례은전(皇上陛下優禮恩典)	516
3) 관찰사의 면유민인(面諭民人)(1~3)	517
4) 경절휴업(慶節休業)	519
5) 천장절 축하의식	520
6) 축 천장절	520
7) 천장절 축하 성황	520
8. 기타 .....	521
1) 『대동사문회보』 창간문	521
2) 모로하시 데쓰지(諸橋徹次), 일본정신과 유교	525
3) 다카하시, 왕도유도에서 황도유도에로	540
4) 안인식(安寅植), 황도유학의 본령(本領)	550
* 찾아보기 .....	557

# 해제 :

## 일제강점기 친일유림들의 문필활동과 협력활동

정옥재(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 1. 서론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식민통치의 안정화를 위해 무엇보다 유림에 주목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투철한 항일의식을 지닌 유림의 투쟁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지방에 있는 유림의 위상과 영향력 역시 소홀히 여길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엘리트였던 유림의 항일의지를 제압하는 동시에 안정된 식민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림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했다.

일제는 당시 유명무실하던 성균관(成均館)을 폐지하고 1911년 6월 15일에 총 17조의 경학원규정(經學院規程, 조선총독부령 제73호)을 공포하여 경학원을 설립하였다.<sup>1)</sup> 조선총독부 직속기구인 경학원은 일제강점기 동안 유림에 대한 일제의 정책을 수행하던 중심기관이었다.<sup>2)</sup>

일제는 경학원을 중심으로 조선의 유림을 회유하고 통제하였는데, 조선의 유림 중 일부는 경학원과 일제가 조장하여 결성된 각종 친일유림단체에 참여하였다.<sup>3)</sup> 그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그들의 협력행위는 크게 친일적인 문필작업과 강연활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이 신봉하는 유학도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조선의 전통 유학과 다른 성격으로 변질되었으며, 전시체제가

1) 「경학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6월 15일.

2) 경학원의 조직, 성격, 인적구성과 역할 등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 정규영, 「조선총독부의 조선유교지배」, 『학생생활연구』 4, 1996 ; 柳美那, 「植民地時期朝鮮における經學院：儒敎敎化機關と儒敎イデオロギーの再編」,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2, 2004 ; 柳美那, 「植民地時期朝鮮における明倫學院：'儒敎振興'을めぐ는植民地權力和儒敎勢力の相克」, 『史滴』 26, 2004 ; 류미나, 「식민지권력예의 '협력'과 좌절-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26, 2005 ; 류미나,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호, 2007 ; 정일균,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 역사』 통권 제76집, 2007 ; 정옥재, 「1910~1920年代 經學院의 人的 構成과 役割」,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2007 ; 정옥재, 「日帝 協力 儒林의 儒敎認識-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2007 ; 정옥재, 「한말·일제하 유림 연구-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 일제강점기 친일유림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옥재, 「한말·일제하 유림 연구-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참조.

에 들어서면 일본화된 유학, 즉 '황도유학(皇道儒學)'이 대두하게 된다. 특히 1939년에 결성된 조선유도연합회에 참여한 유림은 '황도유학'을 열렬히 주창하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 자료집은 바로 그들의 친일협력행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집의 사료들은 모두 경학원에서 발간한 기관지 『경학원잡지(經學院雜誌)』와 『성진성시집(聖戰誠詩集)』,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유도(儒道)』를 비롯하여 각종 시문집, 그리고 신문·잡지에 게재된 친일시문, 개인이 발간한 시문집 등에서 선별하여 수록된 것이다. 여기서는 이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들의 성격을 개괄하고, 이어서 수록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유림의 친일협력행위에 대하여 각 사례들을 하나씩 들어서 살펴보려 한다.

## 2. 수록 자료의 범위와 성격

이 책에 실린 자료는 주로 경학원과 조선유도연합회에서 간행된 자료와 신문, 잡지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경학원의 기관지 『경학원잡지』는 경학원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경학원의 사성이 『경학원잡지』의 간행을 주관하였다.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 발행 연월일과 편찬 겸 발행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경학원잡지』의 발행 연월일과 편찬 겸 발행인<sup>4)</sup>

	발행연월일	편찬 겸 발행인	췁 또는 籤
1호	1913년 12월 5일	李人植	朴齊純
2호	1914년 3월 25일	"	"
3호	1914년 6월 25일	"	"
4호	1914년 9월 25일	"	"
5호	1914년 12월 25일	"	"
6호	1915년 3월 25일	"	"
7호	1915년 6월 25일	"	"
8호	1915년 9월 25일	"	"
9호	1915년 12월 25일	"	"
10호	1916년 3월 25일	"	"
11호	1916년 6월 25일	"	"
12호	1916년 12월 25일	朴稚祥	金允植
13호	1917년 3월 25일	"	"
14호	1917년 7월 25일	"	"
15호	1917년 10월 15일	"	"
16호	1918년 3월 25일	鄭崙秀	"
17호	1918년 7월 25일	"	"

4) 이 표는 정옥재의 논문에 게재된 것을 인용하였다(정옥재, 「한말·일제하 유림 연구-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66~67쪽), 이후에 대한 본문은 이 논문을 주로 인용하였다.



18호	1918년 9월 25일	"	"
19호	1918년 12월 25일	"	"
20호	1920년 3월 25일	"	"
21호	1921년 3월 10일	"	"
22호	1922년 3월 10일	李大榮	朴箕陽
23호	1922년 12월 25일	"	"
24호	1923년 12월 25일	"	"
25호	1924년 12월 25일	"	"
26호	1925년 12월 25일	"	"
27호	1926년 12월 25일	"	"
28호	1927년 12월 25일	"	"
29호	1928년 12월 25일	"	"
30호	1929년 12월 25일	"	鄭萬朝
31호	1930년 8월 1일	"	"
32호	1930년 12월 27일	"	"
33호	1931년 12월 25일	"	"
34호	1932년 3월 31일	"	"
35호	1932년 12월 25일	"	"
36호	1933년 12월 25일	"	"
37호	1934년 10월 25일	"	"
38호	1935년 3월 30일	"	"
39호	1935년 10월 5일	"	"
40호	1936년 8월 25일	羅一鳳	"
41호	1937년 7월 25일	"	鄭鳳時
42호	1937년 12월 25일	"	"
43호	1938년 12월 25일	"	尹德榮
44호	1939년 10월 5일	尹炳皓	"
45호	1940년 12월 25일	"	" 2
46호	1941년 12월 25일	"	朴相駿
47호	1943년 1월 25일	"	"
48호	1944년 4월 10일	金璜鎭	"

『경학원잡지』는 1913년 12월 1호부터 1944년 4월 48호까지 간행되었으며, 경학원 사성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편찬 겸 발행인이 되었다. 『경학원잡지』는 계간지를 표방하였으나 정작 1년에 4회 나온 경우는 세 번(1914, 1915, 1918년)에 불과하였다. 3회 나온 경우는 2번이고(1916, 1917년) 나머지는 1년에 1~2회 간행되었다. 1919년은 3·1운동의 여파와 당시 대제학 김윤식, 부제학 이용직의 연명 독립청원서 발송 사건으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학원잡지』 표지에는 반드시 당시 대제학이 ‘○○署’ 또는 ‘○○籤’이라는 일종의 서명을 하였다.

『경학원잡지』는 900~1,000부가 발행되었으며, 실린 글들은 유교 자체에 대한 학술적 내용보다는 유교를 이용하여 일제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실린 김완진(金完鎭), 심선택(沈審澤), 이대영(李大榮) 등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유교 비판, 조선총독부의 농업과 공업 정책 변화의 성과, 일본인 위인의 소개, 위생에 관한 제반 상황 등 총독부의 지배정책으로 이루어

진 각종 산업의 성공 사례와 더불어 총독부 지배정책에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조선총독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강연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 밖에 경학원 직원과 강사들의 일본 '천황'이나 '황태자' 칭송문, 일제의 지배정책 찬양, 조선인의 일본 동화를 촉구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이렇게 『경학원잡지』는 사실상 조선의 유림에게 일제의 식민정책을 홍보하고 회유·포섭하여 일제의 충량한 신민으로 변화시키려는 수단이었다. 또한 『경학원잡지』는 조선유도연합회 기관지인 『유도』와 더불어 당시 친일유림의 행위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의 당시 활동과 지녔던 생각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할 1차 자료이다.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친일유림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시문을 작성하여 책으로 간행하였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수록된 『성전성시집』이다. 그리고 전시체제기에 일제는 조선 유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조선유도연합회를 만들었다. 조선유도연합회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으로 경학원과 친일유림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경학원 직원은 모두 조선유도연합회의 주요 간부가 되어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국강연을 주도하였고 '황도유학'을 주창하였다. '황도유학'은 일본국왕이 정점에 있는 신도(神道)와 유교가 결합되어 충효일치의 일본화된 유교이다. '황도유학'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여 조선 유림에게 자발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바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유도연합회의 이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자료가 기관지 『유도』이다. 그리고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정과 당시 간부명단을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는 『경학원잡지』 제45호이다.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전시체제기 조선유도연합회의 조직 과정, 활동, 참여 인물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유도』는 1942년 1호가 창간되어 1944년 7호까지 발간되었는데, 게재된 내용은 『경학원잡지』에 실렸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유도』의 필자는 친일유림과 일본인 관료, 식민주의 관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조선유도연합회의 이데올로기인 '황도유학'에 대한 글과 유교를 통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글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여기에 실린 이명세(李明世), 박상준(朴相駿) 등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유도』에 실린 '본회기사(本會記事)'와 '지방기사'는 조선유도연합회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기록인데, 역시 이 자료집에 그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조선유도연합회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총독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을 칭송하는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자료집에 일부 수록된 『봉전남총독각하(奉餞南總督閣下)』(1942), 『봉전대야총재각하(奉餞大野總裁閣下)』(1942), 『축징병제 실시(祝徵兵制實施)』(1943) 등이 대표적이다.

친일유림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신문·잡지에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시문을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그런 내용을 실은 문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영철(朴榮喆), 정병조(鄭丙朝), 한준석(韓準錫) 등으로 이 자료집에 간행된 문집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 이 자료집에는 장지연(張志淵)이 『매일신보』에 게재한 친일적인 성격의 글 중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경남일보』 주필을 지냈을 때 집중적으로 나온 친일시문들 중 일부도 포함되었다. 『경남일보』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 경남 진주에서 창간되어 일제 강제병합 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함께 발행 허가된 유일한 지방일간지였다. 장지연이 1909년부터 1913년 사이에 주필을 지내는 동안 『경남일보』는 처음에는 실업장려와 민지개발을 표명했으나, 의병진압에 대한 관찰사와 일본군 수

비대의 동정을 게재하는 등 일본 통감정치에 부응한 모습을 보였다. 병합 후 1910년 10월 11일자에 매 천 황현의 절명시를 게재하여 정간된 후 같은 달 25일 다시 재발행되면서 신문의 논조가 노골적인 친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즉 일본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마다 제호에 일장기를 게재하고 특집호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는 보도내용으로 신문을 꾸미기 시작했다. 특히 신문사 차원에서 주도한 대표적인 친일행사는 장지연이 주필을 맡고 있던 동안 이루어졌다. 1911년 11월 3일 천장절을 경축하기 위해 신문을 하루 휴간하고 진주의 중심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수정봉 정상에서 천가지의 등화로 ‘축천장절(祝天長節)’이란 네 글자를 밝히며 대대적으로 경축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후 장지연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필을 그만두고 마산으로 이주했고, 『경남일보』는 1915년 경영난으로 폐간되었다.

### 3. 유학계의 친일협력행위

#### 1) 일본국왕 및 고위관료에 대한 칭송

경학원과 조선유도연합회 같은 관변단체에 참여한 친일유림은 스스로를 일본국왕, 즉 ‘천황’의 ‘신민’으로 자처하며 일제에게 충성을 다짐하였다.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1915년 11월 10일에 그들이 제진(製進)한 다이쇼천황(大正天皇)의 즉위대례식헌송문(卽位大禮式獻頌文)이다.<sup>5)</sup> 여기서는 하나의 예로 박치상의 시문을 들여보자.

저기 멀리 서경 쪽을 바라다보니	瞻彼西京
만년 동안 전해져 온 황도로구나	萬歲皇都
나라 처음 세워 통서 전하였거니	翊業垂統
소호 전욱에 요순 같은 분들이었네	昊頊唐虞
이에 지금 이르러선 아름답거니	式至今休
밝게 빛날 운세 다시 열리었다네	熙運再啓
성인께서 황제 자리 나아가시매	聖人卽阼
성대하고 성대한 예 거행했다네	載行緝禮
이에 우리 다시금 또 중흥되어서	嗣我中興
하락에다 그 융성함 비길 만하네	河洛比隆
지극한 그 다스림에 다 속했거니	咸囿至治

5) 「卽位大禮式獻頌文」, 『經學院雜誌』 제9호, 1915, 1~21쪽. 경학원 대제학, 부제학, 사성, 강사 순으로 당시 활동하였던 경학원 관계자 18명이 헌송문을 지었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경학원 대제학 朴齊純, 부제학 李容植, 朴齊斌, 사성 李人植, 朴稚祥, 강사 呂圭亨, 黃敦秀, 韓昌愚, 成樂賢, 金東振, 鄭鳳鉉, 朴昇東, 吳憲泳, 鄭鳳時, 金光鉉, 梁鳳濟, 朴長鴻, 李鶴在이다.

전대보다 이루는 공 더 훌륭하리  
 청도 쳐서 정벌을 한 전쟁에서는  
 의 성했고 인도 또한 지극하였네  
 덕과 업적 천고에도 드문 것이니  
 풍교 이제 온 사방에 퍼질 것이리  
 전각 주위 만세소리 울려 퍼지면  
 백관들이 모두 서로 화답을 하리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폐백을 들고  
 모두들 다 바다 동쪽 향해 가누나  
 화육하여 주는 은혜 고루 입은 건  
 바로 우리 땅의 창생들이네  
 이에 아주 짧은 시를 공손히 지어  
 하찮은 신 정성 여기 부치옵니다

將多前功  
 青島之役  
 義盛仁至  
 德業曠千  
 風教訖四  
 繞殿嵩呼  
 百工相和  
 梯航玉帛  
 咸趨海左  
 均蒙化育  
 鯁域蒼生  
 恭述短篇  
 庶寓微誠

박치상은 각종 전거와 극존의 용어를 사용하며 시문을 작성하였다. 그는 일본국왕을 성인과 동일시 하여 그의 은덕을 칭송하였고 일본이 행한 전쟁을 인의로운 행위로 여겼으며, 조선인은 일본국왕의 은혜를 고루 입은 신민으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박치상은 일본국왕과 일본제국을 충효를 바칠 대상으로, 조선인은 그들의 충량한 신민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뒤에 쇼와천황(昭和天皇)이 될 일본 태자에게도 역시 똑같은 내용을 담은 글(입태자예헌송문(立太子禮獻頌文))을 바치고 있다.<sup>6)</sup>

친일유림은 일본국왕과 태자뿐만 아니라 조선총독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을 칭송하는 글도 많이 남겼다. 조선유도연합회가 간행한 『봉전남총독각하(奉餞南總督閣下)』(1942)와 『봉전대야총재각하(奉餞大野總裁閣下)』(1942)는 조선총독 미나미(南次郎)와 정무총감 오노(大野綠一郎)가 일본으로 돌아가자 그들에 대한 ‘칭송시’를 모아서 편집한 책이다. 하나의 예로 심형진의 시를 들어보자.

대장께서는 백악당(白堊堂)에서 고상히 기거하시며  
 은혜와 위엄 두 가지로 전국을 진무(鎭撫)하셨네  
 칠년간의 치적, 천년은 갈 거라고  
 찬양하는 소리 사방이 한결같네  
 떠나신 길 바라보며 님께 다다르지 못하기에  
 남기고 가신 자취 흠모하는 맘은 잊을 수 없으리라  
 동아시아 다난(多難)한 때를 만나

大將高居白堊堂  
 并濟恩威鎮全疆  
 七年治績可千世  
 一口譽聲同四方  
 瞻望行塵嗟不及  
 慕思遺跡愛難忘  
 正當東亞多端日

6) 『經學院雜誌』 제12호, 1916, 10~11쪽. 1916년 11월 3일에 당시 경학원 간부와 강사 총 19명은 일본 태자(뒤에 쇼와천황)를 세우는 예식에 헌송문(立太子禮獻頌文)을 지어 조선총독부에 헌상하였다. 게재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경학원 대제학 金允植, 부제학 李容植, 朴齊斌, 사성 李人植, 朴稚祥, 강사 呂圭亨, 黃敦秀, 韓昌愚, 成樂賢, 金東振, 鄭鳳鉉, 朴昇東, 吳憲泳, 鄭準民, 吳憲泳, 金光鉉, 梁鳳濟, 鄭鳳時, 朴長鴻, 李鶴在이다.

우리나라 건강하게 보호하는 데 힘쓰셨다네<sup>7)</sup>

須爲邦家保健康

조선 7대 총독 미나미는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부르짖으며 철저하게 민족말살,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던 장본인이었다. 그가 재임한 기간은 조선인에게는 엄청난 시련기였다. 1938년에 지원병 제도를 시행하고 1939년에 창씨개명제도를 만들어 징병제를 준비하였으며, 국민징용령을 적용하여 많은 조선인을 강제연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총동원체제를 편성했고, 조선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이렇게 악독한 식민정책을 펼친 사람을 친일유림은 그가 조선에서 많은 '선정(善政)과 '업적'을 세운 인물로 칭송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자신들을 체화시켰으며, 그런 인식과 태도를 그들의 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친일유림 중 일부는 친일적인 시문을 모아서 출간까지 하였다. 한준석의 사례를 들어보자.

나는 조선총독들을 두루 겪으면서 지우(知遇)를 받았다. 그런데 일생동안 향하여 경모하는 분들이 있으니 노암(魯庵, 寺內正毅), 고수(皐水, 齊藤實), 풍산(豊山, 南次郎) 세 분(三老)이다. 그런 까닭에 평소 세 분에게 바친 시가 약간 있어서 근래에 수집하여 한 권을 만들었다. 제목을 '삼노우모시선(三老寓慕詩選)'이라 하여 열람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니 또한 사모하는 마음의 바탕이 된다. 대개 세 분(三老)은 모두 우리 제국의 거성이며 또한 동양의 위인이시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魯, 皐 두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다. 완성된 책을 쓰다듬으며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상을 어떻게 다할 수 없어 여기에 적는다.<sup>8)</sup>

한준석은 1937년에 조선총독을 흠모하는 마음을 담은 시들을 모아 『삼노우모시선(三老寓慕詩選)』이라는 제목의 책을 간행하였다. 그가 흠모하였다고 밝힌 조선총독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미나미 지로(南次郎)로 모두 조선의 식민통치에서 오랫동안 악명을 날린 사람들이었다. 한준석 외에 정병조, 박영철 등도 이런 심경을 나타낸 시들을 지었다.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일본인화된 제국의 신민이며, 그들이 지은 시문들은 그런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 2) 일제의 침략전쟁과 징병제 실시를 찬양

일제가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경학원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지, 찬양하는 한시를 경학원 관계자를 비롯한 전국 각 도의 유림으로부터 모집하였다. 경학원은 이렇게 모인 한시들을 『성전성시집』이란 제목을 붙여서 1937년 12월 19일에 간행하였다. 당시 경학원 대제학 정봉시(鄭鳳時, 1855~1937)가 『성전성시집』의 간행을 주관하였고, 그가 중도에 사망하자 부제학 유진찬(兪鎭贊, 1866~1947)이 이어받아 주관하였으며, 사성 나일봉(羅一鳳, 1871~?)이 편찬 겸 발행인으로 실무를 담당하였다.

7) 『奉餞南總督閣下』, 조선유도연합회, 1942, 6쪽.

8) 韓準錫, 「三老寓慕詩選自序」, 『三老寓慕詩選』, 1937, 11쪽.

『성전성시집』의 체재를 살펴보면, 먼저 경학원 부제학 유진찬의 서문이 실려 있고, 이어서 역시 유진찬이 쓴 '11월 7일 신궁참배(十一月七日神宮參拜)'라는 제목의 한시가 실려 있다. 다음으로 '성전성시'라는 제목 아래 경학원 관계자들의 시가 실려 있고, 이어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순으로 지방 유림의 한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각 한시마다 자신의 출신지역과 이름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성전성시집』을 통해 총 399명 유림들의 출신 지역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 유림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중국의 전쟁 얼마나 길어지는가	日支事變幾時長
들으니 황군(皇軍)이 낙양(洛陽)을 점령했다네	聞道皇軍占洛陽
소생(小生)은 미처 출정(出征)하지 못하고	小生未及出征役
나라 사랑하는 정성으로 시 한 장을 짓네	愛國丹誠詩一章

제주 오복아(吳福兒)

전라남도에서는 21명의 인사들이 시를 바쳤는데, 20명이 제주 출신이고 1명은 무안 출신이었다. 한시를 바친 각 지역의 인물들은 대체로 지역 유지로 생각되는데, 당시 지역 유림이 지닌 인식 등을 연구할 때 이 자료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성전성시집』에 실린 시들은 중일전쟁을 성전(聖戰)으로 인식하고 일본군의 승리를 찬양하며 일본제국의 위세와 일본군의 무운이 만방에 떨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각 한시들에 나타난 용어와 전거도 서로 비슷한 것이 매우 많다. 요컨대 『성전성시집』은 친일유림이 일제의 침략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더구나 경학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 지역에서 올라온 한시들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지방 유림의 동태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제는 1937년에 일으킨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장되자, 식민지 조선의 장정들을 전장으로 내몰려고 하였다. 결국 일제는 1942년 5월 9일에 19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 그러자 친일유림은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축징병제실시(祝徵兵制實施)』라는 책이다. 『축징병제실시』는 조선유도연합회가 1943년에 간행하였다. 조선유도연합회는 징병제 실시에 관해 전국적으로 한시를 현상 모집하였고, 이에 전국에서 응모하여 당선된 시들과 조선유도연합회 간부가 지은 시들을 합편하여 이 책을 간행한 것이다. 당시 경학원 사성 겸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이자 중추원 참의였던 이경식의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혜롭게 새로이 만도에 징병제 실시하시니	恩制新徵半島兵
모두들 환호하고 감격해 하네.	歡呼感激一般情
정성과 힘을 다해 마땅히 보답하리니	彈誠全力宜圖報
내 창과 방패를 손질해 그대와 함께 가리라.ᄂ)	修我戈矛與子行

당시 조선민중은 일반적으로 중일전쟁을 일제의 야심에 의한 침략전쟁으로 이해하였다.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민중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징병제 실시에 대해 대단한 불만과 저항심이 있었다.<sup>10)</sup> 그런데도 이경식은 일반적인 조선민중과 전혀 다른 인식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경식의 시는 일제가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공포하자 전국이 환호하고 감격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장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일본제국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인 이경식은 이 외에 『경학원잡지』에도 징병제 실시를 축하하면서 조선민중에게 충실히 응하라는 글을 게재하였다.<sup>11)</sup> 이경식이 『경학원잡지』에 게재한 두 편의 글도 모두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축징병제실시』에 실린 시들은 이경식의 시와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축징병제실시』는 전시체제가 일제에 협력한 유림의 빛나간 인식과 태도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 3) 유학의 논리를 이용한 일제의 식민지배를 지지

조선유학의 전통적인 특징은 성리학을 절대시하면서 인간 내면의 심성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sup>12)</sup> 그래서 중국의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에서도 볼 수 없는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의 철학적 논쟁을 낳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같은 유학사상인 양명학이나 실학의 학풍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다.<sup>13)</sup> 그러나 무엇보다 조선유학의 특징이자 장점으로는 ‘의리론(義理論)’을 들 수 있다.

조선 유학자의 정신을 대표하는 ‘의리정신’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선비가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처신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아가고 물러남의 분별(出處之辨)’ 곧 ‘출처의 의리(出處之義)’이고, 인간의 모든 행위나 사회적 문제에서 동기와 지향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의리와 이욕의 분별(義利之辨)’이며, 국제질서와 문화적 기반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중화와 이적의 분별(華夷之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리정신’은 개인의 생각과 행위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문제에서부터 한 사회와 국제 관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평가하는 분별기준이자 실천적 행동원리로 작용한다.<sup>14)</sup>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 지위와 학자적 식견이 높더라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저버린 경우에는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유림이 전국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일제에 저항한 것도 바로 조선유학의 의리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유학이 지닌 이런 특징을 없애

9) 『祝徵兵制實施』, 조선유도연합회, 1943년 1월, 3~4쪽.

10) 변은진, 「日帝의 파시즘 전쟁(1937~45)과 朝鮮民衆의 戰爭觀」, 『역사문제연구』 3, 1999, 168쪽.

11) 이경식, 「징병제 실시를 맞이하며」, 『經學院雜誌』 제47호, 1943, 24~28쪽; 이경식, 「반도학도에 대한 육군특별지원병제 실시에 관하여」, 『經學院雜誌』 제48호, 1944, 36~37쪽.

12)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한국학술정보, 2001, 48쪽.

13) 조남옥·조운래, 「일제시대의 韓國儒敎와 儒敎敎育」, 『한국민족문화』 16, 2000, 204쪽.

14)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65쪽.

려는 한편, 유학의 인의충효(仁義忠孝)의 가르침을 교묘히 이용하여 식민지 체제 유지와 사회교화에 활용하려 하였다. 경학원은 유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일제의 통치에 필요한 교화와 선전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친일유림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친일유림은 의리론에 입각한 저항정신을 제거하고 유학의 인의충효의 덕목을 강조하거나, '시중(時中)' 또는 '시의(時宜)'의 논리를 내세우며 식민지 현실을 인정하고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라고 주장하였다.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같은 일본의 관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당시 유학과 유림이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주범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고, 더구나 근대학문을 익힌 지식인들은 유학을 '구학(舊學)'으로 지칭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무용한 학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친일유림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학을 옹호하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용인하는 주장을 펼쳤다. 경학원 사성을 지냈던 김완진(金完鎭)의 말을 들어보자.

생각건대 우리 유교는 실로 도덕(道德)의 본원이 되며, 향교와 경학원은 이에 유림(儒林)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유함에는 역사(歷史)가 있으며, 옹위함에는 대중(大衆)이 있습니다. 참으로 능히 향교와 경학원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유시(儒是)를 분명하게 정하고 방향을 제시해 준 다음, 성심으로 인도하여 이끌면서 강론을 하여 밝히고, 닦으면서 거행한다면, 풀잎 위로 부는 바람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날랜 수레가 익숙한 길을 가듯, 길을 가는 것이 절로 배는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륜(彝倫)을 부식하고, 그렇게 하여 세도(世道)를 유지한다면, 사문(斯文)에다가 해와 달을 내걸어 만대토록 영원할 태평시대를 열고,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진 가운데에서 구제하여 함께 태평스러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로부터 차례대로 시행될 것으로, 역시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sup>15)</sup>

나라는 망하여 일제의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김완진이 말하듯이 유학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여 태평시대로 가자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현실은 인정하고 식민통치에 협조하자는 말과 다름 아니다. 역시 경학원 사성, 부제학을 역임한 이대영(李大榮)도 같은 논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세대의 등급이 낮아져서 말세의 풍속이 부박해진 탓에 이륜(彝倫)과 도덕(道德)이 점차 없어지게 되었으며, 미풍(美風)과 양속(良俗)이 그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 어느 사이에 금수(禽獸)와 같이 되었습니다. ……(중략)…… 그런즉 우리 모든 유자로서 자처하는 자들이 태연스럽게 강 건너 불을 보듯이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이끌어줄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유자의 지위에 있어서 어떻겠으며, 유자의 의무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중략)…… 백성들을 이끄는 방도가 어찌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사방에 푯대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인 것입니다.

성인의 도는 윤리를 밝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윤리를 밝게 알지 못할 것이 걱정된다면,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우애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도를 극진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도는 인의(仁義)일 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도를 반대로 하

15) 김완진, 「儒是」, 『經學院雜誌』 제27호, 1926, 64쪽.



여 덕을 어그러뜨릴까 걱정된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끼어서 먼저 세상에 임하는 도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성(老成)한 분들이 고집스럽고 딱 막혀서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이 걱정된다면, 나에게 있는 시중(時中)의 도를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진(新進)의 사람들이 학업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피하는 것이 걱정 된다면, 나에게 있는 자식을 가르치는 방도를 다하면 됩니다.<sup>16)</sup>

이대영이 주장한 요점은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현실을 지적하고 성인의 도인 '인'의 의미를 밝혀서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 유학자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시중(時中)'의 도를 다하라고 이대영은 말한다. 이 자료집에 실린 정봉시, 정만조의 글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유학의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시중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유교의 가르침이다. 유교에서는 오직 성인 공자(孔子)만이 시중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sup>17)</sup> 모든 상황 속에서 시중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義)를 따르기 위함이고,<sup>18)</sup> 때에 따라 변역(變易)하는 것도 도(道)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sup>19)</sup> 만일 조선의 유학자가 조선유교의 특성인 의리론(義理論)의 관점에서 망국의 현실에 대해 시중을 한다면,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이 거론한 '처변삼사(處變三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유인석처럼 멸망한 사직을 회복하기 위하여 '거의소청(擧義掃淸)'하거나, 아니면 전우(田愚)처럼 '거지수구(去之守舊)'를 행하거나, 또는 송병선(宋秉璫)처럼 '자정치명(自靖致命)'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친일유림이 설명하는 '시중'은 의나 도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망국의 현실, 즉 대한제국에서 일본제국으로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에 따라라는 현실 순응의 태도를 유교의 '시중'을 끌어다가 합리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친일유림은 유교의 도는 중국과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 찬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지나(支那)는 유교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청(淸) 황실이 전복되고 중화민국이 조직된 오늘 날에 미쳐서는 의논이 셋으로 갈렸습니다. 수구파와 반대파와 혁명파가 그것입니다. 수구파라는 것은 옛날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파라는 것은 공화국의 정체(政體)를 떠면서 『춘추』의 의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혁신파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절충하여 치지가 바뀌어도 어긋남이 없는 자들입니다. 분열됨이 이와 같아서 서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계의 영수(領袖)와 학사와 박사 등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우리 유도를 힘써 진흥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크나큰 교화를 우러러 찬양하고, 과격하고 조리가 없는 이상한 사상을 미리 막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학원의 직원과 각도의 유림들이 한 무리가 되어 동경 사문회(斯文會)가 주최하는 '공자가 죽은 뒤 2,400주년을 맞이하여 공자를 추모해 올리는 기념 제사(孔子歿後二千四百年追遠紀念祭)'에 가서 참여하여 祭典의 성대한 모습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쿄제국대학(東

16) 이대영, 「儒者之地位及義務」, 『經學院雜誌』 제26호, 1925, 51-52쪽.

17) 『孟子』, 萬章下. “孟子曰 伯夷 聖之淸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 孔子 聖之時者也.”

18) 『論語』, 里仁.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19) 『周易』, 易傳序. “易 變易也 隨時變易以從道也.”

京帝國大學) 강당 안에서 이노우에(井上博士) 박사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의 고매한 식견과 명쾌한 논변은 환히 통달하였고 드넓었습니다. 이에 비로소 우리 유학의 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한 우리들이 평소에 능히 글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탄식하였습니다.<sup>20)</sup>

김완진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유림이 자부하던 ‘화하일맥(華夏一脈)’이 이제 조선이 아닌 일본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켰다고 보았다. 이는 항일 성향의 보수유림이 가졌던 저항의식의 기반을 분쇄하는 것이다. 친일유림은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근대 문명과 유교를 동시에 발전시킨 나라로 여겼다. 그래서 자신들은 경전을 읽었지만 일본의 학자들보다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탄식하였다.

친일유림에게 ‘문명’과 ‘도’를 발전시킨 일본은 보수유림처럼 이적시(夷狄視)하는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그들에게 ‘문명’과 ‘도’를 찬란하게 발전시킨 일본이 ‘문명’과 ‘도’가 떨어진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것은, 사회진화론뿐만 아니라 유교의 논리 안에서도 정당한 것이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선유학의 특징이자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의 기반이었던 실천적인 의리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친일유림에 의해 조선유학은 성격이 변질되어 일본국왕과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과 복종 이념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순응시키는 논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39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황도유학’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 4) 일제의 총량한 황민(皇民)이 되라는 ‘황도유학(皇道儒學)’을 주장

일본 식민주의 관학자 다카하시 도루(高橋亨)가 1939년 「왕도유교(王道儒道)에서 황도유도(皇道儒道)로」라는 글을 『조선(朝鮮)』에 게재한 후부터<sup>21)</sup> 식민지 조선에서 ‘황도유학론’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이 자료집에도 다카하시가 주장한 이 글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다카하시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조선에서 유교단체가 그 결속을 새롭게 하여 일어나서, 종래에 이곳의 지도계급 인사들의 자각 아래에 동아신질서 건립의 대업에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는 정신운동이 구체화하는 때를 맞이하였다. 이에 조금이라도 일본유도의 제일의체(第一義諦)를 밝혀서 이 운동이 목표해야 할 곳에 대하여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2)</sup>

다카하시가 언급한 조선에서 새롭게 결속되어 일어난 유교단체는 바로 조선유도연합회를 가리킨다. 그는 조선유도연합회가 결성되자 그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한 것이다. 즉

20) 김완진, 「時代之儒教」, 『經學院雜誌』 24호, 1923, 83-88쪽.

21) 高橋亨, 「王道儒道より皇道儒道へ」, 『朝鮮』 제295호, 1939년 12월호.

22) 위의 글, 10쪽.

그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을 ‘동아신질서 건립의 대업’이라 하면서 조선의 ‘지도계급 인사’인 유림에게 ‘하나의 역할’을 적절히 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유학의 진정한 의미를 논하겠다고 밝혔다.

다카하시는 ‘왕도(王道)’와 ‘황도(皇道)’의 용어를 가지고 중국유학과 일본유학의 특징을 논하였다. 즉 공자의 정치사상의 이상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漢)민족의 국가조직의 근본 즉 국체(國體)에서 온 것이지만, 일본은 세계 유일의 특별국가로서 만국(萬國)에 비교할 수 없는 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자의 정치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sup>23)</sup> 다카하시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일본의 국체는 이른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제’였다.

다카하시가 주장한 ‘황도유학’은 일본의 신국사상, 즉 신도(神道)와 유교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일본화된 유교를 의미하며 그 정점에 ‘천황’이 있었다. 그러므로 ‘황도유학’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이론이었다. 그가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에 발맞추어 조선의 유림에게 ‘황도유학’을 강조한 이유는 다음 말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지나(支那) 정치당국의 좁은 소견으로 극동의 형세에 파천황(破天荒)의 변화가 생겨 만주제국이 우리나라의 원조로 세우지고, 왕도국가를 표방하며, 이어서 우리나라 광고(曠古)의 대사업인 지나사변(支那事變)이 돌발하여, 유형무형의 국력 총동원을 하게 하였으며, 당당하게 이 사태에 직면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 몇 백 년의 대계(大計)를 확립해야 할 중대한 시기를 만났다. 그리하여 우리 조선은 일본에 부속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과 그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함으로써 이러한 비상시에 일본에게는 자진해서 빛나는 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려한 사태에 서게 된 것이다. 이때를 맞이하여 조선의 유교단체가 경향을 통틀어 총동원해서 일치단결 이러한 운동에 참가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것이다. 동시에 옛날부터 있었던 지나와 조선의 유교와 일본유교가 그 정치사상의 근본 요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내선의 식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sup>24)</sup>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경험의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전쟁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도 없는 총력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내지(內地)’ 즉 일본 내의 인적·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지(外地)’ 즉 조선 같은 식민지의 인적·물적 자원도 동원해야만 했다. 다카하시가 주장한 황도유학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조선민중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자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바치도록 하는 정신과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황도유학’의 목적이었다. 즉 ‘황도유학’은 조선의 자원과 민중을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어용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이 자료집에 실린 일본인들의 글들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조선인 친일유림들도 이러한 다카하시의 주장에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황도유학’을 주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인식(安寅植), 이명세(李明世) 등이었다. 우선 안인식의 주장을 살펴보자.

23) 위의 글, 19~20쪽.

24) 위의 글, 17쪽.

황도유학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황도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동양도덕의 근원인 유교도덕의 진수를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국체를 명확하게 하고, 인도(人道)를 올바르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다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국체를 중심으로 인륜의 길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며, 또 인륜의 길이 올바르게 되는데 따라서 국체는 더욱 익명(益明)하게 되는 까닭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국체와 인도와는 서로 순환작용을 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는 것과 함께, 양자가 완전히 융합순화(融合醇化)되어 최고 지선(至善)의 국민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sup>25)</sup>

안인식은 자신이 진정 일본제국의 신민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황도유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카하시의 논리보다 더욱 세련되게 논하고 있다. 안인식은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긍정하고 일본에 의한 동아신질서 건설을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유도정신, 즉 '황도유학'을 열렬히 주장하였다.

동아 신질서 건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동아의 과거현상을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따라서 세계대세부터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세계 6대주 중에서 최근 2백년간은 유럽인의 침략시대였다. 유럽인의 과학지식과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각종의 음흉한 수단과 교묘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침략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월감은 항상 큰 소리 치기를, 전 세계의 3분의 1은 열등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바, 자연자원은 사장(死藏)되고 있으며 이것을 개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와 같은 우월한 민족이 이러한 열등 민족을 굴복시키고 세상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균등 향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심하게 굴어, 세계는 우월민족의 세습재산을 하여금 우등인이 열등인을 배척하여 이익을 탈취하는 것은 인류가 금수를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폭언을 하는 자마져 있는 것이다. ……(중략)…… 그래서 지나사변은 참으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성전인 동시에 동양인의 흥망사활의 분기점인 것을 깊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나사변의 목적은 전쟁에 있지 않고 건설에 있으며, 과거에 모든 불합리하고 부자연한 현 시국을 타파하고, 장차 평화와 행복을 가져와야 할 정연하고 질서 있는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 것이다. 이것은 소위 동아 신질서 건설의 표어가 만들어진 사연으로, 이 간단한 7자 안에는 1억 국민의 열성을 표방하고 전 동아를 위하여 공헌하지 않을 수 없는 원대한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sup>26)</sup>

안인식은 '황도유학'을 일제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이명세의 주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 미영(米英)민족의 소위 문명의 기초를 만든 사상은 개인주의, 유물주의 공리주의로서 민중의 모든 생활, 활동은 모두 개인의 이기적이고 향락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상이 극도로 발달한 결과, 소위 국가정치라는 것도 양육강식을 정당시하고, 따라서 세계도처의 저급문화의 약소민족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노예로 간주하여, 착취무역

25) 安寅植, 「皇道儒學の本領」, 『조선』 제347호, 1944, 26쪽. 이 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유도』 1호(「皇道儒學」, 1942, 29~36쪽)와 『유도』 2호(「皇道儒學(2)」, 1942, 34~43쪽)에 게재되어 있다.

26) 안인식, 「동아의 건설과 유도정신」, 『經學院雜誌』 제45호, 1940, 76~91쪽.

의 경쟁을 더욱 더 격렬화시켜서 ……(중략)…… 만주사변·지나사변 이번 대동아전쟁도 그들의 죄악을 성토하고 응징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다.<sup>27)</sup>

이명세는 일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으킨 전쟁들을 미국·영국의 죄악을 성토하고 응징하기 위한 의전(義戰)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명세는 일제가 저지른 태평양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일 뿐만 아니라 ‘동양을 위한 승고한 전쟁’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들의 개인주의·유물주의·공리주의는 그 뿌리에서 우리의 황도정신과는 서로 맞지 않아서 빗담불상용(氷炭不相容)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악무도한 행동을 그대로 좌시할 때에는 동아인들의 동아는 그들의 식민지화가 될 우려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동아의 맹주인 입장에서 또한 도의국(道義國)인 정신으로 동아인을 대신하여 대동아전쟁의 정의로운 깃발을 올려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sup>28)</sup>

이명세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호도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세는 일제가 벌인 침략 전쟁을 전 세계가 동양의 약소민족의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세가 ‘황도유학’을 주장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유학의 진흥은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교상(政敎上) 필요불가결한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동아공영권 확립을 하는데 여러 약소민족을 지도하며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는 조선유도연합회 결성 이래, 관민이 일치하여 황도유학의 진흥에 착실히 힘을 쏟아 온 것은 흔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나, 유럽이라는 사람은 먼저 우리 국체의 존경과 현대의 중대 시국을 인식하고, 종래부터 습득해 온 유교정신을, 황도정신에 합치시켜서 황국신민으로서의 길을 실천궁행함으로써, 국가적인 대사업에 공헌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마지 않는 바인 것이다.<sup>29)</sup>

이명세는 조선의 유럽에게 조선시대에 이룩한 난숙한 경지의 성리학을 버리고 일본화된 유교, ‘황도유학’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담론은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천황’과 ‘일본제국’을 위하여 일제의 인적·물적 수탈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황도유학’은 높은 수준의 학문을 지닌 조선유럽에 대한 ‘황민화(皇民化)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안인식·이명세 등은 유럽을 ‘어육(魚肉)’의 시대에 강제로 밀어 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룩한 조선의 유학사상을 완전히 훼손시켰다.

27) 春山明世, 「東亞共榮圈と儒敎の役割」, 『유도』 1호, 1942, 38쪽.

28) 위의 글, 38쪽.

29) 위의 글, 41쪽.

## 4. 결론

지금까지 이 책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중심으로 자료의 성격과 여기에서 보이는 유학계의 친일협력행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해제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박제빈이 쓴 '강사시찰견문소기'와 조선유도연합회에서 간행한 『조선유림성지순배기』는 1910년대와 1940년대에 조선유림이 일본을 견문한 내용을 수록한 기록으로 당시 유림의 일본 인식 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자료이다. 아직 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자료집의 발간으로 많은 관심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비록 이 자료집이 유학계의 친일협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수록하지는 못하였지만, 여기에 실린 자료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협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두드러진 활약을 한 보수유림 학파들의 형성과 전개, 학파의 핵심 인물들의 사상과 활동 등에 대한 연구는 일일이 밝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화서학파를 비롯한 보수유림의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다.<sup>30)</sup> 그러나 일제강점기 유림과 유학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파리장서운동과 김창숙 등 항일유림에 대한 연구성과가 있을 뿐이다.<sup>31)</sup>

유학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 친일유림의 활동과 사상은 지우고 싶은 한국 유교의 굴절된 모습이지만,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에 대해 당시 다른 유림은 비판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유림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것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일제에 협력하였던 유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필요하다.

친일유림의 활동은 조선민중에게 더욱 유교와 유림에 대한 환멸을 불러 일으켰으며, 가뜩이나 위축될 대로 위축된 유교는 사실상 재기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친일유림이 주장한 '황도유학'은 전 시대에 이룩한 높은 수준의 유학사상의 단절을 초래하여 한국유학사상의 발전적 흐름을 끊은 악영향을 남겼다. 그리고 해방 후 친일유림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여파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이 자료집은 학계의 연구에 일정한 자극과 충분한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30) 한말 의병운동에 관한 연구사 정리와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연구에 대해서는 오영섭, 『고종 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참조.

31) 파리장서운동과 김창숙에 대한 연구사 정리에 대해서는 서동일, 「1919년 巴里長書運動의 전개와 역사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 I. 경학원





## 1. 일본국왕 및 고위관료 송축문

### 1) 「즉위대례식헌송문(即位大禮式獻頌文)」(1915)<sup>1)</sup>

1915년 11월 10일은 우리 천황폐하(天皇陛下)께서 보조(寶祚)에 빛나게 임어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는데, 일진(日辰)이 길하고 좋아서 성대한 의식을 순조롭게 마쳤다. 그러니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들이 어찌 경축하는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 본 경학원(經學院)은 직임이 현관(賢關)<sup>2)</sup>을 맡고 있는바, 송축하는 정성이 더욱 간절하다. 이에 공경스레 송축을 바치는 글을 지어서 별도로 한 책을 만들어 백 번 절하고서 바치고자 삼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삼가 생각건대, 직접 거룩한 시대를 만나 성대한 의식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는바, 하늘을 바라보고 성인을 우러르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립니다.

적이 생각건대, 위로 삼황 오제(三皇五帝)<sup>3)</sup>가 문적(文籍)에 실려진 이래로부터 황제의 자리에 등극(登極)하여 여러 신하들의 조회(朝會)를 받을 경우, 아래로 여항(閭巷)에 사는 필부나 바닷가와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뻐 손뼉을 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송축(頌祝)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책(書冊)에 분명하게 실려 있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전성(全盛)하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삼가 지난날의 역사책을 살펴보건대,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아 위구(委裘)<sup>4)</sup>하에 따라 그 우뚝하고 뛰어난 모습을 우리름에 있어서는, 주(周) 나라 소공(召公)<sup>5)</sup>과 같이 거룩하고 어진 분도 근본을 단정히 하고 시초를 바르게 하면서 공경하고 근신하라고 경계시키고 고하였습니다. 또 혹 진저(震邸)<sup>6)</sup>에 있을 때부터 효인(孝仁)과 예의(禮義)로서 천하에 소문이 나 모두들 목을 길게 빼고서 사랑하여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처음에 칙서(勅書)가 선포되기도 전에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풍채(風采)를 바라보기를 생각하고 덕화(德化)를 보기를 생각하였습니다.

- 1) 「즉위대례식헌송문」은 일본 다이쇼천황의 즉위대례식 때 ‘바친’ 송축문으로, 이 중 박제순의 글은 기존에 발간된 사료집Ⅱ 권Ⅳ장에서 한일합병기념 축하시문으로 이미 출간된 바 있다. 이번이 이 책에 전문을 수록하면서, 전체 체제상 다시 한번 포함시켰음을 밝혀둔다.
- 2) 현관(賢關) : 현자(賢者)가 되기 위해 통과하는 관문(關門)이라는 뜻으로, 흔히 성균관(成均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3) 삼황 오제(三皇五帝) : 삼황(三皇)은 고대 중국의 전설상에 나오는 세 황제로, 일반적으로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를 가리키고, 오제(五帝)는 옛날 중국의 상고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다섯 제왕을 가리키는데, 그 설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개 황제(黃帝), 전욱(顓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을 가리킨다.
- 4) 위구(委裘) : 천황이 나이가 어려서 천황의 옷을 입을 수가 없으므로 천황의 자리를 거짓으로 설치한 다음, 죽은 천황이 입던 옷을 천황의 자리에 놓아두고 조회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전하여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는 것을 말한다.
- 5) 소공(召公) : 주(周) 나라 때의 명신(名臣)으로, 선왕(宣王)의 명을 받아 사방의 오랑캐를 평정하였으며, 성왕(成王) 때에는 성왕의 삼촌이자 신하로서 성왕을 보좌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었다.
- 6) 진저(震邸) : 잠저(潛邸)와 같은 말로, 임금의 뒤를 이룰 사람이 임금이 되기 전에 거처하고 있는 집을 말한다.

생각건대 우리 천황폐하(天皇陛下)께서는, 만대(萬代) 동안 한 계통으로 이어온 황가(皇家)의 종통(宗統)으로서 끝이 없이 큰 역복(曆服)<sup>7)</sup>을 이어, 자신을 공손하게 낮추면서 남면(南面)<sup>8)</sup>을 하여 명당(明堂)<sup>9)</sup>에서 다스림을 베푸는 자가 지금까지 네 번이나 한서(寒暑)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에 성스럽고 이에 신명하며 이에 무예롭고 이에 문예로워, 백관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백성들이 모두 생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어짐과 후한 은택은 어느 먼 곳이고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르러 하늘의 위엄이 혁연히 노하여 육사(六師)<sup>10)</sup>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도(靑島)<sup>11)</sup>를 함락시키고 개선가(凱旋歌)를 부르면서 돌아왔는데, 동양(東洋) 전체가 천하에서 높아지게 되었으니, 아름답기도 하고 성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직 양암(諒闇)<sup>12)</sup>으로 인해 거상(居喪)하는 중에 있었던 탓에 아직까지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이르러서 보귀(寶龜)가 길함을 점침에 따라 큰 전례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 구중궁궐이 개방되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사방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였습니다.

무릇 우리 천황폐하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된 자들은 모두 4년 전부터 화육(化育)시켜 주고 생성(生成)시켜 주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는 정성을 어찌 옛날에 공경하고 근신하라고 경계하고 고해 주는 것이나 풍채를 바라보기를 생각하고 덕화를 보기를 생각하는 것이 비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예식은 실로 삼황 오제가 문적에 실려 있는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보기 드물게 경사스러운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어서 축하를 바친 나머지에 간략하게 몇 마디 말을 서술하여 화봉인(華封人)의 축하<sup>13)</sup>하는 마음을 부칩니다.

1915년 11월 10일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중추원 고문 경학원 대제학(大提學) 정사위(正四位) 훈일등(勳一等) 자작(子爵) 신(臣) 박제순(朴齊純)은 지어서 올립니다.

- 
- 7) 역복(曆服) : 역수(曆數)와 오복(五服)으로, 『서경』 주서(周書) 대고(大誥)에 이르기를, “크게 생각건대 나 유충한 사람이 끝이 없이 큰 역복을 이었다.(洪惟我幼冲 嗣無疆大曆服)” 하였다.
- 8) 남면(南面) :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순(舜)은 몸을 공경히 하여 남면(南面)하는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였다.
- 9) 명당(明堂) : 제왕이 정교(政教)를 펴는 궁전으로, 정전(正殿)을 말한다.
- 10) 육사(六師) : 천자가 거느리는 군대를 말한다. 천자는 6군을 거느리고 큰 나라는 3군을 거느리고 작은 나라는 2군을 거느리고, 아주 작은 나라는 1군을 거느린다.
- 11) 청도(靑島) : 중국 산둥반도(山東半島)의 남쪽에 있는 지명으로, 대정(大正) 3년(1914)에 구주(歐洲)의 열강들이 이곳으로 침입해 오자 일본(日本)이 군사를 보내어 싸워 이겨 일본의 차지가 되었다.
- 12) 양암(涼闇) : 임금이 부모의 상을 당하여 정무를 보지 않으면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은(殷) 나라 고종(高宗)이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정무(政務)를 신하들에게 맡기고서 이렇게 지냈다.
- 13) 화봉인(華封人)의 축하 : 장수하고 부귀하며 자녀를 많이 두기를 축원하는 것을 말한다. 화봉인 화지(華地)에 봉해 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요(堯) 임금 당시에 화봉인이 요 임금에게 수(壽)와 부(富)와 다남(多男)의 세 가지로 축하하자, 요 임금이 “수(壽)하면 욕(辱)이 많고, 부(富)하면 일이 많고, 다남(多男)하면 두려움이 많다.” 하면서 사양하였다. 『莊子』 天地.



하늘을 이어 등극한 지 사 년이나 지났거니  
 전례 행함 늦어진 건 사고 있어 그런 거네  
 이 년 동안 양암하여 상복 제도 다 마치고  
 소춘<sup>14)</sup> 때의 길한 달에 크게 예식 베풀었네  
 전에 이미 학가<sup>15)</sup> 적에 어진 소문 퍼졌는데  
 이제 용루<sup>16)</sup> 임어하여 보위 전해 받았다네  
 신성한 분 서로 이어 황가 법도 중해졌고  
 정사 계책 안 바꾸어 효성의 맘 온전했네  
 폐하 생각 당우<sup>17)</sup> 치적 이를 마음 도탑거니  
 조정 계책 어느 누가 관갈<sup>18)</sup> 같이 안 어질랴  
 병갑에다 배와 수레 동아에서 으뜸이라  
 가려주고 덮어주어 조선 땅에 임하였네  
 신하들은 아뢰어서 중요한 일 인준 받고  
 예식 맡은 관원들은 분주하게 회동하네  
 경필<sup>19)</sup>을 막 마치이자 바로 쌍봉 내려오고  
 기마 군사 호위 속에 육룡<sup>20)</sup> 수레 나아가네  
 해를 가린 많은 깃발 여염집에 내 걸렸고  
 구름 같은 수레와 말 도로 가득 메웠다네  
 폐하께서 동경 가니 뭘 멀음이 있겠는가  
 백성들은 서둘러 보며 모두들 다 기뻐하네  
 위의 있는 관면<sup>21)</sup>들은 해 어기는 일이 없고  
 장대하게 펼친 장막 하늘 온통 가리웠네  
 넓고 넓은 대로에선 화포 소리 일어나고

繼天立極四經年  
 典禮追行事故緣  
 兩載諒陰常制畢  
 小春吉月緝儀宣  
 昔從鶴駕仁聲遠  
 今御龍樓寶位傳  
 神聖相承家法重  
 政謨不改孝心全  
 宸衷自篤唐虞治  
 廟算誰非管葛賢  
 兵甲舟車冠東亞  
 旃幟燾覆位朝鮮  
 重要認准臣隣奏  
 奔走會同禮式員  
 警蹕纔移雙鳳下  
 騎軍擁護六龍前  
 旌旗蔽日閭閻揭  
 車馬如雲道路填  
 帝出東京何遠有  
 民瞻西闕舉欣然  
 濟躋冠冕無違日  
 壯大幄唯可掩天  
 關路通衢花砲起

- 14) 소춘(小春) : 음력으로 시월이나 십일월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11월을 가리킨다.
- 15) 학가(鶴駕) : 태자(太子)가 타는 수레로, 전하여 태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열선전(列仙傳)』 왕자교(王子喬)에 이르기를, “왕자교는 바로 주(周) 나라 영왕(靈王)의 태자 진(晉)인데, 일찍이 흰 학을 타고 가 후씨산(緱氏山)에 머물렀다.” 하였다. 이를 인해서 후대에는 태자의 거가(車駕)를 학가라고 하게 되었다.
- 16) 용루(龍樓) : 궁중의 누각으로, 전하여 대궐을 가리킨다.
- 17) 당우(唐虞) : 제요(帝堯) 도당씨(陶唐氏)와 제순(帝舜) 유우씨(有虞氏)의 합칭으로, 요순(堯舜) 시대를 가리킨다.
- 18) 관갈(管葛) : 전국시대 제(齊) 나라의 명상(名相)으로 환공(桓公)을 도와 패업(霸業)을 이룬 관중(管仲)과 삼국 시대 촉(蜀)나라의 명상인 제갈량(諸葛亮)을 가리킨다.
- 19) 경필(警蹕) : 임금이 출입할 때 도중에 행인(行人)을 오가지 못하도록 경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20) 육룡(六龍) : 임금이 타는 수레를 말한다. 옛날에 임금이 타는 수레는 말 여섯 마리가 끌었으므로, 말을 용(龍)이라고 칭하여 육룡이라고 하는 것이다.
- 21) 관면(冠冕) : 관은 머리에 쓰는 모자의 총칭이고, 면은 대부(大夫) 이상이 쓰는 예관(禮冠)인데, 흔히 높은 관직의 조정 신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천 대문의 만 집에선 전등 불빛 연이었네  
 금빛 글씨 옥첩으로 훈공 적어 송축하고  
 비단 끈에 은 도장은 기념하여 걸려있네  
 무기 낀고 문치 닦음 삼대 시대 같거니와<sup>22)</sup>  
 승유하며 도 높여서 오륜 행실 앞세우네  
 궁중에서 잔치 열어 빠짐 없이 다 부르매  
 전 위의 꽃 꾀은 사람 천 명도 더 넘는구나  
 좋은 계책 사직 안정 되는 데서 말미암아  
 옛 신하들 임천에서 늙어가지 않게 했네  
 구중 궁궐 봄빛 깊은 속에 술잔 주고받고  
 만세 소리 드높아라 못 사람들 축하하네  
 야인들은 지닌 의용 마치 맹호 같거니와  
 문졸들은 승평 누려 쫓그린 채 조는구나  
 빼난 선비 다 불러와 모두 등용하였으며  
 황제 위엄 멀리 떨쳐 문득 개선하는구나  
 반열 나가 성대한 일 바라다 볼 길 없기에  
 장수하길 축원하는 시편 지어 바치누나

千門萬戶電燈連  
 金泥玉牒勳功頌  
 錦組銀章紀念懸  
 偃武修文三代共  
 崇儒重道五倫先  
 宮中賜饗遺無一  
 殿上簪花計以千  
 良策專由安社稷  
 舊臣不使老林泉  
 九重春滿旅酬酌  
 萬歲聲高群賀筵  
 義勇野人猶虎猛  
 昇平門卒作羊眠  
 多招彥士如茅拔  
 遠震皇威輒凱旋  
 無路參班瞻盛舉  
 祝君難老獻詩篇

1915년 11월 10일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경학원 부제학 정사위(正四位) 자작(子爵) 신 이용직(李容植)은 지어서 올립니다.

◇

삼가 생각건대, 중정(中正)한 도(道)를 세워 일정한 법도를 세움에 가르침은 크게 드러나고 공렬은 크게 계승하였으며,<sup>23)</sup> 천지(天地)의 원기(元氣)를 근본으로 삼고 정도에 입각하여 다스림을 펴매 그 자에 나아가 그에 따른 예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교화(教化)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미치어 가 선조들의 옛 법을 명하여서 새롭게 하였습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천황폐하께서는, 큰 보배를 물려받아 하늘의 밝은 명을 이었으며, 거둬하여 밝히어서 교령(敎令)을 엄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한 분을 이어서 만대 동안 한 계통으로 전하는 데에 응하였고, 비록 아름답지마는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루에도 만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펴고 굽히면서 늦추고 당기는 방도를 배움에 위엄은 먼 나라까지 복종시켰고, 접역(黻

22) 무기……같거니와 : 주(周) 나라 무왕이 상(尙) 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와 풍(豐) 땅에 이른 다음 무(武)를 쉬고 문(文)을 닦기 위해 군마(軍馬)를 화산(華山)의 남쪽으로 돌려보내고 소를 도림(桃林)의 들판에 방목하였다. 『書經』 武成.

23) 가르침은……계승하였으며 : 주(周) 나라 목왕(穆王)이 군아(君牙)를 대사도(大司徒)로 삼고서 준 고명(誥命)에 이르기를, “아, 크게 드러났도다, 문왕의 가르침이여. 또한 크게 계승하였도다, 무왕의 공렬이여.(嗚呼 丕顯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 하였다.

域<sup>24</sup>)에서 품어주고 감싸주는 은혜를 펴며 어짙은 새로 붙은 나라에 흡족하였습니다.

이에 구오(九五)의 상서로운 운(運)<sup>25</sup>에 크게 응하여, 삼천 가지의 성대한 의식(儀式)<sup>26</sup>을 모두 거행하였습니다. 명당(明堂)<sup>27</sup>에서 궁궐의 문을 열으니 왼쪽의 문짝과 오른쪽의 문짝이었으며, 하국(下國)에서 옥백(玉帛)을 바치며 남금(南金)<sup>28</sup>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열 줄의 교서(敎書)<sup>29</sup>를 내려 멀리 수레 바퀴와 문자를 같이 하는 나라<sup>30</sup>에까지 선포하였거니, 사방에서 모두들 우러러보며 바로 해와 달이 내려다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이 나고 이가 난 무리들은 모두가 춤을 추고 발을 구르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정성이 간절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재주는 사장(詞匠)의 자리를 맡기에 부족한데, 직임은 현관(賢關)에 매여 있습니다. 은하수에 뗏목을 띄워 와서<sup>31</sup> 외람되이 송호(嵩呼)를 삼창(三唱)하는 반열(班列)<sup>32</sup>에 끼었음에, 옥함(玉函)에서 붓을 꺼내들고 황하(黃河)가 한 번 맑아지기를 축원하는 말<sup>33</sup>을 바칩니다.

1915년 11월 10일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贊議) 경학원 부제학(副提學) 정오위(正五位) 신 박제빈(朴齊斌)은 지어서 올립니다.

◇

삼가 생각건대, 황가(皇家)가 한 계통으로 서로 전하며 이에 문덕(文德)을 크게 펼치었고, 성인께서 큰 보배로 삼는 것을 위(位)라고 하는바<sup>34</sup> 이에 예의(禮儀)를 잘 닦았습니다. 그러니 임어(臨御)하는 날에 진하(進賀)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공경히 생각건대 천황폐하께서는, 자태는 상성(上聖)들보다 빼어나고, 덕(德)은 동궁(東宮)에서 흘러

- 
- 24) 접역(鰈域) : 가자미가 생산되는 지역이란 뜻으로, 우리나라의 별칭(別稱)이다. 『이아 의소(爾雅義疏)』에 이르기를, “동방에 비목어(比木魚)가 있는데, 두 마리가 나란히 가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 못한다.” 하였다.
- 25) 구오(九五)의……운(運) : 『주역』 건괘(乾卦) 구오효(九五爻)의 효사(爻辭)에 “구오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음에 대인을 봄이 이롭다.”고 한 데에서 나온 말로, 천자의 자리를 뜻한다.
- 26) 삼천 가지의……의식(儀式) : 즉위하는 데 따른 많은 의식절차를 말한다. 『예기』 “경례(經禮)가 삼백 가지이고 곡례(曲禮)가 삼천 가지인데, 그 근본을 따져보면 성경 한 가지일 뿐이다.(經禮三百 曲禮三千 其致一也)” 하였다.
- 27) 명당(明堂) : 제왕이 정교(政敎)를 펴는 궁전으로, 정전(正殿)을 말한다.
- 28) 남금(南金) : 남방에서 생산되는 질이 아주 좋은 금(金)으로, 흔히 아주 진귀한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 29) 열 줄의 교서(敎書) : 황제가 내리는 칙서(勅書)를 가리킨다.
- 30) 수레바퀴와……나라 : 수레는 같은 크기의 바퀴를 달고 문자는 같은 모양의 글자를 쓴다는 뜻으로, 한 문화권으로 통일되는 것을 뜻한다.
- 31) 은하수에……와서 : 사신(使臣)이 되었다는 뜻으로, 즉위식을 축하하러 사신이 되어 왔음을 뜻한다. 옛날에 한(漢) 나라 무제(武帝)가 장건(張騫)으로 하여금 대하(大夏)에 사신으로 가서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게 하였는데, 장건이 뗏목을 타고 가다가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났다고 하는 데에서 유래된 말이다.
- 32) 송호(嵩呼)를……반열(班列) : 만세 삼창을 부르는 반열을 말한다. 송호는 천자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옛날에 한(漢) 나라 무제(武帝)가 친히 송산(嵩山) 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민(臣民)이 만세 삼창을 한 데에서 유래된 말이다.
- 33) 황하(黃河)가……말 : 성인이 태어나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는 말이다. 황하의 물은 본디 탁하여서 맑을 때가 없으나, 1천 년마다 한 차례씩 맑아지는데, 이는 성인(聖人)이 태어나 태평성대를 이룰 조짐이라고 한다.
- 34) 성인(聖人)께서……하는바 : 『주역(周易)』 계사(繫辭)에 이르기를,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고 하고, 성인의 큰 보배를 위(位)라고 한다.(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하였다.

전해졌습니다. 크게 드러나고 크게 이으매 사해(四海) 사람들이 성효(聖孝)를 표준으로 삼았고, 잘 계승하고 잘 조술하매 동양(東洋)이 그에 힘입어 평화를 누리었습니다. 이에 길한 달을 맞이하여 면복(冕服)<sup>35)</sup>을 새로 입게 되었는데, 이에 좋은 날짜를 가려 성대한 전례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은(殷) 나라 고종(高宗)의 양암(諫陰)<sup>36)</sup>을 본받아서 삼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였고, 주(周) 나라 임금의 향명(嚮明)<sup>37)</sup>을 뒤쫓아서 사방에서 와서 축하하는 다스림을 베푸시었습니다. 정사를 펼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北極星)이 북쪽에 있는 것과 같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공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남면(南面)을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종적은 현관(賢關)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천궐(天闕)을 향해 가 있습니다. 매번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기우는 정성<sup>38)</sup>을 품고 있으면서도 비록 조정 반열에 나아가 끼일 수는 없으나, 멀리 봉래(蓬萊)의 오색 구름<sup>39)</sup>을 바라보매 스스로 축원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15년 11월 10일에 조선총독부 경학원 사성(司成) 신(臣) 이인직(李人植)은 지어서 올립니다.

◇

저기 멀리 서경 쪽을 바라다보니	瞻彼西京
만년 동안 전해져 온 황도로구나	萬歲皇都
나라 처음 세워 통서 전하였거니	翊業垂統
호옥에다 당우 같은 분들이었네 <sup>40)</sup>	昊頊唐虞
이에 지금 이르러선 아름답거니	式至今休
밝게 빛날 운세 다시 열리었다네	熙運再啓
성인께서 황제 자리 나아가시매	聖人卽阼
성대하고 성대한 예 거행했다네	載行禋禮
이에 우리 다시금 또 중흥되어서	嗣我中興
하락 <sup>41)</sup> 에다 그 융성함 비길 만하네	河洛比隆

35) 면복(冕服) : 황제가 종묘나 사직에 제사지낼 때와 정조(正朝), 동지(冬至), 수책(受冊), 납비(納妃) 등의 의식을 올릴 때 착용하는 대례복(大禮服)으로, 면류관(冕旒冠)과 곤복(袞服)으로 차림을 한다.

36) 양암(諫陰) : 황제가 상중(喪中)에 있는 것을 뜻한다.

37) 향명(嚮明) : 하늘이 장차 밝아짐을 뜻하는 말로, 『주역』 설괘전(說卦傳)에 이르기를, “성인은 남면을 하여 천하를 다스리거니와, 밝아지는 곳을 향해 다스린다.(聖人 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하였다.

38) 해바라기가……정성 : 임금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衷情)을 말한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 피므로, 이를 인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정성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는데,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진사왕식전(陳思王植傳)에 이르기를, “해바라기가 꽃잎을 해를 향하여 기울이는 것과 같이, 태양이 비록 해바라기를 위하여 빛을 돌리지는 않으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은 정성인 것입니다.” 하였다.

39) 봉래(蓬萊)의 오색 구름 : 일본의 황궐(皇闕)이 있는 곳을 뜻한다. 봉래는 동해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는 일본을 뜻하는 말로 쓰이었다. 또 임금이 머물고 있는 대궐의 위에는 항상 오색 구름이 떠 있다고 한다.

40) 호옥(昊頊)에다……분들이었네 : 호옥(昊頊)은 오제(五帝)가운데 한 사람인 소호(少昊)와 전옥(顓頊)을 가리키고, 당우(唐虞)는 역시 오제 가운데 한 사람인 제요(堯堯) 도당씨(陶唐氏)와 제순(帝舜) 유우씨(有虞氏)를 가리킨다.

지극한 그 다스림에 다 속했거니  
 전대보다 이루는 공 더 훌륭하리  
 청도 쳐서 정벌을 한 전쟁에서는<sup>42)</sup>  
 의 성했고 인도 또한 지극하였네  
 덕과 업적 천고에도 드문 것이니  
 풍교 이제 온 사방에 퍼질 것이리  
 전각 주위 송호<sup>43)</sup> 소리 울려 퍼지면  
 백관들이 모두 서로 화답을 하리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폐백을 들고  
 모두들 다 바다 동쪽 향해 가누나  
 화육하여 주는 은혜 고루 입은 건  
 바로 우리 접역<sup>44)</sup> 땅의 창생들이네  
 이에 아주 짧은 시를 공손히 지어  
 하찮은 신 정성 여기 부치옵니다

咸囿至治  
 將多前功  
 青島之役  
 義盛仁至  
 德業曠千  
 風教訖四  
 繞殿嵩呼  
 百工相和  
 梯航玉帛  
 咸趨海左  
 均蒙化育  
 鯨域蒼生  
 恭述短篇  
 庶寓微誠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사성(司成) 신 박치상(朴稚祥)은 지어서 올립니다.

◇

서경 땅에 좋은 기운 울울하게 서렸거니  
 서른 여섯 봉에다가 두 줄기의 강물이네  
 자신궁<sup>45)</sup>의 궁궐들이 하늘 속에 솟았거니  
 열성들의 지난 자취 구름처럼 스쳐갔네  
 지금까지 스무 번의 육십 갑자 돌았거니  
 한 계통이 만대 이어 어진 풍교 흠족하네  
 성인께서 즉위하여 성대한 예 올렸거니  
 의장대의 검패<sup>46)</sup> 소리 어좌 주위 에워싸네  
 선제께서 용비하여 동쪽에다 솔 정함<sup>47)</sup>에

西京佳氣鬱嵯峨  
 三十六峰二條河  
 紫宸宮殿天中起  
 列聖往蹟虛雲過  
 迄今廿週六十甲  
 萬代一系仁風洽  
 聖人陞卽備綱儀  
 衛仗劍珮環寶榻  
 先帝龍飛東定鼎

- 41) 하락(河洛) :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가리킨다. 하도는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에서 용마(龍馬)가 등에 지고 나왔다고 하는 그림으로 『주역』 팔괘의 근원이 된 것이고, 낙서는 하우씨(夏禹氏)가 치수(治水)할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귀(神龜)의 등에 있었다고 하는 글로서 『서경』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근원이 된 것이다.
- 42) 청도(靑島)……전쟁에서는 : 대정(大正) 3년에 중국의 청도에서 있었던 전쟁을 말한다.
- 43) 송호(嵩呼) : 황제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 44) 접역(鯨域) :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 45) 자신궁(紫宸宮) : 황제가 조정 백관과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는 정전(正殿)의 이름으로, 전하여 황제가 사는 궁궐을 말한다.
- 46) 검패(劍珮) : 의장대가 차고 있는 보검(寶劍)과 패옥(佩玉)을 뜻한다. 검패(劍珮)라고도 한다.
- 47) 선제(先帝)께서……정함에 : 수도(首都)를 동쪽으로 옮겼다는 곳이다. 선제는 명치(明治)천황을 가리키며, 용

진저에 덕 흘러들어 모두 목을 빼고 봤네  
 끊임없을 사복<sup>48)</sup> 이어 사 년여가 되었으니  
 삼황 오제 같은 정치 어느 누가 나란하라  
 의로운 기 붉은 해가 물 건너에 보이거니  
 청주 다시 탈환하여 적현에다 붙이었네<sup>49)</sup>  
 바다 파도 굽이치며 동해 향해 몰려오고  
 파진악의 노래 소리 음지연서 퍼지누나<sup>50)</sup>  
 못 관원들 나아가매 우레 소리 전 갓싸고  
 옥백 잡은 사신들은 모두 동쪽 향해 가네  
 북두 국자 술을 뜨고 남산수를 축원하니<sup>51)</sup>  
 팔방으로 난 성문을 활짝 열어 제치었네  
 근역<sup>52)</sup> 땅의 창생 모두 새 교화를 향하기에  
 은하수에 뗏목 띄워 축하하는 맘 올리네  
 노산 지은 우위우로 작은 정성 바치면서<sup>53)</sup>  
 경운가<sup>54)</sup>로 백관들이 화답한 데 비기누나

震氏隳德齊延頸  
 無疆嗣服四載餘  
 三五休治孰比並  
 義旗紅旭隔水見  
 奪還靑洲付赤縣  
 海波萬折湊東瀛  
 破陣樂歌飲至宴  
 百寮踰趨繞殿雷  
 玉帛梯航盡東來  
 剡將北斗祝南山  
 闔門八闕洞然開  
 權域蒼生新嚮化  
 星漢浮槎騰鶩賀  
 魯山于蕩效寸誠  
 敢擬卿雲百工和

비(龍飛)는 새로 제왕의 위에 오른 것을 말하며, 술을 정하였다는 것은 수도를 새로 정한 것을 뜻한다.

- 48) 사복(嗣服) : 왕위를 계승하여 보위(寶位)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  
 49) 청주(靑洲)……붙이었네 : 청주는 청도(靑島)를 가리키고, 적현(赤縣)은 중국을 뜻한다. 『사기(史記)』 맹자전(孟子傳)에 “추연(鄒衍)이 중국을 일러 적현 신주(赤縣神州)라 했다.” 하였다.  
 50) 파진악(破陣樂)의……퍼지누나 : 파진악은 당 태종(唐太宗) 때 만들어진 악무(樂舞)인 칠덕무(七德舞)를 말한다. 본래의 이름은 진왕파진악(秦王破陣樂)인데 태종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 유무주(劉武周)를 쳐부순 공을 기리기 위하여 군중(軍中)에서 만든 악곡(樂曲)이다. 음지연(飲至宴)은 정벌에서 돌아와 종묘(宗廟)에 승리를 고하고서 베푸는 잔치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5년조에 이르기를, “음지(飲至)는 종묘에 이른 것을 고하고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告至于廟而飲酒)” 하였다.  
 51) 북두(北斗)……축원하니 : 술잔을 올리면서 장수(長壽)하기를 축원한다는 뜻이다. 북두칠성(北斗七星)의 모양이 마치 술을 뜨는 국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흔히 국자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남산수(南山壽)는 남산처럼 오래도록 장수(長壽)하라는 것으로, 『시경』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이르기를, “달의 초승달과 같으며, 해의 떠오름과 같으며, 남산의 장수함과 같아서, 이지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송백의 무성함과 같아 그대를 계승하지 않음이 없도다.(如月之恆 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 하였다.  
 52) 근역(權域) : 우리나라의 별칭이다.  
 53) 노산(魯山)……바치면서 : 노산은 당(唐) 나라 때 노산령(魯山令)을 지내면서 많은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원덕수(元德秀)를 가리키며, 우위우(于蕩于)는 그가 지은 노래 이름이다. 당 현종(唐玄宗)이 일찍이 동도(東都)에 있을 때 오봉루(五鳳樓) 아래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면서 인근에 사는 수령들로 하여금 각자 음악(音樂)을 가지고 와 올리게 하였다. 이에 다른 수령들은 모두 많은 인원의 악공(樂工)들에게 비단 옷을 입혀 가지고 데리고 와 화려한 음악을 올리었는데, 원덕수는 악공 몇 명을 데리고 와 자신이 지은 우위우라는 노래를 올렸다. 그러자 현종이 감탄하면서 “이 노래는 현인(賢人)의 말이다.” 하였으며, 이어 재상에게 명해 화려한 음악을 올린 하내 태수(河內太守)를 파직하게 하였으므로 원덕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 『新唐書』 卓行列傳 元德秀.  
 54) 경운가(卿雲歌) : 순(舜) 임금이 우(禹)에게 선위(禪位)하려고 할 때 백관들과 함께 불렀다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구름이 찬란함이며, 옆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도다. 해와 달이 빛나고 빛남이여, 아침이 가면 다시 아침이 오는도다.(卿雲爛兮 紉纁纁兮 日月光華 旦復旦兮)” 하였다.



1915년 11월 10일에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 경학원 강사(講士) 정칠위(正七位) 신(臣) 여규형(呂圭亨)은 지어서 올립니다.



1915년 11월 10일은 바로 사황제 폐하(嗣皇帝陛下)께서 즉위하는 대례식(大禮式)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황제폐하께서는, 거룩하고 신명하며 문예롭고 무예로우며, 총명하고 밝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리하여 황하(黃河)가 천 년에 한 번 맑아지는 운<sup>55)</sup>에 응해, 구오(九五)의 보위(寶位)<sup>56)</sup>에 바르게 임하시었습니다. 그 동안에 은종(殷宗)이 삼 년 동안 양암한 것<sup>57)</sup>을 이미 마쳤으니, 우제(虞帝)가 상일(上日)에 한 것<sup>58)</sup>을 뒤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뚝한 공과 성대한 덕은 삼황(三皇)<sup>59)</sup>을 사황(四皇)이 되게 할 수가 있고, 굉장한 업적과 문채로운 문장은 이의(二儀)<sup>60)</sup>가 삼의(三儀)로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道)는 공검(恭儉)함을 체 받았으며, 마음은 성현(聖賢)들에게서 노닐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통(大統)을 잘 이어서 여지(輿地)에서 못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였고, 홍운(鴻運)<sup>61)</sup>을 밝게 조술(祖述)하여 학궁(學宮)에서 성인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순박하였던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을 모두 회복시키었고, 말세 세상의 누추한 풍습을 완전히 다 씻어내었는바, 찬란하게 아주 잘 갖추어졌으며, 아름답고도 또한 성대하기도 합니다.

삼가 일찍이 보건대, 주(周) 나라가 쇠하여 도(道)가 폐해진 이후로 급급하게 사도(斯道)로써 세교(世敎)를 유지되게 한 것이 오늘날과 같이 성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백 년 만에 다시 부흥시키기를 억조 창생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외람스럽게도 천박한 견해를 가진 일개 서생으로서 현재 강원(講院)의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태학(太學)의 현관(賢關)에서는 옥을 쪼는 영역(領域)에 나아가지를 못하였고, 원관(圓冠)과 구리(句履)<sup>62)</sup>를 착용함에 실로 선비들의 반열에 끼어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승평(昇平)의 시대를 즐겁게 목도하였는바, 이는 천 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것입니다. 이에 들은 바를 높이 받들고 아는 바를 직접 실천해 교육하는 데에서 저버리지 않을 것을 구하였고, 그 의(諷)를 바로 하고 그 도(道)를 밝히어

55) 황하(黃河)가……운 : 성인이 나와 태평성대를 이룰 운을 말한다.

56) 구오(九五)의 보위(寶位) : 황제의 자리에 즉위한 것을 말한다.

57) 은종(殷宗)이……것 : 은 나라 고종(高宗)이 삼 년 동안 상제(喪制)를 지킨 것을 말한다. 주) 참조.

58) 우제(虞帝)가……것 : 순(舜) 임금이 요(堯) 임금의 제위(帝位)를 이어받은 것을 말한다. 우제는 순 임금을 가리키고 상일(上日)은 정월초하루를 가리킨다. 『서경』 순전(舜典)에 이르기를, “정월초하루에 종(終)을 문조에서 받으셨다.(正月上日 受終于文祖)”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일(上日)은 초하루이다. 수종(受終)은 요(堯) 임금이 제위(帝位)의 일을 마쳐서 순 임금이 받은 것이다. 문조(文祖)는 요 임금의 조상의 사당이다.” 하였다.

59) 삼황(三皇) : 고대 중국의 전설상에 나오는 세 황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를 가리키며, 일설(一說)에는 포희씨(包犧氏), 여왜씨(女媧氏), 신농씨(神農氏). 또 일설에는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인황씨(人皇氏)를 말하기도 한다.

60) 이의(二儀) : 천지(天地)를 가리키기도 하고 일월(日月)을 가리키기도 한다.

61) 홍운(鴻運) : 홍운(洪運)과 같은 말로 하늘의 뜻, 천명(天命)을 의미한다.

62) 원관(圓冠)과 구리(句履) : 원관은 둥그런 모양새의 갓이고, 구리는 신발의 끝 부분에 장식이 달린 신발인데, 모두 유생(儒生)들이 착용하는 것이다.

서 정치 교화에 보답하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축하면서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겠기에, 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시를 올립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에서 뜨는 해는	東方之日
새벽녘에 빛 비추네	載昕其陽
즐거운 저 군자께선	樂只君子
만수무강 누리소서	萬壽無疆 흥(興)이다

동방에서 뜨는 해는	東方之日
때맞추어 하늘 도네	載巖其時
즐거운 저 군자께선	樂只君子
만수무강 누리소서	萬壽無期 흥이다

동방에서 뜨는 해는	東方之日
저녁나절 빛 비추네	載暉其景
즐거운 저 군자께선	樂只君子
만수무강 누리소서	萬壽無競 흥이다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 황돈수(黃敦秀)는 지어서 올립니다.

◇

크나큰 기업(基業)을 열어 제도를 정하고 다스림을 이룩하며 삼대(三代) 때부터 여기에서 성하였으며, 크나큰 명에 응해 신성한 분들이 서로 이오매 만대(萬代)토록 태평함을 열었습니다. 이에 해가 바야흐로 중천에 떠 있는 것과 같아서 하늘의 아래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천황폐하께서는, 용처럼 날아올라 크나큰 운에 응하여, 후손들을 위해 남겨주신 계책을 잘 이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백대토록 전해온 종황(琮璜)<sup>63</sup>이 돌아갈 곳이 있으며 슬기로운 자질이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었고, 사해(四海)에서 부르는 구가(謳歌) 소리가 모두 속하매 아름다운 소문이 나라 안에 일찌감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크나큰 호칭을 높이 게양하는 것은 참으로 큰 덕이 있는 자가 반드시 얻는 것입니다. 이에 아름답고 흡족한 다스림을 넓히었고, 이에 유정유일(惟精惟一)<sup>64</sup>의 전함을 드리웠습니다.

건곤(乾坤)이 더욱 높아지매 천년 만에 한 번 맑아지는 운이 이르는 데에 크게 응하였으며, 일월(日

63) 종황(琮璜) : 종(琮)과 황(璜)으로, 모두 묘당(廟堂)에 있는 옥으로 만든 그릇이다.

64) 유정유일(惟精惟一) : 순(舜) 임금의 우(禹) 임금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심법(心法)으로,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이르기를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만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하였다.

月)이 서로 이어서 비춤에 억만년토록 영원할 아름다움을 모두 송축하고 있습니다. 문왕(文王)의 덕스러움과 순수함은 양양하게 많은 복을 받았으며, 대요(大堯)의 신명하고 거룩함은 탕탕하여 무어라 이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름답게도 크게 드러나고 크게 이어받음에 이제 명철함을 명하고 길함을 명하였습니다.

삼가 교화(教化)의 다스림이 날로 새로워지고 크나큰 복이 시냇물처럼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두터움을 어찌 그림으로 그려서 능히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달은 둥글어지고 해는 떠오르니 오직 복을 받음이 끝이 없기만을 송축 드립니다.<sup>65)</sup>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臣) 한창우(韓昌愚)는 지어서 올립니다.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듦에 한 성(姓)의 통서(統緒)를 크게 이었고, 그 이름을 얻고 그 복을 얻으며 만민들이 구가(謳歌)하는 소리를 시원스레 들었습니다. 이에 하루 동안 예를 행하며, 사방에서 바람처럼 동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천황 폐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다스려지는 도가 있는 임금이십니다. 이에 문예롭고 무예로우며 이에 거룩하고 신령하여 마침 삼천 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운세를 당하였고, 너로 하여금 창성하게 하며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며 참으로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임자년(1912)에 보위(寶位)에 처음으로 등극하시어 명(命)이 구주(九州)와 사해(四海)에 온전히 부합하였고, 을묘년(1915)에 이르러서 성대한 의식을 크게 거행하여 공이 실로 오제(五帝)와 삼황(三皇)을 겸하였습니다. 방록(邦籙)은 비록 옛 것이지만 새롭게 되었고, 덕업(德業)은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까지 미쳤습니다.

대정(大正)의 보력(寶曆)을 특별히 계양하여 팔연(八埏)<sup>66)</sup>에 나라를 빛내었고, 신무(神武)<sup>67)</sup>의 정통(正統)을 빛나게 이어서 만대에다 천명(天命)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미나리를 바치고자 하는 소원<sup>68)</sup>에서 다함께 언덕처럼 유구하기를 축원 드리는 것이며, 이 때문에 온 천하 사람들이 폐백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강한(江漢)이 조종(祖宗)하는 데<sup>69)</sup>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축하하는 날을 당하여 더욱더 호배(虎拜)<sup>70)</sup>를 올리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남극성(南極星)<sup>71)</sup>

65) 달은……드립니다 : 『시경』 소아(小雅) 천보에 나오는 시를 인용한 것으로, 흥성하여 발전하기를 축원하는 말이다.

66) 팔연(八埏) : 땅의 팔방(八方)의 끝으로, 천하(天下)를 가리킨다.

67) 신무(神武) : 제1대의 일본 천황(天皇)을 가리킨다.

68) 미나리를……소원 : 보잘 것 없는 것이나마 바치고자 하는 소원으로, 흔히윗사람에게 물품이나 말을 올릴 때 겸사(謙辭)로 쓰는 말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나리를 먹어보고 맛있다고 여겨 부자에게 이를 바쳤는데, 부자가 먹어보고는 맛이 쓰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몹시 무안해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列子』 楊朱.

69) 강한(江漢)이……데 : 중국의 양자강(揚子江)이나 한수(漢水) 등의 모든 물이 결국은 동쪽에 있는 바다로 향하여 들어간다는 데에서 온 말로, 모든 속국(屬國)들이 대국(大國)을 우러러 섬기는 것을 뜻한다.

70) 호배(虎拜) : 신하가 황제를 배알하면서 절하는 것을 말한다. 호(虎)는 주(周) 나라 선왕(宣王) 때의 신하인 소목공(召穆公)의 이름이다.

71) 남극성(南極星) :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별로, 노인성(老人星), 또는 수성(壽星)이라고도 한다.

의 상서로운 빛이 빛나매 온 세상에서 축수(祝壽)를 올리고, 동궁(東宮)의 효로써 다스림이 더욱 도타워  
서 백료(百僚)들에게 곡연(曲宴)을 베풀었습니다.

삼가 다스림의 교화가 날로 융성해져서 크나큰 복이 시냇물처럼 이르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가 왕토  
(王土)가 아님이 없으며 억조창생들의 정성에 실로 잘 들어맞으며, 백성들 중 현명한 자들이 모두 황제  
의 신하이매 황하가 일천 년 만에 한 번 맑아지는 운세가 있기를 모두들 송축 드립니다.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臣) 성낙현(成樂賢)은 지어서 올립니다.

◇

천황께서 즉위하여 자신궁에 나아가매	天皇即位紫宸宮
조야에선 환성 속에 태평 오길 송축하네	朝野歡聲頌泰通
통일을 한 신위 보니 군국 형세 장대하고	一統神威軍國壯
만년 전한 보록 <sup>72)</sup> 보니 황제 계획 웅대하네	萬年寶籙帝圖雄
조정 신하 패옥 차고 해를 향해 달려가고	廷臣劍佩趨紅旭
연로에는 생가 소리 울려 창공 퍼지누나	輦路笙歌出碧穹
이로부터 대양에선 함께 교화 입을 거로	從此大洋同被化
거룩하고 밝음 본디 동쪽 서쪽 한계 없네	聖明原不限西東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 김동진(金東振)은 지어서 올립니다.

◇

황천(皇天)이 중국(中國)의 백성들을 부탁함에 오직 덕을 씀에 부지런히 하라고 하였고,<sup>73)</sup> 성인(聖  
人)이 대보(大寶)의 자리에 거함에 사람으로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sup>74)</sup> 이에 삼무(三無)<sup>75)</sup>를 받들어서  
문득 구유(九有)<sup>76)</sup>를 어루만지게 하였습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천황폐하께서는, 청궁(靑宮)<sup>77)</sup>에서 상서로움을 기르다가, 황옥(黃屋)<sup>78)</sup>에서 존귀하

72) 보록(寶籙) : 하늘에서 봉황(鳳凰)이 날아와 황제(黃帝)와 제요(帝堯)에게 주었다고 하는 도록(圖籙)으로, 혼  
히 천명(天命)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73) 황천(皇天)이……하였고 : 『서경』 주서(周書) 재재(梓材)에 이르기를, “황천이 이미 중국의 백성과 그 강토를  
성왕에게 맡겨 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밝은 덕을 쓰시어 혼미한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여 천명을  
받으신 선왕을 기쁘게 하소서.(皇天 既付中國民 越厥疆土于先王 肆王 惟德 用 和 懌 先後 迷民 用 懌 先王 受命)”  
하였다.

74) 성인(聖人)이……하였습니다 : 『주역』 계사(繫辭)에 이르기를,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고 하고, 성인의 큰  
보배를 위(位)라고 한다. 무엇으로써 지위를 지키는가? 사람이며, 무엇으로써 사람을 모으는가? 재물이다.  
(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 曰仁 何以聚人 曰財)” 하였다.

75) 삼무(三無) : 소리가 없는 음악과 형체가 없는 예(禮)와 복(服)이 없는 상(喪)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이르기  
를, “소리가 없는 음악, 형체가 없는 예, 복이 없는 상, 이것을 일러 삼무(三無)라고 한다.” 하였다. 『禮記』 孔  
子閑居.

76) 구유(九有) : 구주(九州)와 같은 말로, 천하를 말한다. 『시경』 상송(商頌) 현조(玄鳥)에 이르기를, “바야흐로  
그 임금에게 명하여 문득 구유를 차지하게 하였다.(方命厥后 奄有九有)” 하였다.

77) 청궁(靑宮) : 태자궁(太子宮)으로, 동궁(東宮)과 같은 말이다. 오행설(五行說)에 있어서 청색은 사계절로는 봄

게 임하셨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른 사람들이라서 가르침이 이미 자선(資善)<sup>79)</sup>에서 부지런하였고, 어질고 효성스러움이 천하에 소문이 나서 자리가 승화(承華)<sup>80)</sup>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이에 황하(黃河)가 한 번 맑아지는 것을 송축하여 출진(出震)의 운세<sup>81)</sup>에 응하였고, 밝음을 이어서 사방을 비춤에 이미 작리(作離)의 아름다움<sup>82)</sup>이 징험 되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대한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궤석(几席)에 기대어서 내린 밝은 명<sup>83)</sup>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늘에서 줄 만하여 주었으며 한(漢) 나라 문제(文帝)의 대횡(大橫)<sup>84)</sup>에 부합하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매 주(周) 나라 성왕(成王)의 소비(小毖)<sup>85)</sup>에 힘쓰셨습니다. 우(禹) 임금의 옛 복(服)을 이으며 만대의 공을 이루기를 기약하였고,<sup>86)</sup> 국 속에서 요 임금이 보임에 삼 년 동안 정사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sup>87)</sup>

이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만물이 영원토록 힘입어 밝게 소생되었고, 산천이나 귀신이 모두 기뻐하면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구가(謳歌) 소리가 임금에게 돌아가매 하(夏) 나라 황실의 융성함을 만난 것이 기쁘며, 수부(壽富)하고 다남(多男)하매 화봉(華封)의 축원(祝願)<sup>88)</sup>을 바치고자 합니다.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臣) 정봉현(鄭鳳鉉)은 지어서 올립니다.

에 해당되며, 방위로는 동쪽에 해당되므로, 춘궁(春宮)이라고도 칭하고 동궁(東宮)이라고도 칭한다.

78) 황옥(黃屋) : 제왕(帝王)이 사는 궁궐을 뜻한다.

79) 자선(資善) : 송(宋) 나라 때 황태자(皇太子)가 학문을 닦던 곳이다.

80) 승화(承華) : 태자궁의 궁문(宮門) 이름이다.

81) 출진(出震)의 운세 :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는 운을 말한다. 『주역』 설괘전(說卦傳)에 이르기를, “상제께서 진(震)에서 나와 손(巽)에 깨끗하다.(帝出乎震 齊乎巽)” 하였다.

82) 작리(作離)의 아름다움 : 황제가 밝은 덕을 이어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주역』 이괘(離卦)의 상(象)에 이르기를, “밝음이 둘인 것이 이(離)가 되니, 대인(大人)이 보고서 밝음을 이어 받아서 사방을 비춘다.(明兩 作離 大人 以 繼明 照于四方)” 하였다.

83) 궤석(几席)에……명(命) : 황제가 죽음에 임하여 내리는 마지막 유명(遺命)을 말한다. 『서경』 고명(顧命)에 이르기를, “위대한 군주께서 옥궤(玉几)에 기대어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사, 너에게 명하여 가르침을 있게 하였다.(皇后憑玉几 道揚末命 命汝嗣訓)” 하였다.

84) 대횡(大橫) : 거북을 가지고 치는 점괘에 큰 가로무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황제가 등극할 조짐이라고 한다. 한(漢) 나라 효문제(孝文帝)가 거북점을 치니 이러한 점괘가 나타나 황제에 등극하였다.

85) 소비(小毖) : 『시경』 주송(周頌)의 편명(篇名)인데, 흔히 임금이 스스로 징계되어서 신하들에게 도와주기를 요구하는 뜻으로 쓰이었다. 주(周) 나라 성왕(成王)이 충신들에게 자신을 도와주어서 환난(患難)을 구제해 달라고 하였다.

86) 우(禹) 임금의……기약하였고 : 천하를 다스리는 공을 이루기를 기약한다는 뜻이다. 복(服)은 왕기(王畿) 이외의 강토(疆土)로, 후대에는 중국 구주(九州)의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었다. 『서경』 중궤지고(仲虺之誥)에 이르기를, “만방을 표정하여 우 임금의 옛날 복(服)을 있게 하셨다.(表正萬邦 纘禹舊服)” 하였다.

87) 국 속에서……않았습니다 : 전대의 황제를 우러러 사모하여 그가 행한 정사를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다. 옛날에 요(堯) 임금이 죽자 순(舜) 임금이 삼 년 동안을 우러러 사모하였는데, 앉아 있을 때면 요 임금의 모습이 담벼락에 나타나고, 밥을 먹을 때면 국그릇에 나타났다고 한다.

88) 화봉(華封)의 축원(祝願) : 장수하고 부귀하며 자녀를 많이 두기를 축원하는 것을 말한다. 화봉은 화지(華地)에 봉해 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요(堯) 임금 당시에 화봉인이 요 임금에게 수(壽)와 부(富)와 다남(多男)의 세 가지로 축하하자, 요 임금이 “수(壽)하면 욕(辱)이 많고, 부(富)하면 일이 많고, 다남(多男)하면 두려움이 많다.” 하면서 사양하였다. 『장자』 天地.

◇

자신궁의 궁전 안에 상서로운 빛 엉기어  
 좋은 점괘 드러나서 황제 자리 등극했네  
 빛이 나는 병풍에는 해와 달이 걸려 있고  
 추창하는 검패 소리 속에 장수 축원하네  
 사년 동안 현풍<sup>89)</sup> 속에 흠뻑 젖어 떠받들고  
 만대토록 대력 이음 기쁘게들 바라보네  
 산골짜기와 물가 사는 함령<sup>90)</sup> 모두 교화됨에  
 부상<sup>91)</sup> 땅의 하늘 멀리 바다 파도 깨끗하네

紫宸宮殿瑞光凝  
 顯筴揚徽寶座登  
 晃曜罽毼懸日月  
 趨蹌劍佩祝崑陵  
 四年愛戴玄風浴  
 萬世欣瞻大曆承  
 陬滋含靈齊嚮化  
 搏桑天遠海波澄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臣) 박승동(朴昇東)은 지어서 올립니다.

◇

부상 땅에 애연하게 보록<sup>92)</sup> 내려 왔거니와  
 상서로운 해 떠올라 다시금 또 빛나누나  
 일천 년의 세월 지난 지난날의 도성에서  
 십일월의 어느 날에 명 새롭게 되었다네  
 황상께서 옛 복을 다 이은 것이 아름다워<sup>93)</sup>  
 만국에서 모두들 다 우러르는 때로구나  
 문물 모습 찬란하게 빛나 아름답거니와  
 거룩하고 신령한 분 대 이은 길 축하하네  
 선황께서 황제 자리 즉위하신 뒤로부터  
 대개 밝은 자질로써 뒤를 이어 밝히셨네  
 태평한 운 응하여서 모두 통합시켰거니  
 황제 자리 즉위하여 교화 다시 열었다네  
 떠받드는 데서 무위 다스림<sup>94)</sup>이 보이거니  
 온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아니 하겠는가

扶桑藹以寶籙  
 瑞日出而重光  
 一千年之舊都  
 十一月之新命  
 黃裳穆其纘服  
 際萬國之咸仰  
 猗文物之章章  
 賀聖神之承承  
 自先皇之陟元  
 蓋以明而繼明  
 膺運泰而統合  
 首出震而開化  
 無爲象於顯戴  
 不知天下治歟

89) 현풍(玄風) : 황제가 펼치는 청정(淸靜)하고 무위(無爲)한 교화(教化)를 말한다.

90) 함령(含靈) : 영성(靈性)을 가진 존재인 인간(人間)을 말한다.

91) 부상(扶桑) :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나무 이름으로, 해가 뜨는 곳, 즉 일본을 가리킨다.

92) 보록(寶籙) : 천명(天命)을 뜻한다. 주) 참조.

93) 황상(黃裳)께서……아름다워 : 황상은 『주역』 곤괘(坤卦) 육오효(六五爻)의 효사(爻辭)에 “황상처럼 하면 크게 선하여 길하리라.(黃裳 元吉)” 한 데에서 나온 말로, 흔히 태자(太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복(服)은 왕기(王畿) 이외의 오복(五服)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다스림이 미치는 전 지역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94) 무위(無爲) 다스림 :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 다스리는 것으로, 무위이화(無爲而化)와 같은 말인데, 흔히 제왕(帝王)의 인정(仁政)이나 덕화(德化)를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하늘에서 동방 돌봐 선대를 잘 잇게 하매  
 황제께서 신하들과 백성이라 말하셨네  
 중주 지역 평정하여 이에 밝아졌거니와  
 외방에다 조서 내려 크게 어루만져줬네  
 문명 이를 시기 마침 적당한 때 당했기에  
 예관에게 명해 널리 예법 채집하게 했네  
 하늘의 명 을모년이 되는 해에 뿔거니와  
 즉위하는 데서 제도 일신하게 되었다네  
 거룩하고 신령스런 적통으로 뒤이으며  
 저칠에서 왕업 이룬 분의 영묘이시라네<sup>95)</sup>

天眷東而克肖  
 皇帝若曰臣庶  
 平中洲而越明  
 詔外服而殷頰  
 文明會而適當  
 命禮官使博採  
 天其申於歲卯  
 一新制於即位  
 嗣聖神之嬀統  
 溯沮柒之靈苗

구가 소리 사해에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모두들 다 우리 임금 아들이라 말하누나  
 별들 빨리 모여들어 북극성을 향하거니<sup>96)</sup>  
 예의 모습 훌륭하여 정말 크게 볼 만하네  
 구여 노래 부르면서 뿔 술잔을 쳐들고는<sup>97)</sup>  
 만년 가길 축원하며 호배<sup>98)</sup>의 절 올리누나

謳歌司於四海  
 曰吾君之子也  
 星弁會而拱極  
 大可觀夫禮儀  
 歌九如而兕稱  
 祝萬年而虎拜

저녁 햇빛 비치어서 이슬방울 떨어지자  
 집집마다 모두들 다 대정 책력 거는구나  
 햇빛 길게 비치어서 성수를 더 늘리거니  
 천억 년에 이르도록 끝이 없을 것이로다  
 펼쳐이는 깃발 보니 붉은 해가 나부끼매  
 큰 말로 술 뜨고서는 장수하길 기원하네<sup>99)</sup>

窮日照而露墮  
 大正曆於家家  
 陽線長以聖壽  
 至千億而無疆  
 觀乎旗而颺紅  
 酌以斗而祈黃

95) 저칠(沮柒)에서……영묘(靈苗)이시라네 : 저칠은 중국에 있는 저수(沮水)와 칠수(柒水)로, 흔히 왕업이 처음 일어난 곳을 가리킨다. 『시경』 대아(大雅) 면편(縣篇)에 이르기를, “면면한 오이 넝쿨이여, 백성이 처음 산 것이, 저수와 칠수의 강가로부터였네.(縣縣瓜瓞 民之初生 自土沮漆)” 하였는데, 이 시는 주(周) 나라 문왕(文王)이 일어남이 본디 태왕(大王)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한 시이다. 영묘(靈苗)는 신성한 분의 후예를 뜻한다.

96) 별들……향하거니 : 별은 각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뜻하고, 북극성은 일본 천황을 상징한다.

97) 구여(九如) 노래……쳐들고는 : 구여 노래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편(天保篇)에 나오는 아홉 가지의 축복으로, 곧 여산(如山), 여부(如阜), 여강(如岡), 여릉(如陵), 여천방지(如川方至), 여월항(如月恒), 여일승(如日升), 여남산수(如南山壽), 여송백무(如松柏茂)를 말한다. 뿔 술잔을 쳐든다는 것은 술잔을 올리면서 축원하는 것으로, 『시경』 빈풍(邠風) 칠월편(七月篇)에 “저 뿔로 만든 술잔을 드니, 만수무강하리로다.(稱彼兕觥 萬壽無疆)” 한 데에서 온 말이다.

98) 호배(虎拜) : 대신(大臣)이 천자를 배알하여 절하는 것을 말한다. 호는 주(周) 나라 선왕(宣王) 때 소목공(召穆公)의 이름이다.

99) 큰 말로……기원하네 : 『시경』 대아 행위(行葦)에 이르기를, “증손이 주인이니, 술과 단술이 맛있도다. 큰 말로 술을 떠서 장수하길 기원하도다.(曾孫維主 酒醴維醕 酌以大斗 以祈黃耇)” 하였다.

양양하게 북의 바다 물결 쏟아 붓거니와  
 백천의 물 흘러흘러 동쪽 향해 조회하네  
 황제께서 자리하여 위에 앉아 있거니와  
 펼친 교화 해가 중천 떠 있는 것 같으리라

洋洋注以福海  
 沛百川而朝東  
 位乎乾而在上  
 化如日而方中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 오헌영(吳憲泳)은 지어서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명이 오래된 나라에서 새롭게 되매 법도를 잡아서 운수에 응하였고, 지위는 큰 덕이 있는 분이 반드시 얻는 법이매 황제 자리에 올라 남면(南面)을 하셨습니다. 이에 황제 자리에 즉위하여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대개 듣건대, 면절(綿纒)<sup>100</sup>로 예법을 익힘에 황제가 귀한 줄을 안 것은 한고조(漢高祖)가 처음 등극한 때이고, 도서(圖書)와 공물(貢物)을 상고하여 못 신하들의 조회를 받은 것은 당(唐) 나라의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제왕가(帝王家)의 바뀔 수 없는 법전인 것이며, 또한 역시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시행한 규례입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천황폐하께서는, 아름다운 명성이 일찌감치 오주(五洲)<sup>101</sup>에 퍼졌고, 슬기로운 덕이 오래 동안 이극(貳極)<sup>102</sup>에서 드러났습니다. 군국(軍國)의 일을 감무(監撫)하는 일이 중한 바여서 원량(元良)<sup>103</sup>이 곧게 되고, 구가(謳歌)하고 조근(朝覲)하는 것이 모두 돌아가매 우리 임금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황가(皇家)의 적통(嫡統)이매 백 스물 두 분의 성신(聖神)이 서로 이은 것이 아름답고, 온 천하에 살아가고 있는 육천만 명의 신민들이 모두들 떠받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룩한 효성으로 거상(居喪)하고 있는 날을 당하였으므로, 전례(典禮)가 이에 상제를 마치는 시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삼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능히 은(殷) 나라 고종(高宗)의 침묵을 뒤따랐고, 하루라도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으며 어찌 순(舜) 임금이 황제의 자리를 공손히 받는 것을 늦출 수 있겠습니까. 이에 길한 날짜를 택하여 크나큰 예를 거행하였습니다.

삼대(三代) 시대가 성대한 때이기에 의문(儀文)은 고금(古今)의 제도를 참작하여 시행하였고, 사해(四海) 사람들이 모두 회동함에 기쁨은 중외(中外)에 넘쳐흐릅니다. 육비(六飛)<sup>104</sup>를 타고서 황제자리에 임어하매 비유하자면 북극성(北極星)이 북쪽에 있는 것만 같고, 팔창(八窓)<sup>105</sup>을 활 열고서 밝은 곳으로 향하매 자신을 공손히 하여 남면(南面)을 하였습니다. 수레와 의복의 제도가 성대하여 처음 즉위하

100) 면절(綿纒) : 면채(綿叢)와 같은 말로, 야외(野外)에서 예(禮)를 익힐 때, 새끼를 둘러 조정(朝廷)의 표시를 하고 띠를 묶어서 줄지어 늘어 놓아 관작(官爵)의 고하를 표시하던 것인데, 후대에는 조정의 예법을 제정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한 고조(漢高祖) 때 숙손통(叔孫通)이 제자 1백여 인과 더불어 야외에서 이렇게 하여 예를 제정하였다. 『史記』 叔孫通傳.

101) 오주(五洲) : 오대주(五大洲)와 같은 말로, 지구(地球) 전체를 가리킨다.

102) 이극(貳極) : 황태자의 자리를 가리킨다.

103) 원량(元良) : 황태자를 가리킨다.

104) 육비(六飛) : 육룡(六龍)과 같은 말로, 임금이 타는 수레를 말한다. 주) 참조.

105) 팔창(八窓) : 팔방(八方)으로 낸 창문을 말한다.



는 때의 아름다움을 꾸미고, 단(壇)과 마당이 흰히 열렸으며 만방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많으며 사방(四方)에서 복종하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황하수가 맑고 바닷물이 고요하며 동양(東洋)이 저절로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성대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송축하는 시를 바칩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답다 우리 황제 집안에서는	猗與皇家
명 다지길 크게 하고 치밀히 했네 <sup>106)</sup>	宥密基命
만대 동안 한 계통을 이어와서는	萬世一系
일백하고 스물 두 분 성인 있었네	百廿二聖
맨 처음에 신무부터 시작하여서	肇自神武
우리 선제 폐하까지 이르렀다네	至于先帝
황제 자리 이을 후사 태어나시매	篤生嗣皇
거룩하고 또한 슬기 지니시었네	且聖且睿
소해 <sup>107)</sup> 에서 덕스러움 길러 오신 지	毓德小海
삼십 하고 몇 년 세월 더 흘렀다네	卅有餘年
순서 따라 황제 법통 전해 받은 건	繼序承統
적장자에 어진 자질 있어서였네	以嫡以賢
백관들이 자신들의 직책 총괄해	百官總己
삼 년 동안 도만 오직 생각하였네	三年思道
이에 예의 맡은 종백에게 명하여	爰命宗伯
전례 두루 상고하여 보게 하였네	典禮是考
거울 손에 잡고 또한 도서 받았고	握鏡受圖
옥 울리며 나아가서 단 설치했네	鳴玉設壇
강물 빛은 상서로운 징조 바치고	河色呈符
산의 소리 또한 함께 기뻐하누나	山聲供歡
업적 크게 드리우고 공을 빛내어	業垂功光
태산 반석 같은 기반 만들 것이리	盤泰爲基
천한 신은 절을 하고 송축시 지어	臣拜作頌
만년토록 장구하길 기원합니다	於萬年斯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 정봉시(鄭鳳時)는 지어서 올립니다.

106) 명 다지길……했네 : 『시경』 주송(周頌) 호천유성장(昊天有成章)에 이르기를, “성왕께서 감히 편안히 계시지 못하고서, 밤낮으로 명 다지길 크게 하고 치밀하게 하였네.(成王不敢康 夙夜基命宥密)” 하였다.

107) 소해(少海) : 태자(太子)를 가리킨다. 천자(天子)를 대해(大海)에다 비유하므로 태자를 소해라고 칭하는 것이다.



황제께서 역복<sup>108</sup> 이어 정성 힘껏 퍼거니와  
 나는 용이 구천 임함 우리르며 바라보네  
 인정 퍼자 못 별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큰 은혜의 남은 은택 서쪽까지 입혀지네  
 삼천계<sup>109</sup>의 못 사람들 모두 함께 떠받들어  
 승호<sup>110</sup> 하며 일제히 다 억만년을 소리치네  
 길이 먼 곳 사람들이 황제의 덕 입게 하매  
 승평 속의 연월을 다 편한 잠에 부치누나

於皇曆服棐忱宣  
 仰觀飛龍御九天  
 仁政衆星歸北極  
 洪恩餘澤被西沿  
 輿情共戴三千界  
 嵩祝齊呼萬億年  
 長使遠人蒙帝力  
 昇平烟月付安眠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 김광현(金光鉉)은 지어서 올립니다.



크고 크며 위대하다 저 건원이여  
 만물이 다 의지하여 시작 되도다<sup>111</sup>  
 진방에서 나와서는 우뚝하여서  
 밝은 곳을 향하여서 다스림 퍼네  
 빛나고도 빛난 우리 황제께서는  
 만대토록 기강 잡아 통솔하리라  
 그 밝음은 해와 달과 나란할 거고  
 그 덕은 또 하늘 땅과 합해지리라  
 진저<sup>112</sup>에서 머무시던 그 시절부터  
 목을 길게 빼고 모두 기대하였네  
 크고도 큰 황가 기업 이어받아서  
 온 천하를 굽어보며 임어하셨네  
 미처 의식 거행을 할 겨를도 없이  
 양암<sup>113</sup> 속에 삼 년 세월 보내시었네  
 능히 선대 잘 잇고서 능히 조술해

大哉乾元  
 萬物資始  
 首出于震  
 嚮明之治  
 於赫我皇  
 萬世統紀  
 明并日月  
 德合天地  
 自在震邸  
 延頸戴己  
 嗣承丕基  
 臨御寰區  
 緝義未遑  
 亮陰三秋  
 克纘克述

108) 역복(曆服) : 역수(曆數)와 오복(五服)을 말한다.

109) 삼천계(三千界) : 불교(佛敎)에서 쓰는 용어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말하는데, 전 세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110) 승호(嵩呼) : 황제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111) 크고……되도다 : 『주역』 건괘(乾卦) 단사(彖辭)에 이르기를,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의지하여 시작 하니, 이에 하늘을 통합하였도다.(大哉 乾元 萬物 資始 乃統天)” 하였다.

112) 진저(震邸) : 동궁(東宮)과 같은 말이다.

113) 양암(諒陰) : 황제가 상중(喪中)에 있는 것을 뜻한다.

세덕 이어 짝이 되길 구하시었네<sup>114)</sup>  
 무예롭고 이에 또한 문예로우며  
 관대하고 이에 또한 어지시었네  
 밝은지라 후세에서 잘 계승하여  
 하늘이나 사람에게 잘 순응했네  
 세차로는 을묘년이 되는 올해에  
 성대할사 의식 크게 거행하였네  
 선인의 뜻 따라 효가 오게 했으매  
 아아 어찌 드러나지 아니했으랴  
 온 사해의 안이나 밖 어느 곳이고  
 분주하게 와서 명에 복종하누나  
 광주리에 현황<sup>115)</sup> 담아 폐백 올리며  
 함께 경사 축하함을 그치지 않네  
 하늘에서 잘 돌보며 보우하여서  
 더해지지 않는 것이 없게 하리라  
 산과 같고 또한 언덕과도 같으며  
 보름달로 되는 달과 뜨는 해 같네<sup>116)</sup>  
 바람과 비 순조롭게 때맞춰 내려  
 여러 차례 풍년이 들 상서 얻었네  
 온 동방이 태산 반석 되게 한 거는  
 어느 누가 우리에게 내려 준 건가  
 나라 위엄 떨쳐져서 빛이 나거니  
 먼 곳까지 미치지 않는 곳 없네  
 멀리서 봉래<sup>117)</sup> 있는 곳 바라보니  
 오색 구름 서려 상서 바치는구나  
 송축 시를 지어 화봉 축하<sup>118)</sup> 바치며  
 만수무강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世德作求  
 乃武乃文  
 以寬以仁  
 昭茲來許  
 應天順人  
 維歲乙卯  
 誕舉盛典  
 遙追來孝  
 於乎不顯  
 薄海內外  
 奔走服命  
 篚厥玄黃  
 極不同慶  
 天其保佑  
 以莫不增  
 如山如阜  
 月恒日升  
 風調雨順  
 屢獲豐瑞  
 環東磐泰  
 伊誰之賜  
 國威國光  
 無遠不暨  
 遙瞻蓬萊  
 五雲呈祥  
 祝華獻頌  
 萬壽无疆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정팔위(正八位) 신 양봉제(梁鳳濟)는 지어서 올립니다.

114) 세덕(世德)……구하시었네 : 선조들이 이룬 업적을 이어 받아 그에 필적할 업적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뜻이다. 『서경』 주서(周書) 강고(康誥)에 이르기를, “나는 이 은 나라 선철왕들의 덕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 그 분들의 짝이 될 것이다.(我時其惟殷先哲王德 用康乂民 作求)” 하였다.

115) 현황(玄黃) : 채색을 넣어서 짠 직물(織物)로, 흔히 폐백으로 바치는 물품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116) 산과……같네 : 장수(長壽)하기를 축원하는 말이다.

117) 봉래(蓬萊) : 전설상에 나오는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로, 여기서는 일본을 뜻하는 말로 쓰이었다.

118) 화봉(華封) 축하 : 장수하고 부귀하고 다남(多男)하기를 축하하는 것이다.

◇

자신궁에 나아가서 황제 자리 등극하여  
 보책에다 고하는 걸 욕의라고 하는구나  
 곽읍 땅에 국도 정함 희씨가 짐 친 것이고<sup>119)</sup>  
 태산 솟돌 같아지란 거는 한의 맹서이네<sup>120)</sup>  
 모두 선장<sup>121)</sup> 받들고서 절을 하고 조아리며  
 자신궁에 나아가서 천황 폐하 뵈는구나  
 온 나라의 백성들은 식 올리는 것을 보고  
 황제 도성 근처에선 넓은 경사 불러오네  
 천하에서 으뜸인 곳 경도라고 말하거니  
 오랜 옛날 신무께서 터전 닦은 곳이라네  
 칠십이 대 동안 서로 주고받아 전하였고  
 이천 오백 년 동안의 오랜 역수 누리었네  
 부사산이 대동 지역 높이 솟아 우뚝하매  
 거기에서 나라 세운 정화<sup>122)</sup> 옛볼 수가 있네  
 대정 폐하 황제 자리 등극함에 미치어서  
 아름답게 중외에다 반포하여 보이었네  
 풍운 타고 올라서는 건시함을 어거하고<sup>123)</sup>  
 해와 달이 밝게 내려 비추어서 아름답네  
 백관들을 거느리고 승호 삼창 소리치니  
 삼황 자리 올라가고 오제보다 뛰어나리  
 지난날에 양암하며 침묵 속에 지내어서  
 예 행하려 하였으나 그릴 겨를 없었다네  
 옥궐에서 마지막의 명 들어서 받들었고<sup>124)</sup>

穆紫宸兮履極  
 鞠寶冊曰縉儀  
 鼎定鄜而姬卜  
 泰若礪而漢誓  
 攀仙仗兮拜稽  
 覲天皇于紫宮  
 攘民國之示儀  
 籲帝畿之廣慶  
 甲天下曰京都  
 粵神武之肇基  
 七十二之世紀  
 一千五之曆數  
 富山峙於大東  
 倪立國之精華  
 逮大正之繼極  
 穆頒示於中外  
 御風雲之乾始  
 麗日月之離照  
 帥百官而呼嵩  
 穆登三而軼五  
 曩恭默于涼閣  
 禮欲行而靡暇  
 攀末命於玉几

119) 곽읍(郟鄏)……것이고 : 곽읍은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의 서쪽에 있는 지명인데, 주(周) 나라 성왕(成王)이 이곳에다 국도(國都)를 정하였다. 희씨(姬氏)는 주(周) 나라의 국성(國姓)으로, 전하여 주 나라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120) 태산(泰山)……맹서이네 :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평정한 뒤 공신(功臣)들을 나누어 봉작(封爵)하면서 “황하(黃河)가 작아져서 옷의 띠 같이 되고, 태산(泰山)이 평탄하여 솟돌 같이 되더라도 그 지위를 영구히 보전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121) 선장(仙仗) : 황제의 의장(儀仗)을 말한다.  
 122) 정화(精華) : 사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부분을 말한다.  
 123) 풍운(風雲)……어거하고 : 황제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풍운은 『주역』 건괘(乾卦)의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雲從龍 風從虎)”고 한 데에서 나온 말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뜻이고, 건시(乾始)는 『주역』 건괘(乾卦) 단사(彖辭)에, “위대하다. 건원이여, 만물이 의지하여 시작하니, 이에 하늘을 통합하였다.(大哉 乾元 萬物 資始 乃統天)” 한 데에서 온 말로, 하늘이 만물의 시초가 됨을 뜻하는 말이다.

금구<sup>125</sup>)에서 열강들과 맞서 싸워 대항했네  
 옛날 전적 상고하여 공경스레 살펴보니  
 때가 정말 성대한 예 올리어도 관찮았네  
 철권<sup>126</sup>)에다 위대한 공 기록하여 보관하고  
 보록<sup>127</sup>)에다 아름다운 휘호 올려 적었다네  
 예에 있어 큰 건 황제 등극하는 것이거나  
 황제께서 너희들은 솔비<sup>128</sup>) 하라 하시었네  
 태평 성대 기반이 될 옛날 강역이거니와  
 기원 새로 정하여서 새 제사를 올렸다네  
 대악 소리 퍼져가자 모든 이들 춤을 추고  
 하루 사이 사방에서 모든 이들 다 듣누나  
 같은 수레 문자 쓰며 광주리에 공물 담아  
 각기 다른 옥백에다 토산물을 올리누나  
 붉은 구름 한 무더기 두 손으로 떠받들자  
 황제께서 묵묵하게 그 가운데 임어하네  
 남산 같이 장수하란 송축가를 현상하고  
 북두 국자 술을 떠서 축하하는 맘 바치네  
 제루씨<sup>129</sup>)가 큰 음악을 올리라고 소리치자  
 시원스레 못 음악들 앞다투어 올려지네  
 일만 나라 의관들이 모여들어 절 올리매  
 일원으로 통일 되는 문명의 때 만났다네  
 산룡<sup>130</sup>) 환히 빛이 나는 곤룡포를 입고서는  
 아름다운 천명 맞아 다시금 또 신명하네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사해에서 모여들어  
 옥백으로 폐백 삼아 만 구역서 바치누나

抗列強於金甌  
 稽古典而穆頌  
 時則可以飾禮  
 藏鐵券之偉勳  
 署寶錄之徽號  
 禮之大而陟元  
 帝曰咨汝率俾  
 基平代之舊域  
 號紀元之新祀  
 颯大樂兮都踊  
 一日聞於四方  
 拊車書而貢篚  
 區玉帛而執壤  
 紅雲捧以一朶  
 皇穆穆而御中  
 南山壽而獻頌  
 北斗酌而登賀  
 宣大音於鞀鞀  
 沛騰還而競趨  
 拜萬國之衣冠  
 會一元之文明  
 山龍煌而袞菲  
 逐天休之申命  
 航梯奏於四海  
 玉帛執於萬區

- 124) 옥궤(玉几)에……받들었고 : 돌아가신 황제가 죽기 직전에 내린 유조(遺詔)를 받들었다는 뜻이다. 『서경』 고명(顧命)에 이르기를, “왕이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자 부축하는 자가 면복(冕服)을 입히니, 왕이 옥궤(玉几)에 기대었다.(王乃洗頰水 相 被冕服 憑玉几)” 하였다.
- 125) 금구(金甌) : 금으로 만든 그릇처럼 강토(疆土)가 단단한 것을 뜻하는데, 전하여 강토나 국토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126) 철권(鐵券) : 임금의 공신(功臣)들에게 내리는 첩로 만든 패(牌)이다.
- 127) 보록(寶祿) : 황실의 계보를 적어놓은 기록을 말한다.
- 128) 솔비(率俾) : 순종하여 따른다는 뜻으로, 『서경』 주서(周書) 무성(武成)에 이르기를, “나 소자가 이미 어진 사람을 얻어 감히 상제를 공경히 받들어서 어지러운 피를 막으니, 화하(華夏)와 만맥(蠻貊)이 모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予小子既獲仁人 敢祗承上帝 以遏亂略 華夏蠻貊 罔不率俾)” 하였다.
- 129) 제루씨(鞀鞀氏) : 『주례』 춘관(春官)에 나오는 관원으로, 사(四夷)의 음악과 그 노래를 관장한다.
- 130) 산룡(山龍) : 옛날에 곤룡포나 혹은 깃발 위에 수놓은 산 모양과 용 모양의 문양을 말한다.

천민으로 삼아 모두 잘 살게들 하여 주매  
 진신들이 모여들어 기뻐하며 즐기누나  
 구름 속에 봉황 대궐 활짝 열려 드러나매  
 해 아래서 용루 나가 황제 자리 임어하네  
 저 한강물 바라보매 목욕하는 우물 같아  
 시원스레 퍼진 덕교 양양하게 넘쳐나네  
 총독에게 명해 경사 확장하게 하였거니  
 이 나라의 문풍 이제 떨쳐지게 되었구나  
 경학원을 설립하여 힘쓰라고 권면코자  
 강사들을 두고서는 순회하게 하였다네  
 이에 신은 두 손 모아 절하고서 꿇어앉아  
 거듭하여 이 시에다 흠모하는 정 부치네

戶天民兮家髦  
 簇紳襟而于于  
 雲裏開於鳳闕  
 日下御於龍樓  
 瞻彼水兮浴井  
 沛德教之洋洋  
 命總督而擴張  
 振茲方之文風  
 設經院而勸勉  
 置講士而巡回  
 臣拜手而跪敷  
 重寓慕於斯賦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 박장홍(朴長鴻)은 지어서 올립니다.

◇

만년토록 나라의 명 영원한 거는  
 임어 처음 하는 데서 기반한다네  
 만기 업무 처리하는 공 이루는 건  
 한 덕을 잘 지키는 데 근원한다네  
 아득히 먼 아주 오랜 그 옛날부터  
 아주 밝고 밝은 임금 계시었다네  
 여기에서 단서 처음 만들어지매  
 그 법 따라 쓰지 않은 분이 없었네  
 생각건대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천부적인 덕성 타고 나시었다네  
 그런데다 슬기로운 성학 익혀서  
 계속하여 밝히면서 공경히 했네  
 가까이론 선왕 남긴 법도 따르고  
 멀리로는 전대 선인 조술하셨네  
 안으로는 성인 심법 전해 받았고  
 밖으로는 시정에 다 통달하셨네  
 임금의 덕 능히 잘도 지키어서는  
 잠저 계실 때에부터 기르셨다네  
 어질다는 명성 일찍 두드러져서

萬年永命  
 基於初服  
 萬機功化  
 源於一德  
 從古以來  
 明君哲辟  
 於斯造端  
 無不用極  
 惟我皇帝  
 以天德性  
 加以睿學  
 緝熙於敬  
 近法先王  
 遠述前聖  
 內傳心法  
 外達時政  
 克君之德  
 在珥而養  
 仁聲著聞

사방에서 모두들 다 우러렀다네  
 크고 작은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알밀<sup>131)</sup> 하여 마치 상을 당한 듯했네  
 모두들 다 우리 임금이라 했거니  
 뒤를 이을 만한 어진 장자 있었네  
 황제 자리 이어받아 오름에 미쳐  
 중외 사는 모든 이들 기뻐하였네  
 성대하고 성대한 예 이에 거행해  
 화봉인의 축하 서로 다뤄 올리네  
 천하 만국 온 나라의 의관들 모여  
 몰려와서 모습 뵈길 상상하였네  
 온 사해의 모든 나라 도적을 거둬<sup>132)</sup>  
 뽕뽕 묶어 두어 길이 안정시켰네  
 황제께서 그런데도 되레 묵묵해  
 문치의 덕 더더욱 더 닦으시었네  
 넓고 넓게 베풀어서 두루 구제해  
 위로 요순 두 임금과 덕을 짝했네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진 그 마음  
 저 하늘과 더불어서 함께 흐르네  
 오직 그 덕 한결같이 굳게 잡아서  
 처음처럼 끝까지 잘 하시었다네  
 그리하여 우리 해동 나라로 하여금  
 순종하여 안 따르는 이 없게 했네  
 은택 아래 목욕하여 폭 젖어들고  
 교화 속에 고무되어 춤을 추누나  
 마음으로 백복 받길 축원하였고  
 입으로는 만년 가라 소리 치누나  
 나라 기틀 단단하여 공고해 짐은  
 구하지를 앓더라도 절로 이르리  
 봉강 또한 넓혀져서 크게 되는 건

四方咸仰  
 逮大小臣  
 邊密如喪  
 皆曰吾君  
 有嗣賢長  
 及夫繼極  
 中外抃忻  
 纏禮斯舉  
 華祝爭譟  
 萬國衣冠  
 輻湊想見  
 四海圖籍  
 囊括永奠  
 帝猶穆穆  
 文德益修  
 博施之濟  
 堯舜上侔  
 好生之心  
 與天同流  
 惟一其德  
 慎終如始  
 期使海隅  
 罔不率俾  
 沐浴澤下  
 鼓舞化裏  
 心祝百祿  
 口呼萬祀  
 邦國之固  
 不求自至  
 封疆之大

131) 알밀(邊密) : 임금이 죽어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요(堯)임금이 돌아가시니 백성이 부모를 잃은 듯이 여겨 3년 동안 사해(四海)에서 팔음(八音)을 알밀하였는데, 『서경』 순전(舜典)의 전(傳)에 이르기를, “알(邊)은 끊는 것이고, 밀(密)은 고요한 것이다.” 하였는바, 음악을 일체 연주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32) 온 사해의……거둬 : 천하의 여러 나라들을 합병시켰다는 뜻이다. 도적(圖籍)은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말한다. 한 고조(漢高祖)가 진(秦)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인 함양(咸陽)에 입성하였을 때 한 고조의 신하인 소하(蕭何)가 진 나라 승상부(丞相府)로 달려가서 율령(律令)과 도적(圖籍)을 수습하여 보관하였다.

병혁은 또 닳여져서 예리해지리  
 그리하여 동아시아 모든 세계가  
 대지 위에 우뚝하게 솟아오르리  
 하수 띠가 되고 산이 솟돌 됴이나  
 쇠로 만든 성이나 또 깊은 해자도  
 오래감이 되기에는 부족할 거고  
 깊은 것이 되기에는 부족하리라  
 이와 같이 크나큰 복 받게 되는 건  
 실로 지금 여기에서 기반하리라  
 이와 같이 크고도 큰 아름다움은  
 실로 임금 한 마음서 근본한다네  
 엮드려서 생각건대 황제께서는  
 안으로다 자신에게 돌이켜 보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서  
 무궁하게 영원토록 전할 것이리  
 바다 한쪽 구석 사는 미천한 신은  
 사사로운 정 맘속에 간절하다네  
 이에 백 번 절하고서 축원 올리니  
 황제께서 들어주길 바라옵니다

兵革之利  
 東亞世界  
 屹干大地  
 河帶山礪  
 池湯城金  
 不足爲遠  
 不足爲深  
 如是彫祿  
 實基於今  
 如是鴻休  
 實本於心  
 伏惟皇帝  
 內省于躬  
 咸以罔缺  
 傳之無窮  
 海隅賤臣  
 私切寸衷  
 百拜獻祝  
 冀格宸聰

1915년 11월 10일에 경학원 강사 신 이학재(李鶴在)는 지어서 올립니다.

〈출전 : 「即位大禮式獻頌文」, 『經學院叢誌』 제9호, 1915년 12월 25일〉

## 2) 「입태자례헌송문(立太子禮獻頌文)」(1916)<sup>133)</sup>

◇

공손하게 엮드려서 아뢰옵니다  
 하늘에서 황제 자리 보우하시어  
 만대토록 한 계통이 이어져 왔네  
 후손에게 아름다운 계책 내리매  
 성신한 분 서로 이어 전하였다네

伏以  
 天佑帝祚  
 萬世一系  
 貽謨燕翼  
 聖神相繼

133) 태자(太子)를 세우는 예식을 치른 데 대해 바치는 송축문(頌祝文).



이에 착한 원량<sup>134</sup> 내려 주시었거니  
 능히 밝고 또한 능히 착하였다네  
 어짊 효성 일찌감치 드러났었고  
 온화하고 문아하며 은혜로웠네  
 용루<sup>135</sup>에서 아침저녁 문안하였고  
 뇌사<sup>136</sup>에서 경전 끼고 배우시었네  
 춘궁에서 황태자의 덕을 기름에  
 슬기로운 학문 날로 진보하였네  
 착하다는 소문 사방 퍼져 나가서  
 모두들 다 노래하며 떠받들었네  
 이에 길한 날을 점쳐 가려 뽑으매  
 성대하고 큰 의식이 갖추어졌네  
 종묘사직 이어받아 제사 주관코  
 소양<sup>137</sup>에서 제자리에 바로 하셨네  
 청로<sup>138</sup>에다 옥책으로 책봉하거니  
 물품 모두 갖추어져 찬란도 하네  
 해와 달이 거듭해서 빛을 비추매  
 진정으로 상제 뜻에 잘 맞추었네  
 뛰어나고 아름다운 기하<sup>139</sup>가 있어  
 위의 있는 모습으로 곁서 모시네  
 좌우 있는 분들 바른 사람들이라  
 덕과 의를 가지고서 잘 가르치네  
 천하 만방 이로 인해 곧아지리니  
 세 가지 선<sup>140</sup> 이제 능히 잘 갖추리라

載錫元良  
 克明克類  
 仁孝夙彰  
 溫文且惠  
 問寢龍樓  
 橫經雷肆  
 養德春宮  
 睿學日邁  
 令聞四達  
 謳歌咸戴  
 乃諏吉辰  
 絜義斯備  
 承祧主鬯  
 少陽正位  
 青輅珞冊  
 備物章采  
 日月重光  
 允協于帝  
 濟濟綺夏  
 偉冠趨侍  
 左右正人  
 傳以德義  
 萬邦以貞  
 三善克備

134) 원량(元良) : 태자를 가리킨다.

135) 용루(龍樓) : 궁중의 누각으로, 전하여 대궐을 가리킨다.

136) 뇌사(雷肆) : 조선조 때 왕세자가 글을 강론하던 곳인 서연(書筵)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일본의 황태자가 공부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다.

137) 소양(少陽) : 태자가 거처하는 곳인 동궁(東宮)을 가리킨다.

138) 청로(靑輅) : 푸른 색을 칠한 수레로, 천자가 타는 수레이다.

139) 기하(綺夏) : 진(秦) 나라의 학정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들어가 숨어살던 상산사호(商山四皓) 가운데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을 가리킨다. 한(漢) 나라 고조(高祖) 때 고조가 태자를 폐하고 다른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이에 대해 간하였으나 고조의 뜻을 돌리지 못하였다. 이때 이들 상산사호가 장량(張良)의 권유에 의해 산에서 내려와 태자의 우익(右翼)이 되자, 그제서야 고조가 뜻을 돌려 태자를 폐하지 않았다. 『史記』留侯世家

140) 세 가지 선 : 세 가지 잘 섬기는 일로, 신하는 임금을 잘 섬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어린이는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한다.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행하여 삼선(三善)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자(世子)일 뿐이다. 부자(父子), 군신(君臣), 장유(長幼)의 도가 잘 이루어져야

기쁜 기운 환호성이 울려 퍼지매  
구해<sup>141</sup>의 땅 저 끝까지 도달하누나  
우방에다 축하하는 사절 보내매  
이에 멀리 황예<sup>142</sup>까지 이르러 왔네  
모두들 다 토산물을 싸들고 와서  
축하하는 폐백으로 바치는구나  
전성<sup>143</sup>께서 찬란하게 빛을 비춤에  
경사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누나  
전각 주위 만세 삼창 울려 퍼지니  
부사산은 길이길이 푸를 것이리  
이에 황제 기업 길이 공고하여서  
천년 만년 세월 가도 영원하리라

喜氣歡聲  
達于九陔  
友邦寵价  
爰及荒裔  
咸執壤典  
獻其賀幣  
前星煜煜  
慶雲靄靄  
繞殿三呼  
富嶽長翠  
皇基永鞏  
於千萬歲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대제학(大提學) 정사위(正四位) 훈일등(勳一等) 자작(子爵) 신(臣) 김윤식(金允植)은 지어서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덕스러운 교화가 사해(四海)에 멀리까지 미치매 영역(領域)의 구분이 없고, 빛나는 광채가 전성(前星)에서 더해지매 명위(名位)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라의 근본이 더욱더 단단하게 되었고, 집안의 규범이 말미암을 바가 있게 되었습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천황 폐하께서는, 백성들에게 임어함에 있어서 자애로움으로 하였고,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 문득 깨우치었습니다. 선대(先代)의 뜻을 잘 이어받고 일을 잘 조술함은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왕가(王家)의 규범을 법 받았고, 덕을 밝히고 백성들을 밝게 함에 있어서는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의 성인(聖人)의 심법(心法)을 전하시었습니다. 이에 성대한 의식을 크게 거행하는 날을 맞이해서, 먼 외방에서 와서 축하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진 못난 사람으로서, 나이도 늙어 이제 늙그막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산(南山)에 절을 하며 성수(聖壽)를 축원하매 자취는 푸른 바다를 건너가고, 북두성(北斗星)에 의지해서 황도(皇都)가 있는 곳을 바라보매 마음은 황궐(皇闕)에 가 걸립니다.

1916년 11월 3일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경학원 부제학(副提學) 정사위(正四位) 자작(子爵) 신(臣) 이용직(李容植)은 지어서 올립니다.

나라가 다스려진다.” 하였다.

141) 구해(九陔) : 중앙에서 팔방의 끝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온 천하를 가리킨다.

142) 황예(荒裔) :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 지방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었다.

143) 전성(前星) : 황태자의 이칭(異稱)이다. 심성(心星)을 천자의 상징으로 삼고 심성의 앞에 있는 별을 태자의 상징으로 삼은 데에서 온 말이다.

◇

삼가 생각건대, 다섯 번째 황극(皇極)<sup>144</sup>으로 서민(庶民)들이게 내려주시매 임어하는 아름다움을 바야흐로 우리르고, 한 사람의 원량(元良)으로 인해 만국(萬國)이 곧게 되는바 건저(建儲)<sup>145</sup>를 미리 세우는 경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궁궐 안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넘쳐흐르고, 먼 외방에는 송축하는 소리가 고르게 울려 퍼집니다.

공경스레 생각건대 천황 폐하께서는, 어질고 자애로우시며, 신령스럽고 거룩하십니다. 역년(曆年)은 밝고 길하여 주(周) 나라에서 뒤를 이어 즉위하는 상서로움에 응하였고, 관대하고 매서우며 곧고 따사로워 우(虞) 임금의 조정에서 태자를 가르치는 명을 본받았습니다. 이에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인을 우러르면서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직책은 현관(賢關)<sup>146</sup>에 매여 있고, 마음은 위궐(魏闕)<sup>147</sup>에 걸려 있습니다. 아홉 단계의 대궐 계단에서 해중윤(海重潤)<sup>148</sup>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고, 만리 밖에서 옥으로 만든 함에다 하일청(河一淸)<sup>149</sup>의 송축을 본받아 지어서 바칩니다.

1916년 11월 3일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贊議) 경학원 부제학 정오위(正五位) 남작(男爵) 신(臣) 박제민(朴齊斌)은 지어서 올립니다.

◇

삼가 생각건대, 하늘이 한 번 맑아지고 땅이 한 번 편안해지매 통서(統緒)를 전하는 데에서 보록(寶籙)을 넓어지게 하였고, 별이 다시 빛나고 바다가 다시 넘실대매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데에서 영전(令典)을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역복(曆服)<sup>150</sup>은 끝이 없게 되었고, 척의(尺衣)<sup>151</sup>는 점차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천황 폐하께서는, 상제(上帝)께 밝게 받아서 후인(後人)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뇌사(雷肆)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림에 용안(龍顏)에는 기쁜 빛이 돌고, 진저(震邸)에서 울창주(鬱鬯酒)<sup>152</sup>

144) 황극(皇極) : 『서경』 홍범편(洪範篇)의 구주(九疇) 가운데 다섯 번째인 황극(皇極)으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되 모든 표준을 세우기를 중앙 황극(皇極)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금은 모든 정무를 오직 중용(中庸)으로 하여 지공무사(至公無私)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인도(人道)의 표상(表象)을 말한다.

145) 건저(建儲) : 임금의 후사(後嗣)를 세우는 것으로, 여기서는 황태자(皇太子)를 책봉하는 것을 말한다.

146) 현관(賢關) : 현자(賢者)가 되기 위해 통과하는 관문(關門)이라는 뜻으로, 흔히 성균관(成均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47) 위궐(魏闕) : 임금이 사는 궁궐을 가리킨다. 임금이 사는 대궐의 문이 우뚝하니 높으므로 이렇게 이르는 것이다.

148) 해중윤(海重潤) : 한(漢) 나라 명제(明帝)가 태자로 있을 때 못 신하들이 태자를 위해 지은 노래인 사중가(四重歌) 가운데 하나이다. 사중가는 일중광(日重光)·월중륜(月重輪)·성중휘(星重輝)·해중윤(海重潤)의 4장(章)으로 이루어졌다. 『樂府詩集』.

149) 하일청(河一淸) : 황하가 천년 만에 한 번 맑아질 것이란 말로, 성인이 나와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150) 역복(曆服) : 역수(曆數)와 오복(五服)을 말한다.

151) 척의(尺衣) : 짙막한 옷으로, 어린 황태자가 입는 옷을 말한다.

152) 울창주(鬱鬯酒) : 고대에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일종의 향주(香酒)인데, 이 술을 땅에 뿌려서 강신(降神)하게

를 주관하는 칭송이 퍼짐에 인지(麟趾)<sup>153)</sup> 역시 어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억만 년토록 태평을 누릴 아름다움에 응하였기에, 바야흐로 황태자를 미리 세우는 예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자질은 공자(孔子)의 학문을 배우는 데 부끄러우나, 정성은 요(堯) 임금의 뒤를 축원하는 데 간절합니다. 사해(四海)에서 구가(謳歌)의 노래를 부르면서 모두들 우리 임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만리 밖까지 덕스러운 교화가 퍼짐에 모두들 성인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사성(司成) 신(臣) 이인직(李人植)은 지어서 올립니다.

◇

삼가 생각건대, 사해(四海)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양명(兩明)<sup>154)</sup>이 환하게 비추는 때를 만났고, 삼대(三代)의 시대가 장구함에 이저(貳儲)<sup>155)</sup>를 미리 세우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능히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어 나라의 근본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공경스레 생각건대 천황 폐하께서는, 우순(虞舜)에게 짝하여서 태자를 잘 가르치었고, 은(殷) 나라의 뒤를 이어 후손에게 넉넉함을 드리웠습니다. 어짊에 머물고 인자함에 머물매 한가로이 거처할 적에는 사물을 만나서 가르치는 데에 부지런하였고, 현철함을 명하고 길함을 명하며 크나큰 운을 받아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는 상서로움을 열었습니다. 이에 아름다운 경사가 창성하는 때에 바야흐로 몰려들고, 성대한 의식을 길한 날에 크게 거행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경전(經典)에 대한 재주가 얕으나, 구가(謳歌)하고자 하는 정성은 간절합니다. 예학(睿學)이 고명하니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양보하는 풍습을 보고자 원하며, 문교(文教)가 점차 이루어지매 한갓 목을 빼고 기대하는 정성이 간절합니다.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사성 신 박치상(朴稚祥)은 지어서 올립니다.

◇

전성의 빛 휘황하게 빛을 발하고	前星煌煌
소해 <sup>156)</sup> 의 물 양양하게 넘실대누나	小海洋洋
황제 자리 빛나고도 융숭하거니	皇祚光隆
나라에는 이제 원량 있게 되었네	國有元良

전성의 빛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前星燦燦
소해의 물 반짝반짝 빛을 발하네	小海渙渙

한다.

153) 인지(麟趾) : 『시경』 주남(周南)의 편명인 인지지(麟之趾)로, 주(周) 나라 문왕(文王)과 후비(后妃)가 덕을 닦음에 자손과 종족이 모두 선(善)에 교화되어 어질고 도탑게 되었음을 노래한 시이다.

154) 양명(兩明) : 해와 달로, 전하여 황제와 황태자를 가리킨다.

155) 이저(貳儲) : 황태자를 가리킨다.

156) 소해 : 태자를 가리킨다.

황제께서 의승<sup>157</sup>)에게 명을 내려서  
우리 갑관<sup>158</sup>) 잘 보필해 돕게 하였네

帝命疑丞  
輔我甲觀

이에 길한 날짜 점쳐 가려 뽑고서  
성대하고 큰 의식을 거행하였네  
이극이란 황태자의 그 자린 바로  
만대토록 영원히 갈 기반이라네

載諏吉日  
載舉禋儀  
貳極之尊  
萬世之基

큰 덕 가진 분이라야 얻는 법이니  
이름 크게 드러나고 장수하리라  
사신들이 송축하는 노래 바치매  
손뼉 치며 머리를 또 조아리누나  
이상은 전성(前星)으로 4장(章)이다.

大德必得  
維名維壽  
詞臣獻頌  
攢手稽首

1916년 11월 3일에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敎諭) 경학원 강사(講士) 정칠위(正七位) 신 여규형(呂圭亨)은 지어서 올립니다.

◇

공손하게 엎드려서 아뢰옵니다  
만대토록 한 계통이 전해왔으며  
아름답고 아름답네 우리 원자여  
크나크게 아름다운 복에 응하여  
이에 저위 황태자의 자리 올랐네  
길게 천명 누리어서 다시 펴거니  
덕스러운 음성 발함 그치질 않네  
황제께서 즉위한 지 오 년 된 해의  
십일월 달 초승이 된 지금이라네  
이에 길한 날짜 점쳐 가려 뽑고서  
성대하고 큰 의식을 거행하였네  
한가에선 사중가<sup>159</sup>)를 올리었으며

伏以  
萬世一系  
猗歟元子  
誕膺景福  
乃升儲位  
永命用申  
德音不已  
皇帝五年  
十一月朞  
諏茲吉辰  
載舉禋禮  
漢家四重

157) 의승(疑丞) : 아주 옛날에 천자를 보좌하던 관직의 이름이다.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이르기를, “우(虞), 하(夏), 상(商), 주(周)에는 사보(師保)가 있었고, 의승(疑丞)이 있었다.” 하였다.

158) 갑관(甲觀) : 한(漢) 나라 때의 궁궐 이름으로, 제일관(第一觀)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 이곳에 황태자가 거처 하였으므로 후대에는 태자궁(太子宮)를 뜻하는 말로 쓰이었다.

159) 사중가(四重歌) : 한(漢) 나라 명제(明帝)가 태자로 있을 때 뭇 신하들이 태자를 위해 지은 노래를 말하는데, 일중광(日重光)·월중륜(月重輪)·성중휘(星重輝)·해중윤(海重潤)의 4장(章)으로 이루어졌다. 『樂府詩集』.

복희씨의 집괘에선 양명 나왔네<sup>160)</sup>

羲占兩明

온 강토의 사람들 다 기뻐하거니  
온 천하의 사람들 다 같은 맘이네  
바로 우리 임금님의 아들이거니  
우리나라 환히 비출 빛이로구나  
장남에다 또한 귀한 신분이거니  
긴 수명을 누리고 또 번창하리라  
못난 신하 찬송하는 노래를 지어  
절을 하고 대궐에다 올리웁니다

環土胥喜  
普天同情  
吾君之子  
邦家之光  
以長以貴  
俾壽俾昌  
微臣作頌  
拜獻天闈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황돈수(黃敦秀)는 지어서 올립니다.

◇

삼가 생각건대, 북극성(北極星)이 북쪽에 있어 못 별들이 공경함에 바야흐로 밝음이 서로 이은 상(象)을 우러르고, 큰아들이 제기(祭器)를 주관함에 여기에서 미리 황태자를 세우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 사람의 원량(元良)이 나오자, 사방에서 와서 축하를 바칩니다.

공경스레 생각건대 천황 폐하께서는, 크게 잇고 크게 드러났으며, 어짊에 머무르고 자애로움에 머무셨습니다. 차서(次序)를 잇는 것을 잇지 않음에 총명하고 슬기로움이 특별히 통달한 것이었으며, 사물을 만나면 가르치시매 효인(孝仁)과 예의(禮義)를 가지고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생각건대 자신궁(紫宸宮)에서 근본을 단단히 할 마음을 가지시었고, 청궁(靑宮)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종사(宗社)와 신민(臣民)들이 의탁할 곳이 있게 되어 임금이 됨에 마땅하고 왕이 됨에 마땅하게 되었고, 군국(軍國)과 감무(監撫)의 일에 걱정이 없게 되어 잘 계승하고 잘 조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제왕가(帝王家)의 바꿀 수 없는 법전인 것이며, 또한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시행한 규례인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먼 외방에 사는 미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현관(賢關)에 몸이 매여 있는 얇은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용루(龍樓)와 학금(鶴禁)<sup>161)</sup>에 매달려 있어 북극성을 의지하여 대궐 쪽을 바라보고 있으나, 종적은 노열(鷺列)과 원반(鵷班)<sup>162)</sup>에 나아가지 못한 채 남산(南山)처럼 오래 살라는 축수(祝壽)만을 바칩니다.

160) 복희 씨(伏羲氏)의……나왔네 : 복희 씨는 상고 시대 삼황(三皇) 가운데 한 사람인데, 황하(黃河)에서 용마(龍馬)가 등에 지고 나온 그림을 보고 팔괘(八卦)를 만들었으며, 양명(兩明)은 해와 달로, 전하여 황제와 황태자를 가리킨다. 『주역』 이괘(離卦)의 상(象)에 이르기를, “밝음이 둘인 것이 이(離)가 되니, 대인(大人)이 보고서 밝음을 이어 받아서 사방을 비춘다.(明兩 作離 大人 以 繼明 照于四方)” 하였다.

161) 용루(龍樓)와 학금(鶴禁) : 용루는 궁중의 누각으로, 전하여 대궐을 가리키고, 학금은 태자가 거처하는 곳으로 태자궁을 가리킨다.

162) 노열(鷺列)과 원반(鵷班) : 모두 조정의 반열을 가리킨다.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한창우(韓昌愚)는 지어서 올립니다.



공손하게 엎드려서 아뢰옵니다  
 만대토록 한 계통이 서로 전함에  
 신령하고 이에 또한 거룩하였네  
 이에 미리 황태자를 정해 세우매  
 예와 음악 조화롭고 올밭랐다네  
 큰길에는 술동이를 놓아두었고  
 고당에는 밝은 거울 걸어놓았네  
 술 따름이 끊이지를 아니 할 거고  
 밝음은 또 갈수록 더 융성해지리  
 태자께서 슬기롭고 효성 있으매  
 백성들이 기리면서 노래 부르네  
 팔굉<sup>163</sup>에서 모두 서로 기뻐하거니  
 우리나라 경사스런 복이로구나  
 우레 거둬 치는 것이 진이 되거니<sup>164</sup>  
 서로 이어 비추어서 나란히 밝네  
 미천한 신 축하하는 노래 부르며  
 북두칠성 의지하여 바라보누나

伏以  
 萬世一系  
 乃神乃聖  
 乃建皇儲  
 禮和樂正  
 中衢置樽  
 高堂懸鏡  
 其酌不窮  
 其明彌盛  
 聖子睿孝  
 民庶攸詠  
 八紘胥欣  
 邦家之慶  
 洊雷維震  
 繼照明并  
 微臣作頌  
 瞻依斗柄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성낙현(成樂賢)은 지어서 올립니다.



한 사람의 원량 있어 만국이 다 곧아지매  
 길한 날짜 가려 뽑아 큰 의식을 거행했네  
 전성이 빛 발하여서 신극까지 잇닿았고<sup>165</sup>  
 유해<sup>166</sup> 바다 물결 더해 태평가를 부르누나  
 지척에선 천안 모습 우러르매 기쁨 있고  
 평연<sup>167</sup>에선 백성들 뜻 축하하는 마음 같네

一有元良萬國貞  
 令辰諏吉縟義成  
 前星放耀連宸極  
 幼海增波頌泰平  
 咫尺天顏瞻有喜  
 紘埏民志賀同情

163) 팔굉(八紘) : 팔방의 끝 지방으로, 천하를 말한다.

164) 우레……되거니 : 우레가 거둬 친다는 것은 『주역』 진괘(震卦)에 나오는 말인데, 밝음을 뒤이어서 잇는다는 뜻으로, 태자(太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역』 진괘(震卦)의 상(象)에 이르기를, “우레가 거둬진 것이 진(震)이니, 군자가 보고서 두려워하여 닦고 살피느니라.(洊雷震 君子以 恐懼修省)” 하였다.

165) 전성(前星)이……잇닿았고 : 전성은 태자를 가리키고, 신극은 북극성으로, 황제를 가리킨다.

166) 유해(幼海) : 소해(少海)와 같은 말로, 태자를 가리킨다.

거친 시는 대충 사신 찬한 거를 따랐으나  
규곽의 맘<sup>168</sup> 해를 향해 기움 어찌 사양하랴

蕪詩粗效詞臣撰  
葵藿寧辭向日傾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김동진(金東振)은 지어서 올립니다.

◇

황가에선 대대로록 성인들이 전해오매  
전성계서 다시 북쪽 하늘에서 반짝이네  
주 문왕이 위에 있어 아버지가 되었거니  
하우 끼일 틈 없어서 아들은 또 어질다네<sup>169</sup>  
사녀들은 이날 함께 즐기면서 기뻐하고  
신하들은 만년 가길 송축하며 기도하네  
거친 시를 바치면서 해바라기 맘 깊거니  
예학 환히 밝아지길 주연<sup>170</sup>에서 송축하네

世世皇家聖聖傳  
前星復耀北辰天  
周文在上爲人父  
夏禹無間有子賢  
士女歡娛同此日  
臣隣頌禱萬斯年  
蕪辭拜獻葵忱切  
睿學光明祝胄筵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정봉현(鄭鳳鉉)은 지어서 올립니다.

◇

삼가 생각건대, 역복(曆服)<sup>171</sup>이 끝이 없으며 건원(乾元)<sup>172</sup>이 중정(中正)의 자리를 얻었으며, 비창(匕鬯)<sup>173</sup>을 주관할 사람이 있으며 예건(豫建)<sup>174</sup>이 장구해질 계책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하루 동안 예를 행함에, 사방에서 바람처럼 동하였습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천황 폐하께서는, 이에 신령스럽고 이에 거룩하시며, 어짊에 머무르고 자애로움에 머무셨습니다. 부유함이 있고 귀함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다남(多男)한 요(堯) 임금의 되기를 축원하고,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잘 계승(繼述)함에 이제 걱정이 없는 문왕(文王)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두 개의 밝음이 서로 이어서 비추는 밝음이 되었으며, 온 천하 사람들이 모두들 목을 빼들고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167) 굉연(絃埏) : 팔굉(八紘)과 팔연(八埏)의 합칭으로, 천하를 가리킨다.

168) 규곽(葵藿)의 맘 : 해바라기의 마음이란 뜻으로, 임금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衷情)을 말한다.

169) 하우(夏禹)……어질다네 : 하우는 우(禹) 임금을 말한다. 순(舜) 임금이 죽을 때에 자신의 아들이 착하지 않아 임금의 재목감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우(禹) 임금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주었다.

170) 주연(胄筵) : 서연(書筵)과 같은 말로, 황태자가 강학(講學)하는 곳이다.

171) 역복(曆服) : 역수(曆數)와 오복(五服)을 말한다. 주) 참조.

172) 건원(乾元) : 하늘이 만물의 근본이 된다는 뜻으로, 『주역』 건괘(乾卦) 단사(彖辭)에 이르기를,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의지하여 시작하니, 이에 하늘을 통합하였도다.(大哉 乾元 萬物 資始 乃統天)” 하였다.

173) 비창(匕鬯) : 종묘(宗廟)에 제사지낼 때 쓰는 제기(祭器)이다. 『주역』 진괘(震卦)에 이르기를, “천둥소리가 백 리 밖까지 들리니 비창을 잃지 않았도다.(震驚百里 不喪匕鬯)” 하였다.

174) 예건(豫建) : 미리 확정한다는 뜻으로, 후사를 이을 황태자를 미리 세우는 것을 말한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종적은 봉액(逢掖)<sup>175</sup>에 소원하나, 마음은 고릉(觚稜)<sup>176</sup>에 매였습니다. 머리가 세어 경전을 공부하매 비록 기황(綺黃)<sup>177</sup>의 우익(羽翼)이 되기에는 부끄러우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 노래를 부르매 거의 성월(星月)의 휘륜(輝輪)을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박승동(朴昇東)은 지어서 올립니다.

◇

자극성에 전성이 또 아름다운 빛 발하매  
태평시대 빛나는 운 하수 맑아질 때이네  
원량께서 정위 앉자 바람 구름 합해지고  
신성한 분 등극하매 해와 달의 빛 밝구나  
온 천하의 마음 같아 축하하는 말 올리고  
모든 백성 송축하여 환호 소리 넘쳐나네  
역복 이제 끝없어서 하늘의 복 올 거기에  
거친 시를 지어 올려 작은 정성 부치누나

紫極前星耀彩精  
泰平熙運際河清  
元良定位風雲合  
神聖垂衣日月明  
匝域同情騰賀語  
齊民咸頌溢歡聲  
無疆曆服天休至  
製進燕辭寓小誠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정준민(鄭準民)은 지어서 올립니다.

◇

부상<sup>178</sup>에서 상서로운 해 떠오르매  
원량 있어 만 나라가 바르게 되네  
주 나라의 조정에선 상사<sup>179</sup> 높였고  
한 나라선 중명<sup>180</sup>으로 우러렀다네  
전성 빛나 자신궁에 이어졌거니  
우레 거둬 소리 올려 멀리 퍼지네<sup>181</sup>  
이내 몸이 전성기의 세상 만나매  
하수의 물 맑을 거란 노래 바치네

瑞旭扶桑出  
元良萬國貞  
周朝尊上嗣  
漢代仰重明  
前躡連宸極  
洊雷揚遠聲  
躬逢全盛世  
粗效頌河清

175) 봉액(逢掖) : 옛날 선비들이 입던 옆이 넓게 트이고 소매가 큰 도포(道袍)를 말한다. 봉의(逢衣)라고도 하며, 전하여 선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176) 고릉(觚稜) : 궁궐의 처마 끝 모서리 부분을 말하는데, 전하여 궁궐이나 궁궐이 있는 서울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177) 기황(綺黃) : 진(秦) 나라의 학정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들어가 숨어살던 상산사호(商山四皓) 가운데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을 가리킨다.

178) 부상(扶桑) : 일본을 가리킨다.

179) 상사(上嗣) : 임금의 적장자(嫡長子)로, 태자를 가리킨다.

180) 중명(重明) : 한(漢) 나라 명제(明帝)가 태자로 있을 때 못 신하들이 태자를 위해 지은 노래인 사중가(四重歌)를 말한다.

181) 우레……퍼지네 : 우레가 거둬 울린다는 것은 밝음을 뒤이어서 잇는다는 뜻으로, 태자(太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오헌영(吳憲泳)은 지어서 올립니다.

◇

전성계서 빛 드리워 자미원 <sup>182</sup> 을 비치거니	前星垂彩紫微躔
붉은 단서 문 봉황이 구천에서 내려오네 <sup>183</sup>	鳳詔御丹下九天
이극 새로 막 열리자 아름다움 바라보고	貳極新開瞻具美
육군 <sup>184</sup> 모두 우리르매 때 맞추어 임어하네	六軍齊仰莅中權
팔굉 <sup>185</sup> 모두 기대하매 노래 소리 퍼져가고	八紘咸戴騰輿誦
한 계통이 서로 잇자 억만 년을 송축하네	一系相承頌萬年
성대 살며 해 중천에 뜨는 운을 만났거니	盛代躬逢亭午運
현해탄의 상서 바람 속에 새 시 올리누나	祥颺玄海獻新篇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김광현(金光鉉)은 지어서 올립니다.

◇

붉은 해가 동쪽에서 등실 떠올라	日出于東
사방에다 밝은 빛을 내려 비추네	照臨四方
만대 동안 한 계통이 이어 왔거니	萬世一系
밝은 광채 다시 빛나 퍼지는구나	式宣重光
붉은 해가 동쪽에서 등실 떠올라	日出于東
사방에다 밝은 빛은 내려 비추네	四方照臨
두 밝음이 서로서로 뒤를 이으며	明兩繼之
만 나라가 모두 마음 기뻐하누나	萬國歡心
백관들이 축하하는 말을 올리매	百僚申賀
의전 이에 융숭하게 갖추어졌네	儀典備隆
어찌 하여 찬란하게 아니 빛나라	曷不煌煌
붉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누나	日出于東

182) 자미원(紫微垣) : 별자리 이름으로, 상제(上帝)가 사는 곳이므로 궁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83) 붉은……내려오네 : 제왕이 하늘의 뜻을 잘 따라서 천명을 받는 상서를 말한다. 옛날에 주 나라 문왕(文王)이 서백(西伯)으로 있을 적에 봉황이 단서(丹書)를 물고 그의 집 문 안으로 들어와 천명(天命)을 주었는데, 그 뒤에 과연 그의 아들인 무왕(武王)이 상(商) 나라를 멸망시키고 주(周)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太平御覽』 卷24.  
 184) 육군(六軍) : 천자가 거느리는 군대를 말한다. 천자는 6군을 거느리고, 큰 나라는 3군을 거느리고, 작은 나라는 2군을 거느리고, 아주 작은 나라는 1군을 거느린다.  
 185) 팔굉(八紘) : 천하를 가리킨다.

이상은 일출우동(日出于東)으로 모두 삼장(三章)이다.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정팔위(正八位) 신 양봉제(梁鳳濟)는 지어서 올립니다.

◇

율부(律賦) 운자(韻字)는 일인원량만방이정(一人元良萬邦以貞)이다.

공손하게 엎드려서 아뢰옵니다	伏以
사중가 <sup>186</sup> 의 노래 소리 울려 퍼지매	歌溢四重
천일청 <sup>187</sup> 의 운세 오는 걸 맞이했네	運膺千一
깨우침은 군사에게 얻은 게 있고	誨有得於君師
가르침은 보필들이 안 번거롭네	教無煩於輔弼
학문에 뜻 둘 나이 지났으며 총명함은 임어하기에 충분하고	年過志學 聰明足以有臨
경계함은 안일한 데 있거니와 군자가 편안하게 지냄이 없네	戒在違寧 君子所其無逸
계통은 군부의 뒤를 이어 받았으며	蓋其統承君父
가르침은 신과 사람 뜻에 맞았다네	教協神人
이미 종묘의 세대를 이었으며	既宗祊之繼世
또한 국본이 몸에 매이었고다	且國本之維身
출입하고 기거함에 반드시 부가 앞에 있고 보가 뒤에 있었으며	出入起居 必傳前而保後
효인하고 예의로워 장차 나라의 임금 되고 백성들을 거느리리	孝仁禮義 將君國而子民
지난 옛날 주 나라의 성대한 법 있었으며	肆昔有周盛典
한 나라에서는 또 처음 즉위함이 있었네	在漢初元
한 사람이 뒤를 이으며 경사가 있어	嗣一人而有慶
이극을 체 받아서 존귀한 데 거하였네	體貳極而居尊
하루 걸러 서연을 열으며 봄철에는 시 배우고 여름철엔 예 배우며	隻日開筵 春以詩而夏禮
팔음으로 가르침을 펴매 관대하면서도 장엄하고 곧으면서 온화하네	八音敷教 寬則栗而直溫
하물며 지금은 천자의 뒤를 이을 후사가 되어	矧今爲天子嗣
길하고도 좋은 날짜 가려 뽑아 식 올렸네	簡日辰良
아름다운 명성 이미 일찌감치 퍼졌기에	令聞既其夙播
보책에다 드리내어 높게 계양하였다네	顯冊以之載揚
이에 가명 <sup>188</sup> 을 하사 받아서 단륜 <sup>189</sup> 의 빛남을 이었으며	肇錫嘉名 承丹綸之有煥
이에 원복 <sup>190</sup> 을 위에 써서 주불 <sup>191</sup> 의 찬란함에 임했도다	迺加元服 御朱芾之思皇

186) 사중가(四重歌) :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태자로 있을 때 못 신하들이 태자를 위해 지은 노래를 말한다.  
 187) 천일청(千一淸) : 황하가 천년만에 한 번 맑아질 것이란 말로, 성인이 나와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188) 가명(嘉名) : 아름다운 이름이나 칭호를 말한다.  
 189) 단륜(丹綸) : 제왕이 내리는 조령(詔令)을 말한다.

성대한 예가 세 번 올리어 이루어지고	于時縹禮成三
찬란한 우의 <sup>192)</sup> 가 만 가지로 펼쳐지누나	羽儀振萬
봄은 순 임금의 얼굴에서 한 번 풀리어지고	春一解於舜顏
빛은 주 나라의 법전을 거듭해서 선포하네	光重宣於周憲
하루 동안에 세 차례를 조회하매 효성은 동해에까지 미치게 할 것이며 <sup>193)</sup> 三朝一日 孝東海而準推	
천추토록 영원하길 만세 부르매 장수함은 남산과 같기를 축원하누나 萬歲千秋 壽南山而拜獻	
이에 사방에서 귀를 세우고 보매	於是聳觀四方
천하 만방에다 법도를 드리우누나	垂憲萬邦
금탕은 안정되어 공고하여 질 것이고	奠金湯於鞏固
보록은 이어져서 영구하게 갈 것이리	綿寶錄於靈長
옛 예를 참작하고 지금 예를 참고하여 예법을 취함은 더할 수가 없거니와 酌古參今 取儀文之可尙	
전대를 빛내고 후대를 열어주매 순서에 따라서 잇는 것을 잊지 않았도다 光前裕後 思繼序之不忘	
이에 이와 같은 경사를 만났으니	爾乃遇慶如茲
어떤 거로 임금 은덕 보답하려나	報君何以
사원에선 송축하는 노래를 올리고	騰頌禱於詞垣
여리에서 구가한 노래를 채집하네	采謳歌於閭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왕도에 사는 모든 신하들이 모여들고	梯山航海 普王土之悉臣
해를 보고 구름을 보매 우리 임금에게 아들이 있음이 미덥도다	就日望雲 信吾君之有子
밝음이 되어서 뒤를 이었으며	於戲作離以繼
간고 <sup>194)</sup> 하여 곧음이 되었도다	幹蠱爲貞
임무는 감무하는 데에 걱정이 없게 되었고	任無憂於監撫
제사는 자성 <sup>195)</sup> 을 의탁할 데가 있게 되었도다	祀有托於黍盛
요 임금의 아름다움에 순 임금의 두터움을 지녔으며	堯郁舜穰 仰一元之適會
일원이 모이는 것을 우러르고	
문왕의 계책에 무왕의 공렬을 지녔으며	文謨武烈 祈四海之永清
사해가 영원토록 맑을 것을 기원하는도다	

190) 원복(元服) : 예를 올릴 때 쓰는 관(冠)을 말한다.  
191) 주불(朱芾) : 붉은 색의 슬갑(膝甲)을 말한다.  
192) 우의(羽儀) : 훌륭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193) 효성은……것이며 : 효성의 덕이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란 뜻이다.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효(孝)의 덕은 동해에 미치게 하든 서해, 남해, 북해에 미치게 하든 모두 각 지방에서 정도(正道)로써 따르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194) 간고(幹蠱) : 아들이 부친의 뜻을 잘 계승해서 부친이 이루지 못한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고괘(蠱卦)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아들이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허물이 없어진다.(幹父之蠱 有子 考无咎)”한 데서 나온 말이다.  
195) 자성(黍盛) : 제사를 지낼 적에 쓰는 밥을 말하는데, 제사에 올려서 신(神)이 흠향하게 하는 것이다. 『좌전(左傳)』의 주에 이르기를 “서직(黍稷)을 자(黍)라고 하고,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성(盛)이라고 한다.” 하였다.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정봉시(鄭鳳時)는 지어서 올립니다.

◇

공손하게 엮드려서 아뢰옵니다  
황가 집안 찬란하게 빛이 나거니  
만대 동안 한 계통이 전하여졌네  
그 처음은 신무부터 시작이 되어  
명 다지길 크게 하고 치밀히 했네<sup>196)</sup>  
거룩한 분 서로서로 이어 받으며  
옛 법도를 한결같이 따라서 했네  
이미 선제 다스리던 그 시절부터  
사방에서 와서 모두 복종하였네  
우리 황제 좋은 자질 타고나시어  
선대 때의 뜻을 잇고 일 조술했네  
계술하는 일을 보면 어찌했던가  
게으름과 방일함이 일체 없었네  
오 년 동안 다스림이 태평하여서  
사해가 다 평안하고 평온하였네  
성스러운 아드님이 또한 있어서  
동방에서 뛰어나게 나오시었네  
인으로는 방패삼고 의로 노 삼아  
몸가짐은 모두 법도 맞게 하였네  
이에 유사 불러서는 명을 내려서  
길한 날짜 접을 쳐서 뽑게 하였네  
황태자로 정하여서 책립을 하매  
위의 모습 반듯하고 반듯하였네  
들어가고 나옴에는 사와 보 있고  
좌우에는 보필하는 신하가 있네  
만세 소리 하늘 위로 울려 퍼지고  
하수 송축 넘실넘실 흘러 넘치네  
이에 만년 세월 흘러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은밀하게 잘 도와주리  
이에 신은 절하고서 축수 올리니

伏以  
於赫皇家  
世萬系一  
肇自神武  
基命宥密  
聖聖相承  
舊章是率  
暨于先帝  
四方來膝  
篤生我皇  
志繼事述  
繼述如何  
無怠無逸  
五載治平  
四海寧謐  
亦有聖子  
震一首出  
仁干義櫓  
身度聲律  
爰命有司  
爰簡吉日  
爰立皇儲  
威儀秩秩  
入師出保  
左輔右弼  
山呼沸騰  
河頌洋溢  
於萬斯年  
惟天陰騭  
臣拜獻壽

196) 명 다지길……했네 : 『시경』 주송(周頌) 호천유성장(昊天有成章)에 이르기를, “성왕께서 감히 편안히 계시지 못하고서, 밤낮으로 명 다지길 크게 하고 치밀하게 하였네.(成王不敢康 夙夜基命宥密)” 하였다.

남산처럼 우뚝하고 우뚝하소서

南山崔嵬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박장홍(朴長鴻)은 지어서 올립니다.

◇

삼가 생각건대, 보위(寶位)에 앉아서 다스림을 내심에 현황(軒皇)의 천일청(千一淸)의 운을 어루만지고, 옥의(縟儀)의 전례(典禮)를 성대하게 거행하매 한가(漢家)의 사중가(四重歌)가 울려졌습니다. 이에 경사스러움은 고금에 떨치고, 기쁜 마음은 중외가 다 똑같습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천황 폐하께서는, 문왕 같은 계책에다 무왕 같은 공렬이 있어,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 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날로 새롭게 하고 날로 새롭게 하면서 자애에 멈추고 어짐에 멈추는 도에 힘썼고, 군자에게 아들이 있으며 명철함을 명하고 길함을 명하는 처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황태자를 미리 세우는 날을 당하여, 모두들 나라의 빛남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현관(賢關)에 종적이 끼어 있으며, 위궤(魏闕)에 마음이 쏠려갑니다. 궁벽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비록 푸른 산처럼 장수하기를 소리치는 반열에는 나아갈 수가 없지만, 저 하늘의 구름과 해를 바라보매 거의 하수가 맑아지라는 노래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1916년 11월 3일에 경학원 강사 신 이학재(李鶴在)는 지어서 올립니다.

〈출전 : 「立太子禮獻頌文」, 『經學院雜誌』 제12호, 1916년 12월 25일〉

## 2. 『성전성시집(聖戰誠詩集)』(1937)

### 서(序)

무릇 천지가 개벽(開闢)한 이래로 크게 법도를 세워 나라의 터전을 열고 난 뒤에 만대토록 한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은, 오직 우리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 뿐이다. 하늘에서 이렇게 맡겨준 까닭은, 대개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분들이 서로 뒤를 이으면서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능히 그 덕을 잘 계승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하여 교린(交隣)을 하고 통상(通商)을 하면서 앞장서서 새롭게 해 날로 부강해지게 하여, 드디어는 동양의 패권(霸權)을 잡게 되었다.

그런데 저 벌레와 같이 꿈틀대는 못난 중국인들은 망령되어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 것만 믿고 시세(時勢)가 변천된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직까지도 오히려 잘못된 정사를 고식적으로 펴는데 몰두해 있었다. 이는 비유하자면 깜깜한 밤중에 깊이 잠들어 있어 잠깐 동안 큰 종을 쳐서 경계하였는데, 귓가에서 종소리가 그치지자마자 다시금 혼몽 속에 빠져드는 것과 같았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제정

(帝政)을 폐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무지하고 완악한 군벌(軍閥)의 무리들이 각각 한쪽 지방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통일되었다고 하였으나, 안으로는 노려보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른바 공산주의(共產主義)라는 것은 인리(人理)를 없애치우고 질서(秩序)를 어지럽혀서 사람의 도리와 올바른 의리의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은밀하게 이들을 자라나게 하여 막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동우(東隅)<sup>197)</sup>에서 뜨는 해가 끝내는 약목(若木)<sup>198)</sup>에 파묻혀져서 노양공(魯陽公)의 창<sup>199)</sup>으로도 능히 만회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무릇 선각자(先覺者)가 뒤에 깨닫는 자를 깨우쳐 주는 것은 이치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은 형세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다. 이에 천황께서 혁연하게 위엄을 떨쳐 군대에게 명하여 크게 응징하게 하였다. 이는 토지(土地)를 넓히고 인민(人民)을 불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어리석고 우매한 아동을 순순하게 타일러 가르치는 데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드시 회초리로 쳐서 기어이 반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우리 천황의 군대가 향해 가는 곳마다 명석을 말듯 휩쓸어서 3개월 사이에 이미 지나(支那)의 반 정도를 함락시켰다, 그러니 참으로 성대하기도 하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우리 조선(朝鮮)의 백성들은 자취는 비록 새로 붙은 데에서 소원하였지만, 교화는 이미 함께 사랑해 주는 데에서 흡족하였다. 이에 징병(徵兵)하는 줄에는 미처 끼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의용군(義勇軍)을 편성하였으며, 경제(經濟)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서 군비(軍費)를 도울 비용을 서로 앞다투어 바쳤다. 그런데 팔도(八道)가 한결 같이 하면서 마치 장차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였다. 이렇게 하게 된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삼가 생각건대, 총독(總督) 남공(南公)께서 천황께서 뽑아주신 데에 응해 총독 자리를 맡은 뒤로 거룩한 교화를 받들어 드날리면서 유학(儒學)을 높이고 윤리(倫理)를 밝혀, 사람들마다 모두 충성과 애국의 정성을 다하게 하였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 덕에 감복하여 우리르지 않겠는가.

이러한 시국(時局)을 당하여 전 조선의 문장을 짓는 인사들이 시를 지어 찬양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부쳐 보내었는데, 그 숫자가 천 편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이에 그 시들을 모아 간행을 하여 동호자(同好者)들에게 반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경학원(經學院)의 대제학(大提學)이신 정봉시(鄭鳳時) 선생께서 이를 주관하였으나, 미처 이루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경학원의 동료들이 그 일을 잘 마쳐서 그 뜻을 이루고 난 뒤에 못난 나에게 서문을 짓도록 떠맡겼다. 이에 느낀 바를 대략 서술하여 이상과 같이 말한다.

경학원 부제학(副提學) 유진찬(兪鎭贊)

197) 동우(東隅) : 해가 뜨는 지역을 말한다.

198) 약목(若木) : 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로, 대황(大荒) 가운데 있는 형석산(衡石山), 구음산(九陰山), 형야지산(洞野之山) 꼭대기에 자라는 나무인데, 해가 질 적에 이 나무를 지나서 간다고 한다. 『山海經 大荒北經』

199) 노양공(魯陽公)의 창 : 해를 뒤로 물러나게 한 창을 말한다. 『회남자(淮南子)』 각명훈(覺冥訓)에 이르기를, “전국 시대 때 초(楚)나라의 노양공(魯陽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한(韓)나라의 군대와 싸움을 하였는데, 싸움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 하늘의 해가 저물었다. 이에 노양공이 창을 한 번 휘두르자 하늘에 뜬 해가 3사(舍)만큼 뒤로 물러났다.” 하였다.

## 11월 7일 신궁(神宮)을 참배하고서

산마루에 돌로 문을 만들었으며  
 우뚝 솟은 그 높이가 백 척이라네  
 넓은 뜰은 깨끗하여 티끌이 없고  
 모래는 또 평평하여 눈 온 것 같네  
 붉은 노을 채색 구름 어린 그 속에  
 높은 전각 푸른 하늘 속에 솟았네  
 숙연하게 바람 절로 불어서 오자  
 붉은 잎새 굴러가는 소리 적막네  
 향불 연기 궤안 위에 어리어 있고  
 수놓 비단 주렴 장막 겹 싸고 있네  
 못 봉우리 홀과 같이 읊하고 있고  
 못 나무들 깃발인 양 죽 늘어섰네  
 신탭 마치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  
 존엄하여 감히 쳐다보지 못하네  
 큰 기업을 열어 큰 운 드리웠거니  
 공훈 업적 넓고 크게 드러났다네  
 신령스런 계책에다 거룩한 공렬  
 크나크게 드러나고 또 이어졌네  
 운에 응해 태평 시절 열었거니와  
 지극한 인 아름다운 명에 응했네  
 한 계통이 만대토록 전해왔음은  
 역력하게 옛 역사에 쓰여져 있네  
 모든 생명 은택 고루 입었거니와  
 지극한 그 다스림은 삼천 년 가리  
 옛 나라에 나라의 명 새롭거니와  
 하늘에서 보우하사 복록이 많네  
 국민들은 정신 새로 가다듬으니  
 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누나  
 십일월에 날짜는 또 칠일인데도  
 겨울 날씨 따뜻하여 봄날 같구나  
 못사람들 맑은 새벽 달려오거니  
 분주하게 시장 가듯 모이어 드네  
 관공서의 서리 모습 엄숙도 하고

山巔石作門  
 屹然高百尺  
 廣庭淨不塵  
 沙平疑雪白  
 紫霞彩雲裏  
 穹殿出碧霄  
 肅然風自動  
 彤葉響寂寥  
 香煙凝几案  
 錦繡重簾帷  
 衆峯揖如笏  
 羣木列作旗  
 神榻如天上  
 尊嚴不敢仰  
 肇基垂鴻運  
 勳業著巍蕩  
 神謨與聖烈  
 丕顯且承  
 應運啓泰平  
 至仁休命膺  
 一系傳萬世  
 歷歷載前史  
 咸生均被澤  
 至治三千祀  
 舊邦命維新  
 天佑多福履  
 國民作精神  
 週間今日始  
 十一月七日  
 冬暄如春晷  
 群衆趨清晨  
 奔走集如市  
 濟濟官公吏



문무 관원 위익은 또 장엄도 하네  
 반차 따라 각자 모두 정렬했거니  
 그 행렬은 반듯하여 삐뚤지 않네  
 여항 모습 마치 시장 바닥 같아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였네  
 모두 나와 앞다투어 기뻐 뛰는 자  
 이 땅 사는 백성 아닌 사람이 없네  
 기원하며 각자 정성 바치거니와  
 손을 얹어 절하고 또 조아리누나  
 우리 천황 만만세나 이어질 거니  
 무운 역시 길고도 또 오래 가리라  
 천황에게 충성할 맘 간절도 하고  
 나라 은혜 갚으려는 정성도 깊네  
 신념 어찌 소홀하게 여겨서 되리  
 덕업 이름 부지런히 힘써야 하리  
 근검절약 모름지기 힘써서 하면  
 생활 의당 개선되어 좋아지리라  
 꿈틀대는 벌레 같은 저 중국인들  
 아무 까닭 없이 혼단 일으키었네  
 갑작스레 순치 관계 우의를 잊고  
 진심으로 권하는 맘 저버렸다네  
 응징함을 그만 둘 수 없는 것으로  
 어찌 교린 끊으려고 그런 것이라  
 이에 군용 정돈하여 장하게 해서  
 赫赫하게 명분 의리 바르게 했네  
 옳고 그름 원래부터 정해졌거니  
 승패 따위 다시 무얼 논하겠는가  
 향하는 곳 파죽지세 같았거니와  
 승리 소식 매일처럼 이르러 왔네  
 그 무위에 만방들이 모두 놀라매  
 환성 소리 사방 온통 들끓었다네  
 하늘 마음 사사로운 뜻이 없거니  
 덕이 있는 사람을 잘 돌봐 준다네  
 공고하여 끝이 없을 거라는 축하  
 똑같은 말 억만 사람 다 같이 하네

文武壯威儀  
 班次各整肅  
 行列不參差  
 閭巷如市肆  
 男女老壯人  
 摠動爭勇躍  
 莫非率土民  
 祈願各輸誠  
 拜手又稽首  
 吾皇萬萬歲  
 武運亦長久  
 忠君心常切  
 報國誠不淺  
 信念那可忽  
 德業所當勉  
 勤儉須努力  
 生活宜改善  
 蠢彼中華人  
 起釁本沒因  
 遽忘唇齒誼  
 故負勸誘真  
 膺懲勢不已  
 豈欲絕交隣  
 爰整軍容壯  
 赫赫正名義  
 是非原有定  
 勝敗更何議  
 所向如破竹  
 捷報日日至  
 武威驚萬邦  
 歡聲沸四域  
 天心非有私  
 眷顧在人德  
 鞏固無疆祝  
 一辭同萬億

창성하여 좋은 계책 남겨 줬거니  
넉넉하게 드리워져 끝이 없으리

隆昌貽燕翼  
垂裕永無極  
경학원 유진찬(俞鎭贊)

### 성전성시(聖戰誠詩)

천황께서 한 번 노해 하늘 군사 움직인 건  
응징하려 한 것이지 싸우려는 건 아니네  
동아시아 평화 본디 옳은 법칙 있는 거로  
남지<sup>200</sup>까지 추격하여 감이 어찌 속맘이라  
등 뒤에는 기회 보는 백인종들 있거니와  
눈앞에서 횡액 당함 바로 창생들이라네  
장군<sup>201</sup> 이제 반성하여 귀순하여 올 경우엔  
교린 맺어 형제 우의 맺을 뿐만 아닐 걸세

天皇一怒動天兵  
此是膺懲非抗爭  
東亞平和元定則  
南支追擊豈真情  
背後岷機唯白種  
眼前橫厄卽蒼生  
蔣君反省如歸順  
不獨交隣結弟兄  
경학원 나일봉(羅一鳳)

빛나는 해 하늘 위로 솟아올라서  
만고토록 부상 땅을 내려 비추네  
아름답고 아름답다 우리의 제국  
큰 복조가 영원토록 드리워졌네  
운세 응해 제국 터전 열었거니와  
보록<sup>202</sup> 정히 끝이 없어 영원할 거리  
赫赫하게 빛난 공렬 성대하거니  
역사책에 실려져서 빛이 날 거리  
고루 천황 은혜 크게 입었거니와  
모두 무운 장구하길 축원하누나  
이웃 나라 평화의 도 잃어버리고  
제 스스로 교의 도리 손상시켰네  
옳고 그름 다시 무얼 논하겠는가  
유리하고 불리함을 못 헤아렸네

旭日天上出  
萬古照扶桑  
猗歟我帝國  
洪祚垂永昌  
膺運肇基業  
寶籙正無疆  
赫赫盛功烈  
竹帛載有光  
均被皇恩重  
咸祝武運長  
隣邦失平和  
自致交誼傷  
是非更何論  
利鈍不自量

200) 남지(南支) : 남쪽 지나(支那)로, 중국의 남부 지방을 말한다.

201) 장군(蔣君) : 장개석(蔣介石)을 가리키는 듯하다.

202) 보록(寶籙) : 도가(道家)의 부록(符籙), 즉 미래를 예언한 비결서를 말하기도 하고, 황제(黃帝)의 제요(帝堯) 때 하늘에서 봉황이 내려와서 주었다고 하는 도록(圖籙)을 말하는데, 전하여 천명(天命)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여기서는 천명을 뜻하는 말로 쓰이었다.

군대 정돈하여 대책 결정했거니  
 명분에다 의리 정히 당당하였네  
 지략을 써 신묘함을 실었거니와  
 위엄 권세 열강들을 압도하였네  
 수천 명의 충의로운 군사들 모두  
 천황 은혜 갚을 마음 잊지 않았네  
 개선할 날 가까운 걸 알겠거니와  
 환성 소리 온 사방을 울리는구나  
 만세 삼창 온 나라에 두루 퍼지며  
 우리 천황 만세 살라 축원을 하네

整旅決大策  
 名義正堂堂  
 智略輸神妙  
 威權壓列強  
 萬千忠義士  
 報國心不忘  
 凱旋知不遠  
 歡聲動四方  
 三呼遍區域  
 萬歲祝吾皇

경학원 안인식(安寅植)

대지 온통 물에 잠겨 푸른 바다 되었거니  
 오늘날엔 옛 신주<sup>203)</sup>를 판별하기 힘이 드네  
 긴긴밤이 다 지나고 부상의 해 떴거니와  
 이로부터 온 세계에서 문명 으뜸 될 것이리

大地陸沈滄海流  
 如今難辨古神州  
 一輪長夜扶桑日  
 從此文明冠五洲

바다 건너 올 적에는 무더위가 괴롭더니  
 시월 되어 황하의 물 언 걸 이미 보았다네  
 한 몸 죽고 사는 거야 무얼 다시 돌아보라  
 적의 형세 침입하여 오게 할까 겁나누나

來時航海苦炎蒸  
 已見黃河十月水  
 存沒一身那更顧  
 恐教敵勢有侵凌

썩은 나무 꺾듯 함이 북지<sup>204)</sup>에서 시작되어  
 대군 가는 곳엔 모두 바람처럼 스러지네  
 승리 소식 매일처럼 눈이 쏟아져 들려오매  
 공중전이 강절<sup>205)</sup>에서 한창 무르익을 때네

拉朽摧枯自北支  
 大軍行處盡風靡  
 捷書日日飛如雪  
 空戰又酣江浙時

경학원 권순구(權純九)

천황 군대 북벌하여 하늘 위엄 진동하매  
 온 천지에 땀방울을 비 오듯이 흩뿌리네  
 어찌 하면 맑은 바람 천만 줄기 일으키어

皇軍北伐震天威  
 汗滴洪爐雨共揮  
 安得清風千萬陣

203) 신주(神州) : 중국을 말한다. 전국 시대 때의 학자인 추연(鄒衍)이 중국을 신주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는 중국의 별칭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204) 북지(北支) : 북쪽의 지나(支那)라는 뜻으로, 중국의 북쪽 지방을 가리킨다.

205) 강절(江浙) : 중국의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의 합칭으로, 여기서는 중국 남부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부대까지 불어 보내 군복 펄럭이게 할까

遠吹部隊拂征衣

적들 평소 신의 없고 의지할 데 없거니와  
대 쪼개듯 응징하길 날짜 곱아 기원하네  
어찌 하면 은하수 물 천만 곡을 쏟아내어  
개선가를 부르면서 병기 씻고 오게 할꼬

敵常無信且無依  
破竹膺懲指日祈  
安得天河千萬斛  
凱旋歌舞洗兵歸

경학원 심선탉(沈璿澤)

뭘 까닭에 교린의 도 잃고서는 대들어서  
심상하게 치지도외 할 수 없게 하였는가  
의병 출정 전쟁하기 좋아해서 아니거니  
학대받는 백성들 다 동포인 데 어찌겠나  
너희들은 창 거꾸로 들고 범 등 타지 마라  
내 마땅히 칼 휘둘러 교룡 베길 맹서하리  
동아시아 평화 누림 그제 진짜 국책으로  
맑은 바람 불어보내 북평 교외 들이누나

胡緣排抗失隣交  
不得尋常度外拋  
義旅出征非好戰  
愚民受虐奈同胞  
倒戈爾莫妄騎虎  
揮劍吾當誓斷蛟  
東亞協和真國策  
清風吹入北平郊

경학원 윤상호(尹相浩)

용장에다 용병들이 백만 쌍이 되거니와  
대 쪼개는 형세에다 무지개의 기운이네  
성조에서 베푼 은택 골고루 다 적시거니  
명당<sup>207</sup> 크게 열고서는 만방을 다 통괄하리

勇將雄兵百萬雙  
勢如破竹氣如虹<sup>206</sup>  
聖朝恩澤均沾施  
大闢明堂統萬邦

경학원 이강원(李康元)

애국기를 다 만들어 군대에다 바쳤거니  
바람 몰고 번개 당겨 마음대로 떠오르네  
남북 서로 호응하여 백성들 맘 합했거니  
땅은 넓고 하늘 높아 무운 장구할 것이리  
애오라지 먼 나라가 복종할 줄 알겠거니  
저 불쌍한 중국 땅은 절로 침몰할 것이리  
머리 묶고 종군함을 내가 어찌 감히 하리  
촌스러운 시를 지어 만장하길 축원하네

愛國機成獻國防  
駕風掣電任飛揚  
南呼北應民心合  
地闊天高武運長  
聊識遠邦皆偈伏  
可憐中土自淪喪  
從軍結髮吾何敢  
爲唱俚詞祝滿場

경학원 이상호(李尙鎬)

206) 虹 : 虹의 잘못된 뜻하다.

207) 명당(明堂) : 제왕이 정교(政教)를 펴는 궁전을 말한다.

묘당 세운 승리 계획 앞날 기약 있건마는  
 이웃 나라 꿈을 더디 깨는 데야 어찌겠나  
 만리토록 연횡하여 몰아치는 형세에다  
 십분 힘써 뛰어올라 극복하는 때로구나  
 서리 깔 본 위력이라 원래 적이 없거니와  
 누운 풀과 여린 싹이 어찌 아니 쇠하리오  
 운명의 길 안위 이제 경각간에 달렸으니  
 저들 보루 위에 꽂힌 일장기를 볼 것이리

廟堂勝算有前期  
 其奈隣壘夢覺遲  
 連橫萬里長驅勢  
 踊躍十分克服時  
 凌霜威力元無敵  
 偃草萌芽豈不衰  
 命道安危在頃刻  
 看他壘壁日章旗  
 경학원 황석환(黃錫煥)

제국 군대 명성이야 이 세상서 막강하니  
 일거에 다 응징하는 모습 정히 당당하네  
 일장기가 향하는 곳 상대될 자 없거니와  
 조만간에 평화 이뤄 사방을 다 진압하리

帝國軍聲世莫強  
 膺懲一舉正堂堂  
 日旗所向都無敵  
 早晚平和鎮四方  
 경학원 오봉영(吳鳳泳)

서양에서 감히 우리 동방 침입 못했거니  
 무운 길어 장구하고 국운은 또 융성하리  
 온 나라가 한마음 돼 붉은 정성 사무치니  
 적군들 피 천리토록 흘러 붉게 물들이네  
 되놈 피리 적적하게 불어대는 관산월<sup>208</sup>에  
 일장기는 펄럭펄럭 초목 위의 바람이네  
 현재 시국 비상하여 중하고 또 크거니와  
 평화주의 바라는 맘 만백성이 똑같구나

西洋不敢向吾東  
 武運長長國運隆  
 舉國一心誠徹赤  
 敵軍千里血流紅  
 胡笳寂寂關山月  
 日幟飄飄草木風  
 時局非常重大  
 平和主義萬民同  
 경학원 김성렬(金聖烈)

갑작스레 이는 풍운 아시아서 일어나매  
 평화롭던 평소의 뜻 변하여서 원수 됐네  
 서로 같은 황인종들 화목함이 마땅한데  
 붉게 변한 그들 마음 무얼 구하려는 건가  
 비록 숫자 많다지만 오합지졸 뿔 논하랴  
 오직 정병 상대 없어 용맹 군사 치달리리

忽地風雲起亞洲  
 平和素志變成仇  
 同黃本色固宜睦  
 化赤渠心何所求  
 雖衆奚論散烏鳥  
 惟精無敵驅貔貅

208) 관산월(關山月) : 한(漢)나라 악부(樂府)의 횡취곡(橫吹曲) 이름인데, 대부분 이별을 가슴아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충성스런 천황 군대 승승장구 이어지니  
머지 않아 전 중국서 큰 공훈을 거두리라

皇軍忠勇連乘勝  
不日全支大業收  
경학원 지완수(池完洙)

배와 차가 함께 나가 밤낮 없이 정벌하니  
그 진세는 당당하고 창과 칼은 빛나누나  
천리 밖서 군사 계책 모두 결정하였거니  
만 사람이 음식 들고 어느 누굴 환영하나  
군대 명성 매일처럼 중국 들판 진동하니  
개신 노래 가끔 상해 군영에서 들려오네  
중국 대륙 맑아질 날 머지 않을 줄 알거니  
이로부터 동아시아 태평 시절 즐기리라

舟車并進晝宵征  
陣勢堂堂劍戟明  
千里籌謀皆已決  
萬人簞食爲誰迎  
軍聲日震中原野  
凱唱時聞上海營  
大地澄清知不遠  
東亞自此樂昇平  
경학원 송시헌(宋始憲)

중국인들 예로부터 전쟁하는 데 익숙해  
비밀스런 계책 품고 천황 군영 습격했네  
군사들을 정돈하여 항복한 자 용납하며  
육군 공군 호응하여 견고한 성 깨뜨렸네  
적진에 몸 내던져서 천황에게 충성 바쳐  
애기 타고 포탄 쏘며 삶과 죽음 잊었다네  
남북에서 하는 전쟁 아직 아니 끝났거니  
풍진 언제 찾아들어 평화로운 세상 되나

中原從古慣兵爭  
陰計深藏襲帝營  
師旅整齊容降卒  
陸空呼應拔堅城  
投身敵陣忠君國  
爆彈愛機忘死生  
南北干戈猶不止  
風塵何日泰和平  
경학원 엄달환(嚴達煥)

중국 땅에 사변 일어 우리 동방 미쳐오매  
천황께서 군사 명해 함께 출동하게 했네  
군사 규율 밝아 서로 계책 다뒀 올리었고  
못 사람들 반드시 꼭 공 이루길 기원했네  
중화민국 검게 물든 먼지 연기 청소하매  
황천에 뜬 상서의 해 붉은 거를 봉축했네  
지금 이후 개신 노래 부르면서 돌아올 때  
사람들 다 맞이하며 곧은 충정 축하하리

中華事變暨吾東  
帝命師團行一同  
軍律神明爭進策  
衆心祈願必成功  
掃除民國塵烟黑  
奉祝皇天瑞日紅  
今後凱歌回路上  
人人迎舞賀貞忠  
경학원 위대원(魏大源)

뛰어난 그 전술이야 고금천하 드물거니

戰術古今天下稀

비 오듯이 포탄 쏘는 공군기를 운용하네  
별과 바둑 같이 퍼져 중원 땅이 비좁거니  
백만이나 되는 비휴<sup>209)</sup> 하나하나 나는구나

砲煙彈雨運空機  
星羅棋布中原窄  
百萬狴貅一一飛

부모들은 문에 기대 바라보길 억제하고  
처자식도 소매 잡아끄는 정을 금하누나  
온 나라가 일심으로 보국하길 생각하니  
부상 땅의 붉은 해를 그 충정이 꿰뚫누나

爺孃還抑倚閭望  
妻子亦禁牽袖情  
舉國一心思報國  
扶桑紅日貫忠精

생각건대 무더위와 모진 추위 견디면서  
주둔하는 장사들은 창을 베고 잠자리라  
한반도의 창생들은 그 덕분에 편안하니  
어서 빨리 개선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소

遙想炎風朔雪天  
遲留壯士枕戈眠  
半島蒼生賴安堵  
願言朝暮凱歌旋

경학원 공성학(孔聖學)

영원토록 교린의 의 끊어버리고  
일본에게 대들 마음 괜히 내었네  
망할 날이 조석 간에 있을 것이며  
사변은 또 고금에도 없었던 바네  
비록 산하 견고함을 스스로 믿고  
감히 보루 깊은 곳을 엿보았지만  
계책 궁한 풍씨 장씨<sup>210)</sup> 그 무리들은  
필경에는 옛 맹세를 찾을 것이리

永絕交隣誼  
謾生抗日心  
存亡朝不夕  
事變古無今  
縱恃山河固  
敢窺壁壘深  
計窮馮蔣輩  
畢竟舊盟尋

경학원 지완수(池琬洙)

전쟁터서 쓸 물품을 만민들이 다 걱정해  
각자 성금 바치면서 앞장 서로 서려 하네  
보국하는 군사들 맘 말가죽을 지니었고<sup>211)</sup>  
위로하는 천황의 맘 갓옷 벗어 입혀주네

戰場需用萬民憂  
各獻成錢不讓頭  
報國軍心持馬革  
慰師宸念解貂裘

209) 비휴(狴貅) : 맹수의 이름으로, 범과 곰을 닮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을 길들여 전쟁에 썼다고 한다. 후대에는 용맹한 군사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210) 풍씨(馮氏) 장씨(蔣氏) : 중화민국(中華民國) 시기의 군사가(軍事家)이며 애국운동가(愛國運動家)인 풍옥상(馮玉祥)과 장개석(蔣介石)을 가리키는 뜻하다.

211) 보국(報國)하는……지니었고 :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을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의 시신을 말가죽으로 싸서 묻었다.

연초 많이 거둔 것은 아동들의 무리이고  
 비녀 다튀 뽑은 것은 부녀들의 무리였네  
 호궤함에 있어 재정 부족하단 말을 말라  
 여기저기 광산 있어 화천<sup>212)</sup> 흘러넘친다네

多收煙草兒童伴  
 爭拔金 婦女儔  
 犒饋休言財政薄  
 鑛山棋置貨泉流  
 경학원 강석규(姜錫圭)

우뚝하고 우뚝할사 천황의 계책  
 덕스러운 데다가 또 위엄이 있네  
 그 덕 퍼서 널리널리 베푸는 바에  
 백성들이 모두들 다 떠받드누나  
 그 위엄을 퍼서 드날리는 바에는  
 장사들이 용맹함을 떨치는구나  
 서구 세력 동쪽으로 점점 들어와  
 시국 상황 어려움이 많고도 많네  
 생각건대 저기 지나 중국인들은  
 어둡고도 완악해서 착하지 못해  
 망령되어 못된 짓을 안 그만뒀네  
 제멋대로 대들면서 모욕하면서  
 평화로운 세상 온통 뒤흔들었네  
 러시아와 친히 지내 우호 맺고서  
 생명에게 화를 두루 끼치었다네  
 이를 만약 응징하지 아니한다면  
 그 형세가 장차 산을 무너뜨리리

巍巍皇謨  
 惟德惟威  
 德之所施  
 黎民咸戴  
 威之所揚  
 將士奮勇  
 西勢東漸  
 時局多艱  
 惟彼支那  
 冥頑不良  
 妄不自戡  
 敢肆抗侮  
 擾亂平和  
 與赤露化  
 貽禍生靈  
 若不膺懲  
 勢將懷襄<sup>213)</sup>

경학원 박래양(朴來陽)

천황 군대 북정하여 한 번 쓸어 맑게 하매  
 노추의 간 쪼개지고 만방 모두 놀랐다네  
 벌레 소리 어찌 감히 뇌정 소리 퓌박하며  
 반딧불이 어찌 감히 일월 밝음 침범하랴  
 우리 조선 백성들만 의용 바칠 뿐 아니라  
 역시 중국 백성들도 어짐에 다 감복하리  
 개선가를 부르면서 군사들이 돌아온 뒤

皇旅北征一掃清  
 虜酋膽裂萬邦驚  
 啾啾敢逼雷霆響  
 熠燿焉侵日月明  
 不獨鮮民輸義勇  
 亦令支衆感仁聲  
 懸知凱唱還師後

212) 화천(貨泉) : 옛날 왕망(王莽) 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의 이름인데, 전하여 화폐의 통칭으로 쓰이며, 재정(財政)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213) 이 시는 운자나 행수가 맞지 않는바,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우리 동양 태평시절 즐길 줄을 알겠구나

중국 땅서 무력 씬에 조정 계책 훌륭하여  
동양 함께 구제하는 그 의로움 당당하네  
응징한 건 단지 함께 잘 살자는 것이건만  
항전하다 제 스스로 망한 것이 가련하네  
폭격 받은 성의 시신 탄 재 이미 싸느랴고  
들관 적신 충성 피에 풀은 되레 향기롭네  
천황 군대 오랜 노고 무슨 말로 위로하라  
개선가를 부르면서 올 때 나라 빛 있으리

중국 땅에 위세 떨쳐 군사 멀리 나갔으며  
만전 계책 어느 누가 능히 미리 알았으랴  
성금 모아 매일처럼 전투 비용 보냈으며  
기적 소리 바람결에 위문 날짜 전하였네  
적 진영은 위기 맞아 새벽 별이 흩어지고  
천황 군대 그 예기는 노한 우레 치달렸네  
동양 세계 평화롭게 하려는 뜻 품었으며  
온 나라가 앞 다투어 축하하는 시 바치네

저 중국이 신의 어겨 화를 불러 왔거니와  
그 습관을 응징함은 인지상정인 것이네  
포탄 떨어지는 곳엔 화염 연기 치솟으며  
군부대가 진격할 땐 포성 소리 울리누나  
의로운 그 기운 보면 세 용사가 얼마인가  
웅대한 그 계책 먼저 북평성을 취하였네  
승전보가 매일 오매 사람들 다 기뻐하니  
양자강의 맑은 물에 창과 칼을 씻으리라

동정 떠난 장사들이 웅명 크게 드날리니  
한 창 끝에 가을 높아 만세 소리 퍼지누나

佇見東洋樂太平  
경학원 나석기(羅錫基)

用武中原廟算長  
東洋共濟義堂堂  
膺懲只爲同歸化  
抗戰還憐自底亡  
城爆敵屍灰已冷  
野濺忠血草猶香  
皇師積苦何辭慰  
奏凱回時國有光  
경학원 민영은(閔泳殷)

威振華夷遠出師  
萬全之策孰能知  
誠金日送戰攻費  
汽笛風傳慰問期  
敵陣危機曉星散  
皇軍銳氣怒霆馳  
東洋天下平和意  
舉國爭呈祝賀詩  
경학원 이종백(李鍾白)

背信支那召禍生  
膺懲其習是常情  
爆彈落處漲烟焰  
部隊進時傳砲聲  
義氣幾多三勇士  
雄謀先取北平城  
捷書日至人人悅  
楊子清江快洗兵  
경학원 김훈경(金勛卿)

東征將士擅雄名  
一鉞秋高萬歲聲

황하의 물 다한 것은 병기 씻어 그런 거고  
하늘 감동 시킨 충용 기록한 때 답한 거네

蕩盡黃河從洗甲  
感天忠勇答聖時<sup>214)</sup>  
경학원 한창동(韓昌東)

천황 은혜 온 천하의 백성 고루 적시기에  
충성 바쳐 나라 은혜 갚을 정신 품었다네  
천심 절로 못 백성들 소원과 딱 합치되니  
보록 길이 이어져서 만대토록 봄날이리

恩液均霑率土民  
輸忠報國作精神  
天心自合羣生願  
寶籙綿綿萬世春

천황 위엄赫赫하여 해동 땅에 떨쳤거니  
성대한 운 끝없어서 다할 때가 없으리라  
승전보가 오매 환성 들끓듯이 퍼지거니  
만백성들 기원함은 마음 속서 나온 거네

皇威赫赫振海東  
鴻運無疆又不窮  
捷報時來歡如沸  
咸生祈願寔由衷  
경학원 유하준(俞夏濬)

용맹스런 백만 군대 기운 웅대하거니와  
승승장구 몰아치매 일장기가 빛나리라  
인화에다 천시 얻고 지리마저 얻었으니  
나라 위엄 선양할 걸 걱정하지 아니하네

貔貅百萬氣豪雄  
乘勝長驅耀日章  
人和天時兼地理<sup>215)</sup>  
宣揚國威不憂成  
경학원 박초양(朴初陽)

북지에서 제 스스로 혼단 일으킨 것이지  
우리 측이 전쟁 좋아 일으킨 게 아니었네  
군사들이 길함에다 순리 잡고 있거니와  
가는 길에 음식 들고 맞이하는 이 많으리  
어찌 단지 매 달마다 세 번만을 이기리오  
이로부터 온 세상이 태평세월 누리리라  
부자 묘의 향로에다 향불 피워 사르면서  
서원함은 모든 사람 일반적인 정이라네

北支自生燬  
非我是甘兵  
師有執吉利  
路多簞食迎  
豈惟月三捷  
從此世昇平  
爐香夫子廟  
誓願一般情  
경학원 정철영(鄭喆永)

214) 이 시는 운자(韻字)가 맞지 않는바, 잘못된 것인 듯하다.

215) 地理 : 지리(地利)의 잘못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천시(“天時)를 얻는 것은 지리(地利)를 얻는 것만 못하고, 지리를 얻는 것은 인화(人和)를 얻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孟子』公孫丑下.

◆ 경기도

우리 황군(皇軍)<sup>216</sup> 용감히 나아감을 축하하나니  
 북평(北平)<sup>217</sup>을 시작으로 다음은 남경(南京)이라네  
 귀신도 통주사(通州事)<sup>218</sup>을 미워하고  
 우주는 제국(帝國) 명성에 공경하네  
 이태리·독일과 동맹으로 세 나라 좋은 친구요  
 항공기 연이은 날개 두 정병(精兵)이네  
 모두 부르는 소리에는 천은(天恩)<sup>219</sup>에 감사함이요  
 한 마디 충성스런 마음(丹葵)<sup>220</sup>은 해<sup>221</sup>를 향해 기울네

祝我皇軍勇敢行  
 北平爲始次南京  
 鬼神亦惡通州變  
 宇宙皆恭帝國名  
 伊獨同盟三好友  
 航空連翼兩精兵  
 萬呼聲裡天恩感  
 一寸丹葵向日傾  
 수원(水原) 신현수(申鉉壽)

승승장구하기 80~90일  
 황사(皇師)<sup>222</sup>는 도처에서 크게 위엄을 새롭게 했네  
 해군·육군·공군 세 부대에  
 일본·조선·만주국은 하나의 정신이로다  
 달 밝은 날 누대에서 개선하는 군사를 노래하고  
 국화와 술로 충신을 제사 지내네  
 낭랑한 소리로 크게 임금의 은혜 찬양하는 곡(君恩曲)을 읽고  
 멀리서 대궐문(天門)을 향하고 궁전(紫宸)<sup>223</sup>에 절을 하네

乘勝長驅八九旬  
 皇師到處大威新  
 海陸空軍三部隊  
 內鮮滿國一精神  
 明月樓臺歌凱士  
 黃花盃酒祭忠臣  
 朗聲大讀君恩曲  
 遙向天門拜紫宸  
 수원 김한경(金漢經)

황군(皇軍)이 도처에서 풍진(風塵)을 쓸어내니  
 어둠을 버리고 밝은 데로 가는(棄暗投明)<sup>224</sup> 개혁(改革)이 새롭네  
 위엄과 덕망을 안팎의 나라에 끌고루 더하니  
 명성(名聲)은 천만년 전하여 지리

皇軍到處掃風塵  
 棄暗投明改革新  
 威德均添中外國  
 名聲傳誦萬千年

216) 天皇의 軍隊.

217) 北京.

218) 通州事變.

219) 임금의 은덕 여기서서 천황의 은덕을 의미함.

220)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하므로 흔히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비유하기도 함.

221) 해는 일본과 천황을 비유한 표현일 것이다.

222) 皇師 : 천황의 군대. 皇軍.

223) 紫宸 : 紫宸宮으로 임금(천황)이 있는 궁전을 의미함.

224) 棄暗投明 : 背暗投明. 어둠을 등지고 밝은 데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함.

넓고 큰 은혜는 특히 공을 논하는 자리에 끼치고  
큰 사업(大業)은 무기 든 의인(義人)으로 이뤘네  
바다 잔잔하고 산 맑게 개인 군사 돌아오는 날에  
일장기 태평 하늘에 드높네

鴻恩特蒙論功地  
大業因成仗義人  
海晏山晴班師日  
日章高揚太平天  
수원 김준기(金駿基)

황군(皇軍) 맞고 보내는 역 광장 일대에  
남녀 어린 아이(冠童) 몇 천 명이네  
만세소리 중에 산과 바다가 흔들리고  
우뚝 일어나 군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네

皇軍迎送驛場邊  
男女冠童幾十千  
萬歲聲中山海震  
勃興士氣欲衝天  
수원 김종철(金鍾喆)

신묘(神妙)한 무기(武機)는 예나 지금도 드문데  
공중과 육지와 바다에 마음대로 오르고 임하네  
병사는 나라에 충성하여 살려는 뜻이 없고  
장군도 임금을 위해 죽을 마음이 있네  
삼가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일이 뜻대로 되기를 축원하고  
날마다 승전 보고와 소리 즐겨 듣네  
동양은 이로써 평화 기운이요  
세계 동맹은 더욱 깊어가네

神妙武機罕古今  
空中陸海任登臨  
兵能報國無生志  
將亦爲君有死心  
祝家家如意事  
喜聞日日捷書音  
東洋因此平和氣  
世界同盟去益深  
수원 윤각(尹珏)

왕사(王師)<sup>225</sup>는 크게 들어고 일어나 장성(長城)<sup>226</sup>에 들어가고  
늘어선 성(省)들을 다 숙청(肅淸)<sup>227</sup>하기를 기약하네  
믿음과 위엄은 빛나고 가을 서릿발 같이 늠름하고  
정의(正義)는 당당하고 떠오르는 해처럼 밝네  
창공을 날고 육지를 점령해 삼군(三軍)이 합하고  
죽음에 편안하고 살 뜻 없이 하니 만국(萬國)이 놀라네  
태원(太原)<sup>228</sup>이 지금 함락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천황의 큰 복(鴻福)이요 민정(民情)을 기쁘게 하네

王師大舉入長城  
列省期乎盡肅淸  
信威赫赫秋霜凜  
正義堂堂旭日明  
飛空占陸三軍合  
寧死無生萬國驚  
聞道太原今陷落  
天皇鴻福悅民情  
수원 장두진(張斗鎭)

225) 임금이 거느리는 병사. 여기서 천황이 거느리는 병사를 의미함.

226) 만리장성.

227) 잘못과 악인을 없애어 맑게 함.

228) 중국 山西省의 도시 이름.

동국(東國)에 비상한 사고가 있더니(有事秋)<sup>229)</sup> 國非常有事秋  
 전쟁이 일어나려는 기운이 북지두(北支頭)에서 몰래 일어나네 戰雲暗起北支頭  
 깃발(旌旗)은 하늘을 가리고 산과 강을 움직이는데 旌旗蔽日山河動  
 칼과 창은 서리 같아 초목이 근심 하네 劍戟如霜草木愁  
 전쟁에 임한 마당에 불로 들이치는 공격은 제갈(諸葛)<sup>230)</sup>의 계책이요 臨陣火攻諸葛策  
 기회에 따라(隨機) 움직임을 꾀함은 자방(子房)<sup>231)</sup>의 계략 일세 隨機籌運子房謀  
 개선가 한 번 부르고 군사를 돌이킨 후에 凱歌一唱回軍後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왕으로 삼고 작은 공을 세운 사람은 제후로 삼는다네 大者爲王小者侯  
 수원 권영일(權寧一)

완악한 오랑캐(頑夷) 도리에 어긋나게 천황의 위엄(皇威)을 범하니 頑夷無道犯皇威  
 만리에 군사 보내 그 그릇됨을 토벌 하였네 萬里出師討厥非  
 번개같이 북방(朔北)을 몰아쳐 진국(塵局)을 평정하고 電驅朔北平塵局  
 거침없이 강남(江南)을 휩쓰니 무공의 빛이 빛나네 席捲江南映武輝  
 감히 장차 나라를 걱정하고 풍년 들기를 생각하나니 敢將憂國願豐思  
 벼 익을 때를 기다려서 오랑캐를 치고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려네 秭待破戎唱凱歸  
 이로부터 동양이 제국(帝國)의 힘을 입어 從此東洋蒙帝力  
 밭 갈고 우물 파는 삶(耕田鑿井)<sup>232)</sup>을 은혜로운 빛으로 떠받드네 耕田鑿井戴恩暉  
 수원 왕정식(王廷植)

황명(皇命)을 받들어 중국에 출정하니 拜承皇命出征支  
 한마(汗馬) 뛰어난 공훈을 어찌 사양하라 汗馬偉功豈敢辭  
 한조각 참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충성은 나라에 보답하는 해요 一片丹忠報國日  
 오랜 세월 역사에 이름을 드리울 때일세 千秋青史垂名時  
 섬광 같은 칼 빛은 번개같이 빠르고 閃忽劍光如電速  
 꺾인 적의 기세는 우리를 보고 쓰러지네 沮喪敵氣望風靡  
 멀지않아 난을 평정하고 돌아와 개선한후에는 不遠肅清還凱後  
 평안히 누릴 부귀를 기쁘게 서러 이끄리 安享富貴好相提  
 안성(安城) 유창준(兪昌濬)

황군이 북진하는 일은 밝고 환한데 皇軍北進事光明

229) 有事秋：有事之秋. 나라나 개인에게 비상한 사고가 있을 때를 이르는 말.

230) 중국 삼국시대 蜀의 재상 諸葛亮.

231) 중국 한나라 건국 공신인 張子房. 張良.

232) 밭 갈고 우물 판다는 뜻으로 백성이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지냄을 비유한 말.

이른 데마다 백성 모두 대그릇 밥(簞食)으로 환영하네  
 농민과 상인은 옛날같이 생업에 편히 종사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은 앞다퉈 각기 정성을 다하여 바치네  
 한나라가 한갓 만세 부름만이 아니니  
 동양이 이로부터 나라 태평에 즐거워함이네  
 분연히 군대를 정돈하여 응당 적을 징계하여 그치게 하리니  
 덕의(德義)와 권위가 세계로 가네

所到民皆簞食迎  
 農商如舊能安業  
 婦孺爭先各獻誠  
 一國非徒呼萬歲  
 東洋從此樂昇平  
 奮然整旅膺懲止  
 德義權威世界行

양평(楊平) 홍순복(洪淳復)

바다 동쪽 두나라 지경은 서로 이웃인데  
 통상 조약 체결해서 친할 수 있네  
 우리는 더욱 온 힘을 다해 평화이루려는데  
 피독(彼獨)은 무슨 마음으로 번번히 대항하고 모독하는가  
 이에 이르러 의로 응당 징계하리니  
 그로 하여금 반성하게하고 또한 어질게 하려함이네  
 오직 원컨대 푸른 하늘 붉은 해 아래  
 세상 좋게하여 일가에 봄처럼 하려 하네

洋東二國境相隣  
 締約通商可以親  
 此曾專力平和續  
 彼獨何心抗侮頻  
 至是膺懲即由義  
 使其反省亦爲仁  
 惟願青天紅日下  
 好畧四海一家春

양평 장기원(張基元)

오직 우리 일본과 중국은 같은 동양이니  
 순치(脣齒 : 脣亡齒寒)를 생각지 않고 되려 전쟁을 일으키네  
 적병이 비록 많으나 다 오합지졸이요  
 황장(皇將)은 무쌍하여 사납고 용맹스런 사람이네  
 황금 도끼 흰 깃발 장한 기운 날리고  
 남과 북으로 정벌해서 으뜸 공을 책록하네  
 공훈을 표창하는 데는 어느 시대에서도 대각(埜閣)이 없었거니  
 전국 신민(臣民)은 그대 충성을 바란다네

惟我日支均是東  
 不思脣齒反興戎  
 敵兵雖衆皆烏合  
 皇將無雙是梟雄  
 黃鉞白旗揚壯氣  
 南征北伐策元功  
 表勳何代無埜閣  
 全國臣民願爾忠

양평 윤상룡(尹相龍)

준동하는 저 민국(民國)은 천시(天時)를 거스리니  
 형세가 순치(脣齒)<sup>233)</sup> 같은데 어찌 생각지못하는가  
 귀(鬼)를 치기 3년에 은나라는 서(筮)를 다스리고  
 묘(苗)에 이르러 두계단에서 순임금은 군사를 돌이켰네

蠢渠民國逆天時  
 勢如齒脣胡不思  
 伐鬼三年殷筮濟  
 格苗兩階舜班師

233) 脣亡齒寒.

동쪽 서쪽 부대 우레 번개처럼 빠르네  
 남북 만주 지탱하기 아침 저녁으로 위태하네  
 외람되이 참석한 유림 정성을 바치는 자리에서  
 우리 황장(皇將) 위로하여 시를 노래하네

東西部隊震雷急  
 南北滿支朝暮危  
 叨參儒林獻誠地  
 慰吾皇將乃歌詩  
 가평(加平) 정철규(鄭喆奎)

장수 지략 무쌍하여 사납고 용맹한 사람인데  
 대궐 밖에서 황궁(皇宮)에 배알하네  
 중원에서는 하룻밤새 사슴을 추궁하고  
 고국에서는 풍상에 기러기 진법을 일으키네  
 저번(羝藩)<sup>234)</sup> 같은 것이 저 적의 형세요  
 죽음을 각오한 것이 우리 군의 공일세  
 성진(腥塵)을 다 씻고 살아돌아오는 자리에  
 부르는 많은 손과 깃발은 땀과 피에 붉네

將略無雙梟世雄  
 分憂闕外拜皇宮  
 中原日夜追窮鹿  
 故國風霜起陣鴻  
 觸若羝藩渠敵勢  
 裹於馬革我軍功  
 腥塵盡滌生還地  
 呼萬手旗汗血紅

우리 동양에서 평화를 수창했는데  
 준동하는 저 중국은 감히 공도를 배반하는 것인가  
 묘(苗)도 오히려 순임금에 복종했는데  
 갈(葛)을 정벌하는 데는 한 밤에 시작되었네  
 점점 급한 적의 형세는 건드리니 번저(藩羝)<sup>235)</sup> 같고  
 계속 이기는 황군은 순풍에 기러기 일세  
 방합과 도요새의 다툼(蚌鷓)이 오래 버팀을 사람은 생각지않고  
 마음있는 어부는 감히 공을 거둘 것이라

平和籌唱我洋東  
 蠢爾中支敢背公  
 格苗猶可兩階舞(舜)  
 征葛始於一衣戎  
 稍窮敵勢觸藩羝  
 連捷皇軍順風鴻  
 蚌鷓久持人莫慮  
 生心漁者敢收功  
 가평 한태석(韓台錫)

대군이 남경(南京) 관문을 정벌하니  
 전승이 향기나는 이름 세간에 가득 찼네  
 비행대가 급히 상공밖으로 오르니  
 일장기가 바다와 육지가에서 나부끼네  
 성과 땅을 공략하는 첫 기세요  
 끓는 물을 밟고 병진(兵塵)을 응징하네  
 백성은 승첩을 축하하는 글이 비늘처럼 연이어 이르고

大軍征伐南京關  
 戰勝香名滿世間  
 飛行臺急上空外  
 日章旗翻陸海邊  
 攻城略地劈頭勢  
 赴湯蹈火應兵塵  
 民祝捷書鱗次到

234) 羝藩 : 羝羊觸藩. 숫양이 뿔로 울타리를 받아 진퇴양난에 빠진다는 뜻으로, 만용을 내어 저돌하는 사람은 도리어 실패한다는 비유.

235) 羝羊觸藩.

금의 환국하는 개선가가 새롭네

錦衣還國凱歌新

진위(振威) 이춘규(李春奎)

황군이 적을 치라는 하늘의 명을 받들고 나서니  
만리 위풍에 그 형세도 길도다  
백성은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군사는 몸 던져 전투에 몸숨을 잃네  
반도 강산은 안정된 땅이요  
중국 인물은 난리 장일세  
장졸이 고향에 돌아오는 날이 어느 날인가  
천황은 인간(麟閣)<sup>236</sup>을 열고 용상에 앉네

皇軍出伐奉天命  
萬里威風其勢長  
民多爲國忠誠竭  
士欲投身戰鬪喪  
半島江山安定地  
支那人物亂離場  
將卒還鄉何是日  
帝開麟閣御龍床  
진위 서용수(徐龍洙)

돌아오는 군사에 호령이 밝은데  
승첩을 바칠 때마다 성을 점령했네  
빨리 발을 눌러 언덕에 올라 사슴을 쫓으니  
망령되게 날아가 높이 들린 고개에 기러기 우네  
난쟁모루(亂箏暮壘)에 일찍이 갑옷을 풀고  
북 소리 추운 진영에 병사들 아직 해산하지 않았네  
성을 내고 당당히 북소리 듣는 날에  
황군은 도처에서 무공을 이루네

班師振旅號令明  
獻捷時時占領城  
疾足先登原鹿逐  
妄翅高舉隴鴻鳴  
亂箏暮壘曾休甲  
填鼓寒營未解兵  
赫怒堂堂聽鼙日  
皇軍到處武功成  
진위 홍인표(洪寅杓)

◆ 충청북도(忠淸北道)

황군 의용(毅勇)은 동서에 으뜸이고  
날카로운 기세의 당당함은 일단의 충성일세  
단체 어려움 극복에 위엄은 호랑이 같고  
몸을 떨쳐 적을 추적함은 빠르기가 바람과 같네  
위로 성금은 도리어 지극하고 백성의 정성은 붉은데  
영토는 늘고 나라 깃발은 붉네  
천은(天恩)에 감축해 멀리서 절을 하고

皇軍毅勇冠西東  
銳氣堂堂一段忠  
團體服艱威若虎  
奮身追敵疾如風  
慰金還至民誠赤  
領土繁延國幟紅  
感祝天恩遙向拜

236) 麒麟閣.



끝없이 만방에 우악함이 넓네

無量優渥萬邦洪

괴산(槐山) 지현규(池顯規)

나라에 무운(武運)이 천시(天時)를 얻으니  
전쟁에 승리를 이룸의 형세를 알수 있도다  
나는 용은 상해(上海)에서 우리와 같이 싸우고  
중원에서 사슴을 쫓은 세월은 더디네  
사막 북쪽에서 위엄을 펴서 오랑캐를 항복시키고  
생색은 우리 동방 역사의 붓의 가지이네  
들으니 황군이 근래 승승장구한다 하니  
각자 서로 힘을 모으기를 한마음으로 기약하네

邦家武運得天時  
戰捷成功勢可知  
飛龍上海電霆鬪  
逐鹿中原歲月遲  
宣威漠北降幡卒  
生色吾東史筆枝  
聞道皇軍近乘勝  
各持戮力一心期

제천(堤川) 엄운섭(嚴允燮)

노교사변(蘆橋事變)<sup>237)</sup>은 천시(天時)를 거스르는 것이요  
한번 화내어 백성이 편안함은 임금의 덕(聖德)이네  
포를 쏘서 꽃 흩어지듯 자춧빛 번개날고  
바람 몰아쳐 낙엽지니 앙상한 가지 남았네  
우분연벽(牛奔燕壁)에 추격하는 병사 빠르고  
오추마(項羽 愛馬) 오강(烏江)을 향해 가는 길 더디네  
황군이 출병하는 날을 제일 축하하는데  
산과 바다에 맹세하며 죽기를 기약하네

蘆橋事變逆天時  
一怒安民聖德知  
砲發散花飛紫電  
風驅落葉敗殘枝  
牛奔燕壁追兵急  
騶向烏江去路遲  
最賀皇軍出師日  
山盟海誓死爲期

제천 엄기훈(嚴基薰)

황군 무운(武運)이 오래기를 기원하고  
당당한 장한 마음 더욱 융성한데  
아침 해 깃발이 펄럭이고 승승장구하네  
하늘의 위엄은 빛나는 얼굴 비추지 않음이 없네

祈願皇軍武運長  
堂堂意氣益隆昌  
旭日旗翻乘勝久  
天威無不照容光

진천(鎭川) 김만희(金萬熙)

북풍에 달은 찬데 문루에 오르니  
경비서는 밤에 고향 생각 깊어감을 어찌 감내할 것인가  
이르는 곳을 차지함은 손 뒤집는 것 같이 쉬우니  
뜻하지 않은 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각각 선두를 다투네

北風寒月上譙樓  
警夜那堪鄉思幽  
到處占居如反手  
不時旌凱各爭頭

237) 노구교사변.

벌레소리 이슬 젖는 삼군(三軍)<sup>238</sup>의 꿈에는  
기러기 등에 서리 얹고 만국의 근심을 더하네  
솥(鼎)에 기록할 날이 응당 있으리니  
남아가 뜻을 이룰 날이 올 가을에 있네

虫聲露濕三軍夢  
雁背霜添萬國愁  
銘鼎紀常應有日  
男兒得意在今秋  
청주(淸州) 유만형(柳萬馨)

천황의 은화(恩化) 무거움을 먼저 축하하고  
그 장사(將士)로 각각 충성을 알게 하네  
열심히 나라에 보답하는 군공은 크고  
살아서도 충성하고 죽어서도 충서하네

先祝天皇恩化重  
使其將士各知忠  
熱心報國軍功大  
生亦爲忠死亦忠  
충주(忠州) 정두연(鄭斗淵)

장사(將士) 출정에 지난 세월  
용맹스런 마음 죽기로 각오하고 그 몸을 허락하였네  
승세를 타는 만리에 공을 이름은 크니  
여러 고을에는 문장과 시가(詩歌)로 위로하고 축하하는 사람이네

將士出征經歲月  
勇心決死許其身  
乘勝萬里成功大  
列郡詞章慰賀人  
충주 김태진(金泰鎭)

바다와 육지로 정병이 밤낮으로 정벌하니  
중원에 대그릇에 담은 밥(簞食)으로 모두를 서로 맞이하네  
만리 개선에 멀지 않게 여기고  
동양은 이로부터 나라가 태평함을 즐거워하네

海陸精兵日夜征  
中原簞食總相迎  
萬里凱旋知不遠  
東洋自此樂昇平  
옥천(沃川) 김규옥(金奎昱)

일장기 아래 개선가 돌아오는데  
많은 군대 진지에서 서로 부르고 잔은 여러 번 드네  
수많은 백성도 똑같이 축하하고  
태평하게한 제력(帝力)은 해동에서 왔다네

日章旗下凱歌回  
萬陣相呼數舉盃  
不億黎民同賀祝  
泰平帝力海東來  
옥천 김학주(琴鶴柱)

동방의 아름다운 운수는 황하가 맑음을 만났네  
덕화(德化) 천년에 천명을 받들었네  
적군에 다다라 위세는 눈서리같이 엄숙하게하고

東邦休運值河清  
德化千年丕闡明  
赴敵軍威霜雪肅

238) 全軍.

항공기 이용함에 귀신도 놀라네  
 백성을 가르치는 각오는 다 생업에 편히 종사하게 함이요  
 나라 위해 바빠 돌아다님에 각기 정성을 다하네  
 만리에서 군사가 돌아올 날 응당 멀지 않으리니  
 화목하고 진득하니 나라 태평함을 즐거워하네

航空機用鬼神驚  
 教民覺悟皆安業  
 爲國馳驅各盡誠  
 萬里還師應不遠  
 熙熙皞皞樂昇平  
 청주 신경식(申經植)

전쟁에 이겼으니 장차 세계가 밝아짐을 볼 것이요  
 당당한 충의(忠義)는 해와 달처럼 밝네  
 이때 적 형세 흔들려 안정됨이 없고  
 도처에 인심은 진정되어 놀라지 않네  
 완우(頑愚)<sup>239</sup>함을 생각해 깨우치는 데는 오직 무력 뿐이요  
 신을 받들어 비는 것은 또한 정성스러운 마음 뿐이네  
 한 몸 나라에 보답하는데 어찌 괴로움 사양할 것인가  
 노래하고 북치며 돌아오니(개선) 태평을 즐거워 하네

戰捷將看寰宇清  
 堂堂忠義日星明  
 此時敵勢搖無定  
 到處人心鎮不驚  
 提醒頑愚惟武力  
 奉祈神祇亦心誠  
 一身報國何辭苦  
 歌鼓歸來樂太平  
 청주 송달헌(宋達憲)

깃발(旌旗) 10만 조릿대는 수풀 같고  
 북쪽 치고 남쪽 정벌해 들어가는 지경 깊어지네  
 바람과 비 길게 몰아치니 감히 깨끗함이 없겠고  
 뇌성벽력같이 갑자기 싸움은 어느때가 오늘 같을까  
 통소소리는 고향그리며 생각하는 곡조를 내지 않고  
 자나 깨나 오직 나라 은혜 보답하려는 마음만이 있네  
 머나먼 요새에 차디찬 하늘 어찌 지날 것인가  
 해는 더디고 꿈에도 근심하는 나를 금하기 어렵네

旌旗十萬簇如林  
 攻北征南入境深  
 風雨長驅無敢潔  
 雷霆急鬪孰如今  
 簫歌不作思鄉曲  
 寤寐惟存報國心  
 遠戍寒天那得過  
 歲闌勞夢我難禁  
 청주 이용구(李容求)

대군이 만리를 가는데  
 하늘은 차고 밤에는 서리 내리네  
 적군 보루는 따라서 쓰러지고  
 세상은 이에 힘입어 편안하네  
 깃발 드날리며 무공이 오르고  
 개선가 연주하며 임금의 존엄함을 칭송하네

大軍行萬里  
 天冷夜霜零  
 敵壘從而靡  
 寰區賴以寧  
 揚旗騰武烈  
 奏凱頌君靈

239) 頑愚 : 말이나 행동이 매우 거만하고 미웍함.

죽음 보기 두려워함이 없으면  
공훈과 이름 역사에 빛나리

視死能無畏  
勳名耀史青  
청주 오충식(吳忠植)

낙엽지고 서리 내린 하늘에 병사를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질고 저들은 폭악하니 어찌 다툴텐가  
작은 정성 살뜰하게 하여 위로를 드리나니  
오래지않아 산하가 맑아짐을 고할 것이라네

落葉霜天動以兵  
我仁彼暴豈能爭  
寸忱縉纒遙呈慰  
匪久山河告廓清  
청주 오한식(吳翰植)

◆ 충청남도(忠淸南道)

동양 유지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데  
나라 근본되는 방침을 순치(脣齒)요 인종은 같다네  
꽃다운 편지 삼천을 가로넌 붓 아래에 있고  
기이한 병사 10만은 넉넉한 가슴속에 있네  
성 머리 칼과 창은 서리 가운데 차고  
문 밖 깃발은 해 그림자에 붉네  
원컨대 그대는 일찍 남경(南京)을 깨뜨린후에  
기쁜 소식 풍진을 한번에 쓸어 비우리

東洋維持在於東  
國是齒脣種是同  
芳牘三千橫筆下  
奇兵十萬富胸中  
城頭劍戟霜心冷  
門外旌旗日影紅  
願君早破南京後  
喜報風塵一掃空

상해(上海) 전쟁에서 승패를 가름에 완전히 하니  
동쪽 바다 해와 달 마음에 차서 기쁘네  
만세소리 산악을 흔들어 움직이고  
삼군(三軍) 기세 두우(斗牛)<sup>240</sup>를 뚫어 차네

上海戰爭決勝完  
扶桑日月滿心歡  
萬歲聲搖山嶽動  
三軍氣貫斗牛寒  
부여(扶餘) 이기범(李箕範)

출정하는 날카로운 기세 동양에 떨치고  
나라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丹心) 죽이고 각오한 마음과 같네  
적진을 대한 때 많이도 용맹하니  
황군은 도처에서 영웅이네  
일장기 깃발 나부끼는 중이요

出征銳氣盡洋東  
爲國丹心決死同  
敵陣對時多勇猛  
皇軍到處是英雄  
日章旗幟翻揚裡

240) 斗牛 : 이십팔수 가운데 斗星과 牛星. 북두성과 견우성.

상해(上海) 풍운이 뒤바뀌는 중이네  
총 뒤 참된 정성(赤誠)에 사람들은 절로 깨달아  
헌금 축제에 그 충성을 다하네

上海風雲變覆中  
銃後赤誠人自覺  
獻金祝祭盡其忠  
부여 이문범(李文範)

천황의 군대를 본받아 싸움에 문득 응하니  
그 공략하지 않고 경계에도 응징이 되네  
적의 눈을 속이는 가짜 병사는 무수한 공산학(公山鶴)이요  
용사가 어찌 목야웅(牧野鷹)<sup>241</sup>을 논하랴  
고금의 역사는 공습에 열렸는데  
남과 북 변화하던 도시는 넘어지고 무너져 어쩔 수 없네  
당당한 죽음을 각오한 의로움에는 적이 없고  
승승장구하는 활발한 기개는 들끓네

範御王師戰輒應  
非其攻略戒膺懲  
疑兵無數公山鶴  
勇士奚論牧野鷹  
古今歷史開空襲  
南北京華轉土崩  
堂堂決死義無敵  
乘勝長驅活氣騰  
부여 김희은(金熙殷)

혼몽한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단초를 여니  
나라 사람들 피해를 차마 어찌 볼거나  
참상에 동정을 금하지 못하고 분개하는데  
의리로 용납해 좌시해서 편안히 하기 어렵네  
이에 삼군(三軍)에 명해 폭악을 정벌하니  
돌면서 각 진에 명을 내려 어질고 너그럽게함을 펼치네  
비로소 죄를 벌하고 백성 있는 곳 불쌍히 여김을 알고  
힘써 은혜와 위엄을 다해 민중을 기쁘게 하네

昏瞢支那起戰端  
邦人被害忍何看  
慘狀不禁同情憤  
義理難容坐視安  
爰命三軍征暴虐  
轉領各陣布仁寬  
始知伐罪弔民處  
務盡恩威使衆歡  
대전(大田) 박창화(朴昌和)

나라는 영주 동쪽에서 비롯되고  
황조(皇祖)의 정해진 터전은 넓네  
이래 이천년  
국위(國威)는 점점 융성하네  
대업(大業)과 유신(維新)이요  
무리 중 으뜸 공을 내었네  
아아 대화혼(大和魂)이여  
만물이 생기는 모양에서 처음과 끝이 있도다

邦畿肇瀛東  
皇祖奠基洪  
爾來二千年  
國威漸興隆  
大業暨維新  
輩出衆元功  
猗歟大和魂  
有生相始終

241) 周나라 文王이 사냥하러 갔다가 渭水에서 낚시질하던 呂尙을 얻었는데 뒤에 牧野에서 紂와 싸울 때 여상이 매처럼 날렸다. 『詩經』, 大雅 大明.

서쪽으로 정벌하고 다시 북쪽에서 싸우고  
 승리 보고하는 글이 하루 세통이네  
 큰 나라는 우의를 돈독히하고  
 작은 나라는 위풍(威風)에 두려워하네  
 어찌 한 준동하는 우두머리를 헤아렸으랴  
 노구(蘆溝)<sup>242</sup>의 분쟁을 일으켰네  
 드디어 적개심이 떨치니  
 삼도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었네  
 병사를 내니 참으로 이름이 나고  
 응징하니 한 말씀이 공정하네  
 날랜 병사는 적(豺貅)을 다 무찌르고  
 용맹한 장수는 호랑이와 곰 같은 용맹함을 겪었네  
 병기는 계책과 모략보다 앞서니  
 변경은 손바닥 안에 있네  
 성을 공격함은 썩은 나무 꺾듯하고  
 오랑캐(중국)를 깨뜨림은 드문 쑥대를 치듯하네  
 가는 곳마다 모두 적이 없으니  
 바로 육주(六洲)<sup>243</sup>의 영웅일세  
 만리 남과 북쪽에  
 서 있는 일장기 붉네  
 어떻게 항상 이기는 것인가  
 어려움에 닥쳐서 모두 제 몸 돌보지 않고 나라에 충성함이네  
 거친 말로 축하의 뜻을 늘어놓았으니  
 융성한 운세 영원히 무궁하리

西征復北戰  
 捷書日三通  
 大邦敦友誼  
 小國懼威風  
 豈料一蠡酋  
 釀成蘆溝訌  
 遂奮敵愾心  
 三道陸海空  
 師出諒有名  
 膺懲一言公  
 勁兵盡戮貅  
 猛將兼虎熊  
 戎機先籌略  
 邊疆指掌中  
 攻城拉朽木  
 破虜逐散蓬  
 到處都無敵  
 正是六洲雄  
 萬里南北支  
 立立章旗紅  
 何以得常勝  
 臨難總匪躬  
 蕪辭陳祝意  
 隆運永無窮  
 대전 성두식(成斗植)

작은 해바라기 마음은 해(일본)를 향한 정성이요  
 만리에 출정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干城)이네  
 멀리 흑월(黑月)<sup>244</sup>에 높이 나는 기러기 보고  
 아는 것은 선우(單于)<sup>245</sup>의 밤에 도망치는 병사이네

一寸葵心向日誠  
 出征萬里作干城  
 遙看黑月高飛鴈  
 知是單于夜遁兵  
 부여(扶餘) 전기승(田基菘)

242) 蘆溝橋.

243) 六洲 : 六大洲.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의 총칭. 전세계.

244) 黑月 : 달이 차차 이지러져 캄캄하게 되는 부분.

245) 單于 : 흉노의 군주나 추장을 높이어 부르던 칭호. 오랑캐.

오황장(於皇章) 큰 도는 동쪽에서 밝은데  
 뜻하지않게 중주(中州)에서 사변이 발생했네  
 주인 없는 강산에다 덕까지 잃었고  
 유사시에 나라가 연맹(聯盟)에서 빠졌네  
 북쪽 대륙까지 계속 적을 몰아쳐 제왕의 위엄(天威)이 무겁고  
 두루 남방을 답사하니 지세(地勢)가 가볍네  
 아! 저 중국인들이 어찌 감히 바랄수 있으리  
 싸움에 승리한 보고는 새로 나라 태평함에 보답하네

於皇大道自東明  
 不意中州事變生  
 無主江山兼失德  
 有時邦國脫聯盟  
 長驅北陸天威重  
 遍踏南方地勢輕  
 噫彼華人焉敢望  
 捷書新報答昇平  
 서산(瑞山) 박규철(朴奎喆)

밝은 황명(皇命)은 평화를 주장하고  
 수륙(水陸)으로 함께 나가는 형세는 가볍지 않네  
 침략을 보는 것은 모기와 등에(蚊虻) 치듯하고  
 한 편이 기울지 않는 대등한 예(抗禮)가 어찌 능히 방홀지쟁(蚌鷸之爭)<sup>246</sup>이라  
 이어진 요새에 깃발이 햇빛에 나부끼고  
 성에 가득찬 초목은 가을 바람소리에 흔들리네  
 변방에 바람부는 10월은 차고 눈 날리는데  
 그 군인 노고의 정은 어찌할거나

昭昭皇命主和平  
 水陸并行勢不輕  
 視侵猶若蚊虻毆  
 抗禮焉能蚌鷸爭<sup>246</sup>이라  
 連塞旌旗翻日色  
 滿城草木動秋聲  
 邊風十月寒飛雪  
 其奈軍人勞苦情  
 서산(瑞山) 임봉순(任鳳淳)

해 동방에서 떠서 사해(四海) 밝은데  
 어찌 이 사이에 그늘지고 음산한 것을 용납할 것인가  
 다만 지나를 응징하려는 계획이요  
 여러나라 동맹을 유린(蹂躪)하려는 것은 아니라네  
 군사들 사기는 능히 불의 열도 밟을 듯 하고  
 민심(民心)은 헌금(獻金)을 가볍게 함을 볼 수 있네  
 내선일체(內鮮一體)<sup>247</sup>는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이요  
 일찍이 개선가(凱旋歌)를 연주하니 태평함에 즐겁네

日出東方四海明  
 豈容陰噫此間生  
 只爲膺懲支那計  
 不是蹂躪列國盟  
 士氣能令蹈火熱  
 民心可見獻金輕  
 內鮮一體勤王事  
 早奏凱歌樂太平  
 서산 이현상(李鉉商)

북평(北平)으로부터 황군(皇軍)을 징발하니  
 7월의 노교(蘆橋) 사변은 가벼운 일이 아니네

徵發皇軍自北平  
 蘆橋七月事非輕

246) 蚌鷸之爭 : 방합과 도요새의 다툼이라는 뜻으로 제3자에게만 이롭게 하는 다툼을 이른말. 漁父之利.  
 247) 내선일체(內鮮一體) :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라는 사상 또는 이론으로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우리 민족말살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日鮮融和.

이웃 나라와 사귄(交隣)에 어찌 너희는 원수같은가  
우리를 멸시하고 슬거머니 전쟁이네  
성 위에 깃발은 햇빛에 나부끼고  
공중 폭탄은 천둥소리처럼 흔들리네  
한 편지 관하(關河)에 멀리 부치는 길이요  
위문은 수고롭게 일에 힘쓰는 장사(將士)을 위한 정이네

交隣豈爾如仇敵  
侮我居然化戰爭  
城上旌旗翻日色  
空中爆彈動雷聲  
一書遠寄關河路  
慰問勤勞將士情  
서산 이기옥(李起鈺)

문명(文明) 행정(行政)에 내선(內鮮)<sup>248</sup>이 밝고  
무력 또한 동양과 서양에 으뜸가는 명성이네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충성은 씩씩하고 열렬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적(奸猾)을 섬멸하려는 의로움은 적을 거세게 치네  
해 돋는 동쪽 바다 봄날에 꽃을 맺고  
북쪽 나무 가을 바람에 낙엽은 가볍네  
공중과 육지에서 막은 성공은 크고  
축하하는 사람들 많이 이김에 북을 울리네

文明行政內鮮明  
武亦東西第一名  
爲報皇恩忠壯烈  
欲殲奸猾義攻征  
扶桑春日開花結  
北樹秋風落葉輕  
防空并陸成功大  
祝賀人多勝鼓鳴  
서산 이희홍(李熙鴻)

나라와 집에(사회) 만세는 하늘에 명을 받음이요  
황군(皇軍)이 이르는 곳마다 적이 앞에 없네  
노서(露西)<sup>249</sup>와 전쟁에서 이김이 일찍이 어느 날이었던가  
만주 북쪽에서 위엄을 베푸는 것은 몇 해 아니라네  
너른 들에 양 무리 호랑이 대적하기 어렵고  
숲속에 참새 무리 감히 새매를 당할 수 없네  
북지(北支)<sup>250</sup>가 평정되고 또 남지(南支)<sup>251</sup>도 평정되니  
한 폭의 중원(中原)<sup>252</sup>은 차례로 변방이네

萬歲邦家受命天  
皇軍到處敵無前  
露西勝捷曾何日  
滿北宣威不幾年  
遍野群羊難格虎  
叢林陣雀敢當鷄  
北支平定南支又  
一幅中原次第邊  
서산 김태수(金台洙)

어혁장(於赫章)에 황군(皇軍) 위세와 무력이 드날리고  
평화의 임금 걱정(宸念)은 동양에 있네

於赫皇軍威武揚  
平和宸念在東洋

248) 일본과 조선.

249) 러시아.

250) 北支 : 華北, 중국 황하의 중·하류역의 지방.

251) 南支那.

252) 중국.



감히 공손치 않으면 이에 한번 노함이 있으니  
 끝내 대의(大義)를 펴서 가장 빛을 내네  
 말이 가는 쪽에는 태행고지(太行高地)<sup>253</sup>)는 다하고  
 함선 앞에는 양자강(楊子江) 세찬 물결 빠르네  
 유래있는 조벌(弔伐)<sup>254</sup>)은 천리(天吏)<sup>255</sup>)에 맡김이니  
 우역(禹域)<sup>256</sup>) 산하에 일장기가 빛나네

敢有不恭斯一怒  
 終伸大義最生光  
 馬首太行高地盡  
 艦前楊子奔波忙  
 由來弔伐任天吏  
 禹域山河耀日章  
 홍성(洪城) 이중렬(李仲烈)

빛나는 천황의 위엄은 극동(極東)을 진압하고  
 일장기 깃발 가을바람에 떨치네  
 궁리하고 계획해 결국 이김은 유신(帷臣)의 책략이요  
 진지를 격파하고 돌격함은 전사(戰士)의 공일세  
 천벌(天譴)은 그들에게 있지 우리에게 줌은 없고  
 사람은 곤궁하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人窮反本) 공평한 것을 좇는 것이네  
 백성을 구하고 악을 징계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함은 멀고 가까움고 한결같이 같다네

赫赫皇威鎮極東  
 日章旗角拂秋風  
 運籌決勝帷臣策  
 破陣冲鋒戰士功  
 天譴在他無與己  
 人窮反本是從公  
 救民懲惡何難有  
 奉祝遐邇一體同  
 대덕(大德) 송헌숙(宋憲淑)

황군(皇軍)의 정의와 용기는 산보다 높아  
 잔인한 오랑캐(殘胡) 깨뜨리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 맹세했네  
 천리 바깥에 모험해 멀리 정벌 나왔는데  
 적 비행기 방어는 하늘(九霄)에 쓸 수 있다네  
 동방에 전쟁의 운수가 오래가기를 기원하고  
 북쪽 땅에서 성풍(腥風)<sup>257</sup>)은 준동하는 완악한 무리를 쓸어내리  
 제국(帝國)은 강역(疆域)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니  
 평화는 오직 시국의 어려움(時艱)에서 건져내는데 있다네

皇軍義勇率於山  
 不破殘胡誓不還  
 冒險遠征千里外  
 防空能射九霄間  
 東方武運祈長久  
 北支腥風掃蠱頑  
 帝國非爲侵疆域  
 平和惟在濟時艱  
 홍성 이장로(李莊魯)

황군(皇軍)의 정의와 용기는 맑고 푸른 하늘을 뚫고  
 적을 이겨 굴복시키는 신공(神功)은 누가 앞에서 꺾으랴

皇軍義勇貫蒼天  
 克服神功孰剋前

253) 太行高地 : 중국 하북성 태행산맥.  
 254) 弔伐 : 弔民伐罪. 불쌍한 백성은 돕고 죄 지은 백성은 벌줌.  
 255) 天吏 : 하늘의 도리를 잘 지키는 덕망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임금을 말함.  
 256) 禹域 : 중국 고대 임금인禹가 치수한 지역이란 뜻으로 중국을 말함.  
 257) 腥風 : 전쟁터 등에서 피비린내가 끼치는 바람.

적진을 섬멸하니 기색이 어그러지고  
 성덕(聖德)을 찬양하니 둥근 달 둥그네  
 추위에 상하고 더위에 앓으나 충성스런 마음은 장하고  
 바다가 출렁이고 산이 무너져도 군사의 힘은 온전하네  
 말 놓아주고 개선가 부를 날 멀지 않음을 알겠고  
 채색 칠한 누각에서 공훈 표창에는 그대가 먼저이겠네

殲滅敵陣風色乖  
 贊揚聖德月輪圓  
 傷寒病暑忠心壯  
 盪海崩山武力全  
 放馬凱旋知不遠  
 章勳畫閣子居先

청양(靑陽) 이병업(李秉曄)

적을 응징하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오는(振旅)<sup>258</sup> 7월 가을  
 이웃나라 의를 잃어 되려 원수되네  
 일본이 오랜 세월 겪어왔음을 놀라지 마라  
 중국이 구주(九州)<sup>259</sup> 믿는 것이 가소롭도다  
 공중에서 폭격하는 비행기 귀신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나라를 지키는 부대를 적이 어찌 도모할 수 있으랴  
 어려움 많은 시국에 어느 때 안정될거냐  
 조정과 민간이 모두 근심에 잠시도 쉬지 못하네

振旅膺懲七月秋  
 隣邦喪義反爲讎  
 勿驚日本經千劫  
 可笑支那恃九州  
 空爆飛機神莫測  
 國防部隊敵焉謀  
 多艱時局何時定  
 朝野同憂暫不休

청양 이경우(李卿雨)

우리가 어찌 좋아서 군사가 인에 어그러짐을 대적하는 것인가  
 동양에서 황국(皇國)은 유신(維新)<sup>260</sup>을 명하였네  
 보안(保安)에 불량한 적을 용서하지 않고  
 경비(警備)에 무고한 사람들을 침범하지 않네  
 충정(忠貞 : 충성스럽고 절개가 곧음)을 갖고 하늘의 해를 밝게 받드네  
 맹수(豺獠)에 무력을 떨치고 모진 진(秦)나라를 베었네  
 애써 싸운 군사를 어떻게 위로할거냐  
 정부(廟堂)에서 우악하게 공훈 있는 신하로 대우함이 있을 것이네

我豈好兵敵忤仁  
 東洋皇國命維新  
 保安勿宥不良賊  
 警備莫侵無辜人  
 秉忠貞亮承天日  
 奮武豺獠誅暴秦  
 勞苦戰師何以慰  
 廟堂優有待勳臣

청양 이현(李炫)

저들은 어찌 화를 자초해 멋대로 날뛰는가  
 이에 성난 황군(皇軍)이 이에 출정했네  
 남녀 모두 맞고 보냄에 다투어 축하하고  
 관원과 백성은 헌납(獻納)하는데 충성스럽고 참된 정을 다하네

彼何招禍自縱橫  
 斯怒皇軍爰出征  
 士女送迎爭祝賀  
 臣民獻納盡忠情

258) 振旅 : 적국에 위세를 떨치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옴.

259) 九州 : 중국 고대에 전국을 나눈 9개의 주. 여기서는 중국 전체를 이룸.

260) 維新 : 모든 것이 개혁되어 새롭게 됨.

천시(天時)<sup>261</sup>에는 치안(治安)에 나아감에 도움이 있고  
 나라가 유신(維新)을 명하는 덕교(德教)<sup>262</sup>은 밝네  
 위엄을 펴고 무력을 떨치려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요  
 적을 응징해서 동아시아(東亞)에서 평화를 함께하려는 것이네

天時有佑治安進  
 邦命維新德教明  
 非欲宣威誇奮武  
 膺懲東亞共和平  
 청양 이제녕(李齊寧)

노구(蘆溝) 밤에 대포는 창공을 흔들어  
 동양의 대폭풍을 불러 일으켰네  
 여러나라들 곁에서 보고만 있고 모두 벽상(壁上)인데  
 전 중국이 망령되이 행동해 거의 소용돌이중이네  
 사방이 포위되고 고립된 장사령(蔣司令)<sup>263</sup>  
 일치해서 동정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공들일세  
 평화의 일이 완성되는 날  
 임금과 백성이 서로 다 만대의 공이네

蘆溝夜砲震蒼空  
 喚起東洋大暴風  
 列國傍觀都壁上  
 全文妄動庶渦中  
 四圍孤立蔣司令  
 一致同情近衛公  
 平和工作完成日  
 君相民皆萬世功  
 예산(禮山) 윤석홍(尹錫洪)

노구(蘆溝) 소식 동경(東京)에 들어오니  
 장수 당당히 멀리 출정(出征) 하네  
 선봉은 이미 천진시(天津市)에 진격하고  
 후미 부대는 이어서 상해성(上海城)에 오르네  
 만년 제국(帝國)은 침략이 없었고  
 한 폭 동양에서 태평을 바라보네  
 개선가 소리 속에 군사 돌아오는 날  
 인각(麟閣 : 麟閣 : 麒麟閣)에는 분명 성명(姓名)이 표시되어 있을 것이네

蘆溝消息入東京  
 將帥堂堂遠出征  
 先鋒已進天津市  
 後隊連登上海城  
 萬年帝德無侵略  
 一幅東洋望太平  
 凱歌聲裡還軍日  
 麟閣分明表姓名  
 예산 송중면(宋鍾冕)

대군(大軍)이 하늘의 뜻을 얻으니  
 한 북소리에 중원(中原)을 깨뜨렸네  
 사해(四海)는 같은 소리로 축하하고  
 다 제국(帝國)의 존엄함을 칭송하네

大軍天意得  
 一鼓破中原  
 四海同聲祝  
 咸稱帝國尊  
 예산 구연창(具然彰)

261) 天時 : 하늘의 도움이 있는 시기.  
 262) 德教 : 도덕으로써 사람을 착한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  
 263) 蔣介石.

나라 위해 충성을 다해 다른 나라를 정벌하니  
남북에서 개선하고 신공(神功)을 연주하네  
하늘 날고 바다에 잠기는 신기한 전술  
백만이 능히 한 계획중에 마땅하네

爲國竭忠征異域  
凱歌南北奏神功  
飛天潛海多奇術  
百萬能當一計中  
서산(瑞山) 이찬(李燦)

화북에서 변이 일어남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때  
군사 일 노고에 멀리 군사들 나가네  
승승 연이어 영인죽(迎刃竹)을 깨뜨리고  
거듭된 포위를 분발하여 침은 바둑 잘 두는 사람같네  
뜻은 충성스럽고 용맹함에 있으니 괴로움을 달게 맛보고  
주머니 속 식량에도 굶주림이 있네  
천하에 가시덩쿨 치고 평정하는 날  
펄펄 날듯이 춤추며 개선하는 날 기약하네

北支變起不虞時  
戎事勞勞遠出師  
乘勝連破迎刃竹  
奮擊重圍善手碁  
志存忠勇甘嘗苦  
囊裏糒糧間有飢  
宇內荊榛平定日  
翩躚蹈舞凱旋期  
서산 윤상철(尹相喆)

황군(皇軍)이 근래 연이어 승승장구하니  
계속해서 올라오는 승리 보고에 축하하네  
물싸움 시작하는 때는 사자 호랑이 같고  
비행기 나타나는 곳은 모두 쓸쓸하게 변한 언덕이 되네  
적진에 임한 용기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움직이고  
나라위한 충성스런 마음은 맹렬히 타는 불에 불을 부는 것 같네  
반도(半島) 일반이 무운(武運)을 기원하는데  
장군(蔣君)<sup>264</sup> 어째서 그만들을 모르는가

皇軍近日連乘勝  
祝賀頻頻上捷書  
陸戰開時同獅虎  
飛機現處摠邱墟  
臨陣勇氣晴雷動  
爲國忠心烈火嘘  
半島一般祈武運  
蔣君何以不知沮  
서산 박용원(朴容元)

◆ 전라북도(全羅北道)

오랜 세월 임금과 백성은 한 몸으로 같은데  
대군(大軍)은 소집에 응해서 화염중에 다다랐네  
산하(山河)는 바로 천 사람의 비로 끓고  
우주에는 장사의 바람이 높이 부네

萬古君民一體同  
大軍應召赴炎中  
山河正沸千人血  
宇宙高吹壯士風

264) 장개석.

결단코 강을 건너 백수(白水)를 응징하려 맹세하고  
충성에 걸 날이 있어 새파란 하늘을 우러르네  
남아가 하필 몸 온전히 할 계책만 내랴  
나라에 보답하는 이 해에 으뜸 공을 세우리

決誓渡江徵白水  
懸忠有日仰蒼穹  
男兒何必全軀計  
報國當年立首功

부안(扶安) 임양호(林讓鎬)

황군(皇軍)이 바다 동쪽으로부터 나와서  
싸움에 이긴 곳에 기 걸으니 상서로운 해 붉네  
능히 한가롭고 편안하게 하고 견고하기 산악과 같고  
기미를 보아 문득 빨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듯 하네  
무 복(武祉)이 어찌 빌기를 기다려 오랴  
국체(國體)는 자연히 존경하고 숭배하는 중에 있네  
정의(正義)는 당당하니 누가 감히 막을까  
열렬한 정성 만사람 기쁨은 같네

皇軍出自海之東  
捷處揭旗瑞日紅  
能暇且安堅似岳  
見機輒動疾生風  
武祉何待禱祈久  
國體天然尊尚中  
正義堂堂誰敢禦  
熱誠萬口喜歡同

부안 김형철(金炯哲)

오직 우리 황군(皇軍)만이 능히 충성을 다하니  
지나(支那) 만리를 돌면서 정벌중이네  
시위(示威)는 단지 평화의 기초를 세우는데 있고  
덕을 베풀 때는 일찍이 인내의 풍조를 더했네  
번쩍이는 칼끝에 서리 비쳐 희고  
펼럭이는 일장 깃발 붉네  
당당한 용기와 의로움에 앞에 적은 없으니  
멀지 않아 정녕 큰 공을 세우겠네

惟我皇軍能竭忠  
支那萬里轉征中  
示威但立和平礎  
施德曾加忍耐風  
閃閃劍芒霜耀白  
翩翩旗幟日章紅  
堂堂勇義無前敵  
不遠丁寧樹大功

부안 노승훈(盧承勛)

이 일은 우리 극동(極東)에 평화를 드는 일이니  
황군(皇軍)의 의기(義氣)는 사방에 통하네  
장성(長城)<sup>265</sup> 일대에 은혜와 위엄을 떨치고  
세상 어지러운 일을 씻고 쓸어 큰 공을 세우네

此舉平和我極東  
皇軍義氣四隣通  
長城一帶恩威振  
滌掃風塵立大功

부안 백낙준(白樂俊)

세계의 편안과 위태로움은 바로 동쪽에 있으니

世界安危正在東

265) 만리장성.

황군(皇軍)은 의로움에 다다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사람은 다 황족(黃族)이니 어찌 백(白)<sup>266</sup>을 따를까  
일장기 바라보니 멀리서 붉은 것이 걸리네

皇軍赴義必成功  
人皆黃族寧隨白  
望日章旗遠揭紅  
부안 채동식(蔡東式)

집에 들어와서는 수제(修齊)<sup>267</sup>하고 나가서는 나라를 위해 힘을 바치는 것이고  
아버지 모심은 효로하고 임금 모심은 충성으로 하네  
사직(社稷 : 국가)의 편안과 위태로움을 누가 능히 보전할까  
모두 황군(皇軍)의 계책과 모략에 있네

入則修齊出奉公  
事親以孝事君忠  
安危社稷誰能保  
都在皇軍籌略中  
부안 백남중(白南鍾)

말 재촉하고 북을 울리며 해동(海東)을 나와서  
칼 갈고 창 메는 한 마음 붉네  
된바람(雄風)<sup>268</sup>이 향하는 곳에는 도시락밥으로 맞이하니  
응당 황군(皇軍)은 마음과 기운을 가다듬어 공을 이루겠네

催馬鳴鼓出海東  
磨刀荷戟一心紅  
雄風所向迎簞食  
應是皇軍奮勵功  
부안 장시형(張時亨)

세상에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서로 찾아드는 것은 예전에도 같았으니  
운대(雲臺)와 연각(煙閣)에 모두 전쟁에서 세운 공(軍功)이네  
만약 오늘 노구(蘆溝)의 변이 없었다면  
누가 영웅이 이 중에 있는줄 알리오

治亂相尋古所同  
雲臺煙閣總軍功  
若無今日蘆溝變  
誰識英雄在此中  
부안 김병규(金炳奎)

육지 싸움에서 돌아오고 또 공중에서 싸우니  
천군(天軍)<sup>269</sup>이 이르는 곳마다 곧 생기 있는 바람이네  
백성 편안히 하고 세상을 건지는 것은 누구의 힘이라던가  
이는 영웅이 책략을 쓰는 중에 있네

陸戰歸來又擊空  
天軍到處即生風  
安民濟世云誰力  
祇在英雄運策中  
부안 임낙정(林洛程)

북지(北支)에서 사변은 큰 바다 동쪽에서 일어나니  
나라위한 충성스런 마음은 해 속을 관통하네

北支事發大洋東  
爲國忠心貫日中

266) 白族.

267) 修齊 : 修身齊家.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일을 잘 다스림.

268) 黃風.

269) 天軍 軍대.

영구한 안녕은 모두 이곳에 있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무예와 용맹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네

永久安寧都在此  
進前武勇願成功  
부안 조상준(曹相準)

일장기(日章旗) 올라 북동에서 펄럭이는데  
군사의 천하에 떨치는 위세 가을 바람을 움직이네  
형세는 대를 쪼개듯하여 적을 계속 몰아치니  
4억 지나(支那)는 눈 안에 있네

旭日章旗翻北東  
軍威天下動秋風  
勢如破竹長驅入  
四億支那在眼中  
부안 정위영(鄭煒永)

승승장구 정벌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가니  
북과 나팔소리 군영에 아침해 붉네  
둥근 중원은 끝내 안정될 수 있으니  
백성은 이로부터 의지해 몸을 온전히 하겠네

乘勝征伐任西東  
鼓角轆門曙日紅  
圓幅中原終可定  
蒼生自此賴全躬  
부안 김동식(金東軾)

북쪽을 치러는 황군(皇軍)이 동해를 건너니  
당당한 진영 형세 일장기 붉네  
병마(兵馬)는 황초(黃草)위에 내달리고  
갈과 창은 흰모래 중에 나열해있네  
길에서 포 쏘는 소리와 연기에 여름날 괴롭고  
생각하니 응당 비오듯한 화살은 가을바람에 한스러우리  
어느 때 먼저 개선 곡조를 연주하려나  
멀리서 백성과 푸른 하늘에 축하하네

北伐皇軍渡海東  
堂堂陣勢日章紅  
兵馬驅馳黃草上  
劍槍羅列白沙中  
聞道砲烟苦夏日  
相應簇雨恨秋風  
何時先奏凱旋曲  
遠祝蒼生賀碧空  
부안 조희용(曹喜鎔)

푸른 하늘에 밝은 해는 참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충성을 비추고  
나라를 위하는 오늘날 죽음을 맹서하는 것과 같네  
멀리서 절하며 이상없이 돌아옴을 축하하고  
여러 공(公)의 신력(神力)이요 하늘의 조화(天功)이네

青天白日照丹忠  
爲國當今誓死司  
遙拜無由還祝賀  
諸公神力又天功  
부안 김종섭(金鍾燮)

천황의 명한 황군(皇軍) 그 공을 고하니  
하늘의 위엄 늠름하여 절로 바람이 이네  
서양은 벌벌 떨며 오직 실성한 듯하니

帝命皇軍告厥功  
天威凜烈自生風  
西洋戰慄惟如失

이로부터 다른 사람(나라) 감히 동쪽을 넘보지 못하리

從此他人不敢東  
부안 김인술(金仁述)

두루 천황의 위세에 합하고 동쪽이 크게 교화되니  
가면 빈 곳같이 복종하지 앓음이 없네  
서쪽 성의 거문고는 좋은 날에 놀라고  
구리(九里)의 통소 소리는 초풍(楚風)에 흠어들어지네  
굶주림과 목마름을 응당 추위와 더위위에서 감내하리니  
위태로움과 어려움 거의 화염중에 용기이네  
사민(士民)은 공을 세우고 고향길로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적진 깨뜨리는 즐거운 소리 다같이 들네

普合皇威大化東  
往無不服向如空  
西域琴曲驚懿日  
九里簫聲散楚風  
飢渴應堪寒暑上  
危難幾勇火炎中  
士民願立還鄉路  
破陣樂音聞盡同  
부안 박기석(朴基錫)

해 비추고 바다와 서로 어울려 화목함은 본래 동쪽이니  
군사 나가서 화북(北支)에서 정벌하는 전쟁 중이네  
남아는 굳이 처자식에 연연할 필요 없으니  
한 조각 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스러운 마음(丹心)은 공을 세우는데 있네

日照融和海本東  
出師征戰北支中  
男兒不必戀妻子  
一片丹心在樹功  
부안 이석로(李錫魯)

우리 군사 강력하기 동서양에 으뜸인데  
목숨 버리고 충성 다하기 누가 같을쏘나  
대포 연기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참고 삼키는데  
비오듯한 포탄중에서 피와 정성을 다하네  
한 몸에서 능히 만민(萬民)에게 복을 내려주고  
몇 개월에 만드시 천세(千歲)의 공을 세우리  
사방 안도함은 다 덕에 힘입어서이니  
멀리서 장차 축하 말을 하고 황궁(皇宮)에 절을 하네

我軍剛力冠西東  
舍命盡忠誰可同  
耐辛喫苦砲烟裏  
殲血殫誠彈雨中  
一身能賜萬民福  
數月必樹千歲功  
四域安堵皆賴德  
遙將祝語拜皇宮  
부안 김석철(金錫喆)

분발하여 일어난 황군(皇軍) 북치며 동쪽으로 나가고  
멀리 만리(萬里)에 정벌하는 한 마음은 같다네  
절개와 의리(節義)는 당당하여 하늘에 해가 있듯 하고  
사단(師團)의 엄숙하고 고요함은 진지에 바람이듯 하네  
육갑(六甲)<sup>270</sup> 운수 중에 신령스러움은 예측 못하고  
세 번 명령을 내리니 적은 다 귀머거리 되었네

激起皇軍鼓出東  
遠征萬里一心同  
節義堂堂天有日  
師團肅肅陣生風  
六甲運中神不測  
三申令下敵皆聾



머리 들어 아침저녁으로 멀리서 바라보며 축하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어느 때나 구궁(九宮)<sup>271)</sup>에 배알하나

舉頭朝夕遙望祝  
歌舞何時拜九宮  
부안 김봉일(金奉日)

하늘의 명령인 유신(維新)이 우리 동방에 내려오니  
조정과 백성에 발표한 군사를 내어보냄은 공정하네  
백성 편안히하고 조금도 이익을 범하지 않고  
나라 사랑에 끝내는 큰 승리를 이루리  
잠수함은 은밀히 바다 항구를 탐색 침입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공습중에 예방하네  
관(官)과 백성이 후원하여 서로 힘을 나누고  
해가 비추는 단침(丹忱)<sup>272)</sup>은 상하가 같다네

天命維新降我東  
聲明朝野出師公  
安民不犯秋毫利  
愛國終成大捷功  
潛艇密探侵海港  
投丸豫防襲空中  
官民後援相分力  
照日丹忱上下同  
부안 김수철(金壽喆)

빛나는 황군(皇軍)은 효웅(梟雄)<sup>273)</sup>을 다하고  
우주에 종횡으로 영걸스런 풍채를 실어나르네  
전진(戰塵)에서 어려움을 무릅쓰는 노고를 어찌 다할까  
위하여 축하하는 정성스런 마음이요 나라에 보답하는 충성이네

赫赫皇軍盡梟雄  
縱橫宇宙駕英風  
戰塵冒險勞何極  
爲賀丹心報國忠  
부안 최일홍(崔一洪)

멀리 만리에 정벌하는 것은 영웅이요  
내 몸을 칼과 창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네  
중국 풍진은 아직 개이지 않았는데  
승리하는 보고서 날마다 성공을 알리네

遠征萬里是英雄  
不畏我身劍戟中  
北支風塵姑不霽  
捷書日日報成功  
부안 김옥철(金玉喆)

중국 풍진에 사방이 막혔는데  
장부가 전쟁터에 나아가 성공하려하네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 아니니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성스러운 마음에 이 몸을 다하려네

北支風塵四塞通  
丈夫出戰擬成功  
敵城攻擊非難事  
報國丹心盡此躬  
부안 민찬식(閔燦植)

270) 六十甲子.

271) 九重宮闕.

272) 丹忱 : 속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정성.

273) 梟雄 : 사납고 용맹스런 사람.

삼군(三軍)에 충성과 용기는 한마음으로 같은데  
해뜨는 곳에서 나온 새벽빛은 붉네  
사변이 꿈속에서와 같이 갑자기 발생하니  
전쟁은 기약하지 않은 중에 어찌 괴롭겠나  
정에 나아가고 기쁜 것에서 비오는 때를 아니  
승리하는 형세 적을 계속 몰아쳐 도처에서 바람이 이네  
비석에 새겨 공을 칭송하는 날이 장차 있으리니  
천추(千秋)에 큰바다 동쪽을 기념하리라

三軍忠勇一心同  
出自扶桑曙色紅  
事變忽生如夢裏  
戰爭何苦不期中  
就情喜降知時雨  
捷勢長驅到處風  
勒石頌功將有日  
千秋紀念大洋東  
부안 김낙관(金洛觀)

하늘로부터 명령이 있어 동에서 병사를 내니  
의로운 기개 열강중에 당당하네  
징과 북(金鼓) 소리 병선은 바다에 가득차고  
태양깃발(일장기) 북지(北支)에서 붉네

自天有命出兵東  
義氣堂堂列強中  
金鼓兵船洋海滿  
太陽旗幟北支紅  
부안 김상인(金相印)

먼저 적을 요리할 것을 모의하니 공격에 실수가 없고  
기회를 낸 신과 같아 수비에도 또한 공이 있네  
아세아 평화는 이로부터 공고해지려니  
높은 성덕(聖德 : 임금 덕)은 예나 지금이나 통하네

謀先料敵攻無失  
機發如神守亦功  
亞細平和從此固  
巍乎聖德古今通  
부안 김선중(金善仲)

풍진 만리에 참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충성을 본받아  
호랑이의 날렵과 용의 오름같은 의기(義氣)는 같네  
나라위해 어찌 노고를 다함을 사양하라  
동양 평화는 여러분에게 있네

風塵萬里効丹忠  
虎賁龍驤義氣同  
爲國何辭勞苦極  
東洋平和在諸公  
부안 최재홍(崔在洪)

기치가 드날리며 동에서 나와  
잔악하고 폭악함을 제거하고 참된 충성을 다하네  
천황의 위엄은 멀리 장성(長城 : 萬里長城) 밖에 미치고  
군사의 기세는 강한 적중에 이기는 기세를 타네  
삼천의 표범 호랑이(貔虎)는 우리가 유일하니  
백만의 개와 양인 저들과 감히 같을까  
이 몸은 개선할 날을 머물며 기다리노니

旗幟揚揚出自東  
除殘誅暴盡丹忠  
皇威遠暨長城外  
師氣乘勝強敵中  
三千貔虎吾惟一  
百萬犬羊彼敢同  
此身留待凱旋日

원문(轅門)<sup>274</sup>에서 한 번 취하며 큰 공로를 축하하러네

一醉轅門賀大功  
부안 이중인(李重仁)

하늘의 명인 유신(維新)이 우리 동방을 도우니  
황군(皇軍)은 화북에서 적이 없는 바람같네  
일장기 장성(長城 : 萬里長城) 위에 높이 꽂고  
승리를 얻은 북소리 만리에 통하네

天命維新佑我東  
皇軍無敵北支風  
日章高插長城上  
得捷鼓聲萬里通  
부안 박찬우(朴贊雨)

만세 천황 위엄이 해동(海東)을 누르고  
천황의 군대 진영위에 일장기 붙네  
재앙과 폭악을 제거하는 백성을 위한 계책이니  
총성 뒤에 도우려는 마음 억만이 같다네

萬歲皇威鎮海東  
皇師陣上日旗紅  
除氛誅暴生靈計  
銃後援心億萬同  
부안 장현갑(張鉉甲)

다른 나라 강산은 새로운 모습인데  
더위 무릅쓰고 한데서 자고 서쪽과 동쪽을 치네  
황군(皇軍)을 위문하는 데는 걱정 없는 것이 아니니  
크게 민중을 구제하는 노력중이네

異域江山生面目  
冒炎露宿擊西東  
慰問皇軍無恙否  
大濟民衆勞力中  
부안 이인성(李麟成)

강적 천군(千軍)이 깃발아래 흩어지니  
장성(長城 : 萬里長城) 만리가 눈앞에 다하네  
내가 있음을 알지못하고 오직 나라만 아나니  
충의(忠義)는 당당하여 큰 공을 세우네

強敵千軍旗下散  
長城萬里眼前窮  
不知有己惟知國  
忠義堂堂立大功  
부안 윤성룡(尹成龍)

멀리서 황군(皇軍)이 동으로 출정(出征)하는 것을 축하하고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하는데 한마음으로 같다네  
천자(天子)는 응당 능각(凌閣)을 열고 기다릴 것이니  
오랜 세월(千秋) 역사(竹帛)에 의로움 무궁할 것이네

遠祝皇軍出征東  
寡能敵衆一心同  
天子應開凌閣待  
千秋竹帛義無窮  
부안 이형호(李炯鎬)

274) 軍營.

용감히 바다 동쪽에 다다르니  
장성(長城) 만리가 통하네  
살기를 도모하는 것은 본래 뜻이 아니니  
죽기 각오하고 단충(丹忠)<sup>275)</sup>을 다하네  
다른 나라에서 덕을 표는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위엄있는 모습을 떨치네  
중원(中原)은 일정하기를 기약하고  
인각(麟閣)에서는 반드시 공에 보답하리

勇赴海之東  
長城萬里通  
圖生非素志  
決死盡丹忠  
他邦宣德戰  
異域振威風  
中原期一定  
麟閣必酬功  
부안 이명선(李明璇)

돋는 해가 동쪽에서 나오니  
새벽 빛 사해(四海)가 똑같네  
황군(皇軍)이 싸워 이긴 땅에는  
가는 곳마다 대화풍(大和風)이네

旭日出於東  
曙光四海同  
皇軍戰勝地  
到處大和風  
부안 박경석(朴京碩)

황군(皇軍)이 동쪽에서 나오니  
해를 뚫는 충성은 한가지로 붉네  
용감함은 능히 백만대군을 당하고  
빗발같이 쏟아지는 총알이 창공에서 떨어지네

皇軍出於東  
貫日忠一紅  
勇能當百萬  
彈雨落蒼空  
부안 김영환(金永煥)

나라가 처한 것이 본래 바다 동쪽이니  
황군(皇軍)은 한가지로 합해졌네  
적의 고을을 차지한 후에  
오랜 세월(千秋) 해를 관통하는 충성일세

處國本洋東  
皇軍一大同  
敵州占據後  
千秋貫日忠  
부안 정경태(鄭炯兌)

충성을 다하는 해가 동쪽에서 돋는데  
황군(皇軍)은 격렬한 전투중이네  
오랑캐 하늘 킁킁해지는데  
이르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공일세

盡忠日上東  
皇軍激戰中  
胡天暗黑化  
隨處乘勝功  
부안 정경환(鄭炯煥)

275) 丹忠 :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

만리 산하(山河) 밖에서  
쏟아지는 탄알(矢石) 중에 한마음일세  
피땀은 여름날을 수고롭게 하고  
충성스럽고 용맹함은 가을바람에 넘뜰하네

萬里山河外  
一心矢石中  
血汗勞夏日  
忠勇凜秋風  
부안 김형수(金炯洙)

만리 밖에 멀리 정벌하니  
나라에 보답하는 의로움 무궁하네  
어느 날에나 오랑캐를 깨뜨려서  
정기(旌旗)<sup>276)</sup> 해동(海東)에 돌아오려나

遠征萬里外  
報國義無窮  
何日胡虜破  
旌旗還海東  
부안 이창우(李彰雨)

황군(皇軍)이 해동(海東)에서 나오니  
우러러 축하하는 한 하늘은 같네  
모두 영웅의 수완이러니  
쫓는 것이 만리 바람같네

皇軍出海東  
仰祝一天同  
盡是英雄手  
逐如萬里風  
부안 김상기(金相基)

하늘이 정한 운수(天運)가 순환하여 대동(大東)에 열렸으니  
만리에 황군(皇軍) 전쟁에서 승리하여 오네  
바람과 비 견디기 어려우나 적을 몰아 쫓아낸 땅에  
밤낮 가리지 않고 대를 오르내렸네  
선봉의 충의와 용기는 다투어 도전하는 기세요  
뒤에서 밀어주는 정성스런 마음은 각자 재주를 기르네  
나라에 보답하고 충성을 표하기를 기약하는 날이 있을 것이니  
임금을 위해 공을 아뢰는 술잔에 축하하네

循環天運大東開  
萬里皇軍戰捷來  
風雨難堪驅逐地  
晝宵不避降登臺  
鋒先義勇爭挑氣  
援後誠心各養才  
報國表忠期有日  
爲君祝賀奏功盃  
익산(益山) 이태응(李台應)

임금의 덕은 아름답고 성해서 널리 하늘에까지 미치고  
출정하는 군사들의 응징은 올해에 있네  
백성의 마음이 단합하니 신은 응당 도울 것이요  
민국(民國)은 권력을 다투니 계통이 어찌 전해질 것인가  
평화를 존중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형세이니  
모로 가며 북지(北支)를 폭격하는 것을 먼저 하였네

帝德皇皇普及天  
出師膺懲在今年  
人心團合神應助  
民國權爭統豈傳  
尊重平和東亞勢  
橫行爆擊北支先

276) 旌과 旗.

장병(將兵)은 죽음으로서 절개를 지켜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한데  
만리의 충혼(忠魂)은 두렵고 가련하네

將兵死節歸如視  
萬里忠魂懼且憐  
익산 소진덕(蘇鎭德)

북쪽 변방 근심스런 구름 끼여 사라지지 않았는데  
원정 간 군대는 먼지바람 무릅쓰네  
비행기 공격하는데 빠르기가 번개같고  
고사포(高射砲) 울리는 소리는 우레같네  
후원에 백성의 여러 힘이 아님이 없고  
성공은 모두 장군의 재주이네  
원하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 날을 말함이요  
나란히 천황(天皇) 만세하는 술잔을 올리네

塞北愁雲鬱未開  
遠征師旅冒風埃  
飛行機擊迅如電  
高射砲聲轟似雷  
後援莫非民庶力  
成功都是將軍才  
願言東亞平和日  
齊上天皇萬歲盃  
익산 이철응(李哲應)

군대의 이긴 형세로 몰아쳐 서쪽으로 관(關)에 들고  
승전한 보고서 연이어 봉황(鳳凰) 사이에서 아뢰네  
70 먹은 나이에 병도 많아  
원정가는 군대 좇지 못해 한되나 개선해서 돌아오기를 노래하네

軍勢長驅西入關  
捷書連奏鳳凰間  
行年七十身多病  
恨不從征唱凱還  
익산 임노일(林魯一)

쟁쟁한 영웅들 담력은 호걸이요  
한번 휘두르는 장검에 나쁜 것 무찌르네  
크고 넓은 하늘(皇天)은 이미 바른 명분과 의리를 돌보고  
빛나는 천황의 위엄은 해와 달처럼 높네

濟濟英雄膽氣豪  
一揮長劍醜歸鑿  
皇天已眷正名義  
炳燿皇威日月高  
익산 장지한(張志漢)

황군(皇軍)이 관문에 드니  
군사의 기세 크게 일어나네  
이로써 일당백이니  
승승장구해서 같이 전진하네  
형호(荊虎)는 반드시 잡힐 것이요  
진록(秦鹿)은 얻을수 있네  
일본과 조선의 안에서  
신민(臣民)이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네

皇軍入關  
兵勢大振  
以一當百  
長驅竝進  
荊虎必擒  
秦鹿可得  
日鮮之內  
臣民頌祝  
익산 유기철(柳基哲)

황군(皇軍)이 변방을 나와 북에서 위세를 떨치니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고을이 정성껏 보내고 맞네  
승승장구하니 적수가 없고  
비행기 공격해 얻는 것이 빠르기가 우레처럼 가볍네

皇軍出塞威振北  
悅服州縣送迎  
乘勝長驅無敵手  
飛行擊取迅雷輕  
익산 이동섭(李東燮)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니  
북지(北支)의 어지럽힌 참새들 놀라네  
날아 어디서 멈출지 모르니  
비행기 공격에 삶을 도모하지 못하네  
적을 한꺼번에 모조리 잡으리니  
두 길로 나란히 진격해나가네  
황군(皇軍)의 충의와 용기 있는 무예는  
우주에서 자유자재로 거침이 없네

旭日昇東出  
北支亂雀驚  
故飛何所止  
空襲不圖生  
打得一網盡  
竝進兩路行  
皇軍義勇武  
宇宙任縱橫  
익산 이종구(李鍾龜)

문명(文明)의 해동국(海東國)  
임금을 돕는 것이 몇 영웅이던가  
굶주린 곰은 성 아래에 오고  
누워있던 용은 용중(隆中)에 일어나네  
아! 너 지나(支那) 장수여  
감히 산사람 학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가  
이 위태하고 어려운 때를 당하여  
누가 한 미미한 몸을 애석히 여기겠는가  
금궐(金闕)<sup>277</sup> 아래에서 조서를 받들고  
기운을 내어 북풍을 향해 갔네  
적진에 임하여 귀신이 우는데  
서로 싸우는(交鋒) 것은 사졸(士卒)의 공이네  
징을 울리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결국 이길 계책은 무궁하네  
승리를 바치니 만세 부르고  
봉래(蓬萊)에 오색구름이 붉네

文明海東國  
輔弼幾英雄  
飢熊來城下  
臥龍起隆中  
嗟爾支那將  
敢生虐欲充  
際此危難時  
誰惜一微躬  
奉勅金闕下  
奮勵向北風  
臨陣鬼神泣  
交鋒士卒功  
鳴金吹鼓角  
決勝計無窮  
獻捷呼萬歲  
蓬萊五雲紅  
익산 김상권(金尙權)

277) 궁궐.

강한 군사와 뛰어난 장수가 동경(東京)에 다다르니  
 추곡단(榷穀壇) 앞에 칙지(勅旨)<sup>278</sup>가 밝네  
 진지 형세는 견고하게 수비하는 벽으로 잘 알고 있고  
 군대의 위용은 이름 없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네  
 서로 싸우는 곳에 다다를 때 풍진(風塵)은 어둡고  
 승승장구해 나아가는 북과 나발 울리네  
 천감(天鑑)은 밝게 우리나라에 임하시고  
 개선가 부르는 좋은날 모인 아침은 맑네

精兵良將赴東京  
 榷穀壇前勅旨明  
 陣勢慣知堅守壁  
 軍容非是出無名  
 赴時交戰風塵暗  
 乘勝進行鼓角鳴  
 天鑑昭昭臨我國  
 凱歌吉日會朝清  
 익산 김용규(金瑑圭)

중국이 미친 듯이 날뛰어서 동방이 기울려하니  
 충성과 절의는 같은 소리로 누가 정벌하지 않으리 하네  
 천황의 장수는 장차 노연안(瀾煙岸)을 건너 폭격하고  
 천황의 군대는 채설정(蔡雪程)에 들어 횡행하네  
 위엄을 펴서 백번 싸움에 살아도 욕됨이 없고  
 은혜로 한번 죽음으로 보상함을 허락받아 영예로움이 있네  
 연이어 승전한 좋은 소식 때대로 이르고  
 반드시 집이나 나라나 태평을 즐거워함을 알겠네

北支狂亂欲東傾  
 忠義同聲孰不征  
 天將渡瀾煙岸爆  
 皇師入蔡雪程橫  
 威宣百戰生無辱  
 恩許一償死有榮  
 連捷好音時日到  
 定知家國樂昇平  
 익산 김용규(金容圭)

불쌍하다 민국(民國)에 작은 호걸과 영웅들  
 종횡으로 다니니 마땅하고 떳떳한 도리를 잡기 어렵네  
 올해 비록 잘 알지 못함이 귀하나  
 다른 날에는 반드시 밝음이 공에 반함을 꺼릴 것이네  
 하늘의 도는 지극히 공평해 별들이 북두성을 돌레하는 것과 같고  
 인심은 순종해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네  
 만리에 출정(出征)은 우연한 일이 아니니  
 일장기 높이 걸어 가을 바람에 움직이네

可憐民國少豪雄  
 爲縱爲橫難執中  
 當年雖昧和爲貴  
 他日必明嫌反功  
 天道至公星拱北  
 人心歸順水流東  
 萬里出征非偶事  
 日章高揭動秋風  
 익산 윤주영(尹周永)

황군(皇軍)이 진지를 나간지 이미 여러 해인데  
 위력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화평함을 우선했네  
 위(魏)와 한(韓)이 서로 가로 막는 것은 원래 그릇된 계책이요

皇軍出陣已多年  
 靡爲示威和爲先  
 魏韓相阻原非計

278) 勅命.



오(吳)와 월(越)의 행성(行成) 또한 시천(是天)이네  
 만리(萬里)에 가을 비 뒤에 인가의 연기요  
 옛 성에 석양 전에 벼와 기장이네  
 만약 중화(中華)로 일찍이 반성하게 했더라면  
 백성이 처함에 불안전함은 없었으리라

吳越行成亦是天  
 萬里人烟秋雨後  
 古城禾黍夕陽前  
 若使中華曾反省  
 蒼生無處不安全  
 익산 김용철(金容喆)

◆ 전라남도(全羅南道)

거마(車馬)를 검열하고 유월에 왕의 군대를 내니  
 의로운 무기와 충성을 떨쳐 위험을 무릅쓰네  
 군령(軍令)은 바야흐로 더운 바다를 건너니  
 황은(皇恩) 멀리서 축하하고 널리 천하에 베푸네  
 운수는 돌아서 북쪽 땅에서 떨어지는 해를 붙들고  
 세력을 동방에서 떨쳐 개신가를 연주하는 때이네  
 원정(遠征)을 위로하고 많이 감사하고 축하하는데  
 다투어 나라 복이 이지러지지 않았다고 부르네

棲棲六月出王師  
 仗義奮忠冒險危  
 軍令方嚴炎海渡  
 皇恩遐祝普天施  
 運回北土扶顛日  
 勢振東邦奏凱時  
 慰勞遠征多感賀  
 競呼國祚不騫虧  
 제주(濟州) 양성하(梁聖廈)

장차 정성스런 뜻에 힘입어 천황의 군대를 축하하니  
 충의(忠義) 밝으나 나라에 보답하려니 위태하네  
 불꽃 하늘을 비우고 연기와 안개 잠겼는데  
 포 소리는 땅을 흔들고 우레 천둥소리 퍼지네  
 평화에 멀지 않아 응징하는 날이려니  
 치란(治亂)에서 승승장구하는 때를 기약할 수 있네  
 개신해서 황하(黃河)를 건너 병기를 씻고  
 만전의 책략은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네

聊將誠意祝皇師  
 忠義昭然報國危  
 焰火冲天烟霧鎖  
 砲聲動地霆雷施  
 平和不遠膺懲日  
 治亂可期乘勝時  
 凱渡黃河洗兵甲  
 萬全籌策一無虧  
 제주 김병주(金秉柱)

노구사(蘆溝事) 더운 여름날 발생하니  
 정벌하러가는 기병 승승장구하기 반년도 안되었네  
 저 잔익한 적(鬼畜)을 중국 남쪽과 북쪽에서 응징하고  
 우리 천황의 은혜 해 아래에서 축하하네  
 마음 합해서 보답하니 국민이 우러르고

蘆溝事發炎中天  
 征騎長驅未半年  
 懲伊鬼畜支南北  
 祝我皇恩日下邊  
 協心報國民皆仰

단체는 군을 위문하는데 누가 홀로 모르라  
반드시 성공하여 개선하여 돌아오는 자리에  
춘추에 인각(麟閣)에 이름써서 전하리

團體慰軍誰獨眠  
期必成功歸凱地  
千秋麟閣寫名傳  
제주 김문수(金文洙)

서쪽 하늘에서 바람과 비가 어지럽게 일어나니  
밝은 해 붉은 기(日章旗) 대군(大軍)에서 나오네  
길 험하고 큰 물결 이는 삼만리(三萬里)  
기병 다 뛰어나고 몇 천 무리를 이루네  
모두 바쁜 적군의 형세 토끼가 굴을 찾듯하고  
맹렬한 우리 군의 행군은 매가 구름 위를 떨치듯하네  
이르거나 늦거나 개선해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는데  
신민(臣民)은 어느 곳에서든 편안치 않으랴

西天風雨起紛紛  
白日紅旗出大軍  
路險鯨波三萬里  
幾多龍種幾千群  
總忙敵勢兔尋窟  
猛烈我行鷹拂雲  
早晚待來凱旋日  
臣民何處不閤閤  
제주 오인성(吳仁聖)

도시락밥 들고 집마다 우리 군을 맞는데  
응징하는 것은 단번에 편안과 위태로움이 걸려있네  
물 끓듯 하는데 다다르고 불길을 밟듯 하는데 군의 위엄은 엄숙하고  
바다 건너고 공중을 나르는 전략을 쓰네  
목야(牧野)에서 매를 날리듯 함<sup>279)</sup>이 어찌 옛일이라  
공산(公山)에서 학(鶴)이 울던 일을 오늘에 증명하네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이로부터이니  
공훈을 한 삼태기의 흠(一簣)에 이지러지게 하지 말게나

簞食家家迎我師  
膺懲一舉係安危  
赴湯蹈火軍威肅  
駕海航空戰略施  
牧野鷹揚奚昔日  
公山鶴唳證今時  
平和確保由於此  
莫使勳功一簣虧  
제주 고성주(高性柱)

중국에서 폭행이 발생하니 승전으로 대응하니  
형세는 장차 부득이 응징하게 되려네  
위엄을 떨치니 능히 진정록(秦庭鹿)을 쫓을 수 있고  
무력을 드날림은 상야웅(商野鷹)<sup>280)</sup>에 비교 되네  
항공기 만리에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고  
유탄(流彈)은 거의 때때로 산과 골짜기를 무너뜨리네  
동양의 평화는 이를 안정시킴에서 비롯되고

支發暴行捷對應  
勢將不得已膺懲  
奮威能逐秦庭鹿  
揚武光比商野鷹  
航空萬里風雲起  
流彈幾時山壑崩  
東洋平和從此定

279) 周나라 太公望 呂尙이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 紂王과 牧野에서 싸울 때 매처럼 활약한 일을 말함.  
280) 牧野鷹.

황군(皇軍) 충의(忠義)는 만방에서 올라가네

皇軍忠義萬邦騰  
제주 김병희(金柄熙)

일본과 중국이 서로 떨어져있기 몇 천리에  
사변이 1937년 일어났네  
천의 병사들의 웅장한 기세는 천하를 누를듯하고  
만세의 우리 천황 일변(日邊)에서 들어올리네  
산업은 배로 늘게 펼쳐 일으키고 세우고  
전등(電燈)은 제일 빨리 잠을 쫓았네  
그중에 육탄 병사이길 기원하노니  
개신 노래 일찍이 유연(幽燕)을 깨뜨림을 연주하네

日支相去幾千里  
事變昭和十二年  
千兵雄勢鎮天下  
萬歲吾皇捧日邊  
產業倍增振興立  
電燈最早管除眠  
祈願其中肉彈士  
凱歌早奏破幽燕  
제주 오인수(吳仁壽)

원정(遠征)하는 오늘 황군(皇軍)을 축하하고  
수많은 신민(臣民)은 성군(聖君)을 우러르네  
나라에 보답하는 충의(忠義)의 마음은 한가지요  
하늘과 육지와 바다 길은 세갈래이네  
철기(鐵騎)<sup>281</sup>는 앞을 다투어 바람처럼 열렬하고  
화살 마구 쏘아 비처럼 어지럽네  
바깥에서는 강적이 없고 안에서는 생업에 편안하여  
우리 동방을 태평하려 한다 하네

遠征今日祝皇軍  
億兆臣民仰聖君  
報國義忠一體  
航空陸海路三分  
鐵騎爭前風烈烈  
羽箭亂發雨紛紛  
外無強敵內安業  
將使吾邦太平云  
제주 오유완(吳維完)

중국 남과 북에 출정(出征) 군대  
자리를 맡 듯한 기세의 처음 마음으로 우리 임금을 섬기네  
장한 칼과 위엄 있는 태도는 해와 달에 빛나고  
나르는 차(飛車)<sup>282</sup>는 조화로 바람과 구름 속에 들어가네  
충성을 다하는 의용(義勇)은 고금에 통하고  
세상을 올리는 공명(功名)은 차례에 나뉘네  
반도(半島)의 인민(人民)은 같이 축하하고  
등과 깃발 만천문(萬千門)에 치켜 세우네

支南支北出征軍  
席捲初心事我君  
壯銳威儀輝日月  
飛車造化入風雲  
盡忠義勇古今動  
鳴世功名次第分  
半島人民共祝賀  
燈旗生色萬千門  
제주 오행중(吳行鍾)

281) 용맹한 기병.

282) 비행기.

황군(皇軍)은 크게 화를 내어 모두 갑옷을 입고  
 험하고 위태로움을 건너고 헤치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  
 도시락밥 들고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래도록 기다리는데  
 소식(音書) 부치려하나 소식전할 기리기 먼저 드므네  
 우방(友邦)은 도가 없어 끝내는 생흔(生罅)을 하고  
 우리 무력 드날리는데 차례로 기미를 보네  
 노래하고 춤추며 어느 때나 개선하며 돌아오는 날인가  
 춘대(春台) 옥촉(玉燭)은 빛을 내네

皇軍赫怒一戎衣  
 涉險披危尙未歸  
 簞食願迎人久俟  
 音書欲寄雁先稀  
 友邦無道終生罅  
 我武維揚第見機  
 歌舞何時凱還日  
 春台玉燭布光輝  
 제주 오대규(吳大奎)

화북 해동(海東) 만리성(萬里城)에  
 평화 안정은 이번 행차에 있네  
 천년 나라에 인(仁)으로 교화 하니 무적이요  
 백전(百戰)에 웅대하게 의를 도모하니 명성이 있네  
 양자강(楊子江) 머리에 군 형세는 엄숙하고  
 노구교(蘆溝橋) 위에 일장기는 밝네  
 우생(愚生)<sup>283</sup> 또한 원정(遠征) 일에 감격하고  
 멀리서 황천(皇天)을 축하하고 적성(赤誠)<sup>284</sup>을 호소하네

北支海東萬里城  
 平和安定在斯行  
 千年邦化仁無敵  
 百戰雄圖義有聲  
 楊子江頭軍勢肅  
 蘆溝橋上日章明  
 愚生亦感遠征事  
 遐祝皇天訴赤誠  
 제주 강위기(姜渭耆)

지나(支那)를 원정하러 나가는 천황 군대  
 군령(軍令)은 분명하여 하나도 사사로움이 없네  
 약한 적은 아우르고 강한 적은 다투어 국운(國運)을 돌이키려니  
 충성을 본받고 힘을 다해 하늘의 때를 얻었네  
 분격하고 기묘한 계책을 많이 장병이 쓰고  
 비행기 조화를 아는 사람이 적네  
 남아 지기(志氣)를 읊고 생각함을 적으니  
 강산(江山)을 맡고 칠 기세이고 개선가를 연주하는 시이네

遠征支那出皇師  
 軍令分明無一私  
 並弱爭強回國運  
 效忠竭力得天時  
 奮擊奇謀多將用  
 飛行造化少人知  
 男兒志氣題吟思  
 席捲江山奏凱詩  
 제주 오승천(吳承千)

무적의 황군(皇軍)은 멀리 출정(出征)하니  
 어지러운 세계 어느 때나 평화 오려나  
 비행기 날아오고 날아가고 많이 공습하는데

無敵皇軍遠出征  
 紛紛世界幾時平  
 飛來飛去多空襲

283) 자신.

284) 참된 정성.

만리(萬里)의 구름 길 돌아오는 개선 소리나네

萬里雲程還凱聲  
제주 김권수(金權洙)

만기(萬機)<sup>285</sup>에 상응해 정벌을 나가는데  
그런 후功名(功名)은 어찌 이루지 못할까  
예나 지금이나 성함과 쇠퇴함은 되려 역사책에 있는데  
도리에 따르는 집은 펼쳐 일어나고 거스르는 집은 기운다네

萬機相應出同征  
然後功名何不成  
今古盛衰猶有史  
順家興起逆家傾  
제주 한병옥(韓柄玉)

일지(日支)<sup>286</sup> 사변이 얼마나 긴가  
들으니 황군(皇軍)이 낙양(洛陽)을 점령했다네  
소생(小生)은 미쳐 출정(出征)하지 못하고  
나라 사랑하는 단성(丹誠)<sup>287</sup>으로 시 한 장을 짓네

日支事變幾時長  
聞道皇軍占洛陽  
小生未及出征役  
愛國丹誠詩一章  
제주 오복아(吳福兒)

시국(時局)이 강함을 알지 못함만 같지 않으니  
우리 동방의 대세(大勢)는 바로 비상이네  
내선일체(內鮮一體)의 9천만  
다 천황 군대의 무운(武運)이 길기를 기원하네

時局莫如認識強  
我東大勢正非常  
內鮮一體九千萬  
咸祝皇師武運長  
제주 김상률(金商律)

바야흐로 여름에 군대를 일으켜 다투어 앞서 나가니  
남으로는 소절(蘇浙)을 정벌하고 북으로는 유연(幽燕)을 정벌하네  
개선가 부르고 귀국하여 공은 논하는 날에  
일대(一代)의 꽃다운 이름 백세에 전하리

方夏起兵爭出先  
南征蘇浙北幽燕  
凱歌歸國論功日  
一代芳名百世傳  
제주 강윤선(姜潤善)

황군(皇軍)이 한번에 풍진(風塵)을 디디니  
우리 동방 안위(安危)가 이때에 있네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방어하는 데 모두 무적이요  
개선가 나란히 태평한 봄을 부르네

皇軍一舉踏風塵  
我東安危在此辰  
海陸防空總無敵  
凱歌齊唱太平春  
제주 고흥수(高恒秀)

285) 임금의 政事.

286) 일본과 중국.

287) 丹誠 :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뜨거운 정성.

오직 우리 황군(皇軍) 의기(義氣) 용감한데  
전공(戰功)에 승리를 취함에 영원히 해침이 없네  
이때 편안히 평범하게 앉아있어서는 안되니  
동양에 공동의 치안(治安)을 기원하네

唯我皇軍義氣勇  
戰攻勝取永無殘  
此時不可尋常坐  
祈願東洋共治安  
제주 김도오(金道五)

남아(男兒) 일생은 반드시 성공하리니  
죽음 보기를 터럭같이 하여 다투어 출정(出征)하네  
총 뒤에 유생(儒生) 마음도 깨끗이 죽으려 하는데(碎 : 玉碎)  
시를 붙여 같이 돕고 충정(衷情)을 바치네

男兒一生必成功  
視死如毛競出征  
銃後儒生必欲碎  
寄詩同援獻表情  
제주 김봉관(金奉瑄)

우리 무력이 떨치기 귀신같고  
남과 북으로 정벌에 더욱 순서가 없네  
누가 원수(元帥)가 병사 있는 곳에 감을 알리오  
죽음은 성공을 행하고 강함은 인(仁)을 쓰네

我武維揚如鬼神  
南征北伐更無倫  
誰知元帥行兵處  
死用成功強用仁  
무안(務安) 송정기(宋正奇)

◆ 경상북도(慶尙北道)

장사(將士)가 홀로 힘써<sup>288)</sup> 수고에 전쟁터에 나아가니  
국민 의무가堂堂하네  
천하에 인(仁)은 원래 무적인데  
완악한 저 지나(支那) 감히 강함을 믿네  
비오고 바람 불 듯 하는 총탄으로 보내는 많은 세월  
풀 위를 걷고 한데서 자기 얼마나 덮고 서늘했나  
여러분이 종군(從軍)에 멀리 감은 괴로움이 아니니  
승리해 꽃다운 이름은 후세에 날리리

將士賢勞赴戰場  
國民義務是堂堂  
仁於天下元無敵  
頑彼支那敢恃強  
彈雨戈風多歲月  
草行露宿幾炎涼  
諸公莫苦從軍遠  
得捷芳名後世揚  
의성(義城) 임묵순(任默淳)

여러번 평화를 경고하고 마지못해 출병하니  
장성(長城)을 격파하고 깃대를 세우네  
이로부터 충용(忠勇)은 더욱 날리고 떨치는데

累警平和強出兵  
長城擊破立干旌  
從今忠勇尤揚奮

288) 賢勞 : 여러 사람 중에서 홀로 힘써 수고함.

온나라 같이 모두 후원하는 정성이네

舉國同殫後援誠  
의성 김호우(金浩宇)

반란을 풀 벼들 없애려(芟除) 용병(勇兵)을 일으키니  
일장기 아래 크게 명성이 나네  
공 앞에 개선가를 연주하는 천황의 은혜 무겁고  
생업(生業)을 하는 백성은 태평하기를 기원하네

叛亂芟除起勇兵  
日章旗下大聲名  
功前奏凱皇恩重  
生業黎民願泰平  
의성 김위윤(金渭允)

북쪽에 적을 응징하기 위해 동쪽에 병사를 일으키니  
한 몸의 황군(皇軍) 만리에 정벌하러 가네  
임금을 섬기는 참된 마음(忠膽)은 끊어올라 강과 바다를 가르고  
영웅스런 위세는 분발해서 비와 바람처럼 울리네  
위에 있는 임금의 은혜에 어찌 보답함을 잊으랴  
아이들 장난 앞에서 놀랄 일 아니네  
개선가를 연주하고 공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인데  
태양기(太陽旗)<sup>289)</sup> 깃발에 상서로운 구름이 가로지르네

爲懲北敵舉東兵  
一體皇軍萬里征  
忠膽沸騰江海裂  
雄威奮發兩風鳴  
君恩在上寧忘報  
兒戲當前不足驚  
奏凱成勳容易事  
太陽旗脚瑞雲橫  
의성 김진중(金振鍾)

아침 해 깃발(일장기) 상해(上海) 바람에 드날리고  
민국(民國)을 응징하고 가을에 공을 세우네  
중국 안팎으로 오랑캐의 길을 평정하고  
강(江)<sup>290)</sup> 왼쪽과 남쪽에 평온하고 순한 풍조가 흐르네  
구미(歐美) 호시탐탐하고 되려 주목하는데  
장풍(蔣馮)<sup>291)</sup>은 쥐 달아나 숨듯 머리 수그리네  
황군(皇軍) 이르는 곳마다 바람 잦아들듯 따르고  
협약(協約) 이루기를 기약하니 전쟁은 꼭 그칠것이네

旭日旗揚上海颺  
膺懲民國建功秋  
華中華外平夷路  
江左江南穩順流  
歐美虎耽還注目  
蔣馮鼠竄亦垂頭  
皇軍到處隨風定  
協約期成戰必休  
의성 권재중(權在重)

풍운(風雲)이 중국에서 일어나니  
한번에 없애고 평화롭게 하고 나라에 근심을 풀었네  
돌아와 천황에게 절하고 검을 놓는 날

風雲動起北支區  
一掃平和解國憂  
歸拜天皇休劍日

289) 日章旗.

290) 楊子江.

291) 蔣介石과 馮玉祥.

어깨의 훈장은 오랜 세월 자줏빛을 내리

肩勳生紫百千秋  
의성 권영세(權寧世)

지나(支那)에서 신성한 전쟁(聖戰)이 우주에 이름나고  
용감한 황군(皇軍) 거의 간성(干城)<sup>292</sup>이네  
살아서 마땅히 생업에 힘쓰는 백성의 일이요  
죽어서 또한 충성함은 나라에 보답하는 정이네  
청구(靑邱 : 우리나라)가 힘을 모아 산하(山河)는 견고하고  
대일(大日)<sup>293</sup>은 거둬 세계에 빛을 내 이름 있네  
심부름 하는 사람과 거리 아동 다 같이 축하하고  
소화(昭和) 만세에 한 하늘이 맑네

聖戰支那宇宙名  
皇軍勇敢幾干城  
生當務業居民事  
死亦爲忠報國情  
靑邱合力山河固  
大日重光世界明  
走卒街童同祝賀  
昭和萬歲一天晴  
의성 이경구(李經九)

애통하다 지나(支那)의 완고하고 개화되지 못함이여  
우방(友邦)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적으로 불러드렸네  
적마(赤魔)는 몰래 수라항(修羅港 : 阿修羅港)을 만들어놓고  
푸른 눈<sup>294</sup>이 서로 싸우는 독무대가 되었네  
동쪽 이웃 보전하기 어려운 것은 순치<sup>295</sup>요  
온 세상에 화를 속에 지닐지 모르네  
황군(皇軍)은 한번 화를 내어 장검을 빼드니  
대국(大局)에 평화는 머지않아 돌아오리

痛矣支那頑未開  
友邦疎斥敵招來  
赤魔暗作修羅巷  
碧眼相爭獨舞垓  
難保東隣勢唇齒  
恐令全世禍胚胎  
皇軍一怒抽長劍  
大局平和早晚回

일장기 아래 맹세하는 말을 하니  
우리 신민(臣民) 견고히하는 최후의 정성이네  
한 계통의 황은(皇恩)에 천지가 무겁고  
대화혼 겨레<sup>296</sup>는 죽음과 삶을 가벼이 하네  
백년의 원대한 계획 오늘로 말미암고  
삼국(三國)의 존영(存榮)은 이번 출병에 있네  
다감(多感)한 서생(書生)은 충심이 있어  
감히 장차 시구(詩句)를 지어 충정(衷情)을 표하네

日章旗下誓詞成  
堅我臣民最後誠  
一系皇恩天地重  
大和魂族死生輕  
百年遠計由今日  
三國存榮在此行  
多感書生能有膽  
敢將詩句表衷情  
선산(善山) 장지순(張志珣)

292)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

293) 일본.

294) 碧眼 : 이방인.

295) 唇齒 : 唇亡齒寒.

296) 大和魂族 : 日本魂族.



해 뜨는 동쪽바다(扶桑)에서 해가 해동(海東)의 하늘에 떠오르니  
 향월(香月) 장군 내를 건넌이 이로우리  
 무도(武韜)와 신묘한 기략으로 문밖에서 물리치고  
 백성 생명을 마음 가에 두네  
 전쟁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니  
 과오를 알게 하려 응징하고 승전 보고를 전하네  
 성운<sup>297</sup>과 하청(河淸)<sup>298</sup> 이제 멀지 않으려니  
 소와 황제<sup>299</sup> 만천년(萬千年)이네

扶桑日出海東天  
 香月將軍利涉川  
 武韜神機排闥外  
 黎民生命置心邊  
 戰非決意平和保  
 懲欲知過捷報傳  
 聖運河淸今不遠  
 昭和皇帝萬千年  
 상주(尙州) 이상묵(李相默)

동쪽으로 정벌하러가는 깃발과 북소리 하늘을 진동하는데  
 험하면 산을 오르고 막으면 내를 건너네  
 북쪽의 맨 끝 누대(樓臺)의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 속은  
 요양성곽(遼陽城郭) 탕운변(盪雲邊)이네  
 비행기 공중을 날고 성에서 싸움에 신기한 계략이 나오고  
 맑은 낮 원문<sup>300</sup>에 승리 보고 전해지네  
 양국이 교린(交隣)은 같을 글 내용이요  
 한번 평화를 약속하고 백년을 맹세하네

東征旗鼓震中天  
 險可登山阻涉川  
 極北樓臺彈雨裏  
 遼陽城郭盪雲邊  
 飛空戰壘神謀出  
 淸晝轅門捷報傳  
 隣交兩國同文種  
 一約平和誓百年  
 상주 조규연(趙珪衍)

변방 북쪽에 검은 구름이 갑자기 하늘을 가리니  
 황군(皇軍)은 한번 출동하니 산천(山川)이 울리네  
 견고한 성을 날아오는 탄환아래에서 차례로 격파하고  
 의로운 깃발 대낮에 높이 펴려이네  
 평화를 보호하려하니 신 또한 돕고  
 계속해서 군사의 승리 보고 입으로 전해지네  
 적을 응징함이 없다면 이제 어찌하는가  
 저들과 교린(交隣)은 다음 해를 기다려야하네

塞北陰雲忽蔽天  
 皇軍一舉動山川  
 堅城隨破飛彈下  
 義旆高翻白日邊  
 爲保平和神亦佑  
 頻將捷報口相傳  
 若無膺懲今何已(已)  
 與彼交隣待後年  
 상주 박남휘(朴南徽)

평화를 깨뜨리려는 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니

欲破平和是逆天

297) 聖運 : 임금의 운.

298) 河淸 : 중국 황하의 탁류가 맑아지는 일.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실현될 가망이 없음의 비유.

299) 昭和皇帝 : 일본의 쇼와천황.

300) 轅門 : 진영.

하늘의 위엄이 벌을 시험해 산천(山川)에서 싸우네  
 창공 밖에서는 우레와 번개같이 공격하고  
 한낮에 유혈(血雨)과 육탄(肉彈) 공격이네  
 의로운 군대는 마음을 같이해 공을 크게 이루고  
 황은(皇恩)을 다른 나라에서도 칭송하여 서로 전하네  
 멀고 먼 만리(萬里)에서 개선하는 날에  
 특히 2천 5백년을 기억하겠네

天威試罰戰山川  
 雷機電襲蒼空外  
 血雨肉彈白日邊  
 義師同心功大舉  
 皇恩異域頌相傳  
 迢迢萬里凱旋日  
 特記二千五百年  
 상주 강훈(姜薰)

변방을 나온 황군(皇軍)의 용감한 천하에 떨치니  
 포 소리와 탄알 소리 사방에 울리고 전하네  
 문득 삶과 죽음을 잊고 온갖 어려움에 맞부딪치니  
 나라가 만년(萬年)까지 이름을 보호하려 함이네  
 충의(忠義)는 이미 전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모(智謀)는 구름과 연기를 내고 나눌만하네  
 후원이 끝내는 이어짐이 없을거라 말하지 말라  
 반도(半島) 인심은 한몸으로 이어졌네

出塞皇軍勇振天  
 砲聲彈響四方傳  
 頓忘生死衝天險  
 但護邦家巨萬年  
 忠義已驚全世界  
 智謀能起別雲煙  
 休言後援終無繼  
 半島人心一體連  
 청도(淸道) 김원곤(金元坤)

저 완강한 무리를 응징하는 것은 하늘에서 명을 받은 것이니  
 빛나는 위무(威武) 사방에 전하네  
 평화 조약은 일찍이 한 날이 있었는데  
 배반을 자행하기 이미 몇 년이었네  
 비처럼 쏟아지는 유탄에 세력을 떨치는(鷹揚) 장사는  
 오합지졸의 적 군사들은 폭발해 연기처럼 되네  
 특별히 세운 위대한 공훈은 알 날이 멀지 않았고  
 솟아오른 깃발은 바다 구름에 높이 펼쳐 이어지네

懲彼頑強受命天  
 煌煌威武四隣傳  
 條約平和曾有日  
 恣行反戾已多年  
 鷹揚壯士流彈雨  
 烏合殘兵化爆煙  
 特樹偉勳知不遠  
 旭旗高拂海雲連  
 청도 박명준(朴秉濬)

산하에서 백번 싸움에 한번에 형세를 돌이키고  
 하늘의 명을 받은 천황의 군사는 급히 전하는 격문(羽檄)을 전하네  
 열국 평화는 정해진 날이 없어  
 교린(交隣)과 반란(反亂)이 이미 수년이었네  
 천군(千軍)은 여름날 비처럼 땀을 뿌리고  
 만마(萬馬)의 울음 소리(嘶風)는 저녁 연기에 드네

山河百戰一回天  
 天命皇師羽檄傳  
 列國平和無定日  
 交隣反亂已多年  
 千軍揮汗成炎雨  
 萬馬嘶風入暮煙

권토중래(捲土重來)<sup>301</sup>를 멀고 가까운 곳에서 아니  
압록강(鴨江) 서쪽에서 대어 있는 배들이 연이어있음을 보네

捲土重來知遠近  
鴨江西望艤船連  
청도 김우곤(金禹坤)

단심(丹心)<sup>302</sup> 나라에 충성하고 푸른 하늘에 감사하네  
한번 죽어 충성하면 백세에 전하네  
적을 멸하고 백성 편안할 날이 응당 있으리니  
하청(河淸)하고 바다 편안함에 어찌 해가 없을까  
성황(聖皇) 조서가 미쳐 어진(仁) 비에 젖고  
의로운 병사들 깃발 날리고 향 연기를 거두네  
북쪽을 정벌하고 남쪽을 한탄하는 성의는 멀고  
주문(周文)<sup>303</sup>의 옛 덕은 지금에도 이어지네

丹心報國感蒼天  
一死當忠百世傳  
敵滅民安應有日  
河淸海晏豈無年  
聖皇詔及沾仁雨  
義將旗揚收香煙  
征北怨南誠意遠  
周文舊德至今連  
청도 김용주(金龍珠)

만리에 위엄을 펴고 적군을 소탕하니  
한 중국 점령에 이미 세으로 나뉘었네  
천진교(天津橋) 위에 쏟아지는 탄환은 비오듯하고  
양자강(楊子江) 머리 달려드는 기병은 구름갓네  
지모가 넘치는 손오(孫吳)<sup>304</sup>에는 용맹한 군사가 많고  
어진 요순(堯舜)에는 뛰어난 임금(明君)이 있네  
황궁(皇穹)과 토지 신(后土)은 응당 해(일본)에 감응하리니  
은밀히 신병(神兵)으로 또한 돕는 공이 있으리라

萬里宣威掃敵軍  
一支占領已三分  
天津橋上彈如雨  
楊子江頭騎似雲  
智過孫吳多猛士  
仁經堯舜有明君  
皇穹后土應日感  
陰使神兵亦助勳  
영주(榮州) 우경량(禹慶亮)

堂堂하고 활기찬 우리 황군(皇軍)  
지나(支那)를 7, 8을 소탕하였네  
큰 깃발 드날리며 멀리 해를 향하고  
비행기 출동하니 문득 구름 개이네  
간성(干城) 지략(智略)은 원래 무적이니  
임금에 보답하는 충성은 다만 군(君)만이 있네

堂堂活氣我皇軍  
掃蕩支那七八分  
大幟揮揚遙向日  
空機出動忽開雲  
千城智略元無敵  
報君忠誠只有君

301) 杜牧의 題烏江亭詩 중 “捲土重來未可知”에서 따온 말로 한 번 패했다가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옴을 말함.

302) 충성스러운 마음.

303) 周 文王.

304) 孫吳 : 春秋時代 兵法家인 孫武와 吳起.

확정한 신기한 계략은 오히려 변치않고  
남과 북을 정벌하니 높은 공이네

確定神謀猶不變  
南征北討是高勳  
영주 송상석(宋相奭)

나서 남자 되어 나가서 병사되고  
나라 위해 성공하니 죽어도 영광이네  
하늘 뚫을 듯한 의기(義氣) 앞에 적이 없고  
땅을 흔드는 응원소리 뒤에는 연맹이 있네  
황은(皇恩)은 망극하니 몸을 어찌 돌아볼까  
시사(時事)가 다난하니 임무 가볍지 않네  
북으로 정벌하러 간 여러 장사에게 부탁하노니  
동아시아 깨끗이 쓸고 속히 군영에 돌아오라

生爲男子出爲兵  
爲國成功死亦榮  
衝天義氣前無敵  
動地援聲後有盟  
皇恩罔極身何顧  
時事多難任不輕  
寄語北征諸壯士  
掃清東亞速還營  
군위(軍威) 박채식(朴採植)

백만 천황 군대가 화북으로 나아가니  
장성(長城)에 높이 일장기가 걸리네  
완악하고 어두워 서로 우의를 돕는 것을 모르니  
정의(正義)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멸하는 어리석음이네  
초나라와 한나라 전쟁이 본위가 아니니  
은주(殷周)의 조벌(弔伐)<sup>305</sup>은 그 마땅함을 얻었네  
포 연기는 변하여 평화의 기운을 만들고  
만세 소리 중에 축하 술잔(卮)을 드네

百萬皇師出北支  
長城高掛日章旗  
頑冥不識相扶誼  
正義難容自滅癡  
楚漢干戈非本意  
殷周弔伐得其宜  
砲煙變作平和氣  
萬歲聲中舉賀卮  
군위 박만찬(朴晩璨)

홀로 힘써 수고한(賢勞) 장사의 무예는 빛나고  
유혈(血雨) 피비린내(腥風)는 무릇 몇 십일이던가  
그 몸은 있지 않고 다만 나라만 있으니  
다시 장차 무슨 말로 자주 위로할까

賢勞壯士武彬彬  
血雨腥風凡幾旬  
不有其身只有國  
更將何語慰頻頻  
군위 김웅(金熊)

오직 우리 동양이 이때를 당하여  
황가(皇家)가 정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네  
평화 대의(大義)를 아는지 모르는지

惟我東洋及此時  
皇家征伐正當爲  
平和大義能知否

305) 弔伐 : 불쌍한 백성은 돕고 죄 지은 백성은 벌줌. 弔民伐罪.

다시 와서 항복하는 것도 또한 마땅하네

捲土來降亦可宜  
군위 김작(金焯)

한번에 적의 백만 군사를 섬멸하니  
동서양 여러 나라 담혼(膽魂)이 놀라네  
하늘에서 육지에서 모두 무적이니  
남쪽을 가거나 북쪽을 가거나 문득 성을 함락시키네  
영미(英米)<sup>306</sup> 응원에 끝내는 퇴보하네  
소지(蘇支)<sup>307</sup> 밀약(密約)이 감히 성명(成名)하랴  
승전 보고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기뻐 뛰게 하고  
반도(半島)가 축하 소리에 뜨는 듯하네

一舉能殲百萬兵  
東西列國膽魂驚  
於空於陸都無敵  
之南之北輒陷城  
英米應援終退步  
蘇支密約敢成名  
捷書到處令人踊  
半島如浮祝賀聲  
군위 권진근(權詮斤)

적은 흡사 날나방(飛蛾)같아 스스로 등불에 치는듯하니  
천조(天朝)에서 어쩔수 없이 응징하네  
하늘과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밀려들듯 일어나듯하니  
철벽 금성(金城)도 이미 흠처럼 무너졌네  
잘 충성을 다하니 굳은 절개가 많고  
겨우 무더위 겪고나니 또 추위이네  
천황 군대 위엄 있어(濟濟) 노고를 싫어하지 않고  
성스런 업적과 높은 공훈은 크게 일어나네

敵似飛蛾自撲燈  
天朝不可不膺懲  
航空陸海兼潮湧  
鐵壁金城已土崩  
克盡誠忠多苦節  
纔經炎熱又寒冰  
皇師濟濟勞無厭  
聖業巍勳大作興  
군위 김용우(金龍祐)

지(支)<sup>308</sup>가 지(支)가 아니고 나(那)<sup>309</sup>가 나(那)가 아니니  
서리와 눈이 혹독히 닥치니 풀은 장차 시들고 마르려하네  
해(日)<sup>310</sup>는 더욱 선명해지고 만(滿)<sup>311</sup>은 더욱 화려해지는데  
빛은 동양 하늘 사방 가를 미치네

支莫支兮那莫那  
霜嚴雪迫草將萎  
日益鮮兮滿益華  
光被東洋天四涯  
군위 임성재(任聖宰)

306) 영국과 미국.

307) 소련과 중국.

308) 중국.

309) 중국.

310) 일본.

311) 만주.

만물이 순전히 음(陰)이 되면 반드시 양(陽)으로 돌아오니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자연히 겨를이 없다네  
 만리를 내달리는 천황의 위엄은 원대하고  
 삼군의 무운(武運)이 오래기를 약속하네  
 초목은 동아시아의 길에서 변하고 시드는데  
 화북 마당에서 풍진(風塵)을 소탕하네  
 개신 노래 간무<sup>312</sup>에 군사 돌아오는 날  
 멀리서 경도(京都)를 축하하는 만세 술잔이네

物極純陰必返陽  
 天時人事自然忙  
 驅馳萬里皇威遠  
 約束三軍武運長  
 草木變衰東亞路  
 風塵掃蕩北支場  
 凱歌干舞班師日  
 遙祝京都萬歲觴

경산(慶山) 강문찬(姜文贊)

출정(出征) 하는 때는 정당한 날이니  
 의기(義氣) 당당히 북쪽으로 바삐 향하네  
 금은(金銀) 아끼지 않고 위문하는 자리요  
 밤낮으로 맞고 보내는 마당 구분하기 어렵네  
 하늘을 거슬리는 적은 도망하기 바쁘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황군(皇軍)의 무운(武運)은 길게 이어지네  
 탄환을 비와 바람처럼 몰아쳐 승승장구하는 때에  
 만세 부르고 여러 번 술잔을 드네

出征時日正當陽  
 義氣堂堂北向忙  
 不惜金銀慰問地  
 難分晝夜送迎場  
 逆天支敵遁逃急  
 報國皇軍武運長  
 彈雨戈風乘勝際  
 唱歌萬歲數傾觴

경산 정우주(鄭佑柱)

천시(天時)는 반드시 의를 도와 정벌하는 공이니  
 요사스런 기운은 대륙 중에 묻히네  
 나라를 사랑하는 신묘한 계책은 천리에 원대하고  
 행군하는 위엄있는 명령은 한마음으로 같네  
 눈 울타리 아닌가 하여 압록강 북쪽을 즐기고  
 상서로운 해 거듭 오해(鰲海) 동쪽에서 빛나네  
 억만 백성 다 머리에 이기를 원하니  
 단호(簞壺)<sup>313</sup>는 길에 가득 차며 충성에 표하네

天時必佑義征功  
 妖氣沈昏大陸中  
 愛國神籌千里遠  
 行軍威令一心同  
 疑雪廓掃鴨江北  
 瑞日重明鰲海東  
 萬億生民咸願戴  
 簞壺載路表誠忠

경산 최세봉(崔世鳳)

완악한 저 중국은 하늘을 두려워 않고  
 난병(亂兵)은 무질서하게(烏合) 격서(檄書)를 전하네  
 내선만족<sup>314</sup>이 마음을 같이하는 날은

頑皮支那不畏天  
 亂兵烏合檄書傳  
 內鮮滿族同心日

312) 干舞 : 방패를 써서 추는 춤.

313) 簞食壺漿 :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 전하여 백성이 군사를 환영하여 음식을 주어 위로함을 말함.

육·해·공군이 힘을 다하는 해이네  
 호랑이는 수염이 서며 내달리니 번개 같고  
 견용<sup>315</sup>은 혼을 잃고 연기처럼 흩어지네  
 이웃에 무력을 쓴 처음 뜻이 아니거니  
 다만 국보연(國寶連)을 응징하는데 있네

陸海空軍盡力年  
 虎將逆鬚奔似電  
 犬戎喪魄散如煙  
 居隣用武非初志  
 只在膺懲國寶連

청도(淸道) 이종옥(李鍾玉)

죄를 토벌하고 불쌍한 백성을 돕는 것은<sup>316</sup> 하늘에서 명을 받음이니  
 황군(皇軍) 위무(威武)는 멀리 드날리며 전하네  
 떠도는 많은 백성은 두루 돕는 날은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을 건져내고 돕는 해이네  
 성스런 조칙은 밝게 덕을 펴는데  
 군대 위용은 정숙하여 띠끌처럼 일어나는 연기를 쓸어내네  
 동방의 복운(福運)은 끝없이 무궁하리니  
 역사에 시를 적은 것은 영원히 이어지리

討罪弔民命受天  
 皇軍威武遠揚傳  
 流離庶衆周扶日  
 塗炭靈元濟恤年  
 聖詔昭明宣德化  
 軍容整肅掃塵煙  
 東邦福運無窮極  
 竹帛題詩永久連

청도 김시윤(金時潤)

백성과 나라가 덕을 잃고 오래도록 하늘을 어기니  
 하늘이 황군(皇軍)으로 하여금 토벌하라는 명을 전하네  
 어린아이<sup>317</sup>를 모조리 멸할 날이 응당 있으리니  
 밝은 대의(大義)를 닦기 거의 많은 세월이었네  
 긴 창과 큰 갈을 변방의 달빛아래 휘두르고  
 만마(萬馬) 천병(千兵)은 바다 연기를 끌어당기네  
 조만간 성공하여 옛날의 도의로 돌아가리니  
 대평(大平) 가고(笳鼓)<sup>318</sup>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네

民邦失德久違天  
 天教皇軍討命傳  
 殄滅纖兒應有日  
 修明大義幾多年  
 長鎗巨鉞撓邊月  
 萬馬千兵掣海煙  
 早晚成功歸古道  
 大平笳鼓暮朝連

청도 박하인(朴夏寅)

동해 대군(大軍) 북쪽 하늘에서 나오니  
 멀리 장차 시구(詩句)로 노고를 위문에 전하네  
 정벌하여 같이 뛰어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니

東海大軍出北天  
 遙將詩句問勞傳  
 征伐共成奇偉績

314) 內鮮滿族 : 일본인, 조선인, 만주족.

315) 犬戎 : 오랑캐.

316) 弔民伐罪 : 불쌍한 백성은 돕고 죄 지은 백성은 벌줌.

317) 纖兒 : 중국.

318) 笳鼓 : 胡인이 부는 피리와 북.

돌아오는 같은 즐거움에 태평한 해이네  
 열렬한 충심(忠心)은 나란히 해를 향하고  
 어두운 묘사스러운 기운은 연기가 사라지 듯 하네  
 근래 들으니 황국(皇國)은 많이 승승장구한다하니  
 난을 평정하였다는 좋은 소식 전선(電線)에 이어지리

歸來同樂太平年  
 熱熱忠心齊向日  
 冥冥氣祲若消烟  
 近聞皇國多乘勝  
 靖難好音電線連  
 청도 김진효(金鎭孝)

장사(壯士)가 서쪽을 정벌하여 용맹함을 천하에 떨치니  
 쇠약한 늙은이(衰翁)는 날마다 승리 보고를 축하하는 글을 전하네  
 아주<sup>319)</sup>에서 누가 우리 천황의 뜻을 넘으랴  
 우주는 마땅히 우리나라를 존경하는 해가 되겠네  
 큰 진영이 있음은 바람 속에 비가 있는 것과 같고  
 웅대한 폭발하는 연기도 아까워 않네  
 문에서 맞이하는 웃는 말에서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고  
 위엄과 덕망은 엄하고 밝아 외국을 복종함이 이어지네

壯士西征勇振天  
 衰翁日祝捷書傳  
 亞洲誰越吾皇志  
 宇宙宜尊我國年  
 大陣有如風裏雨  
 雄魂不惜爆頭煙  
 迎門笑語知非遠  
 威德嚴明服外連  
 청도 이종상(李鍾瑬)

◆ 경상남도(慶尙南道)

일찍 길을 나선 황군(皇軍)은 북평(北平)을 향하는데  
 마침내 남영(南營)에서 가고(笳鼓)<sup>320)</sup> 소리를 듣네  
 한마(汗馬)가 향할 때 이르는 적이 없고  
 비행기 소리 나는 곳에서 다시 가로 지르네  
 모래사장 만리에서 명령에 달릴 수 있고  
 화각(畫閣)에 천추에 썩지 않을 이름 있네  
 일체의 신민(臣民)은 다투어 축하의 뜻을 표하고  
 집집마다 처마 끝에는 일장기가 흰하네

早道皇軍向北平  
 竟聞笳鼓奏南營  
 汗馬衝時無抵敵  
 飛機響處更橫行  
 沙場萬里能奔命  
 畫閣千秋不朽名  
 一體臣民爭賀意  
 家家簷末日章明  
 부산(釜山) 구주회(具珠會)

강남 변방 북쪽에서 개선가 노래 소리 나니  
 서리 내린 가을 하늘에 달이 군영에 가득 차네  
 화근(禍根)은 장송(蔣宋)을 제거하는데 있다 하지 않더라도

江南塞北凱歌起  
 霜落秋天月滿營  
 莫若禍根除蔣宋

319) 亞洲 : 亞細亞洲.  
 320) 笳鼓 : 胡인이 부는 피리와 북.



공여지책으로 소영<sup>321</sup>)과 결탁한 것은 가증스럽네  
 신민(臣民)을 백년을 도와서 서게 할 계책은  
 사해(四海)에서 드날리는 빛나는 제국(帝國)의 이름이네  
 중원(中原)을 평정한 것밭이 있는 땅에  
 동양(東洋)의 해와 달은 일대에 밝네

可憎窮策結蘇英  
 百年扶植臣民計  
 四海揚輝帝國名  
 平定中原旋旆地  
 東洋日月一圓明

보무(步武)<sup>322</sup>도 당당한 천황의 군대(聖師)가 나가니  
 남북 중원(中原)을 석권해 가네  
 인민(人民)과 같이 서로 싸우지 않으니  
 다만 충성에 간악한 무리만 풀 베듯 다 없애면 되네  
 지도 위에 새로 붓을 대려니  
 세계 역사 중에 특히 기록할 수 있네  
 일체 단성(丹誠)<sup>323</sup>의 선만일<sup>324</sup>  
 만세 소리 높여 부르며 천황 있는 곳에 절을 하네

堂堂步武聖師出  
 南北中原席捲如  
 不與人民相戰鬪  
 只要姦忠盡芟除  
 輿圖版上新添筆  
 世界史中可特書  
 一體丹誠鮮滿日  
 歡呼萬歲拜皇居

완악한 저 지나가 혼단<sup>325</sup>을 일으키고  
 법도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네  
 동양 우리는 평화의 주인이니  
 한번 천황의 군대를 내니 천하가 안정되네

頑皮支那起釁端  
 恣行無法認容難  
 東洋我是平和主  
 一出皇師天下安  
 부산 허종녕(許宗寧)

황은(皇恩)에 보답하고자 북쪽 변방에 나가니  
 당당한 의기(意氣) 적이 앞에 없네  
 가는 때 곰과 호랑이 감옥을 넘는 듯하고  
 공격하는 곳에 천둥 번개소리는 하늘을 떨치듯하네  
 승전을 하니 강산이 다 빛이 좋고  
 장사(壯士) 성공한 것이 바로 그해이네  
 개선가 노래는 멀리 나라 태평하다는 곡조를 보내고  
 밤마다 백성은 꿈에도 둥그네

欲報皇恩出北邊  
 堂堂意氣敵無前  
 行時熊虎如超獄  
 擊虎雷霆似振天  
 得捷江山皆好色  
 成功壯士即當年  
 凱歌遙送昇平曲  
 夜夜蒼生夢寐圓  
 부산 강형민(姜炯敏)

321) 蘇英 : 소련과 영국.  
 322) 步武 : 활발하고 위엄 있게 걷는 걸음걸이.  
 323) 丹誠 : 속에서 우러난 정성.  
 324) 鮮滿日 : 조선과 만주와 일본.  
 325) 釁端 : 시초.

자애롭고 어진 덕성(德聖)을 동서에 퍼지니  
전쟁에 이긴 군사들은 명령에 충성을 다하네  
국가에 무운(武運)이 오래기를 기원하니  
만대에 이르도록 무궁하리

慈仁德聖被西東  
戰捷旅師盡命忠  
祈願國家長武運  
至于萬世系無窮  
부산 서문숙(徐文淑)

호주<sup>326</sup>)에서 승리 보고가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데  
깃발 그림자 흠어지고(參差) 상서로운 해 붉네  
만국(萬國) 평화 이로부터 시작되고  
집집마다 태평한 것이(烟月) 밝은 달과 같네

滬洲捷報自西東  
旗影參差瑞日紅  
萬國平和從此始  
家家烟月一輪同  
부산 홍병익(洪炳翊)

이웃나라와 전쟁은 또한 하늘에 달렸으니  
계책을 얻는데 오직 아주 완전히 내기를 기약하네  
홀연 갑자기 변하고 재빠른 번개 같으니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고  
길고도 먼 하늘 유화(流火)에 적은 앞에 없네  
병사 사이에는 탁월한 사람(英才)이 끊이지 않고  
신후(身後 : 死後)에는 오히려 성주<sup>327</sup>)의 사랑을 입네  
가장 큰 중주(中州)<sup>328</sup>)를 석권(席捲)해 가니  
얼마 안있어 서로 개선가로 화답 하겠네

隣邦爭戰亦關天  
得策惟期出萬全  
忽地輕雷人莫測  
長空流火敵無前  
兵間不絕英才特  
身後猶蒙聖主憐  
最大中州如席捲  
幾時相和凱歌旋  
부산 김영두(金榮斗)

충의(忠義) 당당한 수륙군(水陸軍)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응하니 바로 공을 이루네  
호랑이 앞에 어찌 감히 양의 무리가 움직이리오  
제국(帝國)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나뉘네

忠義堂堂水陸軍  
前呼後應即成勳  
虎前何敢羊群動  
帝國君臣上下分  
부산 성중호(成重鎬)

뛰어난 군사가 예로부터 오늘과 같은날 없었으니  
이역(異域)에서 풍상(風霜)에 몇 번이나 괴로움이 심했나  
가고지<sup>329</sup>)에서 적을 내모는 것을 상상하니

雄師自古無如今  
異域風霜幾苦深  
想像驅馳笳鼓地

326) 滬洲 : 上海.

327) 聖主 : 聖君.

328) 중국.

329) 笳鼓地 : 오랑캐 땅.

충훈<sup>330</sup>) 두 글자는 각각의 마음이 되네

忠勤二字各爲心  
부산 오창식(吳昌植)

황군(皇軍)이 출전하니 한해가 지나지 않아  
승전한 높은 소리 사해(四海)에 전하네  
용기있게 몸을 분발하여 일으키니 죽을 곳임도 잊고  
충혼<sup>331</sup>)은 해를 뚫고 푸른 하늘에 환하네  
위풍(威風)이 수천리에 진동하고  
나라 복은 무궁하기 백만년이네  
만약 지나가 장차 반성한다면  
동양 민족이 좋은 인연을 이루리

皇軍出戰未經歲  
得捷高聲四海傳  
勇氣奮身忘死地  
忠魂貫日瞭蒼天  
威風振動數千里  
國祚無窮百萬元  
若使支那將反省  
東洋民族好成緣  
밀양(密陽) 김용제(金瑢濟)

시국(時局)이 어지럽기가 바둑 두 듯 한데  
황조(皇朝) 장졸(將卒)은 충정의 도리를 다하네  
바람과 비 불고 내리 듯한 창과 칼의 투쟁 심한데  
호략(虎略)<sup>332</sup>)과 용도(龍韜)<sup>333</sup>)에 합변(合變)이 기이하네  
천자(天子)는 응대해 인각(麟閣)에서 기다리고  
집사람들은 소식 전하는 편지 더딘 것을 한하지 않네  
은하(銀河)에서 병기 씻을 날이 어느날인지 알까  
무한한 나라 통일 기반일세

時局紛如着手碁  
皇朝將卒盡衷彝  
戈風劍雨爭鬪苦  
虎略龍韜合變奇  
天子應對麟閣待  
閨人莫恨鴈書遲  
銀河洗甲知何日  
無限邦家統一基  
밀양 이제환(李齊桓)

대의(大義)의 우리 천황 적을 토벌하니  
신민(臣民) 온나라 하늘에 원망을 맹세하네  
용감하고 맹렬히 싸우고 목숨을 바치는 날  
열사(烈士) 공명(功名)은 만년(萬年)을 가리

大義吾皇討伐敵  
臣民舉國誓願天  
勇戰猛鬪殉身日  
烈士功名後萬年  
창녕(昌寧) 성진영(成璉永)

나라 위한 정성이 이때에 있으니  
만리를 누비며 풍진(風塵)을 쓸어내네

爲國精誠在此辰  
縱橫萬里掃風塵

330) 忠勳 : 충의를 다해 세운 공훈.

331) 忠魂 : 충의를 위해 죽은 사람의 넋.

332) 虎略 : 虎韜?. 虎韜는 兵書 六韜 중의 一篇.

333) 龍韜 : 兵書인 六韜의 第三篇 이름. 전하여 兵書 또는 兵法.

큰 일에 성공을 알 날이 멀지 않았고  
황군(皇軍)의 충렬(忠烈)은 사람마다 감격하네

大事成功知不遠  
皇軍忠烈感人  
창녕 김태윤(金兌潤)

나라 위하고 백성 편안히 하는 큰 일을 이루니  
당당한 충의(忠義)는 햇빛에 밝네  
바다의 비는 이미 개이고 공을 논하는 자리에  
반드시 기린각(麒麟閣)<sup>334</sup>에 이름을 올리겠네

爲國安民大事成  
堂堂忠義日光明  
已晴海雨論功席  
必得麒麟閣上名  
창녕 조기승(曹奇承)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데 몸은 있지 않고  
함성에 높은 곳에서는 일장기가 새롭네  
죽음을 각오함을 달게 여기니 응할 적이 없고  
계략이 내어 공을 이루니 또한 신이 감동하네  
상해(上海) 대도시도 한 터럭 같고  
장성만리(長城萬里)를 띠끌 보듯 하네  
오직 우리 백성 마음은 정성껏 축하하고  
개선가를 연주하고 영광되게 돌아오는 날 동산에 봄이 되리

竭力盡忠不有身  
喊聲高處日章新  
心甘快死無應敵  
計出成功亦感神  
上海大都如一髮  
長城萬里視纖塵  
惟吾民衆心誠祝  
奏凱榮還化囿春  
창녕 하한덕(河漢德)

천황(天皇) 인덕(仁德)은 인천(仁天)같고  
은우(恩雨)는 아직 화북 변방을 적시지 않았네  
이에 병장기를 정돈하여 이내 지경에 들어가서  
드디어 민주(民主) 공화(共和)로 이웃되게 하네  
몸을 떨쳐 일어난 장한 기세 살거나 물러남이 없고  
나라에 충성하는 군대 위세는 다 먼저 죽으려 하네  
구름 걷히고 햇빛 비추는 것이 멀지 않았고  
씩 밝은 공업(功業)은 만천년(萬千年) 가리

天皇仁德似仁天  
恩雨未霑支北邊  
爰整干戈仍入界  
遂令民主共和隣  
奮身將氣無生退  
報國軍威盡死先  
雲捲日光猶不遠  
休明功業萬千年  
창녕 장낙두(張樂斗)

진영을 나서서 공을 이룰 것을 일생에 맹세하니  
충성하여 나라에 은혜를 갚고 인정에 감사하네  
적들은 감히 장차 완강히 항거하리니  
황군(皇軍)은 본래 공명(公明)을 바르게 하려는 것이네

出陣成功誓一生  
盡忠報國感人情  
敵輩敢將頑拒抗  
皇軍本欲正公明

334) 麒麟閣 : 前漢의 武帝가 麒麟을 얻었을 때 건축한 樓閣. 宣帝가 공신 11명의 像을 그려 閣上에 걸었음.

기쁘게 전쟁에서 상해(上海)를 거둔 것을 축하함을 듣고  
마땅히 위세는 장성(長城)을 압도하겠네  
잔적을 소탕하는 것은 이제 멀지 않았으니  
축하하는 환호성 고향 마을에 울리리

喜聞戰祝收上海  
當令威勢壓長城  
殘寇掃蕩今非遠  
祝賀歡聲動里鄉  
창녕 이덕주(李德周)

해외에서 개선가 연주가 많이 전해지니  
일시에 축하가 같이 우뚝 솟았네  
어찌해야 마땅히 흉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를 다 없애고  
좋은 짝 청춘과 속히 집에 돌아오겠는가

海外多傳奏凱歌  
一時賀祝共嵯峨  
那當殲盡群凶魁  
好伴青春速返家  
창녕 배종학(裴鍾學)

향월(香月) 위세 떨치는 명성 사해(四海)를 진동하고  
형세는 거침없이 물리치고 가는 것 같아 공훈을 온전히 얻었네  
원컨대 이제 장사(將士)들 깊이 서로 권하고  
초심(初心)을 태만히 하지 말고 개선가를 들려주게나

香月威名動四海  
勢如破竹得勳全  
願今將士深相勸  
毋(毋)怠初心奏凱歌  
창녕 신동식(辛東植)

우리나라 여러 장사(將士)가  
용감하게 북정(北征)을 가네  
오직 원하는 것은 빨리 개선하여  
인각(麟閣)<sup>335</sup>에 그림을 그려놓은 일이네  
삼군(三軍)은 북평(北平)에서 승리하고  
달마다 승리 보고 황성(皇城)에 이르네  
대륙에 어진 명성 진동하고  
밝은 해와 달이 되네

吾邦諸壯士  
勇敢北征行  
惟願早旋凱  
麟閣畫圖成  
三軍勝北平  
月捷到皇城  
大陸仁聲動  
昭昭化日明  
남해(南海) 박준인(朴準寅)

황조(皇朝)가 의로운 군사를 움직이니  
요해(遼海) 전진(戰塵)이 개이네  
충성을 떨치는 여러 장사(壯士)는  
다 나라의 간성(干城)<sup>336</sup>이네

皇朝動義兵  
遼海戰塵晴  
奮忠諸壯士  
盡是國干城  
남해 이시봉(李時鳳)

335) 麒麟閣.

336)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

천황(天皇)의 큰 복은 무궁하고  
만사(萬事) 마음과 같아 그 공을 이루네  
동정(東征)하는 여러 장사(壯士)에게 전하노니  
몸을 죽여 위를 받들이 충성이 된다네

天皇洪福及無窮  
萬事如心成厥功  
寄語東征諸壯士  
殺身奉上是爲忠  
남해 정원표(鄭元杓)

멀리 황군(皇軍)이 북성(北城)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腥塵(腥塵)을 한번에 쓸어내어 바다와 산이 개이네  
지나(支那)에서 전쟁에 이김은 누구 힘 인줄 아오  
다 여러분의 나라 사랑하는 정성이네

遙望皇軍入北城  
腥塵一掃海山晴  
支那戰勝知誰力  
盡是諸公愛國誠  
남해 최춘승(崔春升)

모든 종군(從軍)이 죽음(萬死)을 맹세하고  
비추는 하늘의 해 크게 분명하네  
신문지 위에는 당당한 승리를 축하함이 있고  
여러 사람 입에 같은 소리로 태평을 축하하네

一體從軍萬死盟  
照臨天日大分明  
堂堂勝祝新聞上  
萬口同聲祝太平  
남해 하희섭(河熺燮)

덕으로써 화목하고 의로써 성(城)을 만드니  
빛나는 우리나라 상서롭게 구름 개이네  
여러 해 북쪽의 적 무도(無道) 하더니  
만세 동방에 한번 병사를 일으키네  
천지가 장사(將士)의 기세에 감응하고  
강산에 꾸짖는 소리 진동하네  
부모와 아이는 떠들썩하게 축하하는데  
腥塵(腥塵)을 다 쓸어 큰 승리를 이뤘다네

德以爲和義以城  
煌煌我國瑞雲晴  
頻年北敵元無道  
萬世東邦一勵兵  
天地感應將士氣  
江山振動叱咤聲  
爺孃赤子嗷嗷祝  
掃盡腥塵大捷成  
울산(蔚山) 김찬희(金璨熙)

벽력(霹靂) 장군 해동(海東)에 떨치고  
한 하늘에 바람과 비 육주(六洲)가 같다네  
도깨비 분주하고 깃발 돌아오는 날  
오에 삼을 겸한 송덕(頌德)의 공이네

霹靂將軍震海東  
一天風雨六洲同  
螭奔魅走旋旗日  
加五兼三頌德功  
울산 김병호(金炳浩)

조선 신민(臣民)은 바로 한마음이니

朝鮮臣民卽一心

하늘과 부처에 기도하니 정성의 근원이네  
개선가 부르고 돌아오는 날 환영하는 뜻은  
강한(江漢)<sup>337</sup> 시가 악부음(樂府音)에 오르는 것이네

祈天禱佛是誠源  
凱歌旋日歡迎意  
江漢詩登樂府音  
울산 신세호(辛世浩)

문화정치(文化政治)하는 우리나라 동방에  
이 어찌 적들이 감히 침입하니 영웅일까  
덕장(德將)은 한신(韓信)<sup>338</sup>의 용맹같이 돌아오고  
지수(智帥)는 오히려 공명(孔明 : 諸葛孔明)의 충성을 능가하네  
폭탄을 멀리 여러 진과 대오에 던지고  
비행기는 능히 창공에 반을 쓰네  
적을 격파하고 돌아오며 만세를 부르니  
동쪽 하늘 아침 해는 상서로운 빛에 붉네

文化政治我國東  
是何賊卒敢侵雄  
德將還如韓信勇  
智帥猶勝孔明忠  
爆彈遠投千疊伍  
飛機能用半蒼空  
破賊歸來呼萬歲  
東天朝日瑞光紅  
울산 김병석(金秉錫)

천황의 명은 밝게 드러나 덕을 드리우고  
밝은 천년에 다시 군사를 일으키네  
운(運)은 만고에 통하고 순환하는 형국이니  
사방을 통합하는 기반이 되네  
채설(蔡雪) 중 소당(宵唐) 승리 보고요  
노수(瀘水)에서 5월 한공(韓功)이 마땅하네  
야! 장사(將士) 큰 공로  
인각에 꽃다운 이름 이지러지지 않겠네

帝命欽明著德垂  
於昭千載復興師  
運通萬古循環局  
化及四方統合基  
蔡雪中宵唐捷報  
瀘水五月漢功宜  
猗歟將士勳勞業  
麟閣芳名永不虧  
울산 김봉오(金鳳梧)

야! 저 지나 거꾸로 스스로 횡행하니  
형세가 화의(和議)는 어려우니 더욱 병력을 증가하네  
충성을 본받은 장사(將士)는 살 뜻이 없고  
나라에 충성하려는 여러 사람 죽음으로써 맹세하네  
만리에 가을 바람 서리에 낙엽지고  
삼경(三更)<sup>339</sup> 어두운 달에 변방 기러기 놀라네  
다 만세 부르고 다투어 개선가를 부르는데

吁彼支那反自橫  
勢難和議強加兵  
效忠將士無生意  
報國群黎以死盟  
萬里秋風霜葉落  
三更黑月塞鴻驚  
咸稱萬歲爭歌凱

337) 楊子江과 漢水.

338) 韓信 : 漢나라 高祖의 功臣.

339) 三更 : 밤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 시간.

즐거움 크니 누가 영화롭지 않겠는가

喜莫大焉孰不榮  
울산 정치호(鄭致浩)

해군과 육군과 공군이 만리를 가니  
당당한 용기 늘름하기 가을 서리 같네  
살아서는 세상에 은혜가 없으니 살아 돌아옴이 욱되니  
죽어서 반드시 충신이고 죽음 또한 영광이네  
평화를 애타게 부르짖고 본의(本義)를 아는데  
마침 대항하고 업신여겨 비상(非常)이 되네  
이로부터 개선가를 부르고 돌아옴이 이르고  
공을 이름을 축하하려 짧은 글로 기리네

海陸空軍萬里行  
堂堂勇氣凜秋霜  
生無澤世生還辱  
死必忠臣死亦光  
絕叫平和知本義  
祇緣抗侮轉非常  
凱歌從此歸來早  
爲賀成功頌短章  
울산 서대규(徐大圭)

제덕(帝德)은 천년에 드리우고  
황위(皇威)는 만방에 떨치네  
개선할 날 멀지않음을 알겠고  
성수(聖壽) 무궁함을 축하하네

帝德垂千載  
皇威振萬方  
凱旋知不遠  
聖壽祝無疆  
울산 박충호(朴忠鎬)

아! 저 민국(民國)은  
동양을 문란(紊亂)하게 하네  
거짓을 반복하고  
교묘히 속이고 마음대로 행동 하네  
내란(內亂)이 여러 해 이터니  
화를 이웃나라에 옮기네  
천월대사(川越大使)와  
향월중장(香月中將)은  
평화를 애타게 부르짖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네  
형세는 비록 얻지 못했고  
때는 비상이네  
왕이 불끈 성을 내어  
크게 원정(遠征)을 일으켰네  
백만의 정예병은  
바다와 육지와 공중을 잇네

吁彼民國  
紊亂東洋  
虛僞反覆  
巧詐放縱  
內亂多年  
嫁禍隣邦  
川越大使  
香月中將  
絕叫平和  
終始頑剛  
勢雖不得  
時則非常  
王赫斯怒  
大舉遠征  
百萬精銳  
聯海陸空



정의로운 황군(皇軍)은  
 나간 즉 명성이 있네  
 접촉하면 퍼지고  
 성하기는 비 내리듯 하네  
 막막한 연성(燕城)에서  
 빛나는 일장기이네  
 간사한 무리들은 손이 묶이고  
 백성은 정성을 바치네  
 상해(上海)에서 개선가를 부르니  
 환희가 절정이네  
 내선<sup>340</sup> 신민(臣民)은  
 일체로 같은 경사이네  
 만세 소리 속에  
 산하(山河)에 빛이 나네  
 받들어 축하하기 글이 졸렬함을 잊으니  
 송구하고 황공하네

正義皇軍  
 出則有名  
 觸如風靡  
 沛若雨降  
 漠漠燕城  
 煌煌日章  
 奸黨束手  
 群黎獻誠  
 凱歌上海  
 歡喜絕頂  
 內鮮臣民  
 一體同慶  
 萬歲聲裏  
 河山動光  
 奉賀忘拙  
 悚懼恐惶

울산 서병연(徐秉淵)

◆ 황해도(黃海道)

북지에서 시끄러움이 일고 속여 거칠고 사나운 위세를 떨치니<sup>341</sup>  
 정돈한 우리 황군(皇軍) 한 번 바로잡기를 기약하네  
 적의 성지(城池)를 압도해 깨뜨리고 새 알을 위태롭게 하니  
 승리 드리우고 공을 쌓아 용광(龍光 : 龍泉 名劍의 광채)을 쏘네  
 다른 방도로 험한 곳을 건너는 고난의 골격이요  
 나랏일을 돕는 정충(精忠)<sup>342</sup>은 철석같은 장기일세  
 연진<sup>343</sup>을 소탕하고 개선하는 날  
 온나라 영토 안(率濱)<sup>344</sup> 사녀(士女) 춤을 추네

北支起鬧謾鴟張  
 整我皇軍期一匡  
 壓破城池危烏卵  
 捷垂動閔射龍光  
 殊方涉險風霜骨  
 輔國精忠鐵石腸  
 掃蕩烟塵旋凱日  
 率濱士女舞踴躍

평산(平山) 민영근(閔泳根)

340) 內鮮 : 일본과 조선.

341) 鴟張 : 올빼미가 날개를 편 것처럼 暴威를 떨침.

342) 精忠 : 자기를 돌보지 않는 순수한 충성

343) 煙塵 : 兵塵.

344) 率濱 : 온나라의 영토 안. 率土之濱

북지 소식 근래 어떠한가  
용감히 전진하는 황군(皇軍)은 승승장구 많다네  
저들로 하여금 끝내 돌이켜 깨우치게 못하니  
응징에는 병장기가 유용하네

北支消息近如何  
勇進皇軍乘勝多  
使彼返醒終不得  
膺懲是有用干戈  
연백(延白) 최중윤(崔重潤)

하늘에 명을 받들고 크게 출병하니  
동정(東征)하면 서쪽이 원망함이 분명하네  
정기(旌旗)에 낮 따뜻하니 용과 뱀이 움직이고  
항공기는 바람에 높이 떠 작은 새들보다 가볍네  
승승장구(乘勝長驅)하니 누가 감히 대적하랴  
정명(正明)을 말하고 도리에 따르는 일은 끝내 이루네  
나라의 원기(元氣)는 우리 선비에게 있으니  
반도(半島) 강산에 만세 소리가네

奉命于天大出兵  
東征西怨是分明  
旌旗日暖龍蛇動  
航隊風高鳥雀輕  
乘勝長驅誰敢敵  
正名言順事終成  
國之元氣吾儒在  
半島江山萬歲聲  
연백 송창현(宋昌鉉)

세계 평화 일에  
기쁜 소식 어디에서 오는가  
시국(時局) 연진<sup>345</sup>이 일어나니  
동양 상서로운 해 돌아오네  
인풍(仁風)은 잔 풀을 누이고  
은우(恩雨)는 꽃 피우기 좋네  
애국(愛國)은 민중(民衆)에게서 생겨나고  
주흥이 나서 노래하고(酣歌) 축하 잔을 드네

世界平和事  
喜報自何來  
時局烟塵起  
東洋瑞日回  
仁風殘草偃  
恩雨好花開  
愛國生民衆  
酣歌祝賀盃  
연백 박정기(朴鼎基)

동양 일국(一局)은 교린(交隣)을 잘하고  
같이 천추에 부자(夫子)의 인(仁)을 이르렀네  
해가 뜨는 동쪽바다에 해나 나와 두루 비치는데  
화역(華域)<sup>346</sup>은 밤의 미혹에 빠져 꿈인듯하네  
만리 원정(遠征)해 하늘이 벌하는 날에  
일시에 흩어져 약탈하고 시가에서 사람을 쫓네  
반도(半島) 또한 은혜로운 비와 이슬에 젖으리니

東洋一局善交隣  
共被千秋夫子仁  
扶桑日出曙光遍  
華域夜沉迷夢因  
萬里遠征天討日  
一時漁散市驅人  
半島亦沾恩雨露

345) 煙塵 : 兵塵.

346) 중국.

태평한 봄에 길게 만세 부르네

長呼萬歲太平春  
연백 박규원(朴圭元)

예로부터 동양은 이웃과 사귀기를 좋아하는데  
무슨 연유로 지적(支敵)<sup>347</sup>은 풍진(風塵)을 일으키는가  
유교(儒敎)의 땅 통하여 같은 성국(聖國)이요  
윤도(倫道)가 하늘에서 낸 한 종의 인간이라네  
흉악한 칼 끝은 어쩔수 없이 구름같이 흩어지고  
의기(義旗)는 승승장구하고 또 날로 새롭네  
멀리서 황군(皇軍)을 축하하니 잊을 수 없다는 뜻이요  
개신 노래 높은 곳은 태평한 봄이네

自古東洋好結隣  
緣何支敵起風塵  
儒敎地濶同聖國  
倫道天生一種人  
凶鋒無奈如雲散  
義旗長驅又日新  
遙賀皇軍難忘意  
凱歌高處太平春  
연백 조종건(趙鍾建)

정충(貞忠)<sup>348</sup> 도덕(道德)은 지극히 무궁하고  
만물을 고요히 보면 한 이치로 통하네  
용기는 전세계를 동요시키고  
포 소리는 푸른 하늘에 떠 있네  
급히 성북(城北)을 쫓으니 검 빛이 밝고  
산동(山東)으로 적이 패해 달아나니 서리 물든 잎새 붉네  
득의양양하여 돌아오는 길  
장사(壯士)와 뛰어난 남아 모두 청충마를 탔네

貞忠道德至無窮  
萬物靜觀一理通  
勇氣動搖全世界  
砲聲浮在碧空中  
急追城北劍光白  
敗走山東霜葉紅  
揚揚得意歸還路  
壯士雄男擡騎驄  
연백 송석만(宋錫萬)

천황(天皇) 대덕(大德)은 크기가 하늘과 같고  
중화(中華)를 가볍게 정벌하는 형세는 세차네  
포탄을 발사할 때 벼락(霹靂)이 생기고  
비행기 넘는 곳엔 산천이 진동하네  
전선(全鮮)의 깃발은 태양 아래에 있고  
만호(萬戶) 촛불 등은 변방에 밝은 달이네  
사해(四海)가 영원히 맑을 날 멀지 않음을 알겠고  
관군(官軍) 승승장구 승리한 보고 전하네

天皇大德大如天  
薄伐中華勢沛然  
砲彈發時生霹靂  
飛機越處動山川  
全鮮旗幟太陽下  
萬戶燭籠明月邊  
四海永清知不遠  
官軍乘勝捷書傳  
곡산(谷山) 김영보(金永溥)

347) 중국 적.

348) 貞忠 : 절개 곧고 충성스러움

황군(皇軍) 위력은 서쪽과 동쪽에 두루 미치는데  
 하늘의 기밀(天機)에 순응해 큰 공을 세웠네  
 진지에 임해 성을 공격하기는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듯 하니  
 신민(臣民) 축하는 일반이 같네  
 백전백승하는 우리 황군(皇軍)  
 죽기 각오를 같이 맹세하고 임금에 충성하네  
 한마디를 얻어도 공이 있다하는데 하물며 척(尺)을 얻음에라  
 다른 해 조칙 내려 으뜸가는 공을 표창하리

皇軍威力徧西東  
 順應天機建大功  
 臨陣攻城如破竹  
 臣民祝賀一般同  
 百勝白戰我皇軍  
 決死同盟報國君  
 得寸有功況得尺  
 他年詔下表元勳  
 곡산 서광훈(徐光勳)

그 불의(不義)를 공격하는데 그 인(仁)을 내고  
 적을 깨뜨리고 백성을 사랑하기 내 몸을 사랑하듯 하네  
 땅을 점령하나 어진 백성 해친바 없으니  
 황군(皇軍) 이르는 곳마다 축하하는 소리 새롭네

功其不義出其仁  
 破敵愛民如愛身  
 占土良民無所害  
 皇軍到處賀聲新  
 곡산 박희삼(朴希三)

장사(將士)가 출정(出征)하는 권리 동쪽에 있고  
 백성에게 내리는 축하 한마음으로 같다네  
 지모 더욱 어질고 공평하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용기를 지나치게 믿어 펴니 어찌 영웅이 아니라  
 위세가 떨치는 명성은 빛나 성시(城市)에 파다하고  
 의기(意氣)는 양양해 진중(陣中)에 호걸이네  
 병장기를 버려놓고 대업(大業)을 이루니  
 황군(皇軍) 만세 영원히 무궁하리

將士出征權在東  
 下民祝賀一心同  
 智愈良平何有畏  
 勇過信布豈非雄  
 威名赫赫藉城市  
 意氣揚揚豪陣中  
 棄甲偃兵成大業  
 皇軍萬歲永無窮  
 서흥(瑞興) 유창호(柳昌浩)

두 나라 서로 싸우는 땅에  
 시국(時局)은 근래 어떠하던가  
 황군(皇軍)의 일을 들으니  
 승승장구 점령이 넘친다네

兩邦相戰地  
 時局近如何  
 聞道皇軍事  
 乘勝占領過  
 수안(遂安) 정관영(鄭觀榮)

변경 바람과 달 늦은 가을에  
 군기와 북 당당히 북지(北支 : 華北)를 향하네  
 만리 원정(遠征)에 국력을 떨치고

邊風塞月暮秋時  
 旗鼓堂堂向北支  
 萬里遠征振國力

삼군 정숙하고 임금의 군대를 떨치네  
용맹은 분육(賁育)<sup>349</sup> 같아 대적할 사람이 없고  
계책이 손오(孫吳)<sup>350</sup>와 합치해 귀신도 알지 못하네  
은 싸움의 갑병(甲兵)은 어디서 씻을 것인가  
황하(黃河)와 양자대강(楊子大江) 물가이네

三軍整肅奮王師  
勇如賁育人無敵  
計合孫吳鬼莫知  
全戰甲兵何處洗  
黃河楊子大江湄  
수안 김재원(金載元)

준동하는 저들을 응징하러 나온 것인 우리 군사인데  
누른 빛깔의 꽃과 단풍잎 9월의 때이네  
하늘을 번쩍 들듯 좋아서 뛰는 삼군이 장하고  
땅을 말아 평평하게 밟듯한 만마리 말이 달리네  
동아(東亞)는 하루아침에 북과 나팔을 울리고  
북지 천리에 성지(城池)를 점령하네  
신민(臣民)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인데  
애오라지 단심(丹心)을 표시하는 축하하는 시이네

蠢爾是懲出我師  
黃花紅葉九秋時  
掀天踊躍三軍壯  
捲地踏平萬馬馳  
東亞一朝鳴鼓角  
北支千里占城池  
臣民報國正今日  
聊表丹心祝賀詩  
수안 이궁환(李肯煥)

들으니 왕의 군대가 연이어 승승장구한다니  
동양 일국(一局)에서 백성을 건지겠네  
황천(皇天)은 이렇게 빨리 개선가를 연주하니  
우리 백성에게 태평을 즐거워하게 하네

聞道王師連乘勝  
東洋一局濟蒼生  
皇天斯速凱歌奏  
願使吾民樂太平  
수안 김동흥(金東興)

푸른 하늘 해와 달은 대장기(大將旗)요  
바람과 서리에 낙엽지듯 하는 것은 중국의 형세이네  
백전백승 하는 우리 군대  
일년을 넘지 않아 만세를 부르네

青天日月大將旗  
落葉風霜中國勢  
百戰百勝吾軍隊  
未過一年呼萬歲  
수안 이창섭(李昌燮)

◆ 평안남도(平安南道)

충성은 갑주(甲冑)가 되고 의(義)는 깃발이 되고

忠爲甲冑義爲旗

349) 賁育 : 춘추 전국 시대의 용사인 孟賁과 夏育. 전하여 勇士를 이룸.

350) 孫吳 : 春秋時代 兵法家인 孫武와 吳起.

형세 강하(江河)<sup>351</sup>)에서 결정되니 누가 막으랴  
 이르는 곳마다 단호(簞壺)<sup>352</sup>)가지고 오는 어른들(父老)  
 산에 가득찬 풀과 나무는 왕의 군대를 돕고  
 만리(萬里)에서 연이은 승전이 매일이니  
 장성(長城)에서 항복 받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네  
 나라안 평화 멀지않음을 알겠고  
 동방 해 돋는 날 상서로운 빛이 드리우네

勢決江河孰禦之  
 到處簞壺來父老  
 滿山草木助王師  
 捷連萬里無虛日  
 降受長城有定期  
 海內平和知不遠  
 東方旭日瑞光垂  
 평양(平壤) 최정환(崔晶煥)

대군(大軍)이 한꺼번에 나와 관문(關門)을 깨뜨리니  
 다른 나라 옷차림(衣冠) 존경하네  
 표범과 호랑이 같이 서릿발같이 엄하니 뜨는 해 밝고  
 용과 뱀 같은 바람이 불어 중원(中原)을 압도하네  
 많은 사졸(士卒) 다 생기있고  
 4억 인민(人民) 거의 정신을 잃었네  
 동아(東亞) 평화가 이제 비로소 정해지려니  
 어린이와 노인(垂髫戴白) 황은(皇恩)에 감읍하네

大軍一出破關門  
 異國衣冠敬所尊  
 貔虎霜嚴明旭日  
 龍蛇風動壓中原  
 萬千士卒皆生氣  
 四億人民幾失魂  
 東亞平和今始定  
 垂髫戴白感皇恩  
 평양 박기석(朴箕錫)

동서양 여러 나라 승리를 다투는 때  
 의를 일으킨 황군(皇軍)은 세상이 아는 바네  
 효도 하고 충성하는 일은 남자의 일이니  
 모름지기 이제 역사에 이름을 특히 다루겠네

東西列國競雄時  
 唱義皇軍世所知  
 爲孝爲忠男子事  
 須今竹帛姓名奇  
 평양 선우상(鮮于瑒)

오직 우리 동방의 나라 운이 융성하여  
 출정(出征)하는 장사(將士) 기세가 화평하네  
 인(仁)을 베풀고 정치해 천하를 평정하고  
 무(武)를 숭상해 군사를 조련하며 해를 향하는 중이네  
 먼 변방 패배와 승리(輸贏)는 굳세게 꺾는 힘이고  
 한쪽으로 흩어지고 모임은 시위(示威)하는 바람이네  
 보도에 승리 보고니 좋아서 기뻐 날뛰고

惟我東邦國運隆  
 出征將士氣融融  
 施仁發政平天下  
 尙武鍊兵向日中  
 遠塞輸贏宣毅力  
 偏方散聚示威風  
 報道捷書欣雀躍

351) 楊子江과 黃河.

352) 簞食壺漿 :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 전하여 백성이 군사를 환영하여 음식을 주어 위로함을 말함.

신궁(神宮) 참배하며 무궁을 축하하네

神宮參拜祝無窮  
평양 김항규(金恒圭)

번개 같은 칼 빛이 공격하는 곳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하는 적병이 많네  
일장깃발 높이 매달린 아래에  
조정과 민간의 신민(臣民) 개선가를 부르네

如電鋸光攻擊處  
秋風落葉敵兵多  
日章旗幟高懸下  
朝野臣民唱凱歌  
평양 장봉한(張鳳翰)

신무(神武) 당당하니 만국(萬國)이 놀라고  
해가 뜨는 동쪽바다에 떠오르는 해 사람을 향해 밝네  
북지 상해(上海)에서 승리한 보고 이르고  
우리 천황에 감동해서 인의(仁義)를 행하네

神武堂堂萬國驚  
扶桑旭日向人明  
北支上海捷書至  
爲感吾皇仁義行  
평양 박성휴(朴性休)

승전한 보고 비로소 얻어 보고 알았고  
북지 이미 평정하고 또 남쪽이네  
한데서 먹고 자고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고  
물으로 산으로 공격하는 것은 또한 할 수 있네  
고국에 개선할 날 장차 어느 날일까  
다시 동양 회복될 날은 바로 이때이네  
우리 안도하는 것은 우리 군사 힘이네  
애오라지 작은 정성 표하려 시 한수 바치네

勝戰捷書始得知  
北支已定又南支  
霜宿風餐尚不易  
水攻山擊亦能爲  
凱旋故國將何日  
平復東洋卽此時  
吾人安堵吾軍力  
聊表寸忱獻一詩  
평양 김제형(金濟鎭)

이르는 곳마다 황군(皇軍)은 득의하는 가을인데  
피 물든 일장기 각 성 머리에 높이 날리네  
국위(國威)를 황하(黃河) 지역에서 확보하고  
적의 기세 상해주(上海洲)에서 다 기울었네  
평화의 시일이 진영 바로 앞에 있고  
용감한 바람소리 총 뒤에 흐르네  
천만년에 무궁한 복은  
신성한 자손 한 계통에 머무리

到處皇軍得意秋  
血章高揭各城頭  
國威確保黃河域  
敵勢盡傾上海洲  
平和時日陣前迫  
勇敢風聲銃後流  
於千萬年無窮福  
聖子神孫一系留  
평양 한용건(韓用健)

용감한 장수와 강한 군사가 진지앞에서 나오니  
 충성스런 마음 굽이굽이에서 전공을 거두네  
 무력(武力)은 삼국(三國) 지경에서 흔들리는데  
 천황의 위엄은 오양주(五洋洲)에 널리 퍼지네  
 남쪽 방면으로 옮겨 정벌하며 북쪽 오랑캐를 원망하고  
 동쪽 백성 어루만져 도와주고 서쪽 고을 바라보네  
 개선가에 나란히 평화의 곡을 부르니  
 백만 대군이 득의한 가을이라네

勇將精兵出陣頭  
 忠心曲曲戰功收  
 武力動搖三國界  
 皇威廣布五洋洲  
 南面移征怨北狄  
 東民撫恤望西州  
 凱歌齊唱和平曲  
 百萬大軍得意秋  
 평양 오태옥(吳泰玉)

때가 마침 소화 12년(1937년)  
 비상한 운명을 하늘로부터 받았네  
 남과 북으로 정벌하며 승전보고를 날리고  
 하늘로 육지로 공습하며 개선 노래를 부르네  
 동서양 맹약이 누구 뒤에 있는가  
 문명세계(文明世界) 우리가 당연히 먼저이네  
 기쁜 소식을 얻어 들어 심신이 통쾌하고  
 일어나 미친듯이 춤을 추니 자연에 합해지네

時適昭和十二年  
 非常運命受于天  
 南征北伐飛勝捷  
 空襲陸攻歌凱旋  
 盟約東西誰在後  
 文明世界我當先  
 得聞喜報心神快  
 起舞如狂合自然  
 평양 김용석(金庸錫)

들으니 왕의 군대가 연이어 적을 깨뜨렸고  
 대군(大軍)은 이미 태원성(太原城)에 들어갔다고 하네  
 등불 든 사람 곳곳마다 바다를 이루고  
 만세소리 중에 산악이 울리네

聞道王師連破敵  
 大軍已入太原城  
 提燈處處人成海  
 萬歲聲中山岳鳴  
 평양 김윤기(金潤起)

천황의 군대 백만은 한마음으로 같으니  
 남과 북을 정벌하는 기세 웅장하네  
 비바람치듯한 포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나  
 변방 요새 구름과 달에서 매양 충성을 생각하네  
 백성을 도탄에서 구제하니 백성이 백성됨을 알고  
 세상 구제하여 평화롭게 하니 세상이 공을 칭송하네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 힘쓰니 어찌 승리하지 않겠는가  
 개선하는 오늘 축하가 무궁하네

皇師百萬一心同  
 北伐南征氣勢雄  
 彈雨砲風幾多勦  
 塞雲墨月每懷忠  
 救民塗炭民知化  
 濟世平和世頌功  
 決死奉公何不捷  
 凱旋今日賀無窮  
 평양 전덕룡(田德龍)



이때 시국(時局)을 생각하니 전운(戰雲)이 깊어지고  
지나 일본에 대항하려는 마음에 탄식하네  
황군(皇軍)은 이번 일을 의로움에서 내었고  
동양을 보전하기위한 책략이 깊네

念茲時局戰雲沉  
可嘆支那抗日心  
皇軍此舉出乎義  
爲保東洋籌策深  
평양 송재수(宋載秀)

나라를 방어하는 충성스런 마음은 아래위가 같고  
적은 그 덕이 그 바람에 쓰러지리라 아네  
장하다! 장병은 용감하고  
기세는 남북에 으뜸이고 또 동서에 으뜸이네

防國丹心上下同  
敵知其德靡其風  
壯哉將兵能勇敢  
氣冠南北又西東  
평양 황석규(黃錫圭)

천황의 군대 한번 노해 서쪽 오랑캐를 길들이고  
의를 들어 출정(出征)해서 북쪽과 동쪽을 두루하네  
험난한데 돌진하니 피땀을 많이 흘리고  
굶주림 추위 달게 참고 충성을 다하네  
겨우 한해 지나고 세상 구제할 모의하네  
밤낮 가리지 않고 성공을 맹서하네  
이때를 위문하여 더욱 힘쓰기를 원하니  
다시 다른 날 같이 개선하기를 기약하네

皇師一怒擾西戎  
舉義出征遍北東  
嶮難突臻多汗血  
飢寒甘耐盡誠忠  
纔過夏冬謀濟世  
不分晝夜誓成功  
慰問此時尤願勵  
更期他日凱歌同  
평양 최운섭(崔雲涉)

적진(敵陣)이 비록 많아 억만 군사이나  
황군(皇軍)이 이르는 곳마다 모두 혼비백산하네  
높이 든 일장기에 멀리서 축하하고  
개선가 만세소리 승리보고 달려가네

敵陣雖多億萬師  
皇軍到處撼魂飛  
高舉日旗遙祝賀  
凱歌萬歲捷書馳  
강동(江東) 김근수(金根秀)

황국(皇國) 충성스런 군대 만세(萬世)에 오니  
여러번 출전해 크게 성공을 이루었네  
아득히 넓은 들에 피와 땀이 흐르고  
우뚝 솟은 무대(武垓)에서 축배를 높이 들어 올리네  
죽음을 각오한 굳은 마음 병사들 용감히 나아가고  
몸 바치려는 곧은 절개 적이 항복하고 꺾이네  
풍찬노숙(風餐露宿)<sup>353)</sup> 오히려 달게 받고

皇軍忠軍萬世來  
屢經出戰大成開  
茫茫廣野流汗血  
屹屹武垓擎祝盃  
決死堅心兵進勇  
獻身直節敵降催  
風餐露宿還甘受

높이 개선가를 부르며 득의해 돌아오네

高唱凱歌得意廻

강동 김성숙(金聲淑)

장사(將士)은 멀리 관문과 요새 바깥으로 가는데  
단지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네  
휘장 중 책략에서 승리한 계책은 먼저 결정하고  
공격하는 책략은 휘하 사람에게 마땅하게 이어지네  
배로 물건을 실어나름이 끊어지지 않으니 좋은 참모요  
부림에 의심이 없으니 대성신(大聖神)이네  
이제 영웅호걸을 다 쓰이게 되는데  
하물며 다시 넓고 큰 무적의 인(仁)임에랴

將士遠行關塞外  
但知有國不私身  
勝籌先決帷中算  
攻策好連麾下人  
轉漕不絕良參佐  
任使無疑大聖神  
當今英傑皆爲用  
況復寬弘無敵仁

강동 홍대수(洪大修)

지난여름(客夏) 노교(蘆橋 : 蘆溝橋)에서 포성이 울리니  
중화(中華)가 어찌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수궁하라  
황군(皇軍) 이르는 곳마다 적은 백기를 들고  
성화(聖化)을 전할 때 황하 물이 맑으리  
먼데에 의지해 가까운 곳을 배척하는 계책이 어찌 나오나  
망령됨을 안고 인(仁)에 거슬리고 한갓 살생하네  
황도정신(皇道精神)이 능히 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해 6주(六洲)에 밝네

客夏蘆橋動砲聲  
中華那肯破和平  
皇軍到處敵旗白  
聖化傳時河水清  
賴遐斥近計安出  
抱妄逆仁徒殺生  
皇道精神能解否  
東天旭日六洲明

연방(聯邦)을 같이 지키는 계책은 끝내 어그러지고  
드디어 황군(皇軍)으로 국위(國威)를 떨치게 하네  
중주<sup>354</sup> 땅을 석권하는 것을 응하는 때에  
도착하는 곳에 깃발 드날리니 떠오르는 해 빛나네  
백방으로 충성을 알리는 정성스런 마음 간절하고  
동족상잔(同族相殘)<sup>355</sup>은 평소 뜻이 아니거니  
이로부터 동양 안정책이니  
대권(大權)은 오로지 대화(大和)<sup>356</sup>의 것이 되겠네

聯邦共守計終違  
遂使皇軍震國威  
應時席卷中州土  
着處旗揚旭日暉  
百方忠告誠心切  
同族相殘素意非  
從此東洋安定策  
大權專屬大和歸

강동 이규영(李奎溟)

353) 風餐露宿 :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데에서 먹고 잔다는 뜻으로, 모진 고생을 이르는 말.

354) 中州 : 中國.

355) 同族相殘 :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임

356) 日本.

황군(皇軍)이 승리한 보고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당한 의기(義氣)는 과연 어떠한고  
 하늘을 뒤흔드는(掀天)<sup>357</sup> 개선에 우레소리 끌어 진동하니  
 만주 땅 승리 깃발 해를 이고 오는 듯하네  
 향하는 선봉에 누가 감히 대적하라  
 하늘과 육지에서 뛰어난 재주가 있음을 알 수 있네  
 북지(北支)<sup>358</sup>가 신하가 되어 복종하니 서쪽 오랑캐가 물러가고  
 이로부터 동방은 상서로운 운이 열리네

聞道皇軍捷報廻  
 堂堂義氣果何哉  
 掀天凱鼓携雷動  
 滿地勝旗戴日來  
 所向前鋒誰敢敵  
 可知空陸摠奇才  
 北支臣伏西夷退  
 從此東方瑞運開  
 중화(中和) 한상규(韓相圭)

대장이 서쪽으로 정벌하니 담력이 호걸스럽고  
 허리에 달린 번쩍거리는 칼 빛은 상방도(尙方刀)네  
 서리에 부는 북과 나발은 산하(山河)를 움직이고  
 바람에 보내는 깃발(旌旗)에 해와 달이 높네  
 호략(虎略)<sup>359</sup> 용도(龍韜)<sup>360</sup>에는 진실로 법도가 있으니  
 좀도둑(狗偷鼠竊)<sup>361</sup>이 끝내 어디로 도망하나  
 크게 구리기둥(銅柱)<sup>362</sup>에 표하고 돌아오는 날  
 토지를 나누어주어 군무(軍務)의 노고에 응수하리라

大將西征膽氣豪  
 腰懸秋水尙方刀  
 霜吹鼓角山河動  
 風送旌旗日月高  
 虎略龍韜真有律  
 狗偷鼠竊竟何逃  
 大標銅柱歸來日  
 分土應酬軍務勞  
 중화 소하주(蘇夏疇)

정성(精誠)은 해와 달과 다투고  
 전술(戰術)은 귀신이 놀라네  
 자신과 집이 있음을 돌아보지 않으니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는 사람일세

精誠爭日月  
 戰術驚鬼神  
 不顧身家有  
 盡忠報國人  
 강서(江西) 김유탁(金有鐸)

충의(忠義) 당당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  
 완악한 중국(頑支) 섬멸하려는 정신이네  
 이름은 역사(竹帛)에 전해져 영광은 크고

忠義堂堂不顧身  
 頑支殲滅是精神  
 名傳竹帛光榮大

357) 掀天動地 : 천지를 뒤흔들 만하게 큰 소리가 난다는 뜻으로, 세력이 떨침을 이르는 말.

358) 華北,

359) 虎略 : 虎韜?. 虎韜는 兵書 六韜 중의 一篇.

360) 龍韜 : 兵書인 六韜의 第三篇 이름. 전하여 兵書 또는 兵法.

361) 鼠竊狗偷 : 좀도둑. 鼠賊

362) 銅柱 : 구리로 만든 標柱.

싸움에서 승리해 공로와 상은 으뜸이네

戰捷賞功第一人  
강서 김영수(金英洙)

하늘이 우리 천황에게 서방(西方)을 바르게 하라고 명하니  
상해(上海)에 군사를 내니 일장기가 밝네  
전마(戰馬)가 내달리니 호랑이가 뛰듯 하고  
공군이 폭격하니 매가 드날리듯 하네  
잔적(殘敵)은 바람따라 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고  
거민(居民)은 술 들고 거의 환영하네  
북과 남에서 항복하지 않음이 없고  
평화세계 만년동안 성하리라

天命吾皇正四方  
出師上海日旗彰  
戰馬馳驅如虎躍  
空軍爆擊似鷹揚  
殘敵從風皆潰走  
居民持酒幾歡迎  
自北自南無不服  
平和世界萬年昌  
강서 최용관(崔用觀)

명을 받들고 하루아침에 원정(遠征)에 다다르니  
무부(武夫) 헌걸차니 나라지키는 믿음직한 인물일세  
황해(黃海) 건너 나머지 거듭 상해(上海)를 건너고  
북경(北京)을 평정후 또 남경(南京)이네  
거의 수루(戍樓)에서 노고의 힘을 다하고  
장차 인각(麟閣)에 그려지는 대공명(大功名)일세  
임금이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던 군사가 돌아오는 날  
만리 강산을 뜻 안에 이루었네

奉命一朝赴遠征  
武夫赳赳是干城  
黃海涉餘重上海  
北京定後又南京  
幾盡戍樓勞苦力  
將圖麟閣大功名  
忠君報國軍還日  
萬里江山意內成  
양덕(陽德) 김대봉(金大鵬)

노구사변(蘆溝事變)이 남경(南京)에 이르니  
행하는 곳마다 승전 북소리이네  
동방에 우리 일본 대황제  
하늘에 명을 받아 하늘에 감사하니 만만세이네

蘆溝事變至南京  
行事到處勝戰鼓  
東我日本大皇帝  
受命拜天萬萬歲  
양덕 이재교(李在校)

당시 사변(事變)은 올해 가을인데  
많은 백성 다 걱정하네  
축하 소리 온천지에 진동하고  
승리의 북소리 각 도주(道州)에 장하게 울리네  
시골집은 우리러 본국(本國)에 운을 칭송하고  
정각(政閣)에서는 승전후(勝戰侯)를 지어 봉하네

當時事變此年秋  
萬億蒼生皆所憂  
祝賀聲動全天地  
勝鼓壯鳴各道州  
村家仰頌本國運  
政閣巽封勝戰侯

요사이 움직이는 백성들 다투어 춤을 추고  
나라와 관(官) 태평외에 무엇을 구하라

近間蠡民爭蹈舞  
國泰官平外何求  
양덕 김해현(金海鉉)

일 없는 때에 어찌 일이 있는 때인가  
본군(本軍)은 오직 홀로 크게 시운을 타네  
눈 쌓인 북쪽 변방 요새 꽃처럼 날리는 땅이요  
동방에서 부는 바람이 풀을 누이는 때이네  
달은 마땅히 그믐밤에 끝내는 이지러지는 이치이니  
해가 아침 이슬을 침노해서 마를 때를 기다리네  
문(文)과 무(武)를 같이 씌운 장기의 술책을 길게 하려 함이요  
장사(將士)는 급히 해서 때를 잃지 말아야 하네

無事時何有事時  
本軍惟獨大乘時  
雪增北塞舞花地  
風自東方偃草時  
月當晦宵終缺理  
日侵朝露待晞時  
並庸文武長術  
將士急爲勿失時  
양덕 한병선(韓秉善)

때여! 때는 운을 만나는 때요  
승승장구(乘勝長驅)하여 면밀히 쓸 때이네  
동쪽 해 따뜻하니 눈 녹을 조짐이요  
큰 바람 이니 구름 흩어질 때이네  
군사들 만리장성에서 위엄 있는 형세요  
장군 힘 여러 사람보다 홀로 뛰어날 때이네  
벌떼처럼 떼지어 일어나는 군대는 잠식(蠶食)<sup>363</sup>할 계책이요  
천하를 횡행(橫行)하는 강적을 막을 때이네

時哉時則運逢時  
乘勝長驅精用時  
東日溫兮消雪兆  
大風起矣散雲時  
兵威萬里長城勢  
將力千人獨步時  
蜂起之軍蠶食計  
橫行天下禦強時  
양덕 최인돈(崔仁敦)

북쪽과 남쪽에서 정벌하며 우리 무력 드날리고  
평화주의(平和主義) 바르고 당당하네  
진지 앞에서 큰 칼로 휘젓는 서리찬 기운  
성 위에 높이 솟은 깃발 일장기에 빛나네  
이미 인화(人和)와 지리(地利)를 얻었으니  
원래 나라 부강한데 또 병력이 증강되네  
어둡고 완악함을 잊은 저들을 어떠한가  
천리(天吏)<sup>364</sup> 앞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네

北伐南征我武揚  
平和主義正堂堂  
陣頭大劍橫霜氣  
城上高旗耀日章  
已得人和兼地利  
元來國富又兵強  
冥頑罔覺何如彼  
天吏之前莫敢當  
강서(江西) 김보건(金輔健)

363) 蠶食 : 稍蠶食之. 차츰차츰 침노하여 개먹어 들어감.

364) 天吏 : 하늘의 도리를 잘 지키는 덕망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임금을 말함.

이 일에 황군(皇軍)은 정의(正義)가 많고  
 동양 일국(一局)은 평화를 원하네  
 성을 공격하는 곳마다 일장기 드날리고  
 나라 위해 사람마다 칼(霜劍)<sup>365</sup>을 가네  
 이미 황하(黃河)를 건너고 무기(武氣)를 드날리고  
 다시 남해(南海)를 통하여 개선가를 연주하네  
 세력은 파죽(破竹)<sup>366</sup>같이 연이어서 계속 이기니  
 우두커니 중원(中原)을 석권해 가는 것을 보네

此舉皇軍正義多  
 東洋一局要平和  
 攻城處處日旗揭  
 爲國人人霜劍磨  
 已渡黃河揚武氣  
 更通南海奏凱歌  
 勢如破竹連乘勝  
 屹看中原席捲過  
 평양 노득주(盧得柱)

황군(皇軍)이 닿는 곳마다 공 세움이 많고  
 원하는 곳에 사람마다 꼭 맞게 화합함이 있네  
 관산(關山) 만리 형세에 적이 없고  
 역사(乘史)에 오래도록 이름 닳지 않겠네  
 서리 온 후 황량한 성에는 우적(羽翟)이 가라앉고  
 바람 앞에 넓은 들에서 개선가를 연주 하네  
 열강(列強)은 괴이하다 지목하지 말기를 부탁하니  
 평화 누림을 보장하는 것을 어찌 지나치다 하랴

皇軍觸處建功多  
 要在人人一致和  
 關山萬里勢無敵  
 乘史千秋名不磨  
 霜後荒城沈羽翟  
 風前曠野奏凱歌  
 寄語列強休指怪  
 享平保障豈云過  
 평양 선우인여(鮮于仁汝)

청나라 말에 여러 영웅(群雄)들이 다투어 할거(割據)<sup>367</sup>하니  
 동족을 배척하고 다른 나라는 연결하고 스스로의 공이라 하네  
 극동(極東) 정세(情勢)는 어느 때나 안정될까  
 천황의 명을 받은 맹수(豺獠)가 잠시 계몽(啓蒙) 시키네

清末群雄爭割據  
 排同聯異自爲功  
 極東情勢何時定  
 帝命豺獠暫啓蒙  
 대동(大同) 황득삼(黃得三)

◆ 평안북도(平安北道)

어리석은 중국(支)의 좋지 아니한 행동(穢德)은 하늘의 뜻을 싫어하니  
 우리 황군(皇軍)으로 하여금 시험삼아 출정(出征)하게 했네

愚支穢德厭天意  
 使我皇軍試出征

365) 霜劍 : 霜刀. 날이 시퍼래서 희게 번득이는 칼.

366) 破竹 : 破竹之勢.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당당한 기세.

367) 割據 : 땅을 나누어 차지하고 지배함.

이길 가망성(勝算)은 꼭 충용(忠勇)을 따라서 얻게 되니  
 화근의 싹은 스스로 폭위(暴威)에서 생기네  
 우리 지금 삼로(三老)의 말은 인륜의 도리를 따르는데  
 너희는 한 사람의 남자(匹夫)의 죄도 널리 미쳤네  
 천하에서 본래 인자(仁者)에게는 적이 없으니  
 대동(大東) 일국(一局)이 비로소 평화라네

勝算必從忠勇得  
 禍萌自以暴威生  
 我今三老言名順  
 爾亦匹夫罪貫盈  
 天下本無仁者敵  
 大東一局始和平  
 정주(定州) 최중절(崔重節)

장사(將士)가 적진중에서 위세를 떨치니  
 겁먹은 병사들 패해 달아나 지키던 성 비었네  
 연이어 이겨 북 울리고 깃발 돌아오는 날에  
 수많은 백성들 큰 공을 축하하네

將士威振敵陣中  
 怯兵敗走守城空  
 連勝鳴鼓旋旗日  
 億萬黎民賀大功  
 정주 김석하(金錫夏)

중국 남쪽과 북쪽으로 석권하니  
 쓸모 있는 백년의 우리 갑옷 입은 병사이네  
 매일 보도하는 글에 새로 활력 있는 낮인데  
 여러 집에서는 향과 축문(香祝)에 대환영이네  
 하늘과 사람이 군의 기밀(機密)을 돕고  
 문(文)과 무(武)로 같이 나가니 국체(國體)가 밝네  
 공훈은 모두 여러 장사(壯士)에게서 비롯되니  
 천추(千秋)에 사필(史筆)<sup>368</sup>은 이름을 특히 기록하겠네

支南支北捲如席  
 有用百年我甲兵  
 每日報章新活畫  
 萬家香祝大歡迎  
 天人所佑軍機密  
 文武並行國體明  
 勳業總由諸壯士  
 千秋史筆特書名  
 정주 이정방(李正芳)

황군(皇軍)이 큰 바다 동쪽을 확보하려하니  
 성토(聲討)하는 잔흉(殘凶)들 맹호(猛虎)와 같네  
 손으로 산하(山河)를 주재하듯 하니 강적이 없고  
 가슴에 별들을(星斗) 망라하니 공중을 잘도 나네  
 적을 섬멸하려는 처음의 마음은 원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요  
 교전(交兵)의 장한 뜻과 일은 공평함에서 나오네  
 만천리(萬千里) 절의(節義)가堂堂하니  
 문무(文武) 겸한 재주는 또한 궁하지 않으리라

皇軍欲保大洋東  
 聲討殘凶猛虎同  
 手宰山河無強敵  
 胸羅星斗善飛空  
 殲賊初心元不讐  
 交兵壯志事由公  
 堂堂節義萬千里  
 文武全才也不窮  
 자성(慈城) 박희명(朴禧炳)

368) 史筆 : 史官이 쓴 말로 기재한 筆法.

우리 천황의 도(道)와 덕(德)은 동서에 뻗치고  
삼군은 육군과 해군과 공군으로 나뉘어 파견하네  
폭력(暴戾)<sup>369</sup>는 휘두르는 칼 아래 응징되니  
치안(治安) 회복됨을 술잔 앞에서 대하네  
당당한 보무(步武)에 큰 일을 얻었고  
늠름한 위풍(威風)에 대공을 이뤘네  
높이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날  
인각에 상을 그려 넣어 영웅을 표창하네

吾皇道德巨西東  
分派三軍陸海空  
暴戾膺懲揮劍下  
治安回復對樽前  
堂堂步武得優勞  
凜凜威風成大功  
高唱凱歌還國日  
畫圖麟閣表英雄  
영변(寧邊) 김유용(金有用)

보도를 들은 사람은 다 근심이 가득한데  
황군(皇軍)은 잠시도 틈이 없네  
화창한 바람과 빛나는 해에 요사한 기운 일어나니  
인의(仁義)의 갑옷과 깃발 ?비처럼 어지럽네  
거의 한번 노하니 천하가 평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에는 천하에 홀로 감을 수궁하네  
동양은 다 문명화(文明化)로 돌아가리니  
이르는 곳마다 변문(邊門)에 어찌 잠글 것인가

聞報人皆愁滿顏  
皇軍不得暫時閒  
和風光日妖氛起  
仁甲義旗雨斑  
庶幾一怒安天下  
肯許獨天亂世間  
洋東歸盡文明化  
到處邊門何用關  
정주 이경주(李瓊柱)

적을 쓸어내어 어느 날에나 용안(龍顏 : 임금 얼굴)이 풀릴까  
백만 왕의 군대는 잠시도 틈이 없네  
오래 살기를 바라는 시골집 문에 깃발 붉게 드날리네  
혼을 위로하는 사막에 피 흘러 얼룩지고  
군용(軍容)은 위엄 있게 빛나 천하에 떨치네  
제덕(帝德)과 인성(仁聲)은 세간에 퍼고  
안석에 기대어 이번 일을 헤아리니  
내 서관(西關)<sup>370</sup>에 쓸모없는 노인인 것이 부끄러워라

掃除何日解龍顏  
百萬王師不暫閒  
祝壽村門旗揭赤  
慰魂沙漠血流斑  
軍容威赫振天下  
帝德仁聲舖世間  
依枕思量今番事  
愧吾無用老西關  
정주 김명직(金命稷)

사변(事變) 소식 들려오니 수심이 얼굴에 가득한데  
국민 일치해서 틈이 용납되지 않네

事變聞來愁滿顏  
國民一致不容閒

369) 暴戾 : 행동이 人道에 벗어나게 모질고 사나움.  
370) 西道.



싸움마다 군인의 충의(忠義)는 크고  
분주한 정마(征馬) 털 색은 어지럽네  
새 날 듯한 비행기는 해상(海上)에서 오고  
용 같이 달리는 차는 구름사이에서 나오네  
연이어 이기는 소식 누가 아는지  
오늘의 희망은 개선관이네

戰戰軍人忠義大  
蕭蕭征馬色毛斑  
如鷲飛機來海上  
似龍走車出雲間  
連勝消息誰知否  
今日希望凱旋關  
정주 이창훈(李昌垣)

같은 종족에 같은 글을 쓰는 한 좋은 얼굴에  
어찌 서로 싸워 서로 좋은 사이가 되지 못하나  
군병이 가는 곳에 북소리 진동하고  
칼싸움에 칼 휘두를 때 핏빛에 얼룩지네  
아! 우리에게 오늘 전쟁이 일어나니  
저들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업신여겼네  
점령한 주역(州域)이 어찌 족할까  
물과 불의 위험에서 백성을 건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일세

同種同文一好顏  
胡爲相擊不相間  
軍兵行處鼓聲震  
劍戰揮時血色斑  
嗟吾今日戰爭起  
由爾多時慢侮間  
占領州城何所足  
拯民水火是吾關  
정주 정종하(鄭宗夏)

정벌하는 곳에 반드시 일장기를 걸고  
전쟁에 이기고 공격해 얻어 득의한 때이네  
피를 낸 사람의 계책을 씀은 신도 예측하기 어렵고  
원수의 병법(韜略)<sup>371</sup>을 누가 능히 알리오  
온 세계를 조종할 날 멀지 않았으니  
북지를 바로 잡아 합할 날 어찌 더디랴  
하늘과 육지에서 아울러 다투어도 하나도 실수가 없으니  
우리 군은 기뻐하고 적군은 슬퍼하네

所征必揭日章旗  
戰勝攻取得得意  
謀士運籌神莫測  
元帥韜略孰能知  
宇內操縱猶未久  
北支匡合豈可遲  
空陸並爭無一失  
我軍歡樂敵軍悲  
정주 백원제(白元濟)

산하는 길게 두른 옛 모습인데  
국제 분쟁에 한가롭지 않네  
북지 세월(日月)은 포의 연기 속에 어둡고  
동아(東亞)의 천지(乾坤)는 피비린내로 얼룩졌네  
성이 함락되고 폭탄을 던지는 한 소리속에

河山長帶舊容顏  
國際紛爭不等閒  
北支日月砲煙昏  
東亞乾坤腥血斑  
城陷投爆一聲裡

371) 韜略 : 六韜와 三略. 전하여 兵法.

공을 세우라 삼고(三鼓) 간에 군을 재촉하네  
 적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웅비(熊羆)<sup>372</sup>은 웃음 머금고 보니  
 벌 같고 개미 같은 적의 군진(軍陣)은 무슨 상관이라

功立催軍三鼓間  
 敵愾熊羆含笑看  
 蜂軍蟻陣有何關  
 정주 이경주(李瓊柱)

모진 바람이 부는 날은 근심스런 얼굴로 대하나  
 충의(忠義) 당당하니 잠시도 틈이 없네  
 군영에 버들 그늘 짙고 봄 풀 푸르는데  
 피리에 매화 향기 들꽃 흐드러져 움직이네  
 용과 뱀의 큰 못 우레에 두려울 때  
 호랑이 표범 깊은 산 안개 속에서 자네  
 무적의 책략은 인의(仁義)이니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는 다시 무슨 관계되랴

獯風吹日對愁顏  
 忠義堂堂暫不閒  
 營柳陰濃春草綠  
 笛梅香動野花斑  
 龍蛇大澤喧雷際  
 虎豹深山宿霧間  
 無敵謀猷仁義是  
 天時地利更何關  
 정주 조은석(趙殷錫)

반도(半島) 우리 다 기쁜 얼굴인데  
 하늘 끝과 땅의 축은 어렵게 돌아가네  
 육지와 하늘에서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의 큰 운을 빌고  
 이독(伊獨)<sup>373</sup> 동맹은 삼혈(敵血)<sup>374</sup>에 얼룩졌네  
 개선가는 말의 논의 바깥에서 정해지는 것이니  
 승리는 앞서 지휘하는 사이에 있네  
 장안(長安)의 조각달 천고(千古)에 비치는데  
 수자리에 대한 정을 옥관(玉關)<sup>375</sup>에서 슬프게 하지 않네

半島吾人皆喜顏  
 乾端坤軸轉回艱  
 陸空出陣祈鴻運  
 伊獨同盟敵血斑  
 奏凱定從言議外  
 制勝先在指揮間  
 長安片月照千古  
 莫使戍情悲玉關  
 정주 석영주(石榮柱)

오직 우리 삼군이 무적의 짝이니  
 중원(中原) 장졸들 근심에 매우 위급하네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행함에 민심이 기뻐하고  
 약한 자를 돕고 강한 자를 제압하니 국권(國權)이 넉넉하네  
 운대(雲台) 위에 난새 통소와 봉황 피리요

惟我三軍無敵儔  
 中原將卒焦眉愁  
 施仁行義民心悅  
 扶弱制強國權優  
 鸞簫鳳管雲台上

372) 熊羆 : 熊羆之士. 곰 같은 장사.

373) 이탈리아와 독일.

374) 敵血 : 예전에 서로 맹세할 때 짐승의 피를 마시거나 입가에 바르던 일.

375) 玉關情 : 흉노 지방으로 遠征가 있는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情思. 옥관은 한나라와 흉노와의 국경에 있는 關門의 이름.

무(武)로 씨줄을 삼고 문(文)으로 날줄을 삼으니 날로성한 가을이네  
천황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해외 사신들에게는 면류(冕旒)를 드리우네

武緯文經日盛秋  
天顏有喜受朝賀  
海外使臣垂冕旒  
정주 박회근(朴晦根)

태평한 동쪽은 옳은 길로 같이 하는데  
무슨 일로 북쪽 하늘에는 살기있는 바람이 부는가  
왕의 군대 이르는 곳마다 단호(簞壺)<sup>376</sup>가 차고  
의로운 군대 한 대장기에 성곽이 비네  
깨뜨리기 산 아래에서 새알을 누르듯 하고  
섬멸하기 불 사르는데 기러기 털 같이 하네  
총 뒤에서 정성을 다해 만세를 부르고  
개선 소식 일찍이 서로 통하네

泰東自是軌文同  
何事北天動殺風  
王師所到簞壺滿  
義旅一麾城郭空  
破如雀卵壓山下  
滅若鴻毛焚火中  
銃後輸誠呼萬歲  
凱旋消息早相通  
정주 이경주(李瓊柱)

늠름한 황군(皇軍)의 장한 기개는 같고  
의기(義旗)는 크게 떨쳐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네  
평생 힘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고  
한 번 죽기로 결심한 뜻은 헛되지 않네  
출전한 몸 변방 요새 밖에서 돌아오니  
공을 논하고 상(像)은 화각(畫閣)<sup>377</sup> 중에 있네  
다투어 국기를 들고 맞고 보내고  
바로 이 아득한 한 길로 통하네

凜凜皇軍壯氣同  
義旗大拂北來風  
平生盡力人無敵  
一死決心志不空  
出戰身歸邊塞外  
論功像在畫閣中  
爭把國旗迎而送  
直此遙遙一路通  
정주 김명직(金命稷)

원정가는 사람을 맞고 보내는 것은 내외가 같은데  
태양 깃발<sup>378</sup> 꽃으니 음산한 바람이 걷히네  
북쪽으로 서쪽으로 정벌하는 병사가 물러나니  
공략한 땅과 성 두 귀퉁이가 비네  
나라를 근심하는 가운데 다 개선을 축하하고  
다투어 만세 불러 군중(軍中)을 위로하네  
누가 단사호장(簞食壺醬)<sup>379</sup>하지 않으랴

迎送征人內外同  
太陽旗掃卷陰風  
北征西伐千兵退  
略地攻城兩隅空  
皆祝凱歌憂國裏  
爭呼萬歲慰軍中  
孰非簞食與壺醬

376) 簞食壺漿 :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 전하여 백성이 군사를 환영하여 음식을 주어 위로함을 말함.

377) 麒麟閣.

378) 일장기.

이로써 왕의 군대를 위로하니 마음이 통하네

以慰王師心可通

정주 김창훈(金昌煥)

황군(皇軍)이 북쪽으로 향하는 뜻은 서로 같고  
오랜 시간 목우즐풍(沐雨櫛風)<sup>380</sup> 하였네  
만세 크게 부르는 소리 산악에 울리고  
다투어 단 온나라 깃발 색 공중에 비치네  
차례로 도로에서 식장(食醬)<sup>381</sup>을 드리는 것을 보고  
이는 세상의 성의(誠意)중에서 나온 것이네  
이 행함이 원하는 바 무슨 뜻인지 아니  
아! 저 구주(九州)<sup>382</sup>와 한번 통하고자 하네

皇軍向北志相同  
沐雨多時又櫛風  
大呼萬歲聲振岳  
爭舉國旗色映空  
第看道路食醬進  
是出人間誠意中  
此行所願歟何意  
噫彼九州欲一通

정주 정종하(鄭宗夏)

차를 탄 장졸(將卒) 뜻이 서로 같고  
남녀 환영하는 깃발 바람에 펄럭이네  
왕사(王事)를 이어받음은 일찍이 한결같았고  
민심(民心)이 위로하는 것 또한 헛됨이 아니네  
진치고 머물 때 편안한 성내를 약탈하지 않았고  
지나갈 때 고요한 도시안에는 침략하지 않았네  
이같이 정벌해 나가니 누가 감히 대적하리오  
그래도 위엄있는 명령은 구주에 통하네

乘車將卒志相同  
男女歡迎旗拂風  
王事奉承曾是固  
民心慰勞亦非空  
留屯不奪安城內  
行過無侵靜市中  
如此進征誰敢敵  
然而威令九州通

정주 백경제(白景濟)

의기(意氣) 늠름하여 나가고 물리남이 같고  
환영하는 남녀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이네  
굳게 지닌 날쌔던 군사는 산과 바다를 뚫을 듯하고  
비행기를 사용해 높고 먼 하늘을 찌를 듯하네  
군대 방어를 풀어 나올 때  
내달리는 병사와 군마가 수고스럽게 애쓰일세  
때에 천운(天運)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니

意氣凜凜進退同  
歡迎男女拂旗風  
堅持輕銳穿山海  
使用飛行衝太空  
解出軍隊防禦際  
驅馳兵馬苦勞中  
時哉天運歸吾國

379) 簞食壺漿: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 전하여 백성이 군사를 환영하여 음식을 주어 위로함을 말함.

380) 櫛風沐雨: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비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바깥에서 분주히 돌아다니며 고생함을 이룸. 風櫛雨沐.

381) 簞食壺醬.

382) 중국.

한 종의 서양은 다시 통하지 못하네

一種西洋不復通

정주 탁희열(卓僖烈)

당당한 대의(大義)에 누가 같이함이 있을까  
늠름하고 열렬한 위엄 눈서리 바람 같네  
장사(壯士)가 창을 휘두르니 해가 돌아오고  
뛰어난 군대는 칼을 들고 창공에 맹세하네  
사람들은 다 대그릇에 담은 밥(簞)<sup>383</sup>을 삼한(三韓)<sup>384</sup> 바깥에 보내는데  
누군들 만국(萬國) 중에 병에 넣은 장(壺 : 壺醬)으로 맞지 않으랴  
인자(仁者)에게는 원래 적수(敵手)가 없으니  
승리 소식 다시 빨리 서로 통하기를 원하네

堂堂大義有誰同  
凜烈威如霜雪風  
將士揮戈回白日  
雄軍提劍誓蒼空  
人皆簞送三韓外  
孰不壺迎萬國中  
仁者元來無敵手  
捷音更願速相通

정주 홍순택(洪淳澤)

군인을 환송하는 데는 아래 위가 같고  
깃발 들고 만세 부르니 맑은 바람에 나부끼네  
백성을 구하려는 심지(心志)는 황양(黃壤 : 黃泉)에 기반을 두었고  
애국정신은 푸른 하늘에 통하네  
적을 토벌하는 경륜(經綸)은 장수 위에서 비롯하고  
적을 사로잡는 기구는 병사 중에 있네  
하나도 침탈(侵奪)하지 않고 정벌하는 곳에  
깊이 환영하니 사해(四海)가 통하네

歡送軍人上下同  
旗呼萬歲拂清風  
救民心志盤黃壤  
愛國精神徹碧空  
討賊經綸由將上  
擒他器具在兵中  
一無侵奪行征處  
到底歡迎四海通

정주 백세욱(白世煜)

칼 갈기 10년 득의(得意)한 가을  
승세를 타고 폭탄이 쏟아지는 곳에 뛰어 들었네  
만길이나 되는 기세 높으니 천지가 좁고  
한 함성 울리니 벼락과 우레가 움직이네  
용감한 황군(皇軍)은 숲에서 나오는 호랑이 같고  
불쌍하다 중국 적은 칼 끝머리에 있네  
오직 우리 성군(聖君) 큰 복에  
승전 보고는 다음날에 임금 앞에 보내지네

磨刃十年得意秋  
乘勝突入爆彈流  
萬丈氣高天地狹  
一聲喊動霹靂浮  
勇敢皇軍林出虎  
可憐支敵劍端頭  
惟我聖君洪福下  
捷書越日御前投

정주 안병흡(安秉洽)

383) 簞食.  
384) 우리나라.

대그릇에 담은 밥(簞食)을 보내고 맞는 사녀(士女)는 같고  
 깃발(旌旗)은 회오리바람에 흔들리며 가을바람에 펄럭이네  
 구름 사이 북두칠성은 천고(千古)에 의연하고  
 바라본 남산(南山)은 그리 높지 않은 하늘가이네  
 고국 임천(林泉)을 떠난 후에  
 다른 지방 풍토(風土)에 위안중이네  
 다른 날에 개선가는 오늘 같으니  
 기쁜 마음은 스스로 통한다고 말하지 말라

簞食送迎士女同  
 旌旗飄拂動秋風  
 雲間北斗依千古  
 望裡南山際半空  
 故國林泉經別後  
 殊方風土慰安中  
 凱歌他日猶今日  
 莫道歡情不自通  
 정주 조은석(趙殷錫)

왕이 이에 버럭 화를 낸 것이 백성과 같으니  
 북쪽과 남쪽을 응징하고 무풍(武風)에 움직이네  
 해군과 공군과 육군 부대가 진격하니 적이 없고  
 단사호장(簞食壺漿)<sup>385)</sup>은 차고 비워지지 않네  
 몸은 비록 가야금과 책이 있는 띠로 지붕을 인 집에 있으나  
 마음은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있네  
 마음으로 차잔을 바치고 맞고 보내는 곳에  
 만세소리 네거리가 통함을 기쁘게 듣네

王師赫怒與民同  
 膺北懲南湯武風  
 海航陸隊進無敵  
 簞食壺漿盈不空  
 身雖茅屋琴書上  
 心是戰場矢石中  
 情獻茶杯迎送處  
 喜聽萬歲四衢通  
 정주 백창욱(白昌煜)

국민의 성의(誠意)는 군대와 같고  
 도처에 환영하는 깃발 바람에 흔들리네  
 군량을 운반하는 기적소리는 천리에 들리고  
 폭탄을 실은 비행기는 높지 않은 하늘에 떠있네  
 저들 땅 여러 관내를 생각하면  
 장차 함락되어 우리 군의 줄지어선 진영중일 것이네  
 단사호장(簞食壺漿)이 따르는 곳으로 나아가니  
 황은(皇恩)은 만리에서 절로 서로 통하네

國民誠意與軍同  
 到處歡迎旗拂風  
 運糧汽笛聞千里  
 載爆飛機浮半空  
 可想彼地諸關內  
 將陷吾軍列陣中  
 簞食壺漿隨處進  
 皇恩萬里自相通  
 정주 정학룡(鄭學龍)

온 나라 영토(率土)<sup>386)</sup>에 누가 왕의 일과 같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겠는가  
 홀로 어질게 다른 고장 풍습에 힘써 일하고(鞅掌)<sup>387)</sup>

率土孰非王事同  
 獨賢鞅掌異鄉風

385) 簞食壺漿 :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 전하여 백성이 군사를 환영하여 음식을 주어 위로함을 말함.

386) 率土 : 온 나라의 영토 안. 率土之濱

387) 鞅掌 : 물건을 등에 지고 또 손에도 든다는 뜻으로 바쁘게 힘써 일하는 모양. 王事鞅掌(詩經).

농부와 상인이 모여 정벌에 적이 없음을 축하 하니  
 공리(工吏)는 정성을 다해 배로 실어 나르는데 비우지 않네  
 단사호장(簞食壺醬)을 맞고 보내는 곳에  
 어린이와 노인(垂髫戴白) 춤추고 노래하는 중이네  
 의로운 깃발은 서쪽 하늘 돌아보라 가리키고  
 만리에 어떤 어려움에도 지기(志氣)가 통하네

農商合祝征無敵  
 工吏竭誠漕不空  
 簞食壺醬迎送處  
 垂髫戴白舞歌中  
 義旗所指天西顧  
 萬里何難志氣通  
 정주 백낙하(白樂夏)

명을 받든 대군(大軍)이 부역(赴役)하는 것은 같고  
 출전하는 깃발 가을 바람에 펄럭이네  
 참된 마음(赤心)은 견고하기 단철(丹鐵)에 견주고  
 푸른 기운 엄숙한 위풍은 푸른 하늘과 같네  
 쉴 때는 읍내에 머물러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갈 때는 차안에 앉아 빼앗음이 없네  
 임금을 위하여 애국하고 백성 일에 극진하니  
 남녀 환영하여 아래 위가 통하네

奉命大軍赴役同  
 出戰旗幟拂秋風  
 赤心堅固比丹鐵  
 青氣嚴威如碧空  
 休不侵漁留邑內  
 行無奪取坐車中  
 爲君愛國極民事  
 男女歡迎上下通  
 정주 백낙부(白樂富)

헌걸찬 무부(武夫)는 다같이 명을 받들어  
 차를 타고 바로 북쪽으로 가 가을 바람에 빗질 하네(고생하네)  
 전쟁은 차례로 앞길에 늘어서 있고  
 깃발은 나부끼며 높지 않은 하늘에 펄럭이네  
 애국정신을 세상에 펼치고  
 임금을 위한 성의(誠意)은 가슴속에 가득찼네  
 조금도 침범함이 없이 거쳐 간 곳에는  
 만세 환호성에 아래 위가 통하네

赳赳武夫奉命同  
 乘車直北櫓秋風  
 干戈秩秩張前道  
 旗幟飄飄拂半空  
 愛國精神宣世上  
 爲君誠意滿胸中  
 秋毫不犯經過處  
 萬歲喚聲上下通  
 정주 정학선(鄭學善)

군사 행렬은 옛과 같고  
 전시는 바람에 놀라지 않네  
 절을 맞이하니 두각(頭角)이 무너지는데  
 군사를 보내는 든 손은 비워졌네  
 화목한 기운은 치안의 힘인데  
 모든 즐거움 중에 친한 정이네  
 북방에 인화(仁化)가 미치니

師行與古同  
 紉市不驚風  
 迎節崩頭角  
 送軍舉手空  
 和氣治安力  
 親清衆樂中  
 北方仁化及

천하에 국위(國威)가 통하네

天下國威通

정주 엄창섭(嚴昌燮)

출정(出征)하는 의복은 같고  
깃발은 가을 바람에 펄럭이네  
왕사(王事)는 분주해도 소금이 아니고  
행군에 짊어지는 것은 비지 않네  
맹렬한 소리는 나라 안(海內)에 진동하고  
날카로운 기세는 가슴속에 차있네  
바로 북쪽에 간 병졸을  
환영하는 데는 상하가 통하네

出征衣服同  
旗幟拂秋風  
王事奔靡鹽  
軍行擔不空  
猛聲振海內  
銳氣滿胸中  
直北天兵卒  
歡迎上下通

정주 엄기승(嚴基昇)

백만 황군(皇軍)의 의기(義氣)는 같고  
북 치는 소리 위풍(威風)에 들리네  
먼저 달리는 철함(鐵艦)은 연해(沿海)를 봉쇄하고  
뒤에서 쏘는 뇌금(雷禽)은 높이 않은 하늘에 진동하네  
대그릇에 담은 밥(簞食) 가지고 환영하는 많은 사람속에  
산호(山呼)<sup>388</sup>는 일장기(旭旗) 속에 축하하며 보내는 중에 있네  
전군을 지휘하는 사람(總戎)의 오진(烏陣)을 모두 칭찬하고 기뻐하니  
이들 가는 것은 모름지기 국운(國運)을 통하게 하겠네

百萬皇軍義氣同  
淵淵伐鼓動威風  
先驅鐵艦封沿海  
後放雷禽震半空  
簞食歡迎入海裡  
山呼祝送旭旗中  
總戎烏陣共稱說  
此去須令國運通

정주 방명훈(方明勳)

우리 임금 장사(將士) 한마음으로 같은데  
변방 북풍에 깃발(旌旗) 높이 날리네  
북소리 진동하는 곳에 군의 위용 장하고  
서슬이 시퍼런 칼날(霜刃) 휘두를 때 적 진영은 비네  
용도(龍韜)<sup>389</sup>를 누가 연진안에서 시험하는가  
국세(國勢)가 장차 우주 중에 떨치겠네  
어른과 아이들(戴白垂髻) 맞고 보내는 곳에  
나란히 무운(武運)을 빌기 만년(萬年)을 통하네

吾君將士一心同  
高拂旌旗塞北風  
鼓聲振處軍容壯  
霜刃加時敵陣空  
龍韜誰試烟塵裏  
國勢將振宇宙中  
戴白垂髻迎送處  
齊祈武運萬年通

정주 김원묵(金元默)

388) 山呼 : 천자를 위해 만세를 부름. 漢나라 武帝가 친히 嵩山 위에서 제사를 지낼 때 臣民이 만세를 삼창한 데서 나온 말.

389) 龍韜 : 兵書인 六韜의 第三篇 이름. 전하여 兵書 또는 兵法.



북으로 진군하는 천황 군대 우리 동방에서 뛰어나니  
환영하는 대그릇 밥(簞食) 한흥(漢興)과 같네  
황월(黃鉞)<sup>390</sup>삼군은 다 날카로운 기세요  
황화(皇華)<sup>391</sup> 만리에 위풍(威風)을 떨치네  
사녀(士女)는 차를 받들어 접대하니  
사람 놀라게 늘어선 군진은 물이 통하기 어렵네  
오랑캐 평정하고 어느 날에 개선가 부르며 돌아오나  
일억 백성은 그렇게 되기를 빌고 바라네

進北皇師雄我東  
歡迎簞食漢興同  
黃鉞三軍皆銳氣  
皇華萬里振威風  
士女奉供茶接待  
警員列陣水難通  
平胡何日凱歌旋  
一億生靈祝望中  
정주 박회근(朴晦根)

역전에 맞고 보내는 많은 사람들은 같고  
천 물(千水)과 천개의 산봉우리를 끊고 가로지르네  
종과 북 바람 부는 소리 땅을 진동하고  
깃발(旌旗) 번개 번쩍이며 공중에 나부끼네  
교룡(蛟龍)은 응당 하늘 위를 날 것이요  
땅강아지와 개미(螻蟻)가 어찌 굴 속으로 도망할 수 있으랴  
태평하다는 조서(詔書)를 기다려 귀국하는 날  
황은(皇恩)은 대주(大洲)<sup>392</sup>에 미치고 통하네

驛頭迎送萬人同  
斷橫千水又千峰  
鍾鼓風吹聲動地  
旌旗電閃色飄空  
蛟龍應是飛天上  
螻蟻豈能逃穴中  
待詔太平歸國日  
皇恩遠及大洲通  
정주 석창호(石昌瑚)

의로운 깃발 높이 들어 높지 않은 하늘에 떨치고  
동양 패업(霸業)<sup>393</sup>은 이 행동 중에 있네  
크게 만세 세 번 부르는 소리 속에  
단지 화혼(和魂) 축하하는 많은 소리가 같다네

高舉義旗拂半空  
東洋霸業此行中  
崇呼萬歲三聲裏  
但祝和魂億兆同  
정주 석창연(石昌璉)

새로 보내고 보낸 사람 맞는 기쁜 마음은 같고  
서쪽과 동쪽에서 만세 부르는 소리 나네  
적장(敵將) 계책은 궁하고 꾀로 피할 때  
우리 군은 뜻대로 앞으로 향하는 중이네  
여러 병사 용감히 전진하니 산과 들이 흔들리고

送迎新舊歡心同  
萬歲呼聲西又東  
敵將計窮謀避際  
我軍意得向前中  
衆兵勇進搖山野

390) 黃鉞 : 금으로 장식한 도끼. 天子가 정벌할 때 씀.

391) 皇華 : 皇皇者華. 『詩經』小雅.

392) 대륙.

393) 천하를 다스리는 사업.

큰 기(大纛)는 높이 매달려 높지 않은 하늘에 나부끼네  
다투어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날  
북지 일대는 위풍(威風)에 진동하네

大纛高懸飄半空  
爭呼凱歌還國日  
北支一帶振威風  
정주 안봉빈(安鳳彬)

붉은 해 동쪽에서 떠오르니 이매(魑魅)<sup>394</sup>가 놀라고  
천황의 위엄 먼저 북경성(北京城)에서 떨치네  
비행기 소리 내며 하늘 높이 가고  
폭발하는 폭탄 소리 땅을 흔들고 울리네  
하루(十二時)가 어찌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리 바깥에서 또 가맹하네  
동양이 의지하고 엎드림은 이 거사에 있으니  
적의 장수는 머리 숙이고 화평을 구하네

紅日東昇魑魅驚  
皇威先振北京城  
飛行機笛掀天走  
爆發彈雷動地鳴  
十二時何非愛國  
三千里外又加盟  
東洋依伏在斯舉  
敵將低頭求和平  
정주 안봉빈(安鳳彬)

진영(轅門)에 높이 드날리는 출정(出征) 깃발  
비내리듯이 천황 군대에게는 가장 때를 얻었네  
묘한 계책을 녀에 사람들 앞 다투어 축하하고  
적을 제압하는 기이한 계략은 귀신도 알지 못하네  
열강은 손 거두고 물러나기 응당 빠른데  
원수(元帥)는 승리한 공 바치기 더디지 않네  
멀리서 대군(大軍) 개선하는 날을 생각하니  
동양 신하와 백성(臣庶)은 영원히 슬픔이 없으리

轅門高揭出征旗  
如雨皇師最得時  
運籌妙計人爭賀  
制敵奇謀鬼莫知  
列強斂手退應速  
元帥獻功捷不遲  
遙想大軍旋凱日  
東洋臣庶永無悲  
정주 최구락(崔龜洛)

오직 우리 천황의 군대가 가장 막강하고  
또한 상서로운 운수는 동방에서 옴을 아네  
밀인(密人)이 불손하니 문왕(文王)이 이에 성을 냈고  
갈백(葛伯)이 먼저 정벌하나 탕(湯王)에게 빛이 있었네  
승리를 다투는 천하에 일찍 계책을 쓰고  
중원(中原)에 착수해서 이제 앞서서 끌어주네  
사인(詞人)<sup>395</sup>은 비록 전술(戰術)을 잘 모른다고 하나

惟我皇軍取莫強  
也知瑞運自東方  
密人不遜文斯怒  
葛伯先征湯有光  
爭雄天下早籌策  
着手中原今啓行  
雖曰詞人迷戰術

394) 魑魅 : 人面獸身의 사람을 잘 흘린다는 네 발 가진 도깨비.

395) 詞人 : 시문을 짓는 사람. 詞客

시의 장구(章句)를 짓는데 충성을 사랑함이 없지 않네

不無忠戀賦詩章

정주 김중은(金鍾殷)

황군(皇軍)의 날래고 굳세고 늠름함은 무지개 같고  
뜻을 굳게 하고 몸을 죽여 끝내 충성을 다하네  
파목(頗牧)<sup>396</sup> 다시 살아나니 용이 싸우는 기예요  
손오(孫吳)<sup>397</sup> 가 용감히 승리를 다투는데 있는 것 같네  
북지를 평정하기를 약속한 석달  
아홉 나라 연맹을 낮게 보네  
갑옷을 벗고 병장기를 씻고 군사 돌이킨 후에  
임금이 내리는 말씀에 똑같이 크게 공을 봉함을 내린다네

皇軍勇武凜如虹  
志潔身殲竟竭忠  
頗牧復生龍鬪技  
孫吳若在敢爭雄  
北支平定期三月  
九國聯盟視下風  
解甲洗兵班旅後  
恩綸均賜大封功

정주 김의희(金宜熙)

동양 맹주(盟主)는 우리 황국(皇國)이니  
제도(帝道)<sup>398</sup>는 당당하여 열강이 이웃이네  
한 계통으로 오히려 전하니 역사는 멀고  
사방이 동화(同化)되니 문명이 사실이네  
평화 선포하니 당우(唐虞)<sup>399</sup>의 치세요  
어지럽고 폭악한 것을 청소하니 탕무(湯武)<sup>400</sup>의 어짊이네  
빛나는 천황의 군대 개선하는 날  
운대(雲臺)<sup>401</sup>와 인각<sup>402</sup> 그림이 새롭네

東洋盟主我皇國  
帝道堂堂列強隣  
一系尚傳歷史遠  
四方同化文明眞  
平和宣布唐虞治  
昏暴掃清湯武仁  
赫赫皇師凱旋日  
雲臺麟閣畫圖新

정주 김상린(金祥麟)

정병(精兵) 용장(勇將)의 약도(略韜)<sup>403</sup>가 기이하니  
중원(中原)을 농락하는 일국의 바둑이네  
바둑돌 두는 소리 적수가 없으니  
곁에서 보는 사람들 있어도 헤아리지 못하네

精兵勇將略韜奇  
籠絡中原一局碁  
棋子丁丁無敵手  
在傍觀客莫籌之

정주 탁준모(卓濬謨)

396) 頗牧 : 戰國時代 趙나라 名將 廉頗와 李牧.

397) 孫吳 : 春秋時代 兵法家인 孫武와 吳起.

398) 帝道 : 仁義로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의 正道.

399) 唐虞 : 중국 陶唐氏와 有虞氏. 堯舜 시대를 말함.

400) 湯武 : 중국 殷나라의 湯王과 周나라의 武王.

401) 雲臺 : 後漢 明帝 때 追念하기 위한 功臣 28인의 像을 걸어 놓은 곳.

402) 麒麟閣 : 前漢의 武帝가 麒麟을 얻었을 때 건축한 樓閣. 宣帝가 공신 11명의 像을 그려 閣上에 걸었음.

403) 略韜 : 六韜三略. 전하여 兵法. 兵書.

천하 무쌍의 제국(帝國) 병사  
 북지가 겨우 평정되니 외이(外夷 : 오랑캐)가 놀라네  
 저들은 다 용렬한(碌碌)한 천노(千奴)의 마음이요  
 우리는堂堂한 만리성(萬里城)이네  
 몇 곳에 깃발이 드날리고 간우(干羽)<sup>404</sup> 춤을 추는데  
 네거리에 개선가를 연주하며 나라 태평을 축하하네  
 신민(臣民)은 다시 당우(唐虞)<sup>405</sup>의 전성을 보는 듯하고  
 멀리서 남산의 해가 서울을 우리러 봄을 축하하네

天下無雙帝國兵  
 北支纔定外夷驚  
 彼皆碌碌千奴膽  
 我是堂堂萬里城  
 幾處揚旗舞干羽  
 四街奏凱賀升平  
 臣民復觀唐虞盛  
 遙祝南山日望京  
 정주 김상은(金相殷)

황군(皇軍)이 폭악한 적을 베어 천시(天時)에 응하니  
 남북 양 중국에는 일장기가 빛나네  
 땅과 성을 공략한 것은 본뜻이 아니요  
 백성을 불타는 곳에서 구해내고 빠진 곳에서 건져낸 것이 왕의 군대라네  
 정치로는 만주국(滿洲國)을 승인하고  
 문화로는 부자사(夫子祠)<sup>406</sup>를 숭배했네  
 가엾도다 인(仁)을 이룬 여러 장사(將士)여  
 다른 해 인각에서 으뜸 공일 자 누구인가

皇軍誅暴應天時  
 南北兩支耀日旗  
 略地攻城非本志  
 救焚拯溺是王師  
 政治承認滿洲國  
 文化尊崇夫子祠  
 可惜成仁諸將士  
 他年麟閣首功誰  
 정주 김돈하(金墩河)

아! 저 북지는 어찌 사납고 오만한가  
 그 화를 자초해 화평을 잃었네  
 황군(皇軍)이 단번에 다 쓸어 깨끗이 하여  
 공로에 보답하고자하니 그 공에 산과 바다가 가볍네

噫彼北支何暴慢  
 自招其禍失和平  
 皇軍一掃掃清盡  
 欲報勳勞山海輕  
 정주 김현하(金現河)

어려움이 많은 시국에 누가 능히 통일 하겠는가  
 덕이 있고 하늘에 따르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네  
 황군(皇軍)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이 기뻐하고  
 나라 운이 융성하니 만세에 형통하네  
 완악한 자 견디지 못하고 병장기 끌고 달아나고

多艱時局孰能一  
 有德順天事必成  
 皇軍到處諸民悅  
 國運隆昌萬世亨  
 頑者不支曳兵走

404) 干羽 : 중국 夏나라 禹王이 시작하였다는 舞樂의 이름으로 방패를 쥐고 추는 춤과 깃을 쥐고 추는 춤. 干舞. 羽舞.

405) 唐虞 : 중국 陶唐氏와 有虞氏. 堯舜 시대를 말함.

406) 공자 사당.

어진 사람은 무적이라 사호(筥壺)<sup>407</sup>로 맞네  
 우리 이제 스스로 하청송(河淸頌)을 지을 것이니  
 손들어 크게 축하 소리를 내네

仁人無敵筥壺迎  
 我今自撰河淸頌  
 舉手大呼祝賀聲  
 정주 김정목(金鼎穆)

우리 천황이 생각하기에 적과 우리 차별 없이 똑같아<sup>408</sup>  
 군성(軍聲)<sup>409</sup> 이르는 곳마다 적이 없네  
 북평(北平) 만리를 보통 걸음으로 디디고  
 상해(上海) 높지 않은 하늘에 몸을 날리네  
 큰 수리 구름을 돌며 벼락 소리 울리고  
 사나운 표범 진지를 향하니 연진이 오르네  
 동양은 이미 평화의 대책을 세우는데  
 저 완악한 중국을 징계해 각성시킴이 새롭네

戴我天皇一視仁  
 軍聲所到敵無人  
 北平萬里踏平步  
 上海半空飛上身  
 荒鷲摩雲轟霹靂  
 猛狻衝陣漲煙塵  
 東洋既立平和策  
 懲彼頑支覺醒新  
 운산(雲山) 이만규(李萬奎)

천황의 위세는 세상에 떨치고 피아 구분없이 사랑하네<sup>410</sup>  
 죄를 들어 군사 일으키니 백만이네  
 수리와 매처럼 치고 날리니 적지(敵地)가 없고  
 하늘에서 부르고 육지에서 응하니 충성을 다하는 몸 일세  
 평화 국책(國策)은 동양의 기둥이요  
 무너지는 흉봉(凶鋒)<sup>411</sup>은 북쪽 변방의 띠끌이네  
 이로부터 개선할 날 멀지 않으리니  
 영토 넓은 곳에 일장기가 새롭네

皇威振世視同仁  
 聞罪興師百萬人  
 鷲搏鷹揚無敵地  
 空呼陸應竭忠身  
 平和國策東洋柱  
 倒潰凶鋒北塞塵  
 從此凱旋知不遠  
 領區擴處日章新  
 운산 양석환(梁錫煥)

적이 악행을 해오나 우리는 인(仁)으로 갚고  
 오래도록 숨기고 참기 어려워 군인을 동원했네  
 힘을 다한 것은 영원한 나라만 생각함이요  
 싸움에는 한평생의 몸을 돌아보지 않았네

敵出惡行我報仁  
 久難隱忍動軍人  
 竭力只思千代國  
 交鋒不顧百年身

407) 筥壺 : 簞食壺醬.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 전하여 백성이 군사를 환영하여 음식을 주어 위로함을 말함.

408) 一視仁 : 一視同仁. 彼我 차별없이 똑같이 사랑함.

409) 軍聲 : 兵丁과 軍馬 따위가 떠드는 소리.

410) 視同仁 : 一視同仁. 彼我 차별없이 똑같이 사랑함.

411) 적.

먼저 북지에 붉은 피 흐름에 감동했고  
다시 상해(上海)에서 황진 소탕하기를 빌었네  
우리 용사 위로함에 다른 말이 없고  
동아 평화 이로부터 새롭네

先感北支流赤血  
更祈上海掃荒塵  
慰吾勇士無他語  
東亞平和自此新  
운산 이관현(李觀鉉)

堂堂 용감한 황군인(皇軍人)  
군센 기병 감에 대적할 인(仁)이 없네  
10만 비휴(貔貅)는 죽음도 능가하는 부대요  
3천 곰이나 범같이 용맹한 이들은 떨쳐 나르는 몸일세  
황인(黃人)은 동아 평화 정책이요  
도적 무리는 중원(中原)에서 쓸어낼 띠끌일세  
무예 드날려 적을 응징하고 개선하는 날  
공을 기록한 인각의 그림이 새롭게 이르네

堂堂勇敢皇軍人  
勁騎所行無敵仁  
十萬貔貅凌死隊  
三千熊虎奮飛身  
黃人東亞平和策  
匪類中原廓掃塵  
揚武膺懲旋凱日  
紀功麟閣畫到新  
운산 김관구(金鎔九)

이에 그 군사를 정돈해 해동(海東)에서 나오니  
하늘을 바꾸고 도를 행함에 백성들과 같이 하네  
세 번 호령하고 지휘하니  
만리 산하가 손아귀에 있네  
북쪽에서 남쪽을 정벌하니 뒤의 원망이 많으나  
지혜로 인적(仁敵)을 취해 그 공을 이루네  
풍찬노숙(風餐露宿)<sup>412</sup>에 혈심(血心)<sup>413</sup>이 뜨겁고  
단규(丹葵)<sup>414</sup>된 한 조각이 붉네

爰整其師出海東  
替天行道與人同  
三申號令指揮下  
萬里山河掌握中  
北面南征多後怨  
智取仁敵厥成功  
風餐露宿血心熱  
化作丹葵一片紅  
강계(江界) 김우화(金友和)

문화 동양은 가르쳐 이끄는데 먼저이고  
유신(維新)<sup>415</sup>에 보배로운 명은 하늘로부터 나왔네  
북쪽과 남쪽을 토벌한 공은 더욱 중하고  
풍찬노숙(風餐露宿)한 괴로움 제일 가련하네  
점령한 땅에 기를 꽂으니 둥그런 해(일장기)가 비치고

文化東洋指導先  
維新寶命實由天  
北征南討功尤重  
露宿風餐苦取憐  
占地植旗丸日暎

412) 風餐露宿 :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데에서 먹고 잔다는 뜻으로, 모진 고생을 이르는 말.

413) 血心 : 血誠.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

414) 丹葵 :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하므로 흔히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비유하기도 함.

415) 維新 : 모든 걸 고쳐 새롭게 함.

맑은 아침 전보 격문(羽書)<sup>416</sup> 이어지네  
제국이 서울은 평화 잔치를 연듯  
무수한 사람들 기쁘고 즐거움 마음 기다림이 풀린 것 같네

清朝報電羽書連  
帝京若設平和宴  
億兆歡情如解懸  
강계 계지영(桂芝泳)

하늘을 바꿀만한 병사의 형세는 하늘에 뻗치고  
정연하고 기묘하게 동쪽 바다를 건넜네  
풍찬노숙(風餐露宿)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쓰고  
날로 달로 승전하여 크게 공을 이뤘네  
만리에 병사들 열심하여  
6백 고을(州郡)이 손안에 들어왔네  
왕사(王事)가 오직 어진 임금만이라고 말하지 말 것이니  
우리도 이로부터 같이 간다네

替天兵勢巨天空  
井井奇奇渡海東  
露宿風餐勤苦力  
日勝月捷大成功  
萬里兵士熱心下  
六百州郡歸掌中  
王事獨賢君莫說  
亦吾從此逝之同  
강계 김건식(金健植)

천명(天命)이 진실로 일본 동쪽으로 돌아가니  
사방 백성이 한마음으로 같다네  
길고 긴 국운(國運)은 만년에 뻗칠 것이요  
밝고 밝은 나라 빛은 천고에 통하네  
선정(善政)은 요순(堯舜)<sup>417</sup>의 법 아님이 없고  
문명(文明)은 과연 우탕(禹湯)<sup>418</sup>의 공일 것이네  
성신(聖神) 황제의 은혜를 베푸는 넓고  
해내(海內) 백성은 충성을 다하네

天命真歸日本東  
四方百姓一心同  
長長國運萬年巨  
皞皞邦光千古通  
善政無非堯舜法  
文明果是禹湯功  
聖神皇帝施恩廣  
海內人民盡竭忠  
강계 김기하(金基河)

올해 대전(大戰)은 예나 지금에도 없고  
은 천하(四海)가 모두 맑아져 만세 부르네  
포탄이 충돌해서 천둥 번개 치고  
철마(鐵馬)<sup>419</sup>가 마음대로 가며 벼락처럼 달리네  
모양이 용어(喞魚)<sup>420</sup> 같은 남쪽 정부

今年大戰古今無  
四海一清萬歲呼  
砲彈衝突雷霆發  
鐵馬橫行霹靂驅  
形似喞魚南政府

416) 羽書 : 군사상 급히 전하는 격문. 羽檄.  
417) 堯舜 : 고대 중국의 堯임금과 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418) 禹湯 : 고대 중국의 周나라 禹王과 殷나라 湯王.  
419) 기차.  
420) 喞魚 : 물 위에 입을 내놓고 별름거리는 물고기

형세가 파죽(破竹) 같은 북쪽 흉노(匈奴)  
유림(儒林)은 무슨 물건으로 후원하는가  
우리 또한 붓끝(筆鋒)과 칼 같은 글(書劔) 함께 하네

勢如破竹北匈奴  
儒林後援以何物  
吾亦筆鋒書劔俱  
강계 김숙현(金淑鉉)

이제 일본과 조선의 남녀 사람들을 보니  
가슴에 애국의 큰 정신이 가득찼네  
당시 어지러운 세상에 흉악한 적을 제거하고  
끝내는 나라 태평하게하고 착한 백성을 보호 하였네  
먼저 나는 탄환을 쏘아 적 우두머리를 죽이고  
다시 장검을 휘둘러 풍진을 쓸어 버렸네  
우리 천황 크고 훌륭한 덕은 천명에서 나왔으니  
온 세상이 다 만세의 좋은 때(萬世春)으로 돌아가네

今看日鮮男女人  
腦充愛國大精神  
當時亂世除凶賊  
畢竟昇平保善民  
先射飛丸殲巨首  
更掃長劔掃風塵  
吾皇盛德由天命  
四海咸歸萬歲春  
강계 박창림(朴昌林)

황국(皇國)은 원래 군법(軍法)이 엄숙하고  
많은 병사와 장군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네  
걷거나 말 타거나 하늘을 날거나 다 익숙하고  
화공(火攻)과 수전(水戰)도 또한 어렵지 않네  
세계는 지금 더럽고 어지러운 것이 사라지니  
동양은 이로부터 평안(平安)을 얻었네  
일장기(赤丸旗) 아래 천기(天氣)를 날리고  
만세 연거푸 부르고 손바닥 치며 기뻐하네

皇國元來軍法肅  
千兵萬將一心團  
步騎空飛皆是熟  
火攻水戰亦非難  
世界至今消濁亂  
東洋自此得平安  
赤丸旗下飄天氣  
萬歲連呼拍掌歡  
강계 유종규(劉鍾圭)

이 전쟁은 동양 평화의 뜻이니  
중국은 무슨 일로 천시(天時)를 거역하는가  
우리 의용(義勇)과 절개있고 충성스런 병사 이끌고  
저 동서남북의 오랑캐를 무찌른다네  
크게 일으킴은 앞서 천고의 역사에서도 없었고  
크게 된 뒤에는 만년의 터전이 있네  
인심이 일본으로 돌아가니 어디를 볼까나  
해내(海內)에 찬송하는 말씀 넘쳐나네

此戰東洋平和意  
支那何事逆天時  
率吾義勇節忠士  
滅爾東西南北夷  
大舉前無千古史  
長成後有萬年基  
人心歸日看何處  
海內漫漫讚頌詞  
강계 김기중(金基宗)



전쟁을 세계에서 누가 먼저 하는가  
 제국(帝國)<sup>421</sup>은 분명 명을 하늘에서 받았네  
 용감하고 강경한 우리 부대 의로움은 당장 쓰이고  
 완악하고 준동하는 저 병사의 뜻은 가련하네  
 형상은 큰 산 같아 선봉이 압도하고  
 형세는 긴 강 같아 후원이 이어지네  
 다만 원하는 것은 황군이 때를 잃지 않는 것이니  
 동양 대통(大統)은 이 중에 이어지네

戰爭世界孰能先  
 帝國分明命受天  
 勇剛吾隊義當用  
 頑蠢彼兵情可憐  
 形如泰岳前鋒壓  
 勢似長江後援連  
 只願皇軍時勿失  
 東洋大統此中連  
 강계 신흥욱(申鴻旭)

천리 호풍(胡風)<sup>422</sup>은 일진(一陣)에 놀라고  
 충천(冲天)에 서리와 눈은 활과 칼에 가득차네  
 조선과 대만(臺灣)은 팔 걷어부치고 돕고  
 상공농사(商工農士)는 헌금하여 위로하네  
 대관(大阪)과 경도(京都)는 다 의용(義勇)이요  
 구주(九州) 사국(四國)은 충호(忠豪)하네  
 장안 여러 집집마다의 여자들은  
 쌍저(雙杼)로 바빠 장수가 입는 옷을 주네

千里胡風驚一陣  
 冲天霜雪滿弓刀  
 朝鮮臺灣揚臂助  
 商工農士獻金勞  
 大阪京都皆義勇  
 九州四國是忠豪  
 長安萬戶家家女  
 雙杼忙忙賜戰袍  
 강계 최영민(崔泳敏)

저 적 형편은 무엇 같은가  
 광풍(狂風)에 낙엽처럼 하늘에 차게 기우네  
 군용(軍容)은 모두 고양이 앞의 쥐요  
 장수 지략은 크게 다 우물 안 개구리네  
 천명(天命)이 이미 일본에 돌아간 줄 모르고  
 헛되이 나라 이름을 오히려 화(華)라 칭하네  
 차례로 사단(師團)은 서로 응제 이어지고  
 물결이 밀려드는 대세를 누가 막을수 있으리오

彼敵形便何似耶  
 狂風落葉滿空斜  
 軍容都是猫前鼠  
 將畧渠皆井底蛙  
 不知天命已歸日  
 空使國名尚稱華  
 次第師團相應接  
 浪潮大勢孰能遮  
 강계 전석진(田錫珍)

이제 이 황군이 이긴 전쟁터는  
 태평이 오래갈 우리 동양이네  
 고비(鼓鼙)<sup>423</sup> 울리며 산하에 나아가는 기세요

今此皇軍勝戰場  
 泰平長久我東洋  
 鼓鼙鳴進山河氣

421) 일본.  
 422) 북풍.

창과 칼을 휘둘르며 오는 해와 달 같은 빛일세  
장졸(將卒)은 임금을 사랑하고 다 의용(義勇)하고  
인민(人民)은 나라를 위하여 충량(忠良)을 다하네  
일장기(赤丸旗) 아래 천운(天運)이 돌아오고  
덕을 따르는 자는 창성하고 덕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네

槍劍揮來日月光  
將卒愛君皆義勇  
人民爲國盡忠良  
赤丸旗下回天運  
順德者昌逆德亡  
강계 김익로(金益老)

황군 백전백승의 기세를 타고  
중국(戎狄)은 형초(荊楚)<sup>424</sup>를 응징하네  
적진의 형세는 서리맞은 풀 같고  
우리 병사 용맹함은 꿩을 치는 매 같네  
선봉은 용호조사(龍虎鳥蛇)처럼 움직이고  
후원에 동서남북에서 응하네  
천명(天命) 유신(維新)은 우리나라에 돌아오리니  
상서로운 별이 나오니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네

皇軍百戰百勝乘  
戎狄是膺荊楚懲  
敵陣形如逢霜草  
吾兵勇似拍雉鷹  
先鋒龍虎鳥蛇動  
後援東西南北應  
天命維新歸我國  
慶星時出瑞雲興  
강계 김창수(金昌洙)

태평한 기상은 불만한 형세요  
크게 일어난 상서로운 구름은 상서로운 별에서 나오네  
승리 북소리 여러 학교에 나아가 울리고  
개선하는 노래 각 관청에 축하하네  
서울과 민가에 응원하는 소리를 보고  
조정과 민간 신하와 백성이 덕을 칭송함을 듣네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이 통함(感應)이요  
정성을 다한 신사(神社)에서 백성을 구하네

泰平氣像可觀形  
興起祥雲出慶星  
勝鼓進鳴諸學校  
凱歌祝賀各官廳  
國都閭巷援聲見  
朝野臣民頌德聽  
天意人心皆感應  
至誠神社救生靈  
강계 김화현(金華鉉)

소화 12년(1937년)이 오니  
대일본이 뜻을 얻은 가을이네  
호랑이가 숲에서 울부짖으니 못 짐승이 놀라네  
용이 구름이 걸친 깊은 수렁에서 우니 여러 맹수들이 달아나네  
전쟁은 민간에 관계된 일인데  
충용(忠勇)이 천하의 근심을 소제하네

昭和十二年來到  
大日本之得意秋  
虎嘯風林驚衆獸  
龍鳴雲壑走群貅  
戰爭關係民間事  
忠勇消除天下憂

423) 鼓鼙 : 적이 쳐 올 때 신호로 치는 북.

424) 荊楚 : 옛 九州의 하나로서 荊州의 樞國을 이룸. 여기서는 중국의 뜻.

시대의 운수가 순환하여 이제 이미 정해졌으니  
날뛰는 저 적은 원망하고 꾸짖지 않네

時運循環今已定  
蠢蠢爾敵莫怨尤  
강계 유인규(劉麟奎)

예로부터 큰 싸움도 지금 싸움을 쫓아오지 못하고  
칼과 창이 숲처럼 많이 벌려 선 것이 모두 천자의 숙위(雨林)<sup>425</sup>이네  
병사(兵事)에서 공을 이름은 진실로 나라 일어요  
인민(人民)이 귀순하니 곧 천심(天心)이네  
위엄이 변해 나오는 천산(千山)이 어둡고  
조화로 다시 생겨나는 사해(四海)가 깊네  
문무(文武) 여러 신하는 같은 한 몸이요  
날로 위문이 이어지고 성금을 바치네

古來雄戰不追今  
劍戟森羅總羽林  
兵事成功真國事  
人民歸順即天心  
威嚴變出千山聳  
造化幻生四海深  
文武諸臣同一體  
日連慰問獻誠金  
강계 김병희(金秉熙)

북쪽을 토벌하고 남쪽을 정벌하는 때에  
구름은 진지 위에 차고 달은 군영에 가득차네  
비단 옷 재봉해서 장수 옷을 보내고  
단사호장(單食壺醬)하여 군사를 맞네  
이 일월(日月)을 가리켜 새장속의 새요  
저 하늘과 땅(乾坤)을 보니 물 위의 부평초네  
우리 황군 거느리고 전진하면 이기고  
온갖 악을 소제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네

及時北伐又南征  
雲滿陣頭月滿營  
錦衣刀尺戰袍(袍)寄  
單食壺漿師士迎  
指斯日月籠中鳥  
瞻彼乾坤水上萍  
御我皇軍前進勝  
消除萬惡救蒼生  
강계 전준원(田俊元)

성토(聲討)하는 왕사(王師)가 동아(東亞)에서 나오니  
충의와 용기있는(義勇) 속마음(肝膽)은 모의하지 않아도 같네  
즐풍목우(櫛風沐雨)<sup>426</sup>하고 병장기를 베고 자고  
항해제산(航海梯山)<sup>427</sup>하니 바다와 육지가 통하네  
필경 평화는 황상(皇上)의 뜻이요  
좋은 일이 오는(貞吉) 입장은 장인(丈人)의 공이네

聲討王師出亞東  
義肝勇膽不謀同  
櫛風沐雨干戈枕  
航海梯山水陸通  
畢境平和皇上志  
立場貞吉丈人功

425) 羽林 : 별 이름. 天子의 宿衛.

426) 櫛風沐雨 :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비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바깥에서 분주히 돌아다니며 고생함을 이룸. 風櫛雨沐.

427) 航海梯山 : 梯山航海. 험한 산에 사다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아주 먼 곳을 감을 말함. 梯航.

부대는 결사의 각오로 이루어졌으니 계속 승세를 타고  
온 세상이 나라 사랑하는 충성에 감탄하네

隊成決死連乘勝  
全世嗟嘆愛國忠  
강계 한영기(韓榮琦)

충심을 잃은 적군은 우리 군 예봉을 피하려 하고  
무너져 달아나 정돈할 겨를 없이 쫓기네  
후군(後軍)이 계속 나아가 지원하기 개미 같고  
앞 부대 마음대로 다니는 형세는 싸우는 용과 같네  
죄인 잡을 만한 신의 위엄에 적의 우두머리를 없애고  
삶을 좋아하는 지덕(至德)은 흉악한 무리를 용서하네  
평상시 소양은 탕왕의 용맹함을 찾았으니  
3대 열강 중 홀로 종주를 차지하네

傷膽敵軍欲避鋒  
潰奔未暇整追從  
後軍繼進援成蟻  
前隊橫行勢鬪龍  
執訊神威殲巨首  
好生至德赦群凶  
平時素養探湯勇  
三大強中獨擅宗  
강계 김태욱(金泰郁)

우리 강성함이 중도에서 저 험악한 무리를 만나니  
감추었던 뛰어난 무예와 용맹(神武)이 오토 동안 기다렸던 때네  
인(仁)은 봄비와 같아 삼태(三泰)<sup>428</sup>가 돌아오고  
엄숙하기 가을 서릿발 같아 사방 오랑캐를 진압하네  
지혜와 용기를 갖춘 마음에서 진영을 만들고  
은혜와 위엄에 백성을 구제하는 덕(濟德)은 기초가 되네  
만주와 조선 민족은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춤을 추리니(鰲拊)  
승첩을 들은 오늘 아침 절하며 축하의 말씀을 하네

以我剛中逢彼險  
晦韜神武久需時  
仁如春雨回三泰  
肅似秋霜鎮四夷  
智勇兼全心作陣  
恩威并濟德爲基  
滿鮮民族行鰲拊  
聞捷今朝拜祝詞  
강계 이재형(李宰炯)

천명(天命)과 민심(民心)은 한 몸으로 돌아가고  
작전을 짜는 곳에서 내는 계획은 어긋남이 없네  
가을에 칼 드니 서리 찬 기운이 끼고  
바람에 세워놓은 기가 나부끼며 햇빛에 빛남을 마음대로 하네  
여러 사람의 분노와 피 끓음은 삼복 더위의 열기요  
웅대한 책략을 마음에 감추고 만갑(萬甲)이 둘러싸네  
전쟁에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얻으니  
중국 전국에 천황의 위엄을 떨치네

天命民心一體歸  
運籌帷幄策無違  
秋寒提劍翻霜氣  
風拂堅旗弄日輝  
公憤血沸三庚熱  
雄略胸藏萬甲圍  
戰必勝兮攻必取  
支那全國振皇威  
강계 임인흡(林麟洽)

428) 三泰 : 봄비가 태평한 시절을 연다. 三陽開泰.

바다와 육지에서 양쪽으로 날고 싸우는데 으뜸이고  
 항공기 폭격은 활과 칼을 이기네  
 장군 마음은 탕에 열기를 안고 찾을 듯하고  
 용사의 몸은 불을 밟는 노고에 맡겼네  
 풍한(馮漢)<sup>429</sup>이 소굴을 버린 계책은 되려 졸렬하고  
 장아(蔣兒)<sup>430</sup> 당국 말은 한갓 호탕한 말 뿐이네  
 천황의 마음(宸心)은 깊은 생각이고 천시(天時)는 냉엄한데  
 위문 받는 병사는 철갑옷을 받네

水陸兩能飛戰寇  
 航空爆擊勝弓刀  
 將軍心抱探湯熱  
 勇士身任蹈火勞  
 馮漢失巢謀選拙  
 蔣兒當局語徒豪  
 宸心遠慮天時冷  
 慰問戎兵領鐵袍  
 강계 김창환(金昌煥)

중국과 다시 싸우는 전쟁터에  
 제국(帝國)의 신 같은 위엄은 오대양에 떨치네  
 계책을 세우는 신하는 바람과 구름이 모이게 돕고  
 충성과 절개 있는 용사는 해와 달과 빛을 다투네  
 석양이 되짚이니 갈까마귀 무리 흩어지고  
 철기(鐵騎)는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우리 마량(馬良)<sup>431</sup>이네  
 이미 화북지방을 얻었으니 남쪽 얻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우리는 하늘이 돕고 처들은 하늘이 망하게 하는 것인가 하네

與支戰伐再兵場  
 帝國神威振五洋  
 謀猷臣奉風雲會  
 忠義士爭日月光  
 夕陽返照群鴉散  
 鐵騎縱橫我馬良  
 既得北支南不遠  
 想吾天佑彼天亡  
 강계 김종락(金宗洛)

오랑캐가 창궐하여 도로 돌아오니  
 크게 경계하여 천조(天朝)에서 먼저 조금 징계하였네  
 후원은 괴안국(槐安國)의 많이 모인 개미 같네<sup>432</sup>  
 선봉은 목야(牧野)에서 한 마리 매처럼 활약하듯 하네<sup>433</sup>  
 미영은 화해하고 중국을 세울 모의하고  
 이독 동맹 이뤄 안에서 응하네  
 이때 매우 힘써 천황이 노하고  
 간식소의(肝食宵衣)<sup>434</sup>에도 오히려 일찍 일어난다네

胡虜猖獗負還乘  
 大誠天朝先小懲  
 後援槐安千集蟻  
 先鋒牧野一揚鷹  
 米英解和謀中立  
 伊獨同盟結內應  
 此時勞甚天皇怒  
 肝食宵衣況夙興  
 강계 조창하(趙昌河)

429) 馮玉祥.

430) 蔣介石.

431) 馬良 : 중국 蜀漢 때 명참모로 제갈공명과 勿頸之交를 맺은 인물.

432) 南柯一夢(槐安之夢)에 나오는 개미왕국에서 유래한 괴안국과 군사를 빌어쓴 표현.

433) 周나라 太公望 呂尙이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 紂王과 牧野에서 싸울 때 매처럼 활약한 일을 말함.

434) 肝食宵衣 : 宵衣旰食.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식사를 한다는 뜻으로 천자가 정사 애씀을 이룸.

만리에 정벌가서 이 몸을 바치니  
한갓 나라 위하고 거민(居民)위함만이 아니네  
적 우두머리 하늘의 위엄과 두려움 모르고  
헛되이 남방 무고한 사람을 살육하네

萬里行征獻此身  
非徒爲國爲居民  
敵酋不識天威畏  
空戮南邦無辜人  
정주(定州) 이태진(李泰鎭)

◆ 강원도(江原道)

중국(禹域) 풍운 난리가 평정되지 않았으니  
황하(黃河)는 어느 날에나 맑아짐을 볼 것인가  
천황 군대 한번 노하니 천하가 안정되고  
성제(聖帝) 위세와 권력은 교화해 밝게 하네

禹域風雲亂不平  
黃河何日見澄清  
皇師一怒安天下  
聖帝威權教化明  
영월(寧越) 엄달환(嚴達煥)

지극한 인(仁)에 적이 없는 우리 천황 군대에  
준동하는 저 중국 병사 감히 지탱하지 못하네  
은 세상(八紘)<sup>435</sup>한 집에 큰 맡겨진 임무가 있으니  
동양에 높이 일장기가 나부끼네

至仁無敵我皇師  
蠢爾支兵不敢支  
八紘一宇大使命  
東洋高揭日章旗  
영월 한민교(韓民教)

우리 군은 대동양에서 승승장구하니  
북에서 남으로 한결같이 통하네  
요해(遼海)를 포함하는 무궁한 바깥에  
점령할 산하는 끝없네  
난리에 구함은 다만 사직(社稷)을 편안히 함을 도모함이요  
평화 오면 제후 같은 공명 바라지 않네  
은 세상 풍진은 어느 날에나 진정될 것인가  
개선가 같이 연주하며 으뜸 공을 칭송하네

我軍乘勝大洋東  
自北之南一樣通  
包含遼海無窮外  
占領山河不盡中  
救亂只圖安社稷  
致平不欲慕侯公  
宇內風塵何日定  
凱歌同奏頌元功  
영월 황윤현(黃胤鉉)

무렵 뒤에 성원이 일어나고  
중국은 비처럼 쏟아지는 하늘이네  
신민(臣民)은 나라 위하는 날이요

銃後聲援起  
支那彈雨天  
臣民爲國日

435) 八紘 : 여덟 방위의 멀고 너른 범위. 곧 은 세상. 八荒.

장사(將士)는 공을 세우는 해이네  
 은 세상에 응당 적이 없으리니  
 세간에 누가 감히 앞에 있으리오  
 완악하고 패악한 습속을 응징하고  
 한번에 띠끌을 쓸어내네

將士立功年  
 宇內應無敵  
 世間孰敢前  
 膺懲頑劣習  
 一舉掃塵烟

영월 고범규(高範圭)

전쟁에 이긴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황군(皇軍)이라네  
 죽는 것을 잊지 않고  
 임금께 충성하는 것만 아네  
 그 용감함으로  
 변란 일으킨 무리를 토벌하네  
 마음속에 기뻐서  
 축하의 글을 올리네  
 장하다 국군(國軍)이여  
 올라간 총기(銃氣)는  
 구름이 모여 있는 듯하고  
 자리 말아 버릴 듯한 기세이네  
 여러 장수의 충의(忠義)는  
 가을과 함께 전쟁에 높아가고  
 위로의 술 구해 올리고  
 멀리서 축하하니 도리어 부끄럽구나

勝戰者誰  
 曰吾皇軍  
 不忘喪元  
 但知忠君  
 以其勇敢  
 討斥變群  
 中心喜悅  
 呈祝賀文  
 壯哉國軍  
 騰騰銃氣  
 若雲屯聚  
 如席捲棄  
 諸將忠義  
 與秋爭高  
 進求慰酒  
 遠賀還愧

황군은 근래 어떠한가  
 변란 후 응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네  
 변란을 평정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공적에  
 소리 내어 기념가를 부르네

皇軍近若何  
 變後疲應多  
 撥亂安民蹟  
 放呼記念歌

영월 엄하현(嚴廈鉉)

가만히 동양을 살펴보고 형세를 관찰하니  
 일본과 중국의 친하고 앓고가 안위(安危)에 관계되네  
 같은 글에 같은 인종은 사람되어감이 깊어가는데  
 오직 만주와 조선이 지반이 붙어있네  
 무슨 일로 완악하고 어두운 무리들은 자주 소란을 일으키는가

靜察東洋局勢觀  
 日支親否係危安  
 同文同種深人化  
 維滿維鮮婁地盤  
 底事頑冥頻起鬪

이에 위세와 세력을 떨쳐 잔적을 물리치고 제거하네  
천병(天兵)이르는 곳마다 다투어 귀순하고  
남북은 도리어 뒤에서 우리를 위해 환영하네

爰揚威武却除殘  
天兵所到爭歸順  
南北還爲後我歎  
철원(鐵原) 박기양(朴基陽)

국화 시들어지고 단풍 떨어지니 가을 감회 깊어지고  
북쪽 땅에서는 응당 장사(將士) 옷깃 추우리라  
황하 수루에 곱고 외로운 달  
상해 그늘에 막막히 돌아가는 구름  
일생에 교린의 우의를 등지지 않았는데  
만번 죽어도 오히려 나라를 수호하려는 마음이 있네  
호랑이 뛰고 용이 나는 듯한 신기한 책략을 쓰니  
당당히 날마다 승리한 소식 보고하네

菊殘楓落感秋深  
北地應寒將士襟  
娟娟孤月黃河戍  
漠漠歸雲上海陰  
一生不負交隣誼  
萬事猶存護國心  
虎躍龍騰神策運  
堂堂日報捷書音  
철원 이병훈(李炳勛)

한번 일이 노구(蘆溝)에서 일어나니  
포의 연기에 암담하고 서슬 시퍼런 칼은 차네  
모름지기 이 거사가 응징하는데 그침을 아나  
적이 깨닫기 전에는 이내 너그러이 용서함이 아니네

一事蘆溝起鬪端  
砲烟黯澹劍霜寒  
須知此舉膺懲止  
如覺前非乃恕寬  
철원 안도환(安道煥)

조수가 솟구치고 산악이 무너지고 천병(天兵) 진동하고  
풍우가 강남에 몰아치고 오래도록 개이지 않네  
횡폭한 적이 정의로 돌아간다면  
맹서하건대 장차 동아는 평화를 이루리라

潮騰岳裂動天兵  
風雨江南久不晴  
若使暴橫歸正義  
誓將東亞致和平  
철원 김현규(金顯奎)

매처럼 공격하는 여러 군사들이 만주를 건너니  
수변루(戍邊樓)에 삭풍에 눈이 날리네  
은혜와 위엄 아울러 베풀고 대무(大武) 드날리니  
동양은 이로부터 공화(共和)를 닦네

鷹擊諸軍過滿洲  
朔風吹雪戍邊樓  
并施恩威揚大武  
東洋自此共和修  
철원 정재규(鄭在奎)

수루(戍樓)에서 오늘 밤 잠못들 것을 생각하니  
서리와 기러기 쓸쓸한 달 하늘에 있네

戍樓此夜想難眠  
霜雁蕭蕭月在天



일념은 다만 황국(皇國) 수호에 있으니  
우리 군 앞에 감히 대적할 사람 없네

一念只存皇國護  
無人敢敵我軍前  
철원 이범수(李凡秀)

꽃 이미 지고 누런 잎 단풍들었는데  
북쪽 정벌한 장사(將士) 추위 이기지 못하리  
갈가마귀 상해에 날고 성진(腥塵)에 어두운데  
기러기 남상(南湘)에 건너고 새벽달 기우네  
돛단배는 순풍과 같이 할 때 또한 쉽게 가고  
대나무는 잘 드는 칼 만나면 쪼개는 것이 무엇이 어려우랴  
응징은 이로부터 침략하는 것이 아니니  
다만 동양이 모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이니

花已盡黃葉已丹  
北征將士不勝寒  
鴉翻上海腥塵暗  
雁度南湘曉月殘  
帆帶順風時亦易  
竹迎利刃破何難  
膺懲自是非侵略  
只爲東洋共享安  
철원 이종남(李鍾楠)

우리 천황 지치(至治)가 해 뜨는 동쪽바다에서 시작되니  
평화를 기약하는 것이 세계에 미치네  
닭 울고 개 짖는 지경은 사방으로 통하고  
바람과 비가 순조로우니 바다 출렁이지 않네  
오랑캐 횡폭하고 반역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  
어찌 오랑캐(獬豸)가 도리어 미쳐 날뛴이 줄어드랴  
화북에서 한번에 남쪽에 전파되니  
전쟁에 반드시 승승장구하고 무운(武運)은 오래가리

吾皇至治自扶桑  
期欲平和暨八荒  
鷄鳴犬吠境四達  
雨順風調海不揚  
莫作有苗行暴逆  
胡爲獬豸反踈狂  
北支一舉南支播  
戰必乘勝武運長  
철원 김필제(金駙濟)

용맹하기 곰과 호랑이 같고 책략은 신과 같아  
가는 꿈에 일찍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만리 황하에서 달게 싸우는 전사는  
한마음으로 반도에서 정성을 바치는 백성들이네  
승리한 보고는 조각 조각 때때로 서로 알리고  
위무(威武)는 당당히 날로 더욱 새롭네  
전쟁에 이겨서 돌아올 날 멀지 않음을 알고  
취한 노래 다투어 태평한 봄을 부르네

勇如熊虎策如神  
所向曾無不服人  
萬里黃河甘鬪士  
一心半島獻誠民  
捷書片片時相報  
威武堂堂日益新  
戰勝歸期知不遠  
醉歌爭唱太平春  
철원 허근(許根)

폭탄은 우레 울리는 듯하고 칼은 서리같이 엄한데

爆似鳴雷劍似霜

공격하되 약탈하지 않고 부당한 곳을 향하네  
정성 모아 황군을 도운 후에  
나라 안 돌아보아 근심 없으니 바깥은 꼭 지킬수 있으리

攻無不取向無當  
合誠援助皇軍後  
內顧無憂外必防  
철원 김용휘(金溶徽)

위무(威武) 당당하게 해동에서 나오니  
향하는 곳 순탄해서 다 우러러 보네  
전에 보기 드문 어디서 오는 갑작스런 폭격이요  
높지 않은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북쪽지방에서 떨치네  
너른 들판 많은 띠끝에 사슴 달아남을 보고  
한 군영에 밝은 달 높이 나는 기리기 소리를 듣네  
강남에서 근래 계속 승부를 낸다하니  
축하의 말씀 많으나 많은 사람 말씀이 같네

威武堂堂出海東  
向無不順盡望風  
罕前急爆來何處  
振北飛機上半空  
大野漲塵看走鹿  
一營明月聽高鴻  
江南近日連勝負  
賀語繽紛萬口同

동아시아 일은 동아시아 사람을 위한 것이니  
같은 글, 같은 피부색에 같은 이웃이네  
어찌해야 먼 것을 가까이하고 멀어진 데를 친하게 하나  
해 거듭해서 대들고 업신여기기 자주 하네  
바람 몰아치듯 우레같이 빠르듯이 움직이는 황군  
만리 강남은 전운(戰雲)에 어둡네  
형세는 댓조각이 칼을 맞아 쪼개지듯 하고  
북쪽에서 오는 승리 보고는 날로 서로 들리네  
온 세상 누가 능히 감히 인(仁)에 대적하리오  
요사스런 구름 한번에 쓸어 다시 맑은 첫 새벽이네  
민생이 안도는 누가 내려주는가  
위에 황은(皇恩)을 이었으니 만년 봄이네

東亞事爲東亞人  
同文同色又同隣  
如何疎近親諸遠  
年復年來抗侮頻  
風驅雷迅動皇軍  
萬里江南暗戰雲  
勢若竹頭迎刃破  
北來捷報日相關  
宇內誰能敵敵仁  
妖雲一掃更清晨  
民生安堵伊誰賜  
上戴皇恩樂萬春  
철원 김경서(金敬瑞)

가지(支)<sup>436</sup>가 근본(本)<sup>437</sup>에 저항함이 어찌 원칙이라  
애국하는 국민 정성 열의는 물 끓듯 하네  
장렬(壯烈)한 황사(皇師) 벽처럼 튼튼하게 유지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이로 미루어 아네

支能抗本豈原則  
愛國衆誠熱如沸  
壯烈皇師堅壁持  
內鮮一體此推知

436) 중국.

437) 일본.

장렬히 그 죽을 데에 죽으니  
몸은 죽어도 이름은 없어지지 않으리  
그 죽음은 백 번 산 것보다 낮고  
천추에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네

壯烈死其死  
身死名不死  
其死勝百生  
千秋死亦生

밤이 오니 가을비에 화로를 씻는데  
이때 멀리서 북쪽으로 정벌 간 장사를 생각하네  
철이 바뀌어 위생이 가장 걱정되는데  
연진에 분발해 싸워 도리어 몸을 잊네  
하늘에서 비가 오기 전 만전 대비하네  
하늘에서 폭격하는 적군은 우리러 보고 도망하네  
각지에서는 방호단(防護團)을 만드니  
보통 벽상관(壁上觀)<sup>438</sup>이 아니네  
인민(人民)이 나라의 은혜에 갚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이니  
나라의 은혜를 갚는 것에는 충성외에 다른 것이 없다네  
이날에 어찌 나라의 은혜를 갚았다고 칭송하라  
시절의 어려움은 극복은 적을 응징하는데 있네  
용감히 출정한 황군을 어찌 적이 감당하라  
동양은 이로부터 평화가 보장되네  
중국 천지에 일장기가 드날리고  
개선가 중에 무운(武運)이 오래가리

夜來秋雨滌紅爐  
此時遙憶北征士  
換節衛生最可虞  
奮戰烟塵却忘軀  
迨天未雨萬全備  
爆空敵隊望風走  
各地結成防護團  
不是尋常壁上觀  
人臣報國所當務  
報國無他忠已矣  
此日胡爲報國稱  
時艱克服在膺懲  
勇躍皇軍何可當  
東洋自此平和保  
支那天地旭旗揚  
旋凱歌中武運長

고성(高城) 한준석(韓準錫)

군센 천황의 군대 멀리 북쪽에 정벌가서  
하늘 높이 치켜든 깃발과 북소리 우레같이 울리네  
높이 올라서는 아버지 그리는 뜻 풀어놓고 끊고  
험한 데에 올라서는 바야흐로 나라 은혜에 갚을 정성 깊어지네  
모래사장에 전쟁에 죽은 유골 묻힌다해도 아깝지 않고  
스스로 역사에 꽃다운 이름 들기를 기약하네  
눈 바람 근일 어느 곳이 추운가  
공은 만드시 어려움 겪고나서 이룬다네

偁偁王師遠北征  
掀天旗鼓似雷鳴  
登高縱切望親意  
不惜沙場埋戰骨  
入險方深報國誠  
自期竹帛擅芳名  
雪風近日寒何許  
功必經艱以後成

고성 김영목(金泳穆)

438) 壁上觀 :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함.

◆ 함경남도(咸鏡南道)

밤에 알리는 승리 보고에 시운(時運)이 맑고  
 일장기 아래에서 황성(皇城)에 절을 하네  
 산하는 춤추는 용처럼 천번 변하는데  
 우주는 잠 깨는 닭의 한 울음소리에서 시작되네  
 좋게 대화 술잔을 들고 역사(歷史)를 논하고  
 영원히 역사에 꽃다운 이름을 적네  
 이제 천하에 개선가 여러 곡을 부르니  
 남녀 기뻐하고 태평함을 즐거워하네

夜報捷書時運清  
 日章旗下拜皇城  
 山河如舞龍千變  
 宇宙始醒鷄一聲  
 好把樽論歷史  
 永令竹史著芳名  
 凱歌數曲今天下  
 女悅男欣樂泰平

풍산(豊山) 한호련(韓皜鍊)

우방에 병란이 무슨 원인인지를 물어  
 악을 응징하고 동인(同仁)<sup>439</sup> 정책이 새롭네  
 북쪽 변방에서 많이 애쓴 이는 전쟁에 장수요  
 동조(東朝)에 주초석이 되는 신하이네  
 장한 책략은 능히 진야의 사슴(秦野鹿)을 길들이고  
 공명은 또한 한대린(漢殆麟)<sup>440</sup>에 그려지리  
 평화 기대한 연후에 기쁘고  
 일본과 중국은 예부터 서로 이웃이네

友邦兵變問何因  
 懲惡同仁政策新  
 幾勞北塞干戈將  
 可是東朝柱石臣  
 壯略能馴秦野鹿  
 功名亦畫漢殆麟  
 期待平和然後喜  
 日支自古共爲隣

풍산 신흥식(申弘湜)

영원한 평화 이때에 있으니  
 한번 난국이 열리니 그 마땅함을 얻었네  
 모질고 사나운 적은 마땅히 응징하니 복종하지 않음이 없고  
 간사한 적을 정벌함이 어찌 더딜것이나  
 의로운 선봉에는 다행히 더할 적이 없고  
 어진 정사를 널리 베풀은 기약한 것과 같네  
 동양을 가르쳐 이끄는 동양의 손으로 하니  
 황국정신(皇國精神)은 만국이 아네

永遠平和在此時  
 一開難局得其宜  
 暴戾當懲無不服  
 邪奸可伐是何遲  
 義鋒幸加莫能敵  
 仁政博施如有期  
 東洋指導東洋手  
 皇國精神萬國知

풍산 김만성(金萬聲)

439) 同仁 : 親疎의 차별없이 널리 평등하게 사랑하는 일.  
 440) 麒麟閣.

우리 천황 다스리는 덕은 본래 맑고 진실하고  
 두두(赳赳)한 무부(武夫)는 용맹한 신하에서 나오네  
 늠름하고 웅대한 풍모는 손빈(孫臏)<sup>441)</sup>의 손이요  
 당당하고 장한 기세는 맹명(孟明)<sup>442)</sup>의 몸이네  
 으뜸 공은 상해(上海)에서 삼조(三朝)를 얻었고  
 비밀스런 책략은 태원(太原)을 하루에 함락시켰네  
 멀리 금단(金壇)<sup>443)</sup>에서 승전한 국면을 생각하고  
 위로에 사례하는 시를 읊으니 참된 정성이 새롭네

我皇治德本清真  
 赳赳武夫出虎臣  
 凜凜雄風孫臏手  
 堂堂壯氣孟明身  
 元功上海三朝得  
 秘策太原一日淪  
 遙憶金壇勝戰局  
 慰吟謝律赤誠新  
 풍산 하중청(河重淸)

황군이 한번 일장기 아래 출정하니  
 나라 사랑하고 백성 편안히 하는데 각기 정성을 다하네  
 나라 태평한 오늘 뛰어난 승리 알리고  
 소식은 맑은 하늘에 기러기 소리에 오네  
 영웅은 만고에 평생 일이니  
 역사책에 천추에도 이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책과 같은 뒤늦게 군대에 투신해 씻고  
 멀리 하늘위에서 황하 물 맑기를 만류하는 것을 바라보네

皇軍一出旭旗下  
 愛國安民各盡誠  
 升平今日報龍捷  
 消息晴空來鴈聲  
 英雄萬古平生事  
 竹帛千秋不死名  
 書劔晚投兵馬洗  
 遙望天上挽河淸  
 풍산 유준흥(柳俊興)

북벌해 남서와 동쪽까지 이르니  
 황군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공을 이루네  
 도리에 따르면 흥하고 거슬리면 패하는 것은 천하 공변된 이치니  
 나라 있고 내 몸 없이 하는 것이 장사(將士)의 충성이네  
 상해(上海) 강산은 폭탄이 비오 듯하고  
 태원(太原) 초목은 포탄 바람에 쓰러지네  
 원컨대 중화는 빨리 반성하게 하고  
 우리 동양 평화에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해야하네

北伐至南西又東  
 皇軍到處必成功  
 順興逆敗天公理  
 有國無身將士忠  
 上海江山濕彈雨  
 太原草木靡砲風  
 願使中華促反省  
 吾洋平和協心同

황군이 점령한 화북의 성은  
 맹렬한 기세에 당당하여 해와 달에 밝네  
 늘 독일과 이탈리아(獨伊) 연합국에 좋아하였으니

皇軍占領北支城  
 猛氣堂堂日月明  
 常喜獨伊聯合國

441) 孫臏：春秋時代 兵法家 孫子の 이름.

442) 孟明：중국 秦나라의 名將.

443) 主將 居處.

능히 영미 후원병을 막을수 있네  
중간에 장사의 전쟁에 이긴 곡에  
안팎의 신민(臣民)은 금으로 정성을 바치네  
천황은 너희가 가서 위무에 힘쓰라 하니  
동양 전국(全局)은 평화를 주로 하리라

能防英米後援兵  
中間將士戰勝曲  
表裏臣民金獻情  
帝曰勗哉汝往撫  
東洋全局主和平  
풍산 주태원(朱泰源)

오래 전장에 있어 노고가 쌓여 돌아오는데  
계속 이겨 어느 날 큰 공이 열리려나  
가슴속에 넘쳐나는 것은 와룡(臥龍)<sup>444</sup>의 지략이요  
칼 아래에도 즐거움이 넘친 것은 곽상(郭相)<sup>445</sup>의 재주이네

長在戰場積苦回  
勝勝何日大功開  
胸中剩瀾臥龍智  
劍下快餘郭相才  
풍산 이낙수(李樂洙)

우리 황군 일은 각각 충성을 옮김이니  
온 나라 위로하는 정성 하나같이 똑같네  
사상자 많이 나(漂杵血流)<sup>446</sup> 차마 보지 못하는데  
비행기술법 씬이 무궁하네  
성인(聖人)이 나오니 중국 일본에 축하하고  
용맹한 군사 얻어 이제 질풍에 노래하네  
승승장구함은 대개 소식 들어 좋으니  
곳곳에 맹세하고 빌어 공 이루기 원하네

吾皇軍事各移忠  
舉國慰誠一致同  
漂杵血流看不忍  
飛機術法用無窮  
聖人出矣祝華日  
猛士得今歌大風  
乘勝蓋聞消息好  
誓祈處處願成功  
풍산 이규하(李奎河)

육해공군이 용감히 가는 앞에  
폭악한 중국 징계하는 이치 당연하네  
관안(管晏)<sup>447</sup>이 공을 세운 것이 홀로 뛰어난이 아니요  
손오(孫吳)<sup>448</sup>의 계책을 씬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이네  
적의 기세 궁한데로 가니 무너질 듯한 흙 같고  
민심이 귀순하기 내에 물을 쏟아붓 듯 하네  
한 병사도 충성스런 뜻을 다하지 않음이 없으니

陸海空軍勇往前  
暴支懲戒理當然  
管晏立功非獨妙  
孫吳用策莫能專  
敵勢入窮崩似土  
民心歸順注如川  
一兵靡不盡忠意

444) 蜀漢의 謀臣인 諸葛亮.

445) 郭相 : 郭子儀. 중국 당나라 때 武將.

446) 漂杵血流 : 血流漂杵. 피가 흘러 공이를 띄운다는 뜻으로 전사자가 많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447) 管晏 : 春秋時代 齊나라 名相인 管仲과 晏嬰.

448) 孫吳 : 春秋時代 兵法家인 孫武와 吳起.

황군의 위대한 풍모는 만년에 전하리라

皇軍偉風傳萬年

홍원(洪原) 김기협(金基協)

남 중국이 이미 평정되고 다음은 화북 북쪽이니  
하늘에서 황군을 보내어 씻어 맑게 하려 하네  
강한 군사에 어질고 용감하니 누가 대적할 수 있으랴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은 반드시 이루리라

南支已定北支北  
天譴皇軍洗欲清  
精兵仁勇孰能敵  
戰則必勝功必成

홍원 박임수(朴林洙)

사(士)가 많이 종군(從軍)하기를 원하니  
사람이 모두 헌금하는 정성을 보이네  
하늘은 반드시 통하여 느끼리니  
어떤 어려움에도 폭악한 중국을 평정하리

士多從軍願  
人皆獻金誠  
上天必應感  
何難暴支平

홍원 한준석(韓準錫)

비상한 시국에 당한 때에 이르니  
사변이 거듭 일본과 중국에서 일어나네  
강하게 일어난 갑병(甲兵)은 막는 적에게 나아가고  
매번 고하고 알림을 내려 사람이 알게하네  
진용은 질서가 있고 군기(軍器)를 닦으니  
오랑캐 무리 끊임없이 국기를 받드네  
반도 신민(臣民)은 모두 일치해서  
괴로워하는(皺眉)<sup>449</sup>말과 뜻에 시를 읊는 것을 그치네

非常時局迨當時  
事變層生在日支  
強起甲兵防賊進  
每頒申報使人知  
陣容有序修軍器  
戎黨無端奉國旗  
半島臣民并一致  
皺眉言志却吟詩

풍산 이중환(李鍾奐)

◆ 함경북도(咸鏡北道)

응징하는 계책은 평안에서 나오니  
동쪽에서 건너 온 장병(將兵)은 비로소 북경에 들어가네  
만리 산하를 석권한 듯하고  
한 바둑판 세상에 바둑돌 놓기를 다투네  
가깝거나 멀거나 영토의 백성 다스림은 여유롭고  
많던 적던 헌금은 나라 사랑하는 정이네

膺懲籌策出於平  
東渡將兵始北京  
萬里山河如席捲  
一枰宇宙着碁爭  
邇遐領土寬民政  
多寡獻金愛國情

449) 皺眉 : 눈썹을 찌푸림. 괴로워하거나 근심하는 모양.

남녀 집집마다 기원하는 제사 드리고  
하늘 한복판에 상서로운 해는 회조(會朝)<sup>450</sup>에 맑네

男女家家祈願祭  
中天瑞日會朝清  
무산(茂山) 정종석(鄭宗錫)

만주사변이 이미 평정된 후  
또 중국과 일어나 충돌하네  
궁중부 중에 일체를 갖추고  
응징하는 대책은 호도(糊塗)<sup>451</sup>하지 않네  
나라에서 군대를 출정하는데 한해를 걸리지 않고  
도처에서 오랑캐는 다 달아나네  
당당하고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을 누가 감히 깔보랴  
일장기 아래 저들 혼을 잃은 듯하네  
밤낮 경계함은 무궁한 계책이고  
가슴속에 갑병(甲兵)을 백만을 감추었네  
두 말과 활은 조두(刁斗)<sup>452</sup>하는 병사요  
날도 아니도 달도 아니고 오래도록 수루에 있네  
삼강(三江)에 나무와 돌은 귀신에 울고  
7일 구름이 만들어져 견양(犬羊)을 깨뜨리네  
바다와 나라에서는 안도하고 생업에 즐거워하고  
작은 우리 황군 어육(魚肉)되니 어찌하나  
천리 다른 나라에서 계책을 세우는 군막 아래  
집과 아우 생각 얼마나 또렷한가  
요란한 대포소리에 산악이 진동하고  
돌격하고 모이고 흩어지는 장한 기개 많네  
공중에 은빛 날개 위력 번득이고  
어양(漁陽)의 북<sup>453</sup>은 다시 울리지 않네  
고국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들  
하나도 포복해 군복에 절하지 않음이 없네  
맑은 첫새벽 멀리서 요새를 나오는 군가 들리고  
장부의 좋은 속마음 없네  
용맹함은 격골(獸骨)에 바람과 불이 나는 듯하고

滿洲事變已平後  
又與支那起衝突  
宮中府中一體具  
膺懲大策不糊塗  
邦家出師未經年  
到處單于盡遁逃  
堂堂豪氣孰敢侮  
日章旗下彼喪魂  
晝哨夜角無窮計  
胸中甲兵藏百萬  
二馬重弓刁斗士  
非日非月久在戍  
三江木石泣鬼神  
七日雲成破犬羊  
安堵樂業海國內  
微我皇軍魚肉何  
千里異域帷幄下  
思家憶弟幾歷歷  
殷殷大砲動山岳  
突擊聚散意氣多  
空中銀翼威閃閃  
漁陽鼙鼓不復鳴  
在鄉故國孺子輩  
一不匍匐拜戎衣  
清晨遠聽出塞曲  
無乃丈夫好肝膽  
勇如獸骨風火生

450) 會朝 : 諸侯가 모여어 天子에게 알현함.

451) 糊塗 :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림.

452) 刁斗 : 구리로 만든 술 같은 기구로 군중에서 낮에는 음식을 만들고 밤에는 이를 두드려 경계하는 데 썼음.

453) 鼙鼓 : 적이 쳐 올 때 신호로 치는 북.



큰 싸움터 진영 앞에 당돌하게 서있네  
 장성 이남은 밟아 평지로 하고  
 한 가지 같은 패잔한 적군은 바람아래 쓰러지네  
 중원의 적수가 비록 항우(項羽)라고 하나  
 순간에 병사를 쓸어 물리치는 신선 같은 술법이네  
 황사(黃沙)가 쌓인 속에서 갑옷은 견고하고  
 풍백(風伯)에 겸하여 대호령을 내리네  
 오송강(吳淞江) 위에 횡행하는 부대는  
 적을 격퇴하는데 파죽과 와해시키는 기세이네  
 주검이 산처럼 쌓이고 피가 바다처럼 흘러도 평범하게 보고  
 잠깐에도 얼굴에는 자지구레한 것에 슬퍼하지 않네  
 오랑캐는 다 섬멸하리니  
 노래하고 춤추며 어느 날에나 장안에 들어오려나

大場鎮頭立唐突  
 長城以南踏平地  
 一枝殘軍風下靡  
 中原敵手雖項羽  
 睫間掃退兵仙術  
 黃沙積裡金甲堅  
 風伯兼行大號令  
 吳淞江上橫行隊  
 擊退破竹瓦解勢  
 尸山海視尋常  
 須臾顏不悲眉屑  
 如麻胡虜畢殲滅  
 譟舞何日入長安  
 무산 오상필(吳相弼)

황군이 사방에서 견고하기 성과 같고  
 백번 이김에 꼭 백성의 뜻을 좇아 이루네  
 추운후에 해바라기 해를 향함은 신자(臣子)의 절개이네  
 곡 중에 매화와 피리는 무부(武夫)의 소리요  
 소화의 세월은 다 생기가 나네  
 강덕(康德) 산천은 같이 번영하고  
 멀리 중국에서 방어하는 땅을 생각하니  
 개선가를 부르는 다른 날에는 빈속에 정이 차리라

皇軍四面固如城  
 百勝必從民意成  
 寒後葵陽臣子節  
 曲中梅笛武夫聲  
 昭和日月皆生彩  
 康德山川共帶榮  
 遠想中華防禦地  
 凱歌他日滿腔情  
 무산 김동희(金東嘻)

위에서 베푸는 황은(皇恩)은 천하에 밝고  
 신민(臣民)은 같이 만민의 영화로움에 축하하네  
 종군하여 적의 죄를 토벌하는 것이 집집마다의 소원이요  
 애국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곳곳마다의 맹세일세  
 죽을 각오로 전쟁에 공을 세우려함은 장사(壯士)의 절개요  
 임금을 구하고 적을 정벌하고 공략함은 대장의 명예일세  
 내선일체의 개선 노래  
 위문하는 마음과 글은 승리를 이루네

宣上皇恩天下明  
 臣民共祝萬民榮  
 從軍討罪家家願  
 愛國盡忠處處盟  
 決死戰功壯士節  
 救主征略大將名  
 內鮮一體凱旋曲  
 慰問心書勝利成  
 무산 김흥제(金興濟)

불법의 중국을 한번 응징하고자  
 원정하여 몰아내어 꼭 공을 이루었네  
 남쪽을 도모하려는 봉새의 날개(鵬翼)<sup>454</sup>는 때때로 떨치는데  
 바로 떠받쳐 올리는 만리풍(萬里風)을 기다려서이네

不法支那一膺懲  
 遠征驅逐必成功  
 圖南鵬翼時時奮  
 正待扶搖萬里風  
 무산 허언(許埏)

위무(威武)를 드러내어 널리 떨친 우리 황군  
 한번에 백만의 무리들을 모두 제거했네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순수한 충성의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고  
 진영을 나온 총기(銃氣)와 같은 빛이 나네  
 서쪽을 진압하고 동쪽에서는 합쳐서 위세가 세상을 덮고  
 남과 북쪽에서 승리하니 전쟁에서 공을 이뤘네  
 공존(共存)은 총 뒤에 백성의 힘에서 나오고  
 효로 어머니 섬기고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네

宣揚威武我皇軍  
 一舉屏除百萬群  
 報國精忠葵向日  
 出陣銃氣鈿生文  
 西壓東和威蓋世  
 南勝北捷戰成勳  
 共存銃後生民力  
 孝以事親忠事君  
 무산 한주승(韓周承)

하늘이 우리에게 국운(國運)을 회복하라 하니  
 눈앞에 소식 화북에서 통하네  
 한 강에 물을 더하니 고기가 다투어 사네  
 많은 나무가 그늘지면 새들은 절로 날아오네  
 부월(斧月)은 집마다 장경해(長鏡海)요  
 근풍(斤風)은 곳곳에 기루대(起樓臺)이네  
 소영(蘇英 : 소련과 영국)의 비밀스런 욕심은 이제 어찌하나  
 제탑(帝塔)에서 멀리 바라보며 헌수(獻壽) 술잔을 올리네

天使吾人國運回  
 眼前消息北支開  
 一江添水魚爭活  
 萬木成陰鳥自來  
 斧月家家長鏡海  
 斤風處處起樓臺  
 蘇英秘慾今如許  
 帝塔遙望獻壽盃  
 무산 한진만(韓鎭萬)

제국(帝國) 문명은 동아에 으뜸인데  
 갑작스런 사변이 전 중국이 같네  
 친선의 지극한 사귀를 어찌 막는가  
 응징하는 대책은 실로 헛된 것이 아니요  
 삼군을 호령해 물러남이 없게 한 후에  
 천리에 결승을 진행하는 중이네  
 온 나라 영토 안 신민(臣民) 충성은 의를 떨치고

帝國文明冠亞東  
 猝然事變全支同  
 親善至交何敢抗  
 膺懲大策實非空  
 號令三軍無退後  
 進行千里決勝中  
 率土臣民忠奮義

454) 鵬翼 : 봉새의 날개, 원대한 계획.

신 앞에 서원은 우리 군이 개선하며 돌아오는 공이네

神前誓願凱還功

종성(鍾城) 김용호(金容鎬)

불법을 응징하는 명은 하늘에서 받았고  
중국 남쪽과 북쪽에서 싸움이 이어지네  
형편은 파죽지세이니 누가 복종하지 않으랴  
형세는 석권이니 누구도 감히 앞에 있지 못하네  
군심(軍心)은 용감히 뛰어나가듯 하고 민심은 굳건하고  
무력(武力)은 강성하니 국력은 온전하네  
소리 듣고서 엎드려 바람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니  
아시아 동쪽 서쪽에 황도(皇道)가 펼쳐짐을 노래하네

不法膺懲命受天  
支南支北戰塵連  
形同竹破誰非下  
勢若席捲莫敢前  
軍心勇躍民心固  
武力壯強國力全  
聞聲而伏望風潰  
歐亞東西皇道宣

종성 우창명(禹昌命)

이같은 대전(大戰)은 우리 동방에 처음이고  
같은 종족에 같은 글을 사용하는데 의는 같지 않네  
암흑의 폭탄 연기속에 계속 승리하는 땅에  
영롱한 극월(戟月)은 길고 먼 하늘에 걸려있네  
쌍방 적수가 침탈하는 밖에서는  
아홉 개 이웃 나라가 협약중이네  
황군이 이르는 곳에 오로지 마음과 힘을 쏟으니  
상서로운 해와 산하에 그 공을 고하네

如斯大戰始吾東  
同種同文義不同  
暗黑彈煙連勝地  
玲瓏戟月掛長空  
雙方敵手侵漁外  
九個隣邦協約中  
皇軍所到專心力  
瑞日山河告厥功

종성 장영수(張永洙)

아름다운 운은 순환하여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돌보고  
우리 천황은 위에서 순응함이 같네  
평화의 국세에 조선과 만주가 은혜를 입고  
향상된 군용은 해군과 육군과 공군이네  
향하는 바 전에 없던 병력 하에 있고  
다투어 귀순함은 뒤의 백성 마음을 두려워함이네  
일장기 폭은 중국에 두루미치고  
여러 사람 말로도 전쟁에 이긴 공을 말하기 어렵네

休運循環天眷東  
吾皇在上順應同  
平和國勢蒙鮮滿  
飛躍軍容海陸空  
所向無前兵力下  
爭歸恐後衆心中  
日章旗幅支邦遍  
萬口難言戰勝功

종성 김주민(金周敏)

남쪽과 북쪽의 중국을 소탕하고  
평화의 큰 대책은 지금부터 베풀네

掃蕩南支與北支  
平和丕策自今施

신의를 잃은 심상치 않은 적은  
 병장기 익숙히 써서 모두 군사를 움직이네  
 염치를 잃은 중국 적은 어둡고  
 위문하는 영령은 슬픔에 감탄하네  
 백성 편안하고 나라 태평함은 누구의 덕인가  
 신에게 받들어 고하는 말씀을 시 한수로 축하하네

淪喪信義非常敵  
 習用干戈總動師  
 沒廉華賊昏惟暗  
 慰問英靈感歎悲  
 民安國泰爲誰德  
 奉告神詞祝一詩  
 宗성 한석봉(韓錫朋)

중국 남북과 아시아 동쪽과 서쪽에  
 전쟁하지 않으려는 연맹은 공고하기가 같네  
 중국 적은 염치없고 윤리도 잃었으니  
 황군은 죄를 토벌하고 순치(脣齒)가 공허하네  
 우러러 보는 적은 달아나 무너지는 홍진 속에  
 승전 보고는 한낮에도 빨리 알려지네  
 만주와 대양(大洋)을 통일함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태평과 개선을 노래하는 곡에서 신공(神功)을 연주하네

支那南北亞西東  
 不戰聯盟鞏固同  
 華敵沒廉倫理喪  
 皇軍討罪唇齒空  
 望風奔潰紅塵裡  
 報電乘勝白日中  
 統一洲洋天所賜  
 泰平凱曲奏神功  
 宗성 장추섭(張樞燮)

기쁘게 장사(將士)들이 승전한 보고가 통함을 들으니  
 먼저 우리 천황 덕화가 융성함을 축하하네  
 줄지어 나부끼는 깃발아래 멀리서 절을 하고  
 신사(神祠) 집 우뚝한데 으뜸 공을 고하네  
 성운(腥雲)은 장차 모래사장 북쪽에서 개일 것이니  
 아침 해는 해협(海峽) 동쪽에서 다시 밝네  
 숨어 있는데 작은 정성으로 어찌 답하는가  
 많은 마을 중에 시가(詩歌)을 부르고 보내네

喜聞將士捷書通  
 先祝吾皇德化隆  
 聯隊旗翻遙拜禮  
 神祠堂屹告元功  
 腥雲將盡沙場北  
 旭日復明海峽東  
 蟄在微誠何所答  
 詩歌唱送萬村中  
 宗성 이보순(李輔舜)

위에는 우리 천황 성덕(聖德)이 밝고  
 출정하는 장사(將士)는 충성을 다하네  
 공훈을 이룬 이름은 마땅히 원신각(元臣閣)에 기록하고  
 날카로운 기세는 능히 열국에 병사를 응징할수 있네  
 만세 소리 높음 좋은 세상과 같고  
 여러 집에 걸린 깃발 드날림은 나라 태평을 연주하듯 하네  
 침거한 먼 땅에서 어찌 축하하는가

在上吾皇聖德明  
 出征將士盡忠精  
 勳名當記元臣閣  
 銳氣能懲列國兵  
 萬歲聲高同樂世  
 千門旗揭奏昇平  
 蟄居遐土緣何祝

한 줄 거친 시로 작은 정성을 표하네

一頁蕪詩表鯁誠

중성 이상욱(李商煜)

노구(蘆溝) 동쪽에서 불법을 행하니  
원정하는 황군은 일체가 같네  
칼과 창은 높이 솟아 변방에 달을 가리는데  
전차는 번뜩이며 북풍을 맞네  
긴 창이 건드리는 곳마다 적 시체가 쌓이고  
대포를 쏘 때마다 피가 흘러 바다가 붉네  
나라에 은혜에 보답하려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물러섬 없는 걸음이요  
개선거는 여러 번 부르니 화북이 공허하네

行爲不法蘆溝東  
遠征皇軍一體同  
劍戟森森掩塞月  
電車閃閃迎胡風  
長槍觸處尸山積  
大砲放時血海紅  
報國忠心無退步  
凱歌屢唱北支空

경성(鏡城) 석호련(石鎬鍊)

화북 사변이 돌연 발생하니  
백만 황군이 멀리 출정하네  
세계에 유명한 충의(忠義)의 부대이니  
결국에는 적의 항복하는 성을 얼마나 쌓았나

北支事變突然生  
百萬皇軍遠出征  
世界有名忠義隊  
到頭幾築受降城

경성 여종하(呂鍾夏)

몸을 버려 나라 은혜에 보답하고 충성을 다하니  
중원에 울리는 칼은 만리를 가네  
백 번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공격하면 반드시 취하네  
한 마음 단체 일은 다 이루게 되고  
황하물 북쪽에 이어진 군영은 멀고  
양자강 남쪽 석권한 곳은 맑네  
동양을 활보하는데 같이할 적이 없고  
많지 않은 세월 나라 태평함을 즐거워하네

捐身報國竭忠誠  
鳴劍中原萬里行  
百戰開場攻必取  
一心團體事皆成  
黃河水北連營遠  
楊子江南捲席清  
闊步東洋無與敵  
不多歲月樂昇平

경성 정기남(鄭基南)

〈출전 : 『聖戰誠詩集』, 經學院, 1937년 12월 19일〉

### 3. 『경학원잡지』 게재 친일논설 사례

#### 1) 김대우(金大羽)

##### (1) 지나사변에 대하여

총독부 사회교육과장 김대우

- 북지사변을 확대 전환시켜 지나사변이라 불렀다.
- 무릇 국민된 자로서 마땅히 거국일치하여 중대한 시국의 간난을 극복해야 한다.
- 이후로 마땅히 산업에 힘을 쏟아 국력을 육성하는 것이 장구히 지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 지나사변 종료일은 즉 동양평화 실현의 아침이다.
- 오늘날 우리 일본이 목적으로 삼은 것은 그들 지나의 4억만 죄 없는 민중을 구원함으로 우리 동양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 이 용감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더욱더 필요한 것은 내선일치의 노력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우리 반도 동포는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달리 어떻게 마땅히 일치단결하여 힘을 모아서 애국의 지극한 정을 다할 것인지를 꼭 해달라고 힘써 바란다.

#### 〈목차〉

1. 지나사변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2. 북지사변은 점차로 전지(全支)사변으로 전환되었다.
3. 지나사변과 조선인 각오

#### 1. 지나사변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지나사변이 일어난 원인을 알고자 할진댄 만주사변과 만주건국의 원인을 추역하면 자연 명료한 것입니다. 만일 기인(起因)을 생각해도 알지 못하면 이번 사변을 입에 올려 말할 수 없는 연고입니다.

대저 만주는 자고로 우리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노농러시아(勞農露西亞)는 이전의 러시아(露西亞) 제국인데, 이 러시아 제국이 일찍이 만주 및 조선을 자국영토로 삼고자 동양평화를 교란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정의와 평화를 국시로 하는 우리 일본제국은 분연히 일어나 저 노국(露國)을 격퇴하고 동양을 평화한 지대에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러전쟁으로 인하여 수십억의 물자를 소비하고 다수의 인명을 희생하였으며, 전후에는 또 거금을 만주에 철폐(撤布)하여 산업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만주는 평화한 사업이 떼를 지어 잇달아 생겨나와 지나인 조선인이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조수(潮水) 밀듯 다수가 집중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만주 인구가 1,710만에 불과하더니 금일에는 3,286만이란 인구를 가진 거국(巨國)이 되었습니다. 만주가 이와 같이 발전하여 훌륭한 왕도낙칠(王道樂七)이 되게 된 것은 전혀 일본제국의 혜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만주에서 원마적(元馬賊) 두령이든 장작림(張作霖)과 기자(其子) 장학량(張學良)은 동북군이라 칭하는 지나군대를 인솔하고 만주의 정치를 행하고 있었는데 만주를 이와 같이 문명케한 일본의 은혜를 망각하고 장학량은 만주에서 일본을 구축(驅逐)할 계획을 하다가 마침내 1931년 9월 16일 류조구(柳條溝)에서 철도를 폭파한 일까지 있습니다. 이에 장(張)의 악랄한 정치를 만주에서 멸절하고자 우리나라는 정의의 군대를 만주에 출정시켜 장가(張家)가 인솔한 동북군과 비적(匪賊)을 격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1932년 3월에 만주국이 새로 건설된 것인데 지금까지 장(張)의 부자(父子)로 인하여 번잡한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나던 만주도 이제서야 확실한 하나의 국가가 되어 정당한 정치가 시행되고 3,300만 국민은 안심하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주에서 추방을 당한 장학량과 지나의 국민당 정부와 지방에 할거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정치를 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군벌 등은 자기들의 야망을 쫓고자, 일본과 만주국과의 친선을 백방으로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컨대 장학량 군대의 동북군과 송철원의 군대가 합동하여 우리나라 군대로 향하여 도전하여 왔습니다. 우리 황군은 이것을 직시하여 격파하였는데 패한 지나군이 “오늘 이후로부터는 결코 전쟁을 감행치 않겠다.”는 요청이 있음으로 당고(塘沽)라는 지방에서 1933년 4월 정전(停戰)협정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으로써 지나군은 불량부정한 행위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나는 또 다시 이전약속을 상관하지 않고 전과 같이 배일(排日)을 계속함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힐책한 바 있었는데 이때에 지나는 또 다시 사과하고 1935년 6월에 매진하응흠(梅津何應欽)협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지나의 중앙군이 하북성에 침입하지 않을 것, 또 그 땅에 배일(排日) 단체를 멸절시킬 것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북(北)지나에는 일본과 만주국에 대하여 친한 기동방공자치정부(冀東防共自治政府)와 기찰정무위원회(冀察政務委員會)가 생겨나 피막(皮膜) 처리는 약간 양호한 듯하되 이면의 항일운동은 여전히 계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7일 밤에 북평 부근의 노구교(盧溝橋)에서 일본 거류민을 수호하던 주둔군과 지나의 제39군이 교전하였으니 이것이 금번의 지나사변의 시초입니다. 우리 주둔군은 노구교 부근에서 자유로 연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으로 연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의 29군은 이를 방해하고 여러 차례 총포를 발사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부득이 응전 하였습니다. 북지나에 있던 지나 29군이라는 것은 송철원(宋哲元)이 인솔하던 군대인데, 이면은 일본과 친선하는 양으로 보이고 이면에서는 배일(排日)만하여 온 군대로서 야간연습을 하고 있던 우리 일본군대를 불법으로 사격한다는 일은 결코 과실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획적인 고의로 나온 것이 무원(無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될 수 있는 대로 평온하게 처리하고자 하여 29군을 인솔하는 군관들과 상의하였으나 그들은 교묘히 회피하고 조금도 진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때 우리나라의 홍도(弘度)를 기분지

일(幾分之二)이라도 양해하고 사과하였다면 사건은 이로서 원만히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에서는 국민정부의 장개석(蔣介石)을 위시하여 일어나 우리나라와 29군과의 신속해결을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정부의 움직임이 심함으로 지나 각지에서는 일본을 배척하고 혹은 매도하고 일본에 항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것이 날마다 반복될수록 점차 확대하여 일지관계(日支關係)는 더욱더 험악해졌습니다. 장개석은 이전에 약속한 매진하응흠(梅津何應欽)협정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인솔하는 중앙군 다수를 북지나에 수송하여 또 29군을 이동하여 우리 황군에 도전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월 20일에는 완평(宛平)에서, 7월 25일에는 랑방(廊坊)에서 일본과 지나의 군대가 전쟁하였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우리 황군이 승리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1개월 미만에 북평(北平) 천진(天津)지방은 전부 우리 일본군이 점령하고 29군은 전멸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8만 대군을 근소한 군대로서 단 2일 간에 격퇴하였다는 것은 실로 경탄할 일이며, 우리 황군의 용감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 2. 북지사변은 점차로 전지(全支)사변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을 지은 모양으로 보이나 지나의 난폭한 행위는 인도(人道)를 벗어나 더더욱 격심해져서 7월 29일 통주보안대(通州保安隊)로 인하여 근 200명의 우리 내선인(內鮮人)이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학살을 당하고 또 8월 9일 상해공동조계(上海共同租界)에서 대산용부(大山勇夫) 중위가 참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상해에서는 8월 13일부터 우리 일본제국 해군의 육전대(陸戰隊)와 지나군이 전쟁을 시작하고 지나의 비행기가 날아와서 우리나라 군함에 폭탄을 투하함으로 우리나라 공군도 이 지나 공군에 대전하여 지나 공군에 아주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북지나에서는 8월 11일 지나의 중앙군과 우리 육군이 남구(南口)에서 교전하여 전쟁 국면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본제국 정부는 전쟁국면 불확대방침을 단연 포기하고 전쟁이 확대되더라도 끝까지 지나를 토벌하여 사리에 어둡고 완고한 지나가 완전히 각성되기까지 적극적 응징주의로 방침을 변화하였습니다. 일의 추세가 이렇게 되었으므로 자연 국민도 친히 각오치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3. 지나사변과 조선인 각오

앞에서 서술한 바에 의하여 우리는 지나사변이 얼마나 중대한 일임을 인식하였을 줄 믿습니다. 반도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국민의 일부인즉, 지나사변에 대하여 긴장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비상(非常)의 때를 당한 지금, 우리는 일체의 능력과 성심을 다하여 국가의 넓고 큰 은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치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일본은 동양문화 중 가장 좋은 부분은 전부 소유할 뿐 아니라 서양문명의 장점도 전부 섭취하여 세계 3대 강국 중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향월(香月) 사령장관이 이번 사변으로 궁지에 빠진 지나인에 동정하여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하고 또 우리 해군이 상해에서 식량이 없어서 곤경에 처한 지나인에 식물을 나누어 준 일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욕망은 결코 지나의 선한 백성을 고통케 하자는 것이 아님을 미루어 알 것입니다. 즉 일본 만주 지나 삼국이 서로 제휴하여 평화적 또는



명랑화한 동양을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조선인은 내지인과 달라서 징병의무를 이행치 못함으로 직접적인 전선의 행동은 불가능하지만 애국의 정은 조금이라도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니 즉 내지인(內地人)과 일치하여야 됩니다. 이것을 내선일체라고 부릅니다. 상하(上下), 빈부(貧富), 남녀(男女), 노유(老幼)의 구별이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 안의 사람들은 전부 일치하여 충의의 성심을 다하며 애국의 진의를 발휘할 것은 실로 이 시기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내선(內鮮)이 동일하나 하면 우리 조선은 자고로 내지와는 순치(脣齒)의 관계로 생활하여오다가 1910년 우리 조선인도 전부 멍에스러운 일본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일본국에 병합된 이후로 조선은 실로 신선명랑(新鮮明朗)하여지고 우리는 비로소 문명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일본이라는 국가로 인하여 농업, 공업, 상업이 발전되고 경찰, 위생, 교육산업이 월등히 완비 되어서 우리는 안락한 생활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외형과 내용이 내지인과 동일한 일본국민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긍정하는 사실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선두에 서서 활동할지니 이번 사변에도 국방이라는 점으로 보아 상당히 중대한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에 살고 있는 내선인 2,200만 형제는 일심협력하여 이 사변의 중대시기에 충분히 활동치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출정한 군인들은 조선 형제들의 열렬한 환영에 실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주건국을 위하여 약 2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쓰고 또 지나 전체에 대하여는 약 2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문명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 다수의 국민이 이 동양평화를 위하여 만주와 지나에서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만주, 지나는 비록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이 긴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폭악무도(暴惡無道)를 감행한 지나의 국민정부를 우리가 과연 참모 침묵함으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지나사변에 대하여 시세(時勢)에 어두운 자 등은 노국(露國)은 이 사변을 못되게 이용하는 기회로 삼고 일본에 도전하리라는 등 혹은 또는 영국, 미국이 일본을 방해하여 세계전쟁을 야기하리라는 등 실로 우매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유연비어를 하는 사실이 있는 듯한데 이것은 몽매한 생각입니다. 일본은 추호라도 세계 각국의 이익을 유린하고자함이 아닐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중히 여기고 있음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일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러 국가가 혹 방해를 한다고 하면 방해하는 편이 불가하니 우리나라는 추호라도 겁낼 것 없고 또 방해하자는 생각이 있는 국가도 전무(全無)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독일과 협력하여 도리에 부적인 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러나 공산주의 노국의 영토를 탈취하자는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습니다. 단 노국은 공산주의를 철폐(撤布)하여 동양평화를 교란한다면 우리나라는 노국의 행동을 묵인하고 허락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자국을 통치하기에 곤란하여 각각 의견충돌이 되어 국본(國本)이 동요키 시작하고 있으니 만약 우매한 지나 국민정부의 실패를 답습한다하여도 결단코 노국은 조금도 승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본은 노국을 승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즉, 노국은 만·러 국경에 수십만 군대와 수백 대 비행기를 비치하였다하나 우리나라는 이것을 격파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노국이 일본에 대하여 방해를 한다든지 혹은 안한다든지 횡설수설하는 것은 실로 망언이니, 우리는 상호 간 이러한 망언 즉 유연비어를 금하도록 주의치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우리 군대의 용감만 믿어 안심하고 마음 편히 침착하게 좌시하여서는 안 되니 우리는 이번 지나사변이

어떻게 영속하더라도 더욱더 분발하여 각 방면으로 협력하며, 일방으로는 산업을 더 일층 진전 시켜야 됩니다. 일역이나 되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의분용진(義憤勇進)한 군인은 전쟁에서 분투하고 원군호국하는 국민은 한층 더 면려하여 산업을 진전시킨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대적하더라도 조금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특히 가정에 있는 일반 부인은 절약하고 애국단체에 가입하여 가내가외의 일을 선처(善處)하여 견실한 부도(婦道)를 지켜야 됩니다.

또 농민과 노동자도 국민의 일부로서 애국의 적성(赤誠)을 다하여야 됩니다. 이 지나사변은 이름은 사변이나, 실은 전쟁이라 칭하여도 무방한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금일 전쟁은 그 전장이 지나의 남북지방에 불한(不限)하고 비행기 공습이 가능한 지방은 모두 전장이 되는데 일본전체가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조선도 물론 그 범위 내입니다. 또 현대전쟁은 군인만의 전쟁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일심합력(一心合力)하여 전쟁하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전쟁을 위하여 활동치 않으면 불가합니다. 조선 부인도 애국부인회와 대일본국방부인회(大日本國防婦人會)에도 가입하여 각각 그 분수에 상응하게 진중보국(盡忠報國)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상을 보급하고자 뜻있는 다수가 회합하여 금번에 애국금차회가 출생하였는데 이는 실로 시의에 적당한 것이라 합니다. 조선인이 지금까지 평화 안락한 생활을 계속하여 온 것은 전부 일본국가의 은혜이니 이 사변에 제하여 한층 더 자업(自業)에 정진하는 동시에 애국성금을 헌납하여 위문비를 발송하여 출정군인가정을 방문하는 등 국가의 넓은 은혜에 보답치 않으면 불가합니다. 이는 실로 충후봉사의 당연한 일이며 또 국민의무라고 대부분 주지하는 바입니다.

- 오직 우리 일본은 강하고 바르다.
- 이제 우리 일본은 정의롭게 필기한다.
- 우리 조선인은 마땅히 일심협력하여 일어서야 하는 일본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출전 : 金大羽(總督府 社會教育課長), 「支那事變에 對하여」, 『經學院雜誌』 第42號  
1937년 12월, 18~25쪽〉

## (2) 전라남도유도연합회 결성식, 도참여관 훈화요지

오늘 이렇게 많은 내빈객과 도내유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도진흥방책을 논의하고 유도의 입장에서 국민정신충동원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유도연합회결성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소회의 일단을 피력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유교는 주지하다시피 고래(古來) 동양문화의 정수로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륜의 도는 인륜지대본이며 충효인 의는 도덕의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대 총독은 유교진흥과 덕풍진작에 뜻을 두고 문묘를 참배하며 경학(經學)을 강론하셨는데, 유교가 조선민중을 교화하는 데 일조한 바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세의 조선유교는, 대체로 그 정신을 보완하기보다는 형식에 얽매어서 결국 공리공론(空理空論)과 허식(虛飾)에 치우친 풍습을 만들어내고 근거 없이 고래의 미풍양속을 배척하여 민심을 위축·황폐화시키고, 자각진취(自覺進取)기상이 부족해 구습을 고집하여 시세에 따라 대응하는 기개와 도량이 결핍되기에 이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유교에 뜻을 둔 사람은 일진일신(日進日新)하는 시운(時運)에 걸맞게 모든 구태를 벗고 황국정신에 기초한 참된 유도의 진흥을 꾀할 수 있는 기백과 실천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돌이켜보니 지나사변은 벌써 2년 4개월이 경과하였고 동야의 신질서는 순조롭게 건설되어가고 있으니, 이 성업(聖業)이 동양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어마어마한 대사업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 습니다. 지금 일역의 동포는 상대(上代)의 능위(稜威)를 받들어 전선의 용사도 총후의 국민도 일체가 되어 이 영광스런 대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대로, 우리 조선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결성되어 사회 각층을 일괄하여 집대성하고 또한 대규모의 조직부터 소규모의 조직까지 하나의 망처럼 엮어 하나의 지도정신으로 이를 이끌어가며 유감없이 국가총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운동의 목표는, 보통의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임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내선일체를 깊이 성찰해 가는 것, 특히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전시하의 중요국책에 협력하여 성전(聖戰)수행과 동야신질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인데, 환언하면 미나미(南)총독께서 견지하시는 대방침을 충분히 체득해 관민 할 것 없이 솔선수범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국에 직면하여 오늘 도내 유림의 상의 하에 본 연합회를 결성해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산하에서 황도정신을 발휘하고 유도의 진수를 체득하여 실행하게 된 것은 본도유림의 공전의 장거(壯舉)로써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즈음 종래의 잡물(雜物)을 배척하고 불철저함을 벗어던져서 황국신민운동의 추진력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방유림의 본보기다운 여러분의 향당(鄉黨)에서의 일언일행이 정말로 일반민중 교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학문의 중요성은 쓸데없이 문집을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학(學)은 이제 배운 것을 실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로지 문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해 단순히 지식을 얻기만 할 뿐 실행을 수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박식해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공맹(孔孟)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솔선궁행(率先躬行)하여 한 세기를 인도할 최대의 용맹심을 분기시켜 향당의 선각자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핵심으로서 충군애국의 지성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본 회동을 기회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1939년 11월 16일

〈출전 : 金大羽, 「全羅南道儒道聯合會結成式, 道參與官訓話要旨」, 『經學院雜誌』 제45호, 1940년 12월, 100~101쪽〉

## 2) 김완진(金完鎭)

### (1) 이 시대의 유교

강원도유도천명회(江原道儒道闡明會)에 소속된 각 지회(支會)의 대표자들이 협의회를 하는 자리에서  
(김완진(金完鎭))

못난 제가 이번에 귀회(貴會)의 성대한 초대로 인하여 대제학(大提學)의 명을 받들고 와 귀회의 각 지회(支會) 대표자들의 협의회 석상에 참여하게 되어, 여러 선생들께서 한 당 안에 모인 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경학원의 직임에 있는 분들이 일찍부터 소원하던 바였으며, 미천한 저에 있어서는 큰 광영인 것입니다.

못난 저는 경학원에서 성묘(聖廟)를 소제하고 경학원의 일반 사무에 종사는 직임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경학(經學)의 깊은 뜻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연구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 선생들께서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 몹시도 부끄럽습니다. 저와 같이 학식이 보잘것없는 자가 어찌 감히 망령되어 여러 선생들 앞에서 하찮은 말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경학을 강연하는 것은 본디 제가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각하의 소개를 받아 한 자리를 차지하여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런 기회를 다행으로 여겨 한 마디 거친 설을 말씀드리어서 평소에 제가 지방의 유림계에 있는 여러 훌륭한 분들에게 바라고 있던 바를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무릇 우리 공부자(孔夫子)의 도는,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을 조술(祖述)하고,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본받아, 넓고도 크기가 천지(天地)와 같고 빛나고 밝기가 일월(日月)과 같아, 우뚝하면서도 드넓어 능히 무어라 이름 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요 임금과 순 임금은 봄날의 하늘과 같고, 탕왕(湯王)과 무왕은 여름날의 하늘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 부자께서는 사시(四時)를 겸하여 갖추고 있어서 어디를 가던 적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크고 극도로 갖추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배우고 이를 행하는 것 역시 배우는 사람의 인품의 높고 낮음과 시대의 융성하고 더러움에 따라, 한 이치가 만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대성(大聖)과 아성(亞聖)의 간격이 있습니다.

공자는 『춘추(春秋)』를 지어서 주(周)나라 왕실을 높였고, 맹자는 제(齊)나라와 양(梁)나라 임금에게 왕도(王道)를 행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자(曾子)가 무성(武城)에 있을 때와 자사(子思)가 위(衛)나라에 있을 때에는 각각 만난 바에 따라서 대처하는 바가 같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당(堂)에 올라가고 실(室)에 들어가서 친히 지도 받은 자들은 육예(六藝)에 널리 통하였는데, 덕행(德行)과 언어(言語)와 정사(政事)와 문학(文學)의 과목이 있어 서로 구별되었습니다. 후세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육상산(陸象山)과 왕양명(王陽明)의 파가 있어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지나(支那 중국)에 있어서는 존양주의(尊攘主義)가 되었고, 일본(日本)에 있어서는 황실주의(皇室主義)가 되었고,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윤리주의(倫理主義)가 되었는데, 이는 혹 벌열주의(閥閥主義)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도(道)는 하나로써 꿰는데, 오직 그것이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크므로, 배우는 자의 눈에 의지하여 형상을 그려서 말하게 됩니다. 이에 네모난 거울을 통해서 보는 자는 그것이 네모반듯하다고 하고, 둥

근 거울을 통해서 보는 자는 그것이 둥글다고 말하며, 우물 속에 앉아서 보는 자는 그것이 답답하고 작다고 말하고, 태산 위에 올라가서 보는 자는 그것이 높고 크다고 말합니다. 그 도가 곳에 따라 발현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가르쳐서 배우면 문(文)이 이로써 드러나고, 쳐들어서 놓으면 정치가 이로써 행해지고, 닦아서 기르면 덕이 성취되고, 밀쳐서 열면 종교로 변화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구구한 견해가 있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공부자께서 돌아가신 것이 2,400년 전이었는데, 그 도는 일찍이 한 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어서 영원히 무궁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자라나면서 일상생활에 늘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성하다느니 쇠하였다느니 흥하였다느니 폐해졌다느니 합니다. 이것은 역시 한 때의 인사(人事)를 가리켜 말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도체(道體)는 일찍이 어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를 행하는 것 역시 반드시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옷 입을 때 옷을 입어 시대의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진부한 옛날의 죽은 법만을 지키고 있다면, 사람과 도가 함께 사그라질 것입니다.

저 지나(支那)는 유교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청(淸)나라 황실이 전복되고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조직된 오늘날에 미처서는 의논이 셋으로 갈렸습니다. 수구파(守舊派)와 반대파(反對派)와 혁신파(革新派)가 그것입니다. 수구파라는 것은 옛날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파라는 것은 공화국(共和國)의 정체(政體)를 띠면서 『춘추』의 의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혁신파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절충하여 처지가 바뀌어도 어긋남이 없는 자들입니다. 분열됨이 이와 같아서 서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계(學界)의 영수(領袖)와 학사(學士)와 박사(博士) 등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우리 유도를 진흥시키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맑게 하여 만대토록 한 계통으로 내려온 크나큰 교화를 우리러 찬양하고, 과격하고 조리가 없는 이상한 사상을 미리 막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학원의 직원과 각도의 유림들이 한 무리가 되어 동경(東京)의 사문회(斯文會)가 주최하는 ‘공자가 죽은 뒤 2400주년을 맞이하여 공자를 추모해 올리는 기념 제사(孔子歿後二千四百年追遠紀念祭)’에 가서 참여하여 제전(祭典)의 성대한 모습을 우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강당 안에서 정상 박사(井上博士)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의 고매한 식견과 명쾌한 논변은 환히 통달하였고 드넓었습니다. 이에 비로소 우리 유학의 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한 우리들이 평소에 능히 글을 읽으면서도 능히 연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양학자들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단지 서교(西教)가 동쪽으로 스며든 것만 알지, 누가 동쪽의 교화가 서쪽에 입혀진 것을 알겠습니까? 일찍이 듣건대, 어떤 서양 사람이 지나 사람을 대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비록 나라는 위태롭지만 가정은 편안하고, 우리는 실로 나라는 있지만 가정은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개인주의(個人主義)가 절정에 달한 것을 깊이 느끼면서 가족제도(家族制度)의 덕이 남아있는 것을 탄식하면서 부러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동쪽은 저들의 종교에 젖고, 서쪽은 우리들의 교화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조선의 현상을 보면, 새 습속과 옛 습속이 변환되고 바뀌고 있으며, 동양 풍조와 서양 풍조가 뒤섞이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루하던 것과 오늘날의 기괴한 것은 서로 간에 간격이

현격히 떨어져 있으며, 동양의 가족제도와 서양의 개인주의가 장점과 단점을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사상을 조화시키고 문명을 건설하기에 실로 천재일우의 기이한 만남이며, 또한 앞날에 있을 어려운 관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진 각지의 유림들이 분발하여 일제히 일어났는바, 경성(京城)의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와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등 여러 단체 및 평남(平南)의 유림회(儒林會), 전남(全南)의 유도창명회(儒道彰明會), 경북(慶北)의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귀도(貴道)의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장차 우리 유도를 진흥시켜 시대에 응하고 세상을 구제하며, 홍수를 다스리고 맹수를 몰아내어서 동양 문명의 원 상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경학원의 직임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는 이러한 때를 당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마땅히 다시금 어떠한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귀도는 우리 동방의 성인인신 울곡 선생(栗谷先生)께서 탄생한 신령스러운 지역입니다. 그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은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악(山嶽)의 빼어난 기운이 모여 인걸(人傑)을 내는 것은 의당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산골 마을의 풍속은 순박하고 예스러우며,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착한 것이 이미 역사서 및 지지(地誌)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제현들께서는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합쳐서 온 도를 통틀어서 유도천명회의 본회와 지회를 설립한 다음, 향교의 직임을 맡고 있는 분들과 더불어 서로 연결되게 조직해서, 못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한 깃발 아래로 모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에서 여러 단체가 많이 생겨나 사람들로 하여금 따를 바를 알지 못하게 하여, 날로 알력을 빚어내기를 일삼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당한 진(陣)과 정정(井井)한 깃발이 대도(大道)를 따라서 온건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유도를 천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도의 지사 각하(知事閣下)께서 온 힘을 다해 이룩하도록 도와주고 잘하도록 권장하는 데이겠습니까. 동쪽 하늘에 비친 서광을 장차 귀도에서 눈을 씻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어리석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귀도에서 설립한 귀회의 조직과 시설은 이미 아름답고 좋은바, 저와 같은 무리가 감히 한 마디 더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저를 초대해 준 성대한 뜻을 저버리기가 어려워, 감히 영성한 견해를 가지고 몇 가지 일에 대해 진달 드리고자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귀회의 본회와 지회 및 귀지방의 향교와 우리 경학원은 정신을 하나로 합치고, 보조를 서로 맞추고, 방향을 잘 정하여, 서로 제휴하고 참작하여야만 중도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자(孔子)의 별묘(別廟)와 영당(影堂) 및 선현(先賢)들의 사원(祠院)과 단당(壇堂)의 새로 세우고 다시 세우는 등의 일은 아주 신중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자(夫子)를 존숭하고 흠모하는 것은 사도(師道)를 위해서인 것이지, 신령을 모시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은 오직 그 도(道)를 밝히는 데 있을 뿐입니다. 비록 집집마다 사당을 세우고, 사람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그 학문을 강구하지 않고 도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 사당과 그 제사 역시 장차는 형식적인 데에 그쳐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는 이미 모두가 문묘(文廟)를 설치하고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

하는 것만도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할까 걱정인데, 또 어느 겨를에 다시 겹쳐서 설행하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무슨 마음으로 옛 사당을 버려둔 채 수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당을 짓느라고 분주히 오가겠습니까. 만약 개인의 자력을 가지고 세운 것이라면, 그 사람의 성인을 흠모하는 정성은 경탄할 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재물을 모은다면, 쉽사리 문묘(文廟)를 겹쳐서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해에 본원의 강사(講士)로 있었던 함북(咸北)의 이학재(李鶴在) 선생은 학문에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이에 일찍이 자신의 집에다가 니산사(尼山祠)를 설립하고, 부자(夫子)의 영정(影幀)을 모신 다음, 초하루와 보름마다 우러르면서 참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실을 들어 본원에 글을 지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비록 그 일에 대해서는 공경하면서도 글을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대개 그 분이 사당을 만들어 섬긴 뒤에 혹 꺾끄러운 점이 있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선현의 사원과 단당을 겹쳐서 설립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 데에는 크게 유익한 점이 있으며, 또한 풍속 교화가 융성해 지느냐 폐해지느냐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설립하는 처음에 영구히 유지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세운 것이 뒷날에 폐해지는 것이 되기에 족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흠모하고 숭배하던 일이 끝내는 더럽히는 데로 귀결되고 만다면, 역시 우리 사림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후손이 조상을 제사지내고, 후생이 스승을 제사지내는 것에는 모두 정해진 예법이 있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이 4대에 그치고, 석전제를 지내는 것을 태학(太學)에서만 지내고 현학(縣學)과 서원(書院)에서는 겹쳐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사들은 오직 마음과 정성을 오로지하여 이미 설립되어 있는 문묘에 귀종(歸宗)<sup>455</sup>을 하여야 하고, 재력을 키워서 후진들을 교육시키는데 정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마치 가난한 유학자의 집에서 조상들을 제사지내는 것과 자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어느 한쪽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자손들의 생활에만 급급해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익숙해진 것에만 마음을 두면서 백년의 대계(大計)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의 비용은 인민들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의 재산은 지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향교의 재산에 대한 관리 규칙이 개정된 오늘날이지만, 제사 지내는 물품을 풍성하게 하지 않고 정성을 들여 깨끗하게 하면서, 재력을 키워 지방을 교화하는 사업에 대고 사회를 교육하는 기능을 신장시키도록 하되, 허황되게도 하지 않고 서두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순서에 따라 차근 차근 해 나가, 작은 물이 바다에 도달하여 꼭 찬 뒤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제현들께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간에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이상한 풍조가 청년들의 사상계에 파급되어 성현들을 헐뜯고 모욕하는 말들이 논단(論壇)과

455) 귀종(歸宗) : 양자(養子)로 갓던 아들이 그 양자를 파하고 본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유자(儒者)들이 문묘에서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신문(新聞)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학자들치고 어느 누가 놀랍게 여기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신사회와 구사회가 서로 간에 반목하여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불길한 일입니다. 이것이 비록 젊은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그 이유를 따져 본다면, 애당초 노유(老儒)들의 완고함과 비루함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 유자들은 요 임금(요)을 보고 짓는 개<sup>456</sup>)와 같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경멸해야 할 뿐입니다. 옛날에 행하였던 복을 치면서 벌을 시행하고, 복합(伏閣)하여 성토(聲討)하는 등의 예는 오늘 날에 그대로 답습하여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교(新敎)의 자유로운 헌법 하에서도 역시 극력으로 배척하여 내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현인들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스스로를 면려하는 것이 마땅할 뿐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격한 논조를 펴서 교파(敎派) 간에 분쟁을 야기 시키는 단서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단(異端)을 공격하는 것은 폐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당론(黨論)으로 분열되어서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게 하였으니, 어찌 경계해야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 의병(義兵)들과 일진회(一進會)가 모두 똑같이 우리 조선의 동포이면서도 단지 형식(形式)이 같지 않고 취향(趣向)이 각각 다름을 인하여, 총과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 부자(夫子)의 충서(忠恕)의 도를 잘 인식하고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고 우리의 힘을 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유림계(儒林界)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는 오로지 경학(經學)을 숭상하는 데에만 달려 있지 않으며, 역시 과학(科學)도 두루 통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도를 주장하면서 진흥시키기를 창도하는 다들은 비록 적임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재예가 단지 한문을 아는 데에만 그치거나, 혹은 새로운 규칙에 대해 어두워,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 도리어 법령(法令)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이 시대에 맞는 인물이 필요한 법입니다.

산골짜기에 틀어박혀서 글만 읽는 것은 혈뜰을 바가 아니지만, 시무(時務)에 통달하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유림회의 자금을 적립하고 향교의 재산을 출연하여, 학생을 뽑아 파견해서 보통사범학교(普通師範學校) 및 고등사범학교(高等師範學校)와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의 사범과에서 수업하게 해, 교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후일에 보통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 유문(儒門)에서 나와, 유학으로써 교육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사(學士)와 박사(博士) 등이 유림계에 들어서 있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림계는 간성(干城)의 재주를 가진 인재를 얻어서 이 시대에서 낙오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편(敎鞭)을 잡은 자들 가운데 유교인(儒敎人)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456) 요 임금을……개 : 요 임금은 성인이요 걸(桀)은 악인이니, 걸의 집 개는 요 임금 보고는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각자 자신이 섬기는 임금을 위하여 상대 임금에게 대드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신학문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